

발 간 등 록 번 호

52-6260000-000301-10

부산구술문화총서 12

중부산 문화권 민요(I)

금정구·동래구 편

박경수·황경숙 편저



부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

2021

일 러 두 기

1. 구성과 체제

- (1) 이 책은 부산구술문화총서로 간행되는 것으로, 부산광역시를 동부산 문화권·서부산 문화권·중부산 문화권으로 구분하여 각 권역별로 설화자료와 민요자료를 집대성한 것이다.
- (2) 이 책은 부산구술문화총서 제12권 『중부산 문화권 민요(Ⅰ)』로 중부산 문화권에 해당하는 금정구·동래구의 민요 자료를 모아서 엮은 것이다.
- (3) 이 책은 총 3부로 구성되었다. Ⅰ. 현장조사 민요, Ⅱ. 기존 현장조사 민요, Ⅲ. 문헌 소재 민요로 편성하고, 각 장의 민요를 동별로 정리하여 수록하였다.
- (4) Ⅰ부는 이 책의 집필자들이 중심이 되어 부산광역시의 지원을 받아 현장 조사한 자료를 수록한 것으로, 각 민요마다 제목, 구술자(이름·성별·출생년도), 구술 일자, 구술 장소, 본문 순으로 정리하였다.
- (5) Ⅱ부는 부산광역시 외에 타 기관의 지원을 받아서 현장 조사를 했거나 개인적으로 현장 조사를 하여 출판된 것을 모아서 엮은 것이다. 각 민요의 자료 끝에 출처를 밝혀 두었다.
- (6) Ⅲ부는 기존에 발행된 문헌에 수록된 민요를 엮은 것으로, 동일한 민요의 경우 먼저 출판된 민요를 저본으로 수록했다. 다만, 동일한 내용의 민요라도 전개 방식이나 세부적인 표현이 다르면 출판년도와 상관없이 별도의 자료로 보아 함께 수록하였다. 각 민요의 출처는 자료 끝에 밝혔으며, 동일한 민요가 여러 문헌에 수록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정보를 붙여 알 수 있도록 하였다.
- (7) 이 책의 끝에 구술 자료의 제목, 구술자 등 주요 사항에 대한 색인을 붙여 자료를 쉽게 활용하도록 하였다.

2. 표기 원칙

- (1) 모든 자료는 한글 표기를 원칙으로 하였다.
 - ① 현장조사 민요의 경우, 지역 방언을 살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방언에 대한 표준어나 뜻풀이는 소괄호 () 안에 넣어 표기하였다. 뜻풀이가 길거나 별도의 주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각주로 처리하였다.

- ② 한자, 외국어, 숫자 등을 별도로 밝히는 경우에도 소괄호 () 안에 넣어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 (2) 책 이름은 겹낫표 『 』, 작품명은 낫표 「 」, 혼잣말은 홑따옴표 ‘ ’, 대화는 겹따옴표 “ ”로 표시하였다.
- (3) I부 현장조사 민요의 경우, 조사자와 청중의 개입 부분과 구연 상황은 대괄호 []에 넣어서 제보자의 구술, 내용과 구분되도록 표기하였다
- (4) II부 기존 현장조사 민요의 경우, 원전 표기 원칙을 그대로 준수하되, 단락별 들여쓰기만 별도로 했다.
- (5) III부 문헌 소재 민요의 경우, 원전의 표기를 충실하게 따르되, 현행 한글 맞춤법에 어긋난 표현은 수정하였다.

· · · · · 각 권 별 편 제

- 제1권 동부산 문화권 설화(I) - 기장군 편 - [2012년 발간]
- 제2권 동부산 문화권 설화(II) - 남구·수영구·해운대구 편 - [2013년 발간]
- 제3권 동부산 문화권 민요(I) - 기장군·남구·수영구·해운대구 편 - [2014년 발간]
- 제4권 동부산 문화권 민요(II) - 기장군·남구·수영구·해운대구 편 - [2015년 발간]
- 제5권 서부산 문화권 설화(I) - 강서구 편 - [2016년 발간]
- 제6권 서부산 문화권 설화(II) - 북구·사상구·사하구 편 - [2017년 발간]
- 제7권 서부산 문화권 민요(I) - 강서구 편 - [2017년 발간]
- 제8권 서부산 문화권 민요(II) - 북구·사상구·사하구 편 - [2018년 발간]
- 제9권 중부산 문화권 설화(I) - 금정구·동래구 편 - [2018년 발간]
- 제10권 중부산 문화권 설화(II) - 연제구·부산진구 편 - [2019년 발간]
- 제11권 중부산 문화권 설화(III) - 동구·서구·영도구·중구 편 - [2020년 발간]
- 제12권 중부산 문화권 민요(I) - 금정구·동래구 편 - [2021년 발간]
- 제13권 중부산 문화권 민요(II) - 연제구·부산진구 편 - [2021년 발간 예정]
- 제14권 중부산 문화권 민요(III) - 동구·서구·영도구·중구 편 - [2021년 발간 예정]
- 제15권 부산의 설화·민요(보유편) - [2022년 발간 예정]

목 차

일러두기	i
I. 현장조사 민요	1
1. 금정구 민요	3
2. 동래구 민요	131
II. 기존 현장조사 민요	201
1. 김승찬의 현장조사 민요	203
2. 류종목의 현장조사 민요	259
3. 박경수의 현장조사 민요	275
III. 문헌 소재 민요	399
1. 금정구 민요	401
2. 동래구 민요	403
※ 참고문헌	467
※ 제보자 색인	468
※ 민요 제목 색인	472

I . 현장조사 민요

- 1. 금정구 민요**
- 2. 동래구 민요**

1. 금정구 민요

[금정구 민요 1]

아기 재우는 노래[자장가]

김명남(여, 1931년생) 가창
2017년 2월 7일 채록
[구서1동 구서본동경로당]

자장자장

앞집개도 짓지마라

뒷집개도 짓지마라

우리아부지¹⁾ 잘도잔다

자장자장 우리아기

잘도잔다 잘도잔다

(조사자: “꼬꼬닭아 울지마라” 하고 또.) (청중: “꼬꼬닭아 울지마라” 또?)

(꼬꼬닭아 울지마라, [웃으며] 아이고 모르겠다.) [웃음]

[금정구 민요 2]

산비둘기 소리 흉내 노래

김명남(여, 1931년생) 가창
2017년 2월 7일 채록
[구서1동 구서본동경로당]

지집²⁾죽고 자석죽고

내호무차³⁾ 어째살꼬

우우우우 [웃으며] (그래 카대.)

1) “우리 아기”라 할 것을 잘못 부름.

2) 계집.

3) 내 혼자.

[금정구 민요 3]

모심기 노래

김명남(여, 1931년생) 가창

2017년 2월 7일 채록

[구서1동 구서본동경로당]

해다지고 저문날에 산골마중⁴⁾ 연개나네

(조사자: 에미년은 어디 갔는고? 아! 우리 할매 할멈 어디 가고. 둘째.) (연기낼
줄 모르는고.) (조사자 : 거 함 해보이소.)

우리할멈 어디가고 연기낼줄 모르던고

[금정구 민요 4]

모심기 노래

박화순(여, 1933년생) 가창

2017년 2월 7일 채록

[구서1동 구서본동경로당]

(나는 할 줄 모르는데, 대충 할매들 하는 소리 들었지. 몰라예.)

이물끼저물끼 혈어놓고~ 주인네양반 어디갔소 [웃으며] (그래 주인하고 어디 갔
다.)

(청중: [노래로] 문어야전복 손에들고.) 첩우방에 놀러갔소

풍당풍당 찰수지비⁵⁾ 사우야판에 다올랐네

[웃으며] (나는 모르겠는데.) (조사자: 다 올랐네 하고.) [조사자가 “에미년은 어디
가고”라고 부르자 제보자가 “어데가고”부터 부르기 시작함]

에미년은 어데가고 사우판에 다올랐네

[금정구 민요 5]

모찌기 노래

4) 산골마다.

5) 찰수제비.

박화순(여, 1933년생) 가창
2017년 2월 7일 채록
[구서1동 구서본동경로당]

[조사자의 선창을 따라 부르며]
쫓우자 쫓우자 이뭇자리를 쫓우자
쫓우자 쫓우자 영감상투를 쫓우자 [일동 웃음]
(모 찌다 지겹으면 그런 거 한다.)

[금정구 민요 6]

밀양아리랑

박화순(여, 1933년생) 가창
2017년 2월 7일 채록
[구서1동 구서본동경로당]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아이구 모르겠다. 날 좀 보소 한 번 하소. 고 다음에 날 좀 보소.)

[금정구 민요 7]

아기 어르는 노래

이근호(여, 1936년생) 가창
2017년 2월 7일 채록
[구서1동 구서본동경로당]

은자동아 금자동아
시가청가 보배동아 (아이구 모르겠다 마.) [일동 웃음]
(조사자: “나라에는 충신동이” 하고. 기억이 안 나는가?)
나라에는 충신동아
부모에게 효자동아
섬마걸걸 달강달강
어허종종 달강달강 (아이고 모르겠다.)

[금정구 민요 8]

다리세기 노래[이거리 저거리 갓거리]

이근호(여, 1936년생) 가창
2017년 2월 7일 채록
[구서1동 구서본동경로당]

이거리 저거리 갓거리
청도맹도⁶⁾ 도맹도
짹바리 휘양해
조리김치 담아서
장 도 칼 침 포

[금정구 민요 9]

노랫가락[그네 노래]

이근호(여, 1936년생) 가창
2017년 2월 7일 채록
[구서1동 구서본동경로당]

새천당⁷⁾ 세모진고개⁸⁾ 높다랗게다 줄을매~여
임이타면 내가나밀고 내가타면은 임이민~다
임아임아 줄매지마라 줄떨어지면은 정떨어진~다

[금정구 민요 10]

모심기 노래(1)

정상금(여, 1926년생) 가창
2017년 2월 7일 채록
[구서1동 구서본동경로당]

6) 일반적으로 '망근'으로 부르는데, 제보자는 '맹도'로 불렀다.

7) '추천당(鞦韆堂)'을 '새천당'으로 불렀다.

8) 일반적으로 "세모 진 낭계(나무에)"로 부른다.

모야모야 노랑모야~ 너언제커서 열매열고

(조사자: 이 달 크고.)

이달크고 저달크고~ 내훗달에 열매열지

모시야적삼 안섶안에 새별같은 저젓봐라

(조사자: 많이 보면.)

많이보면 병날끼고 (뭐꼬?) (조사자: 쌀날.) 쌀날만침 (뭐?) 보고가라

[금정구 민요 11]

쌍가락지 노래

정상금(여, 1926년생) 가창

2017년 2월 7일 채록

[구서1동 구서본동경로당]

쌍금쌍금 (뭐라 캬노?) (조사자: 쌍가락.) 쌍가락지

주석질로 [약간 얼버무리며] 늦가락지

(조사자: 먼 데 보이.)

먼데보이 달일레라

잘에보이 처자로다

(조사자: 그 처자 자는 방에.)

그처자야 자는방에

숨소리가 돌일레라

(조사자: 흥돌복숭 울오랍아. 거짓말씀 하지 마라.)

천도복상 오라부님

그것말씀 말아시소

(조사자: 동남풍이.)

동남풍이 디리부니

(조사자: 풍지 떠는.)

풍지떠는 소릴레라

[금정구 민요 12]

비 노래[비야 비야 오지 마라]

정상금(여, 1926년생) 가창
2017년 2월 7일 채록
[구서1동 구서본동경로당]

(조사자: 비야 비야 오지 마라.)
우리새이 시집간다
가매문에 비들치모
다홍처마 얼룩진다

[금정구 민요 13]

이 빠진 아이 놀리는 노래[결치 노래]

정상금(여, 1926년생) 가창
2017년 2월 7일 채록
[구서1동 구서본동경로당]

웃니 빠진 개오지
아랫니 빠진 소오지

[금정구 민요 14]

다리 세기 노래

정상금(여, 1926년생) 가창
2017년 2월 7일 채록
[구서1동 구서본동경로당]

이거리 저거리 갓거리
청사맹건⁹⁾ 도맹건
도래춤치 장두깁¹⁰⁾

[금정구 민요 15]

모심기 노래(2)

9) 청사 망건.
10) 장독대.

정상금(여, 1926년생) 가창
2017년 2월 7일 채록
[구서1동 구서본동경로당]

낭창낭창 베리끝에 무정하다 울오랍아
나도죽어 낭군되어 처자곤식 꺾지줄래¹¹⁾

[금정구 민요 16]

모심기 노래(3)

정상금(여, 1926년생) 가창
2017년 2월 7일 채록
[구서1동 구서본동경로당]

비문었네 비문었네~ 진주덕산 비문었네
그비가 비아닐랑 (뭐지?) (조사자: 억만 군사.) (억만군사 눈물이다.) (조사자: 아,
억만 군사 눈물이네.) (음.)

서울이라 양대밭에~이 (뭐?) (조사자: 금비둘기.) 금비둘게 알을낳네
그알한개 주았이몬 금년과게 내할구로

[금정구 민요 17]

모심기 노래

최미자(여, 1933년생) 가창
2017년 2월 7일 채록
[구서1동 구서본동경로당]

해다지고 저문날에 우연행상이 떠나오네
이태백이 본처죽고 이별행상이 떠나오네

[금정구 민요 18]

산비둘기 소리 흥내 노래

11) 처자 권속 건져 줄래.

송복년(여, 1930년생) 가창
2017년 2월 7일 채록
[구서2동 두실경로당]

지집죽고 자식죽고¹²⁾
내호무차¹³⁾ 어째살꼬
북국북국 북국북국 (그래.)

[금정구 민요 19]

권주가

정혜연(여, 1936년생) 가창
2017년 2월 7일 채록
[구서2동 두실경로당]

잡으시오 잡으시오 이술한잔 잡으시오
이술이 술술아니라 먹고노자는 동백주~라

[금정구 민요 20]

부처에 비는 노래

정혜연(여, 1936년생) 가창
2017년 2월 7일 채록
[구서2동 두실경로당]

시방삼세 부처님과 팔만사천 큰법보와
보살성문 스님네게 지성귀의 하옵나니
자비하신 원력으로 굽어살펴 주옵소서
저희들이 참된성품 등치없고 무명속에 뛰어들어
나고죽는 물결따라 빛과소리 물이들고
심술긋고 욕심내어 온갖번뇌 쌓았으니
보고듣고 맛봄으로 한량없는 죄를지어
잘못된길 갈팡질팡 생사고해 헤매면서

12) 계집 죽고 자식 죽고.

13) 내 혼자.

나와남을 집착하고 그른길만 찾아다녀
 여러생에 지은업장 크고작은 많은허물
 삼보전에 원력빌어 일심참회 하옵나니
 바라옵건대,부처님이 이끄시고 보살님네 살피오소
 고통바다 헤어나서 열반언덕 가사이다
 이세상에 명과복은 길이길이 참선하고
 오는세상 불법지어 무력무력 자라나서
 날적마다 좋은국토 밝은스생(스승) 만나오며
 바른진심 굳게세고 아이로서 출가하여
 귀와눈이 총명하고 말과뜻이 진실하며
 세상일에 물안들고 청정범행 닦고닦아
 서리같이 엄한계율 털끝인들 범하리까
 점잖은 거동으로 모든생명 사랑하여
 이내목숨 버리어도 지성으로 보호하리
 삼제팔난 만나자고 불법인연 구족하여
 반야지혜 드러나고 보살마음 견고하여
 제불정법 잘배워서 대승진리 깨달은뒤
 육바라밀 행을닦아 아승지겁 뛰어넘고
 곳곳마다 설법으로 천겁만겁 의심끊고
 마군중을 행복받고 삼보를 뵈사올제
 시방제불 섬기는일 잠깐인들 쉬오리까
 온갖법문 다배워서 모두통달 하오리다

[금정구 민요 21]

모심기 노래

정혜연(여, 1936년생) 가창
 2017년 2월 7일 채록
 [구서2동 두실경로당]

[노래 가사를 말하듯이 읊조리며]

이물끼저물끼 엄청혈어놓고 주인네양반 어데갔노 (캐사매 이런 노래 해샀더라 아
 이가.) (조사자: 문어 전복 손에 들고.)

주인네야 양반은 (어 저?) (청중: 문에야 전복 손에 들고.) 첩우야 방에 놀러갔네

(카모)

첩우방은 꽃방이고 이내방은 연못이냐 (내 그러 그거 했다, 옛날에.)

[금정구 민요 22]

부모 그리는 노래

정혜연(여, 1936년생) 가창

2017년 2월 7일 채록

[구서2동 두실경로당]

(아부지를 보고, [말을 바꾸어] 아부지가 딸내미보고 카더나?)

아가아가 우리아가 너저 엄마 어디갔노 (이래 노래 부르대.)

(우리 엄마 저 산, 무슨 영천?)

영천땅 배를 타고 산중길로 구경갔다 (이라이까네, 산중길로 그럴 것 같으몬 언제 새나 올라더노 하니까네.)

부지케 디간나무¹⁴⁾ 잎이피몬 올라대요

살금밑에 널짚물이¹⁵⁾ 강되거든 올라대요

부뚜막에 널짚쌀이¹⁶⁾ 짝나거든 올라대요 (커이까네)

아가아가 영천아가

부지케 디간나무 재가되지 잎이피나

살금밑에 널짚물이 말라지지 강이되나

(저) 부뚜막에 널짚쌀이 썩어지지 (저) 짝이나나

(이러카대요. 그런 노래도 있대.) (조사자: 어, 옛날에.) (예. 옛날 노래가.) (조사자: 부모 그립어하는 노래다.) (예 예. 우리 집 일꾼이 할배가 하나, 노인 할배가 집에 있었는데, 언자 우리가 맨날 할배한테 거 가가 있으몬, 할배가 노래를 그래 가리키주는 기라. 노래 배아라(배워라) 카면서 그래. 그 노래를 가리키주더라고.)

[금정구 민요 23]

진주난봉가

14) 부엌에 들어간 나무.

15) 선반 밑에 떨어진 물이.

16) 부뚜막에 떨어진 쌀이.

정혜연(여, 1936년생) 가창
2017년 2월 7일 채록
[구서2동 두실경로당]

진주남강에 빨래가라
진주남강에 빨래가니
물도 좋고 돌도 좋다
껌정빨래 껌게씻고
흰빨래는 희게씻고
집이라고 돌아오니
하늘같은 서방님이
구슬같은 갓을쓰고
태산같은 말을타고 (마 오래 되가 모르겠다.) (조사자: 그래가 인자 집으로 오이카
네, 뭐 뭐?)
아릿방을 내리가서
건너방을 건너가니
기생첩을 옆에두고
권주가를 부르고있네 (카든가, 그것도 우리 그 배았다. 노래 그런 구로 할배인테.
거 일꾼 할배인테.)

[금정구 민요 24]

다리세기 노래

정혜연(여, 1936년생) 가창
2017년 2월 7일 채록
[구서2동 두실경로당]

이거리 저거리 갓거리
동사망근 도망근
숨우리박구 독박구
연지단기 열두야
가 사 머 리 장 두 칼

[금정구 민요 25]

이 빠진 아이 놀리는 노래

정혜연(여, 1936년생) 가창
2017년 2월 7일 채록
[구서2동 두실경로당]

앞니 빠진 노오장 (조사자: 어떻게 해요?)
웃니 빠진 개오지
아랫니 빠진 (청중: 소우지.) (노장.) (조사자: 노오장.) (노장.) (조사자: 그 다음에
어디 어디, 우물가에 놀러 가이. 우물가에 가지마라 붕어새끼 놀란다.) (어, 뭐 그
거도 많다 문자가. 생각하는데.) (조사자: 생각 안나?) (온창 애릴 때 하는 거라노
이.)

[금정구 민요 26]

산비둘기 소리 흉내 노래

정혜연(여, 1936년생) 가창
2017년 2월 7일 채록
[구서2동 두실경로당]

지집죽고 상체하고¹⁷⁾
자석죽고 실체하고
구구구구
내흔차서 우째살꼬
답답해서 우째살꼬 (이래 이래.)

[금정구 민요 27]

아기 어르는 노래(1) [불매소리]

정혜연(여, 1936년생) 가창
2017년 2월 7일 채록
[구서2동 두실경로당]

17) 계집 죽고 상처(喪妻)하고.

불매불매 불매야
이불매가 어드매 불매고
경상도 디덜불매 (캐싸매 할매가 그래 한다.)
쿵덕쿵덕 밟아라
불불 불매야
이불매가 누불매고 (뭇라 카더라. “경상도 도불매다” 이래 하대.)
불매불매 불매야 (그거는 인자 풍로(風爐) 그거 시루면서 하는 거.)

[금정구 민요 28]

아기 재우는 노래[자장가]

정혜연(여, 1936년생) 가창
2017년 2월 7일 채록
[구서2동 두실경로당]

앞집개야 짓지마라
우리아기 잠깨운다
자장자장 껌둥개야 짓지마라 (어! 생각, 잊아뒀다.) (조사자: 자장자장.)
자는구나 우리아기 잘도잔다
앞집개야 짓지마라
우리아기 잠깨운다
뒷집개야 짓지마라
우리아기 잠깨운다
자장자장 자는구나
우리아가 잠잘잔다 (이래.)

[금정구 민요 29]

아기 어르는 노래(1)

정혜연(여, 1936년생) 가창
2017년 2월 7일 채록
[구서2동 두실경로당]

은을준들 너를사까
금은준들 너를사까 (그래.) (조사자: 나라에는 충신동이.)

나라에는 충신동이
부모에는 효자동이
형제간엔 화목동이. (그래.) (조사자: 형제간에 화목동이. 그래 함 해보입시다. 그
뭘 은자동아 금자동아.)

은자동아 금자동아
은을주면 너를사까
돈을주면 너를사까
나라에는 충신동이
부모에게 효자동이 (이거 모르겠네. 오래 되모. 부모에게 효자동이.)
얼싸둥둥 내사랑아
둥둥 둥둥둥둥 잘도잔다
자장자장 자는구나 (오래 되가 모르겠다.)

[금정구 민요 30]

아기 어르는 노래(3) [알강달강요]

정혜연(여, 1936년생) 가창

2017년 2월 7일 채록

[구서2동 두실경로당]

알강달강 알강달강
[조사자가 노래로 부르자, 제보자가 이어서]
서울가서 밤을사서
살감밑에 묻아놓고¹⁸⁾
머리깎은 새양지가
올라가미 다까묵고
넌아가미¹⁹⁾ 다까묵고
(한 개만. 한 개만 남아있네.) (조사자: 밤 한 개 남았는데.)
남아있네
껍질은 아비주고

18) 살강, 즉 선반 밑에 묻어 놓고.

19) 내려가며.

보네(보늬)는 어미주고

벌레는 할배주고

살은 니강할매강

니강나강 목자 (카면서.) (조사자: 니강내강 나늬목자.) (어. 어. 살은 할매하고 손
자하고 목고, 벌레는 할배 주고 그래. 그래 하더라.)

[금정구 민요 31]

창부타령

박점명(여, 1943년생) 가창

2017년 2월 8일 채록

[구서2동 안뜰경로당]

포름포름 봄배추는 봄비오기만 기다리고

어제왔던 새각시는 신랑오기만 기다린다

(젓, 모르겠네.) (조사자: [노래로] 얼씨구나 좋네 안자 그래.)

지화자 좋네 이렇게 좋다가 논팔겠다

[금정구 민요 32]

아기 재우는 노래(1)

박점명(여, 1943년생) 가창

2017년 2월 8일 채록

[구서2동 안뜰경로당]

새는새는 낭게자고²⁰⁾

지는지는 궁게자고²¹⁾

어제왔던 새각시는

신랑품에 잠을자고

우리같은 사람들은

임의품에서 잠을잔다

얼씨구나 좋다 정말로 좋네

이렇게 좋다가 논팔겠네

20) 나무에 자고.

21) 쥐는 쥐는 구멍에 자고.

[금정구 민요 33]

비 노래[비야비야 오지마라]

박점명(여, 1943년생) 가창
2017년 2월 8일 채록
[구서2동 안뜰경로당]

비야비야 오지마라
우리언니 시집간데
가매꼭지 물드가면
분홍치마 얼룩진다

[금정구 민요 34]

아기 어르는 노래(1) [불매소리]

박점명(여, 1943년생) 가창
2017년 2월 8일 채록
[구서2동 안뜰경로당]

불매불매 불매야
이불매가 뉘불매고
동지선달 ○○○²²⁾
이리봐도 내새끼
저리봐도 내새끼
둥게둥게 둥게야
얼씨구나 둥게야 (모르겠다.)

[금정구 민요 35]

아기 어르는 노래(2) [알강달강요]

오절(여, 1934년생) 가창
2017년 2월 8일 채록
[구서2동 안뜰경로당]

22) 말을 얼버무려서 알아들을 수 없다.

서울이라 올라가서
찬밥한데 조아다가²³⁾
살강밑에 묻아노니²⁴⁾
오면가면 다까묵고
한날을 남가나니²⁵⁾
이밤은
깍디기(깍데기)는 할매주고
보늬논은 할매주고²⁶⁾
알카이(알맹이)는 니하고 내하고 묵자

[금정구 민요 36]

아기 재우는 노래(2) [자장가]

박점명(여, 1943년생) 가창
2017년 2월 8일 채록
[구서2동 안뜰경로당]

자장 자장 자장
우리애기 잘도잔다
앞집개야
[말을 바꾸어]
멍멍개야 짚지마라
꼬꼬닭도 우지마라
자장자장 우리애기 (모르겠네.)

[금정구 민요 37]

화투타령[화투뒤풀이]

권해주(여, 1936년생) 가창
2017년 1월 19일 채록

23) 주워다가. 즉, 주워서.

24) 살강은 선반. 살강(선반)밑에 묻어 놓으니.

25) 하나를 남겨 놓으니.

26) 보늬는 할매 주고.

[금사회동동 금동경로당]

○○²⁷⁾솔가지 속속한마음
이월매주²⁸⁾에 맺어놓고
삼월사쿠라 산란한마음
사월흑싸리 흠어졌네
(청중: 잘한다.)
오월난초 놀던나비
육월목단에 건너가니
칠월홍돼지 [웃음] 홀로누워
팔월공산아 달밝혀라
구월국화 굳었던마음
시월단풍에 싹떨어진다
동지섣달 기나긴밤 (뭐고? 그 다음에.)
님의생각이 절로난다.

[금정구 민요 38]

아기 재우는 노래[자장가]

권해주(여, 1936년생) 가창
2017년 1월 19일 채록
[금사회동동 금동경로당]

자장자장 자장자장
우리아기 잘도잔다
뒷집개도 짚지말고
앞집개도 짚지마라
꼬꼬닭아 울지마라 [웃음]
멍멍개도 짚지마라
우리아기 잘도잔다

[금정구 민요 39]

27) 녹음이 되지 않음, 일반적으로 “정월 솔가지”다.

28) 이월 매조.

각설이타령

권해주(여, 1936년생) 가창
2017년 1월 19일 채록
[금사회동동 금동경로당]

일자나 한잔에 들고보니
일선에가신 우리낭군
돌아오기만 기다린다 [청중: 어이! 어이!]
일자나 한자 들고나보니
이승만이는 대통령이네 (청중: 쇠주나 한 잔 묵고 해야지. 빈 속에 노래가 나오나? [웃음])
아주사는 부대통령이요
삼자나 한자 들고보니
삼천리강산에 꽃이피네
얼씨구나 좋구나 [웃음]

[금정구 민요 40]

너냥 나냥

권분란(여, 1940년생) 가창
2017년 1월 17일 채록
[금사회동동 금천할머니경로당]

(조사자: 너냥 나냥.)
우리집에 서방님은 명태잡이를 갔는데
바람아 강풍아 석달열흘만 불어라 (조사자: 또 있다 아입니까?)
너냥 나냥 돌이둥실 놓고요
낮이낮인냥 밤이밤인냥 참사랑이로구나 [웃음]

[금정구 민요 41]

노랫가락[그네 노래]

권분란(여, 1940년생) 가창
2017년 1월 17일 채록

[금사회동동 금천할머니경로당]

뒷동산 새모진낭개²⁹⁾ 덩거렇게다³⁰⁾그네를메고
임이뛰면 내가야밀고 내가뛰면은 임이밀고
임아임아 유정한님아
(뭐라노?) (청중: 임아 임아 줄 살살 밀어라 떨어지면 정떨어진다.)
줄떨어지면은 정떨어진다

[금정구 민요 42]

화투타령[화투뒤풀이]

권분란(여, 1940년생) 가창
2017년 1월 17일 채록
[금사회동동 금천할머니경로당]

정월속속 들인정은
이월매주에 맹세하고
삼월사쿠라 산란한마음
사월흑싸리 흘여놓고
오월목단 놀던나비
유월난초에 춤을춘다
칠월홍돼지 홀로누워
팔월공산 구경가니
구월국화 홀로피어
시월단풍에 떨어진다
동짓달에 오신다던임이
선달에우비가 날속이네
얼씨구절씨구 지화자 좋네~
아니 놀고서 무엇하나

[금정구 민요 43]

29) 세모진 나무에,

30) 덩그렇게. 높이 솟아서 우뚝한 모양새를 말함,

사발가

권분란(여, 1940년생) 가창
2017년 1월 17일 채록
[금사회동동 금천할머니경로당]

(조사자: 석탄 백탄.) 타는데 연기풀풀 나고요
요내가슴 타는데 연기도안개도 아니나네
니나노~ 날리리야 날리리야 니나노~
얼싸 좋아 얼씨구 좋다
범나비는 펄펄 꽃을 찾아서 날아든다

[금정구 민요 44]

백발가

권분란(여, 1940년생) 가창
2017년 1월 17일 채록
[금사회동동 금천할머니경로당]

[청중과 함께 가창하며]
이팔청춘 소년들아 백발보고 웃지마라
어제보니 청춘일리 오늘보니 백발일세
얼씨구 절씨구 지화자 좋네
아니 놀고서 무엇하나

[금정구 민요 45]

권주가

권분란(여, 1940년생) 가창
2017년 1월 17일 채록
[금사회동동 금천할머니경로당]

받으시오 받으나시오 이술한잔을 받으시오
이술은 술아니~라 먹고놀자는 동배주요
(또 답은 이래.)

받기는 받았소만은 대우못해서 미안하오 [웃음]

[금정구 민요 46]

구멍타령

권분란(여, 1940년생) 가창
2017년 1월 17일 채록
[금사회동동 금천할머니경로당]

(조사자: 저 건너 딱따구리는.) 없는구멍도 뚫는데
우리네 저문디는 있는구멍도 몬뚫는다 [일동 웃음]

[금정구 민요 47]

노랫가락 차차차³¹⁾

권분란(여, 1940년생) 가창
2017년 1월 17일 채록
[금사회동동 금천할머니경로당]

개미허리에 권총을차고 모기다리에 워커를신고
코끼리코에 마스크하고 돼지입술에 루즈바르고
얼씨구 절씨구 차차차
지화자 좋구나 차차차
오늘같이 좋은날에 아니 놀지는 못하리라 차차차

[금정구 민요 48]

양산도

우경녀(여, 1943년생) 가창
2017년 1월 17일 채록
[금사회동동 금천할머니경로당]

함양읍내 물레방아는 물을안고 돌고

31) 아이들 동요를 부르다 후렴구는 노랫가락으로 불렀음.

우리집에 서방님은 나를안고 돈다

[금정구 민요 49]

밀양아리랑

우경녀(여, 1943년생) 가창
2017년 1월 17일 채록
[금사회동동 금천할머니경로당]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고개로 날넘겨주소
서방님이 오셨는데 인사를 못해
행주치마 입에물고 입만 방긋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고개로 날 넘겨주소

[금정구 민요 50]

노랫가락 차차차³²⁾

우경녀(여, 1943년생) 가창
2017년 1월 17일 채록
[금사회동동 금천할머니경로당]

노세노세 젊어서놀아 늙어지면 못노나니
화무는 십일홍이요 달도차면 기우나니라
열씨구 절씨구 차차차
지화자 좋구나 차차차
(그라고 또 모르것다.) [웃음] (모르것다.)
만화방창³³⁾ [청중과 함께 가창하며] 호시절에 아니놀지는 못하리라
차차차 (청중: 헬렐레. [웃음] 차차차 헬렐레.)

32) 제보자가 가창한 노래는 1962년에 발표된 김영일 작사 김성근 작곡 신민요 <노랫가락 차차>이다.

33) 원래는 화란춘성(花爛春盛) 만화방창(萬化方暢)임.

[청중]

(2절은 뭐고?)

쥐구멍에 생쥐한마리 고내³⁴간장을 다녹이는데

[제보자와 함께 가창하며] 여자로 태어나서 남자간장을 못녹일쏘냐

(제보자: 그라더나?)

얼씨구절씨구 차차차

지화자종구나 차차차

오늘같이 좋은날에 아니 놀지는 못하리라 차차차 헬렐레 [일동 웃음]

[금정구 민요 51]

동요[인절미와 총각김치]³⁵

우경녀(여, 1943년생) 가창

2017년 1월 17일 채록

[금사회동동 금천할머니경로당]

여러분 인절미가 시집간대요
콩고물과 팥고물에 화장을하고
넓다란 쟁반위에 올라앉아서
시집을 간대요 입속으로

여러분 총각김치 장가간대요
새빨간 고추물에 목욕을하고
길다란 나무위에 올라앉아서
장가를 간대요 입속으로
헬레레 [일동 웃음]

[금정구 민요 52]

모심기 노래(1)

정명순(여, 1923년생) 가창

34) 고내(庫內).

35) 원곡은 <Battle Hymn of the Republic>이며, 가사를 번안하고 편곡한 유아동요로 '복남이 네 어린아이'라는 동요로 알려져 있다.

2017년 1월 17일 채록
[금사회동동 금천할머니경로당]

[말로 읊으며]

이논에 모를숨가 금실금실 영화로다 (이러 카고.)
우리부모 산소터에 솔을숨가 영화로다 (카고.)

이물끼저물끼 헐어놓고
문에야전복 손에들고 첩의방에 놀러갔다(카는 기라.)
(조사자: 주인네 양반 어디 가고.) 주인네양반 어디가고
문에전복 손에들고 첩의방에 놀러갔다 (카고 그란다.)

포름포름³⁶⁾ 봄배추는 밤이슬오덜³⁷⁾ 기다리고
옥에갓힌 춘향이는 이대룡오기만³⁸⁾ 기다린다 (이래 칸다.)

풍당풍당 찰수제비 (저저) (조사자: 사우야상에.) 사우야판에 다올라가고
(저저) 할마이는 어디로가고 사우판에 다올랐네 (칸다.)

모시적삼 새적삼 분통같은 저젓봐라 (그래 칸다.)
(조사자: 많이 보면.) 병든다 쌀날만치³⁹⁾ 보고가라

[금정구 민요 53]

모심기 노래(2)

정명순(여, 1923년생) 가창
2017년 1월 17일 채록
[금사회동동 금천할머니경로당]

(모숨구는 소리도 다 잊아뿌고 모르겠네.)
낭창낭창 베리끝에⁴⁰⁾ (조사자: 무정하다 울오랍아) 울오랍아

36) 파릇파릇.
37) 밤이슬 오기를.
38) 이도령 오기만.
39) 쌀날만큼만.
40) 벼랑 끝에.

나도죽어 군자되가지고 처자권석⁴¹⁾ 생각할래 (그래 칸다.)

[금정구 민요 54]

쌍가락지 노래

정명순(여, 1923년생) 가창
2017년 1월 17일 채록
[금사회동동 금천할머니경로당]

쌍금쌍금 쌍가락지 주석질로⁴²⁾ 늦가락지 (그래.)
(조사자: 옆에 보니.) 달일레라 먼데보니 처잘레라 (그래 칸다.)

[금정구 민요 55]

아기 재우는 노래[자장가]

정명순(여, 1923년생) 가창
2017년 1월 17일 채록
[금사회동동 금천할머니경로당]

자자자자
우리애기 잘도잔다
(그러 카고 뭐 그거 하지.) (조사자: 나라에는 뭐 충신둥이.)
나라에는 충신되어 (조사자: 부모는?)
부모잘에 효자동아 (그러 카지.)

[금정구 민요 56]

보리타작 소리

안종내(여, 1946년생) 가창
2017년 1월 19일 채록
[금사회동동 동대경로당]

어쭈!

41) 처자 권속.

42) 밤낮으로 쳐다본다는 의미.

(이라이, 타작을 하면 도리깨로.)
어쭙!
갈미봉산에 비물었다. (비가 물었다 이거라.)
뚜드리라 알보지가 툇 툇 튀나온다 [일동 웃음] (이라거든. 그러면.)
뒷집에 형수씨도 내쫓만⁴³⁾ 바래고
앞집에 재수씨도 내쫓만 바래고
어쭙!
알보지가 툇 툇 튀나온다 뚜드리라
어쭙!
어쭙!
(그래 그래 한다.) [청중들 웃으며 박수]

[금정구 민요 57]

너냥 나냥

안종내(여, 1946년생) 가창
2017년 1월 19일 채록
[금사회동동 동대경로당]

넘의대비 서방님은 자전거를 타는데
우리집에 저몬난이는 쳇바꾸만⁴⁴⁾ 탄다 [조사자 웃음]

우리집에 서방님은 명태잡이를 갔는데 [웃음]
바람아 강풍아 석달열흘만 불어라 [웃음] [그러 칸다.]

[금정구 민요 58]

모심기 노래

엄소연(여, 1928년생) 가창
2017년 1월 19일 채록
[금사회동동 동대경로당]

43) “내 손만”의 혀 짧은 소리.

44) 쳇바퀴.

이논에~이 모를심어 금실금실~ 영화로다
(기 인자, 또 또 하라꼬?)

이물끼저물끼⁴⁵⁾ 다혈어놓고~이 주인네양반은 어데갔소
(그래 또 댜다.) (조사자: 문어야 전복 손이 들고.) [웃음]
문어야전복 손에들고~이 첩의야집에 놀러갔소

풍당풍당 찰수지비~이 사우야판에 다올랐네
(조사자: 에미년은.] 어미년은 어데가고~이 (아이고! 그 모르겠네.) 주인네양반은
어덜갔소
(그런 거 모르겠다.)

타박타박 단발머리 넘치도안하고 다넘어갔소

우리야부모님 어데가고~이 젓줄줄을 모르던고
(내가 그거로 옮겨 모르겠다.)

해다지고 저문날에~이 꿀짝꿀짝 연기나네
우리부모님 어데가고~이 연개넬줄을⁴⁶⁾ 모르던고

저게가는 저구름에~이 어떤신선이 타고가노

[금정구 민요 59]

화투타령[화투뒤풀이]

엄소연(여, 1928년생) 가창
2017년 1월 19일 채록
[금사회동동 동대경로당]

정월속가지 속속한마음
이월매자에 뗏어놓고
삼월사꾸라 사꾸라꽃이

45) 이 물꼬 저 물꼬.

46) 연기 낼 줄을.

사월흑싸리 싫어져서
오월난초 날던나비
유월목단에 올라앉어
칠월홍돼지 홀로누워~이
팔월공산아 달도밝다
구월국화 굳은마음
시월단풍에 뚝떨어졌다
오동지야 설달에는
닭이울어도 아니온다 (고렇게 한다.)

[금정구 민요 60]

권주가

엄소연(여, 1928년생) 가창
2017년 1월 19일 채록
[금사회동동 동대경로당]

받으세요 받으세요 이술한잔을 받으세요
이술이 술이아니라 먹고노자는 동배주요

[금정구 민요 61]

너냥 나냥

엄소연(여, 1928년생) 가창
2017년 1월 19일 채록
[금사회동동 동대경로당]

(조사자: 너냥 나냥 이것도 하셨네요.) (아이구! 참.) (조사자: 너냥 나냥.) 둘이둥
실 놓고요
밤이밤이면 낮이낮이나 참사랑이로다
아침에 우는새는 배가고파 울고요
저녁에 우는새는 임이기리워 운다
너냥내냥 둘이둥실 놓고요
밤이밤이면 낮이낮이나 참사랑이로구나
(조사자: [노래하며] 우리집 고양반은 명태잡이를 갓는데.)

[청중과 함께 가창하며] 바람아 강풍아 석달열흘 불어라
너냥내냥 둘이둥실 놓고요
밤이밤이나 낮이낮이나 참사랑이로구나

[금정구 민요 62]

노랫가락 차차차

엄소연(여, 1928년생) 가창
2017년 1월 19일 채록
[금사회동동 동대경로당]

(조사자: 할머니 노랫가락은 어떻게 합니까?)
노세노세 젊어나노세 늙고병들면 못노나니
화무는 십일홍이요 달도차이면은 기우나니 (그거뻘이 모른다.)

[금정구 민요 63]

파랑새요

엄소연(여, 1928년생) 가창
2017년 1월 19일 채록
[금사회동동 동대경로당]

새야새야 파랑새야 녹두낭개⁴⁷⁾ 앉지마라
녹두꽃이 떨어지면 청포장수가 울고간다

[금정구 민요 64]

노랫가락[그네 노래]

엄소연(여, 1928년생) 가창
2017년 1월 19일 채록
[금사회동동 동대경로당]

(조사자: 할머니, “추천당 세모진 낭개 그네를.”)
추천당 세로난가지⁴⁸⁾ 낙락⁴⁹⁾끝에다 그넷줄매어

47) 녹두나무.

임이타면 내가나밀고 내가타면은 임이밀고
저임아 줄밀지마라 줄떨어지면은 정떨어진다

[금정구 민요 65]

노랫가락

엄소연(여, 1928년생) 가창
2017년 1월 19일 채록
[금사회동동 동대경로당]

녹수처럼 흐르는물에 배차씻는⁵⁰⁾ 저큰아가
끝에끝있는 제치놔두고 속에속있을 나를주소
당신이 마른게받아 속에속있을 달라하여

[금정구 민요 66]

보리타작 노래

엄소연(여, 1928년생) 가창
2017년 1월 19일 채록
[금사회동동 동대경로당]

(도리깨를 보리 때릴 때)
형수씨는 내쫓만 바래고
제수씨는 내쫓만 바랜다
[조사자 웃음] (그래 그란다.)

[금정구 민요 67]

다리세기 노래[이거리 저거리 갖거리]

이춘자(여, 1936년생) 가창
2017년 1월 19일 채록
[금사회동동 동대경로당]

48) 추천당 세모진 나뭇가지에.

49) 낙락장송을 말함.

50) 배추 씻는,

(조사자: 할머니, 이거리 저거리부터.)
이거리 저거리 갖거리
청사맹근 도맹근
도래쭈치 장독간
서울양반 도양반
진주댁이 열석냥
까마우 깍
양대 벌
범 사심⁵¹⁾
노루 노래기
(뭘 어짜고 하는데. 그거는 모르겠네. 끈티는⁵²⁾ 모르겠네.)

[금정구 민요 68]

모심기 노래

양만일(여, 1941년생) 가창
2017년 1월 19일 채록
[금사회동동 회동부녀경로당]

이물끼저물끼 헐어놓고~ 주인양반은 어디갔노
(조사자: 문어야 전복 손에 들고.)
첩의야정은 삼년이요 (또) 본처정은 백년이다 (이래 나온다.)

풍당풍당 찰수지비⁵³⁾ 사우야판에 다올랐네
에미년은 어디가고 딸에동재를 맡겼더냐 (청중: 에미가 안 하고.)

[금정구 민요 69]

창부타령[춘향 노래]

양만일(여, 1941년생) 가창
2017년 1월 19일 채록

51) 사슴.
52) 끝은.
53) 찰수제비.

[금사회동동 회동부녀경로당]

파릇파릇 봄배추는 첫이슬오기만 기다리고
옥에갠 춘향이는 이도령오기만 기다린다 (청중: 이려대.)
얼씨구나 좋다 지화자 좋네
요래 좋다가는 딸놓겠다 (이라대.)

[금정구 민요 70]

시집살이 노래

양만일(여, 1941년생) 가창
2017년 1월 19일 채록
[금사회동동 회동부녀경로당]

언니언니 사촌언니 시집살이가 어떻던고
어이고야야 그말씀마라 시집살이는 개접살이
둥글둥글 (조사자: 도래판에.) 둘레야상에 수저놓기도 어렵더라
둥글둥글 둥글수박식기 밥담기도 어렵더라
외나무다리가 두렵다한들 시아버님보다 두려울까
(또 저거 시어마이는 그거 장손이 씨부리는 거 그건데, 그런데 시누부는 뼈죽새
요. 저저 시동생은 나팔새요. 뭇이 그기 다 있는데 다 잊아뿌고 모른다.)

[금정구 민요 71]

진주난봉가

양만일(여, 1941년생) 가창
2017년 1월 19일 채록
[금사회동동 회동부녀경로당]

(울도)담도없느냐집에⁵⁴⁾ 시집삼년을 살고나니
시어마씨 하시는말씀 아가아가 메늘아가⁵⁵⁾

54) () 부분은 녹음되지 않은 부분임.

55) 며느리 아가.

너거낭군을 불러거든 진주야남강에 빨래하라
진주야남강에 빨래를하니
난데없는 말발자국소리가 철벽철벽 들려온다
검은빨래는 검게씻고 흰빨래는 희게씻어
옆눈으로 살곰보니 구름같은 말을타고
하늘같은 갓을쓰고 못본듯이도 지나간다
이거보는 본처야님은 [얼버무리며] 우런님도
(인자 빨래 다 씻고 집에오니까네 또 인자 시어마이가 하는 말이.) [웃음] (시어마
씨 하시는 말이.)
[말로 읊으며]
너거서방님을 불러거든 사랑방을 내려가라
(카거든. 사랑방을 딱 내려가 보니까네, 사랑방을 내려가니까네.)
아홉가지 안주를놓고 열두가지 술을놓고
(기생 첩, 기생 몸에서 놀았거든. 인자 저거 둘이서 빠구리하고 있었던 기라. 그
래가 인자 그거를 보고 올라왔는데 이 본처가 옷방으로 올라와가 몬 본듯이 올라
와가지고.)
물맹지야⁵⁶⁾ 석자수건 목을메어 죽었구나 자는듯이 죽었구나
(이러니까, 그 말을 들었을 때 신랑이 맨발로 담밭아와가⁵⁷⁾ 만날 저거 계집이 마
음이 편할 줄 알고. “내가 니 그럴 줄 몰랐다.” 카매, 그래 듣고 어루면서러. 그
래.)
(저저.) 첩의정은 삼년이고 (그래.) 본처정은 백년이고.
(그래 끝나는 기다.)

[금정구 민요 72]

다리세기 노래[이거리 저거리 갓거리]

양만일(여, 1941년생) 가창
2017년 1월 19일 채록
[금사회동동 회동부녀경로당]

이거리 저거리 갓거리
동서맹근 도맹근⁵⁸⁾

56) 물명주.

57) 달음박질해서 와서는.

도래짐치⁵⁹⁾ 당더쿵
신태기 열두장
까마구 까악
연지 푼
돈이야 방구야
통 팽 (이라대.)

[금정구 민요 73]

화투타령[화투뒤풀이]

양만일(여, 1941년생) 가창
2017년 1월 19일 채록
[금사회동동 회동부녀경로당]

(조사자: 정월술가지.) 속속속마음 (조사자: 정월부터 해주이소.) [처음부터 가창해
달라 했으나 계속해서 가창함.]
이월매주에 맺어놓고
삼월사쿠라 산란한마음
사월흑싸리 헌사하고
오월난초 나리는나비
유월목단에 춤을추고
칠월홍돼지 홀로누워
팔월공산에 달이밝아
구월국화 굳었던마음을
시월단풍에는 뚝떨어지고
오동추야 달밝은날에
오동이십이 크다꼬한들
비삼십오에 당할쏘냐
얼씨구나 좋다 정말로 좋아~
이리 좋다가도 또떨놓네 (첫 딸 놓는다. 그러께네.)

[금정구 민요 74]

58) 동서 망근 도 망근.

59) 도래 줌치. 동그랗게 만든 주머니.

회심곡

양만일(여, 1941년생) 가창
2017년 1월 19일 채록
[금사회동동 회동부녀경로당]

이세상에 나온사람 누덕으로 나왔느냐
아버님전 뼈를빌고 어머님전 살을빌어
[말로 읊으며]
칠성전에 (뭘) 명을빌고 (저저) 제석전에 복을빌고
(제석이라 카는 거는 삼신할매를 말하는 기거든. 복을 빌고 그래 나왔다. 이래 겠
다.)

[금정구 민요 75]

도라지타령

양만일(여, 1941년생) 가창
2017년 1월 19일 채록
[금사회동동 회동부녀경로당]

도라지 도라지 도라지
심~심 산천에 백도라지
한도 뿌리만 캐어도
대바구니 반술이 되는구나
 엥헤요 엥헤요 엥헤에요
 에하로난다 지화자자 좋~다
 니가내 간장을 스리살살이 다녹인다
 (그기 끝인가 대가린가 모른다.)

[금정구 민요 76]

모심기 노래(1)

전남선(여, 1932년생) 가창
2017년 2월 9일 채록
[금성동 금성1통경로당]

서울이라 왕대밭에 금비둘기 알을낳여 (질게 빼더라 와.)
그알하나~ 조았시면⁶⁰⁾ 금년과게 내할구로⁶¹⁾ (그래 하대.)

이물기저물기⁶²⁾ 헐어놓고~ 주인네양~반 어디갔소
문에전복⁶³⁾ 손에들고~ 첩우방에⁶⁴⁾ 놀러갔소 (이거 했어요.)

[조사자가 부르자 따라 부름]
무슨첩이 그리좋아 낮에가고 밤에가노 (그래 됐어요.)
(조사자: 어, 그라이카네 [노래로] 낮으로는.)
나도죽어 놀러갈로 밤으로는 자러갈래 (그래, 그러 칸다.)

모시야적삼 안섶안에~ 분통걸은 저젓봐라
많이보면 뱅(병)날거고 쌀날만치만 보고가소 ([웃으며] 했어요.)

남창남창 베리끝에⁶⁵⁾ 무정하다 울오랍아
많이 (청중: [노래로] 나도 죽어.) (어데?)
나도죽어 (청중: 그래 맞다.) 남자되어 처자동생 길러볼래⁶⁶⁾ (이랬어.)

해다지고 저문날에~ 유연행상⁶⁷⁾ 돌아오네
이태백이 [소리를 열버무리며] 본처죽어~ 이별행상 떠나가요

해다지고 저문날에~ 골목마다 연기나네
만인간 [청중이 “우리님은”으로 부르자 소리를 바꾸어 부름]
우리님은 어데가고~ 연개날줄⁶⁸⁾ 모르더냐

60) 주웠으면.

61) 금년 과거 내 할 것을.

62) 이 물꼬 저 물꼬.

63) 문어 전복.

64) 첩의 방에.

65) 남창남창 벼랑 끝에.

66) 길러 볼래.

67) 웬 행상.

68) 연기 낼 줄.

[금정구 민요 77]

모찌기 노래

전남선(여, 1932년생) 가창
2017년 2월 9일 채록
[금성동 금성1통경로당]

한강에다 모를심어~ 모찌기도 난감하네
하늘에다 목화심어~ 목화따기도 난감하네

[금정구 민요 78]

모심기 노래(2)

전남선(여, 1932년생) 가창
2017년 2월 9일 채록
[금성동 금성1통경로당]

해다졌네 해다졌네~ 양산땅에 해다졌네
방실방실 웃는애기~ 몬다보고⁶⁹⁾ 해다졌네

[금정구 민요 79]

화투타령[화투뒤풀이]

전남선(여, 1932년생) 가창
2017년 2월 9일 채록
[금성동 금성1통경로당]

정월 솟가지⁷⁰⁾ 속속한 마음
이월 매조에 맺아놓고
삼월 사꾸라 산란한 마음
사월 흑싸리 허송하다
오월 난초 나비가 날라
육월 목단에 앉았구나

69) 못 다 보고.

70) 솔가지. 즉, 소나무 가지.

칠월 흥돼지 홀로 누워
팔월 공산에 달도 밝네 (고거뻑이 모르는데.) (조사자: 구월.)
구월 국화 굳었던 마음
시월 단풍에 떨어졌네 (청중: 오동추야.)
오동추야 달이 밝아 (뭐라 카노?) (조사자: 오동지.)
(청중: 오동지 선달 긴긴밤에.) (그거는 모르겠다.)

[금정구 민요 80]

비 노래⁷¹⁾

전남선(여, 1932년생) 가창
2017년 2월 9일 채록
[금성동 금성1통경로당]

비야비야 오저마라 우리생이 시집간다⁷²⁾
가마문에 비들치고 소복단장 다버린다 (이래 안 하능교?)

[금정구 민요 81]

모심기 노래

전남선(여, 1932년생) · 전덕순(여, 1940년생) 가창
2017년 2월 9일 채록
[금성동 금성1통경로당]

[전덕순]

찔레야꽃은 상각가고⁷³⁾ 석류야꽃은 시집가네 (안자 하소.)

[전남선]

만인간아 웃져마라⁷⁴⁾ 씨종재바래⁷⁵⁾ 내가가네 (조사자: 이후후후후~) [일동 웃음]

[금정구 민요 82]

71) '모심기 노래' 가락으로 부름.

72) 우리 형이 시집간다.

73) 상객(上客) 가고.

74) 웃지 마라.

75) 씨종자 바라서.

산비둘기 소리 흉내 노래

최해수(여, 1932년생) 가창
2017년 2월 9일 채록
[금성동 금성1통경로당]

(조사자: 처음에?) (기집 죽고 안 카더나?) (조사자: 해보입시더.) (청중: 그거는 뻐
꿍새라 카대.) (조사자: 구구구구.) (청중: 뻐꾸기가 아이고 뻐꿍뻐꿍.)

[말로 읊으며]

기집죽고 자식죽고

내일모레 장날인데

나혼차 무얼살아 (안 캡디까? 그래. 그런데 그것도 딴 데도 또 전부 다 틀리데.)

[금정구 민요 83]

아기 어르는 노래

최해수(여, 1932년생) 가창
2017년 2월 9일 채록
[금성동 금성1통경로당]

[말로 읊으며]

불매불매 불매야

이불매가 누불매고

경상도 대불매가 [웃음] (조사자: 경상도 대불매. 불어라 딱딱.) (예. 이래 찼더라
고요.)

(조사자: 그 다음에 알강달강은 안 하고?) (내 그 소리는 또 안 잊아뻬는교.)

밤 한. 밤한톨은 남았는 (아!) [말을 바꾸어]

새양지가 들락날락 다까묵고

밤한톨이 남았는가

껍질랑 애비주고

보닐랑 예미주고

알맹이는 니냥나냥 갈라묵자 (카고 이러던데.)

[금정구 민요 84]

아기 재우는 노래

최해수(여, 1932년생) 가창
2017년 2월 9일 채록
[금성동 금성1통경로당]

[말로 읊듯이]

자장자장
우리아기 잘도잔다
뒷집개도
뒤집개야 짓지말고
앞집개도 짓지말고
우리아기 잠잘잔다 (이라대요.)

[금정구 민요 85]

모심기 노래

표순덕(여, 1936년생) 가창
2017년 2월 9일 채록
[금성동 금성1통경로당]

[조사자와 함께 부름]

풍당풍당 찰수제비 사우야판에 다올랐네
에미년은 어데가고 딸의동제로 시켰던고

[금정구 민요 86]

모심기 노래

김장선(여, 1931년생) 가창
2017년 1월 17일 채록
[남산동 머드레경로당]

풍당풍당 찰수지비⁷⁶⁾ 사우야판에 다올랐네

에미년은 어디가고 딸에년을 맏겼던고⁷⁷⁾

[금정구 민요 87]

모심기 노래(1)

김필순(여, 1923년생) 가창

2017년 1월 17일 채록

[남산동 머드레경로당]

이논빼미 모를숨가 금실금실 영화로다
우리부모 산소등에~ 솔을숨가 금실금실 영화로다

이물기저물기 혈어놓고~ 주인네양반 어디갔노
문어야대전복 손에들고~ 첩의집에 놀러갔다

서울이라 왕대밭에 금비둘기 알을날여
그알한개 (조사자: 주았으면.) 내가 주았이몬 금년과게 내할구로 (청중: 이란대.)

남창남창 베리끝에⁷⁸⁾ 저오랍야 무정하다
나도죽어 남자되어 처자곤석⁷⁹⁾ 거느리고 살아보세
(조사자: 처자권석 챙기볼래.) (뭐라 카노?) (조사자: 처자권속 챙기볼래 이려는
교?) (처자 곤석.) (조사자: 나도 죽어.) (처자 곤석 덕고 살아볼래 이래.) (조사자:
아, 살아볼래.) (옛날에, 옛날에 물이 마이(많이), 큰물이 저가 거 저저 저거 올케
하고 시누부하고 둘이가 떠내려가는데, 저거 오래비가 저거 각시만 켜져주고, 거
저거 동생은 안 켜져주더라 카대. 그래노이 “남창남창 베루 끝에 정 오랍야 무정
하다 나도 죽어 남자되어 처자 곤석 거느리고 살아볼래.” 이래.)

늦어오네 늦어오네 점섬참이 늦어오네
이산저산 칠기 (칠기? 칠기 끝에 걸려서)
(조사자: 어, 칠기 끝에 걸려서.) (인자 온다 카고. 인자 모르겠다 내가. 모르겠
다.) (조사자: 칠기 끝에 걸리가. 오다가.) (모르겠다.) (청중: 그거는 일이 많다.)

76) 찰수제비.

77) 딸(의)년을 맏겼던고..

78) 벼랑 끝에.

79) 처자 권속(眷屬). 권속은 식구.

(모르겠다 인자.)

해다지고 저문날에 우연행상⁸⁰⁾ 떠나오네

이태백이 (모르겠다.) (조사자: 본처죽고 이별행상 떠나오네.) (아! 맞다.)

[말로 읊듯이]

이태백이 죽어 이별행상 떠나오네 (인자 모르겠다. 잊어뿌고 모른다. 나가 구십
넘어나노이 모른다.)

[금정구 민요 88]

쌍가락지 노래

김필순(여, 1923년생) 가창
2017년 1월 17일 채록
[남산동 머드레경로당]

쌍금쌍금 쌍가락지

주식질로 녹가락지

먼데보니 달일래라

잘에보니 처잘래라

저 (조사자: 그 처자 자는 방에.)

저처자라 자는방에

숨소리도 둘일래라 (인자 모른다.)

[금정구 민요 89]

모심기 노래(2)

김필순(여, 1923년생) 가창
2017년 1월 17일 채록
[남산동 머드레경로당]

저기갔던 선부(선비)네야 우리선보 안오던가

너거선부 오기야온다마는 칠성판에 실리온다

80) 웬 행상.

[금정구 민요 90]

다리세기 노래[이거리 저거리 갓거리]

김필순(여, 1923년생) 가창
2017년 1월 17일 채록
[남산동 머드레경로당]

이거리 저거리 갓거리

동사맹건(망건) 도맹건

(뭇라 카노 또?) (조사자: 도래 줌치. 도래 줌치 장두칼.) (모르겠다.) (조사자: 도래미 줌치 장두칼.) (잊어뿌고 모르겠네.) (조사자: 아, 잊아뻘네. “이거리 저거리 갓거리”.) (“동사맹건 도맹건 도리짐치 장듯간” 이라는가 몰라.)

[금정구 민요 91]

모심기 노래(3)

김필순(여, 1923년생) 가창
2017년 1월 17일 채록
[남산동 머드레경로당]

[말로 읊으며]

나무아미타불 양산통도 큰법당에 염불소리가 처량하네

(이 그래.) (조사자: 어. 그래 그 노래가 뭐 어째 되노?) (그 모 송구는 노래.) (조사자: 모 송굴 때 부르는 노래 있어요?) (예.)

[노래로 가창]

할미야꼬깔 저꼬깔에 나무아미타불

양산통도 큰법당에 염불소리가 처량하네 [웃음] (잊아뿌고 모른다.)

[금정구 민요 92]

모심기 노래

김복선(여, 1922년생) 가창
2017년 1월 17일 채록
[남산동 신암경로당]

찔레야꽃으는 장개로가는데~ 성로야꽃으는 요각간다⁸¹⁾
만인간아 윗지를마소⁸²⁾ 씨종자바래서 장개로가네

이물기저물기 헐어놓고 주인네양반 어들갔노
알금삼삼 첩의야방에 놀러갔다

이적삼 시적삼에~ 분통걸은 저젓보소
많이나보면 병이나고 쌀날만침 보고⁸³⁾
(모심기 소리 우리 곳에 마이 하니더.) (모심기 소리, 칭칭이야 빼는 거 뭐, 행상
앞대는 거 다 하니더, 우리는.)

서울갔던 선부네야 우리야임은 안오시나
오시기사 오신다만은 칠성판에 실리오네
이승태(때)는 어따두고 영정(影幀)때가 웬말⁸⁴⁾

오늘해가 어찌나됐노 점심밥이 늦어오네
아홉간아홉정지 돌고나니 점심차례가 늦었네 (조사자: 늦어오네)

[금정구 민요 93]

모심기 노래

남봉금(여, 1926년생) 가창
2017년 1월 17일 채록
[남산동 신암경로당]

에헤 무정하다 저오랍아
나도죽어서 남자가되여 처자한쌍 섬길라네

포름포름 봄배차는⁸⁵⁾ 봄비오기만 기다리고

81) 찔레야 꽃은 장가를 가는데 석류야 꽃은 유곽(遊廓) 간다.

82) 윗지를 마소.

83) “보고 가소”를 다 부르지 않음.

84) 이승 때(시간)은 어디에 두고 영정 때가 웬 말이나. “웬 말이나”를 다 부르지 않음.

85) 포름포름(파릇파릇) 봄배추는.

옥안에갇힌 춘향이는 이도령오기만 기다린다

[금정구 민요 94]

창부타령

강대순(여, 1936년생) 가창
2017년 2월 8일 채록
[부곡3동 기찰경로당]

시들시들 봄배추는 봄이실오도록⁸⁶⁾ 기다리고
옥에갇던 춘형이는⁸⁷⁾ 이도령오도록만 기다린다
얼씨구 좋네 절씨구 좋네 지화자자 좀더좋다 [웃음]

[금정구 민요 95]

다리세기 노래

강대순(여, 1936년생) 가창
2017년 2월 8일 채록
[부곡3동 기찰경로당]

이거리 저거리 갓거리
동태망근 도망근
추추대무 여덟냥
까마구 까
양지 벌이
뽕~

[금정구 민요 96]

다리세기 노래

김정순(여, 1937년생) 가창
2017년 2월 8일 채록
[부곡3동 기찰경로당]

86) 봄이슬 오도록.

87) 춘향이는.

이거리 저거리 갓거리
동서남부 도망도
도리쭈치 맵쭈치
신편기 열서방
노리야 또리야
방구 빵

[금정구 민요 97]

권주가

문복남(여, 1939년생) 가창
2017년 2월 8일 채록
[부곡3동 기찰경로당]

잡으시오 잡으나시오 이술한잔을 잡으시오
이술은 술이아니오 묵고놀자는 동백주요

[금정구 민요 98]

평타령⁸⁸⁾

민례임(여, 1933년생) 가창
2017년 2월 8일 채록
[부곡3동 기찰경로당]

꽁꽁꽁 장서방
초록꽁지 깃을달고⁸⁹⁾
백꽁지 동정달고
공단배단 꼬리치고⁹⁰⁾
단풍들은 콩밭으로
후드득후드득 날아든다
이골저골 댕기다

88) 소설 「장끼전」(혹은 까투리전)의 서사를 담고 있는 노래이다.

89) 깃을 달고.

90) 꼬리치고.

불콩하나를 줏었구나⁹¹⁾
지발그콩 묵지마소⁹²⁾
지발그콩 묵지마소
간밤에 꿈을끼니⁹³⁾
도매올려도 올라대⁹⁴⁾
소부당도 씨어배⁹⁵⁾
큰칼도 맞어배⁹⁶⁾
지발그콩 묵지마소
자네꿈이 그렇꼈더라
적진장에나 나와보
저건~네 쟁끼랄놈⁹⁷⁾
후드득후드득 날아와서
아침도침섬⁹⁸⁾ 나도침섬
두침섬 마주사⁹⁹⁾
아저씨내팔자 들어볼라
내팔자 얼마나 좋으면서
첫차낭군¹⁰⁰⁾ 얻어노니
난디없는 쌀가지¹⁰¹⁾
아가지속에다¹⁰²⁾ 열고가
후차낭군¹⁰³⁾ 얻어노니
난디없는 강포수
망태안에다 열고가
아줌도침석 나도침석

91) 주웠구나.

92) 제발 그 콩 먹지 마소.

93) 꿈을 꾸니.

94) 도매(에) 올라도 올라 보여.

95) 솔뚜껑을 씌워 보여. 소부당은 '솔뚜껑'의 전남 방언.

96) 큰칼도 맞아 보여.

97) 장끼란 놈.

98) 아주머니도 침석(尖石). 침석은 뾰족하고 모난 돌. 기구한 운명을 가진 존재를 비유한 것으로 봄.

99) 두 침석 마주 살자.

100) 첫째 낭군.

101) 새끼 벌. 살팽이의 방언.

102) 아가리 속에다. 아가리는 입의 비속어.

103) 둘째 낭군.

두침석 마주잡시다
아저씨내팔자 들어볼라
시차낭군¹⁰⁴⁾ 얻어논께
인자 또 악목고 죽어부렀대
산천이로 가자미는¹⁰⁵⁾
짐승무서워서 못가겼고
공중이로 가자미는
인간무서워서 못가겼고
공중이로 날아가다
까마구서방을¹⁰⁶⁾ 해갔다네

[금정구 민요 99]

창부타령[사랑타령]

민색인례(여, 1944년생) 가창
2017년 2월 8일 채록
[부곡3동 기찰경로당]

창문을 달아도 들어오는 달빛
마음을 달려도 파고드는 사랑
사랑사랑 사랑이라니 사랑이란것이 무엇이나
알다가도 모를사랑 밋다가도 속는사랑
오목저목이 알뜰사랑 알캉달각 싸운사랑
이내간장을 다녹이고 지긋지긋이 애태운사랑
이사랑저사랑 다그만두고
단둘이만나 소곤소곤 웃는사랑~

[금정구 민요 100]

사발가¹⁰⁷⁾

민색인례(여, 1944년생) 가창

104) 셋째 낭군.

105) 산천으로 가자고 하면.

106) 까마귀 서방을.

107) 사발가의 후렴은 창부타령 곡조로 불렀다.

2017년 2월 8일 채록
[부곡3동 기찰경로당]

석탄백탄 타는데는 연기만풀풀 나고요
이내가슴 타는데는 연기도짐도 아니란다 (청중: 아이구 좋다.)
얼씨구나 좋다 지화자 좋네 아니나놀지는 못하리라 (또 뭐 있는데.)

[금정구 민요 101]

농부가¹⁰⁸⁾

조종례(여, 1938년생) 가창
2017년 2월 8일 채록
[부곡3동 기찰경로당]

아나 농부 말들어 아나 농부야 말들어
서마지기 논배미가 반달마치 남았네
니가무슨 반달이요 초생달이 반달이로다 (카매 고거밖에 몰라.)

[금정구 민요 102]

아기 재우는 노래 [자장가]

조종례(여, 1938년생) 가창
2017년 2월 8일 채록
[부곡3동 기찰경로당]

자장자장 자장자장
은자동아 금자동아
우리애기 잘도잔다
(또, 어데고? 어디 중아.)
나라에는 충신동이
부모에게 효자동아
자궁자궁
우리애기 잘도잔다 (그러밖에 모르겠다.)

108) '농부가'로 흔히 부르는 사설로 시작했다. 흥얼거리는 소리로 불렀는데, 이어지는 사설은 '모심기 노래'에서 흔히 부르는 사설이다.

[금정구 민요 103]

너냥 나냥

박상숙(여, 1928년생) 가창
2017년 2월 21일 채록
[부곡3동 오륜경로당]

너냥나냥 두리둥실 하고요
낮이낮이나 밤이밤이나 참사랑이논다 (카는 그거 노래도 했는데.)

(조사자: [노래로] 아침에.) 저녁에 [말을 바꾸어]
아침에¹⁰⁹⁾ 우는새는 배가고파 울고요
저녁에 우는새는 임기립어 운다 (카는 그거 있더라.)
너냥 나냥 두리둥실 하고요
낮이낮이나 밤이밤이나 참사랑이로다

[금정구 민요 104]

다리세기 노래

박순이(여, 1931년생) 가창
2017년 2월 21일 채록
[부곡4동 근화경로당]

이거리 저거리 갓거리
동사맹근 도맹근 (캐쌌고.)
(조사자: 어, 그 계속해 보이소. 동사맹근 도맹근.)
주머니박구 독박구
열두엿냥 (뭐 카고.)

[금정구 민요 105]

이갈이 노래

109) 아침에.

박순이(여, 1931년생) 가창
2017년 2월 21일 채록
[부곡4동 근화경로당]

까치야 까치야
헌 이는 가가고
새 이는 날로 도가¹¹⁰⁾ (카면서 그래 째대.)

[금정구 민요 106]

화투타령[화투뒤풀이]

이봉규(여, 1932년생) · 이연춘(여, 1942년생) 가창
2017년 2월 21일 채록
[부곡4동 근화경로당]

정월속가지¹¹¹⁾ 속속한마음
이월메조에 맺어놓고
삼월사꾸라 산란한마음
사월흑사리 흩어진다
오월난초 나는나비 (청중: 나비가 되어.)
유월목단에 춤을추고
칠월홍돼지 홀로앉아
팔월공산에 달도나뵈다
구월국화 굳었던마음
시월단풍에 다떨어졌다
오동추야 달밝은밤에
낙엽만날려도 임의생각
 얼씨구나 좋다 절씨구 좋다
 아니 노지는 못하리라

[금정구 민요 107]

아기 어르는 소리[불매소리]

110) 나를 다오.
111) 정월 솔가지.

이찬덕(여, 1937년생) 가창
2017년 2월 21일 채록
[부곡4동 근화경로당]

(청중1: 아 저저 거 뭐 걸을라 칼 직에 그래 이래.) (청중2: 자트락¹¹²⁾ 밑에 쥐고.)

불매불매 불매야
이불매로 나뒀다가¹¹³⁾
논을사나 밭을사나
흔들대로 흔들어보자

[금정구 민요 108]

노랫가락[그네 노래]

김선자(여, 1940년생) 가창
2017년 1월 18일 채록
[서1동 서1동경로당]

[말로 읊으며]
수천당 세모진낭개¹¹⁴⁾ 낙낙장상¹¹⁵⁾에 그네를매어
임이뛰면 내가밀고 내가뛰면 임이밀고
임아 줄밀지마소 줄떨어지면 정떨어진다

[금정구 민요 109]

너냥 나냥

김선자(여, 1940년생) 가창
2017년 1월 18일 채록
[서1동 서1동경로당]

너냥 나냥 두리둥실놀고요

112) 겨드랑.

113) 나두었다가.

114) 추천당 세모진 나무에.

115) 낙락장송.

낮이낮이나 밤이밤이나 참사랑이로다

[금정구 민요 110]

아기 어르는 노래[불매소리]

김선자(여, 1940년생) 가창
2017년 1월 18일 채록
[서1동 서1동경로당]

불매불매 불매야
경상도 대불매
이불매가 누불매고
불어라불어라 불매야
(이란다.)

[금정구 민요 111]

화투타령[화투뒤풀이]

김소순(여, 1938년생) 가창
2017년 1월 18일 채록
[서1동 서1동경로당]

[말로 읊으며]

일월속가지 속속한마음
이월매조 맺었구나
삼월사쿠라 산란한마음
사월흑싸리 흩어졌고
오월난초 나비가되어
유월목단에 춤잘추고
칠월홍돼지 홀로누워
팔월공산 달이떠서

(청중: 팔월공산 내 팔자야.) (내 팔자야? 우린 “달이 떠서” 카는데.)

구월국화 굳은마음

시월단풍에 뚝떨어졌고 [웃음]

(십일월은 뭐라 하노? 그건 모르겠는데.)

[금정구 민요 112]

너냥 나냥

김시윤(여, 1938년생) 가창
2017년 1월 18일 채록
[서1동 서1동경로당]

바람아 강풍아 석달열흘만 불어라
고기잡으러 우리냥군이 다시돌아온다 [웃음]

[금정구 민요 113]

너냥 나냥

최수영(남, 1937년생) 가창
2017년 2월 21일 채록
[서1동 새마을경로당]

(조사자: 너냥 나냥) 둘이불끈 안고요
낮이낮이나 밤이밤이나 참사랑이로구나
오동나무 열매는 왈각달각하고요
큰애기 젖통은 몽실몽실하더라
[청중 웃음] (조사자: 뒤에도 또 있다 아입니까?)

너냥 나냥 둘이불끈 안고요
낮이낮이나 밤이밤이나 참사랑이로다
(조사자: [노래로] 아침에 우는 새는 배가 고파 울고요.)
저녁에 우는새는 임기리워운다¹¹⁶⁾
너냥 나냥 두리둥실 안고요
낮이낮이나 밤이밤이나 참사랑이로구나

[금정구 민요 114]

노랫가락[그네 노래]

116) 임기 그리워.

김규조(여, 1939년생) 가창
2017년 2월 21일 채록
[서1동 장수경로당]

수천당 세모지낭개¹¹⁷⁾ 가지가지에 주천을매어
임이타면 내가밀고 내가타면은 임이밀고
저임아 줄밀지마라 줄떨어지면은 정떨어진다

[금정구 민요 115]

아리랑

김규조(여, 1939년생) 가창
2017년 2월 21일 채록
[서1동 장수경로당]

청천 하늘에~ 잔별도 많고~
요내야 가슴에~ 수심도 많다~
(요게 청춘간지 모르겠다.) (청중: 그건 청춘가라.)
[청중이 부르자 함께 부름]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금정구 민요 116]

화투타령[화투뒤풀이]

김규조(여, 1939년생) 가창
2017년 2월 21일 채록
[서1동 장수경로당]

정월소와 속속헌정은
이월매조에 맹서놓고¹¹⁸⁾
삼월사꾸라 활짝피어 (청중: 삼월 사꾸라 산란한 마음.)
사월흑쌀에¹¹⁹⁾ 흠어놓고 (조사자: 조금씩 다르니까.)(청중: 다르네.)

117) 추천당 세모진 나무에.

118) '맺어 놓고'를 이렇게 부름.

119) 일반적으로 사월 흑싸리라 함.

오월난초 나비가앉아
유월목단에 춤을추네
칠월홍돼지 홀로누워
팔월 달마중에
("공산에 달마중가네" 그게 맞아.)
구월국화 꽃이피어
시월단풍에 다떨어지네
동짓달오동에 오실라손님이
선달눈비에 우비가없아도 몬왔어요 [웃음]

[금정구 민요 117]

처남 노래

박옥희(여, 1933년생) 가창
2017년 2월 21일 채록
[서1동 장수경로당]

[말로 읊으며]
처남처남 내처남아 너거누부 뵈하더노
신는버선 볼거더나 입든적삼 등받더나
입든적삼 등안받고 신던버선 불안걸고
연지찍고 분바르고 자형오도록 기다리오

[금정구 민요 118]

노랫가락

박옥희(여, 1933년생) 가창
2017년 2월 21일 채록
[서1동 장수경로당]

[말로 읊으며]
앞발에는 국화친구 뒷발에는 맹화¹²⁰⁾심고
국화맹화 그속에 니랑내랑 둘이살자

120) 목화.

(고, 그래 첫대구리¹²¹)를 모르겠다. 그런데 아주 옛날 노래거든.)

[금정구 민요 119]

화투타령[화투뒤풀이]

박옥희(여, 1933년생) 가창
2017년 2월 21일 채록
[서1동 장수경로당]

정월솔가지 상사를맺아
이월매조다 맺어났고
칠월홍돼지 홀로누워
팔월공산 달도나뵈네
구월국화 굳은마음
시월단풍에 다떨어지네
오동삼십 비삼십은
화토도금에¹²² 빠졌구나
(우리는 그래 한다.) [웃음]

[금정구 민요 120]

태평가

임영희(여, 1940년생) 가창
2017년 2월 21일 채록
[서1동 장수경로당]

짜증은 내어서 무엇하나 (청중: 잘한다.)
성화는 불러서 무엇하나
속상한일도 하도나 많은데
놀기도 하면서 살아보자
 니나노~ 날리리야 날리리야 니나노~ 얼싸아 좋다 얼씨구 좋아
 벌나비는 이리저리 펄펄 꽃을 찾아서 날아든다 (청중: 잘한다. 좋~다.)

121) 첫 소절을.

122) 화투놀음을 말함.

개나리 진달래 만발해도

내낭군만은 못하더라

니나노~ 널리리야 널리리야 니나노~ 열싸좋아 열씨구~좋다

벌나비는 이리저리 펄펄 꽃을 찾아서 날아든다 (청중: 잘한다.)

[금정구 민요 121]

화투타령[화투뒤풀이]

임영희(여, 1940년생) 가창

2017년 2월 21일 채록

[서1동 장수경로당]

정월속삭이 속삭여놓고

이월매주 땃어놓고

삼월사쿠라 산란헌마음

사월흑싸에 흘으려놓고

오월난초 날으는나비

유월목단에 활짝피어

(청중: 칠월.)

칠월홍돼지 홀로나누워

팔월공산에 구경가자

구월국화 굳으난열기

시월단풍에 다떨어진다

(청중: 또.)

오동추야 달도나뵈어

양산받고 임마중가자

(근데, 이것도 여러 가지라.)

[금정구 민요 122]

모심기 노래

박경열(여, 1937년생) 가창

2017년 1월 18일 채록

[서1동 장수부녀경로당]

물끼야쳐정청청 헐어놓고~ 주인네양반은 어디로갔노
개뻥다지¹²³⁾ 입에물고~ 거름밭에 낚누었네

(모시)¹²⁴⁾야적삼 안섰안에~ 분통같은 저젓보소
많이보면은 병날끼고~ 좁쌀만치만 보고가소

해다지고 저문날에~ 어떤수자가 울고간다
우리야임은 어디로가고 연개¹²⁵⁾넬줄을 모르던고

저게가는 저구름에~ 눈들었나 비들었나
눈도비도 아니들고 소리야낭창¹²⁶⁾ 내들었다

[금정구 민요 123]

권주가

박경열(여, 1937년생) 가창
2017년 1월 18일 채록
[서1동 장수부녀경로당]

받으시오 받으나시오 이술한잔을 받으세요
이술이 술이아니고 먹고놀자는 동배주요

[금정구 민요 124]

노랫가락[그네 노래]

서순남(여, 1941년생) 가창
2017년 1월 18일 채록
[서1동 장수부녀경로당]

[말로 읊으며]
수천당 세모신낭개¹²⁷⁾ 둘이타자고 그네를맸더만

123) 개뻥다귀.

124) 녹음되지 않은 부분임.

125) 연기.

126) 원래는 소리 명창임.

임이타면은 내가밀고 내가타면은 임이밀고
임아임아 줄밀지를말아라 줄이떨어지면은 정도떨어지고 님도떨어진다

[금정구 민요 125]

청춘가

서순남(여, 1941년생) 가창
2017년 1월 18일 채록
[서1동 장수부녀경로당]

술이라고 먹거들랑~ 채지를¹²⁸⁾ 말고요~
임이라고 만나거든 좋~다 이별을 말어라~ [웃음]
(조사자: 또 그 다음에 가사도 있지예?)
저달 뒤에는~ 별이따라 가고요~
우런님 뒤에는 좋~다 날따라 가노라~

[금정구 민요 126]

구멍타령

송영순(여, 1940년생) 가창
2017년 1월 18일 채록
[서1동 장수부녀경로당]

딱따구리는¹²⁹⁾ 참나무구녕도 잘똥는데
우리집에 저문딩이는 똥은구녕도 문똥네 [청중 웃음]

[금정구 민요 127]

각설이타령

신용영(여, 1928년생) 가창
2017년 1월 18일 채록
[서1동 장수부녀경로당]

127) 추천당 세모진 나무에.

128) 취하지를.

129) 첫 소절을 빠트림, 일반적으로 “저 건너 딱따구리”라 함.

얼~씨구 씨구씨구 돌아간다
얼~씨구 씨구씨구 나오신다
작년에왔던 각설이
죽지도않고 또왔네
품배품배 잘한다

일자 한장을 들고나보니
일선에갔던 우리아들 다시오기만 기다린다
이자나 한장을 들고나보니
진주기생 이애미가 애왕청춘 목을안고
진주남강에 쑥빠져죽었다 [웃음]
(다 잊아뒀다. 이것도 많은데.) (청중: 잘 하시구만.) (자꾸 잊어버리니까네.) [가창
했던 노래 가사를 다시 읊으며 기억을 떠올린 뒤 가창함.]
삼자 한장을 들고나보니
삼동가리 녀죽예가 천상감사의 노리개다
오자나 한장을 들고나보니
오뚝오뚝 섰는애기 해떨어지기전에 어서가자
(해떨어지기 전에 어서 가자. 오뚝오뚝 섰는 애기 해떨어지기 전에 어서가자 말이
라.)
육자나 한장을 들고나보니
육천만의 우리동포 한결같이 모여살아
칠자나 한장을 들고나보니
칠년대사 가문날에 굶은비오기만 기다린다
팔자나 한장을 들고나보니
내기박한 내팔자야 [웃음]

[금정구 민요 128]

목동 노래

신용영(여, 1928년생) 가창
2017년 1월 18일 채록
[서1동 장수부녀경로당]

꿀망태 둘러미고¹³⁰⁾ 소를모는 저목동
이리야 어서가자 정든님 기다리신다
앞담배 피어물고 이리야
고삐를 툭툭쳐면서 떠나가자 [웃음]
(그 다음에 2절엔 가서.)
목단꽃 붉게피는 시름잇은 자지빛
달빛은 안개속에서 저는그냥
내품에 담배연기 밤은 깊어가는데 가슴에 스며든다 ¹³¹⁾

[금정구 민요 129]

화투타령[화투뒤풀이]

임영희(여, 1940년생) 가창
2017년 1월 18일 채록
[서1동 장수부녀경로당]

정월속살이 흘으려놓고
이월매조 맺어놓고
삼월사쿠라 산란한마음
사월흑싸리에 흘어놓고
오월난초 날던나비
유월목단에 활짝피어
칠월홍돼지 홀로나누워
팔월공산에 구경가자
구월국진 굳어난절개
시월단풍에 다떨어진다
동지선달 서남풍에
임생각이 절로나네

[금정구 민요 130]

진도아리랑

130) 둘러메고,

131) 1절은 타령조로 가창하였으나 2절은 창가조로 가창하였음.

임영희(여, 1940년생) 가창
2017년 1월 18일 채록
[서1동 장수부녀경로당]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청중: 아따! 잘 한다.)
아리랑 음음음 아라리가 났네
저산에 지는해는 지고싶어 지느냐
날버리고 가시는님 가고싶어 가느냐 (청중: 잘 한다.)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음음음 아라리가 났네

[금정구 민요 131]

새타령

임영희(여, 1940년생) 가창
2017년 1월 18일 채록
[서1동 장수부녀경로당]

새가 날아든다 온갖잡새가 날아든다
새중에는 봉황새 만수문전에 풍년새
산주죽심 무심초 초림비조 못새들이¹³²⁾
농천화답에¹³³⁾ 짝을지어 생긱생긱이¹³⁴⁾ 날아든다
저썩국새가 울음운다 울어울어 울음운다
이산으로가면 썩국썩국 저산으로가면 썩썩국 썩국
어허~ 어히~ 히히히히~
좌우로 다녀 울음운다

[금정구 민요 132]

구멍타령

김영자(여, 1932년생) 가창
2017년 1월 20일 채록

132) 원래 가사는 “산고곡심(山高谷深) 무인처(無人處) 울림비조(鬱林飛鳥) 저 못새들이”이다.

133) 농춘화답(弄春和答)에.

134) 원래 가사는 쌍거쌍래(雙去雙來)로 짝을 지어 오고간다는 의미.

[서2동 서2동할머니경로당]

[말로 읊으며]

저건너 딱따구리는 생구명도 파는데
우리집 저낭군은 뚫어진구명도 왜몬파노¹³⁵⁾

[금정구 민요 133]

창부타령(1)

김영자(여, 1932년생) 가창
2017년 1월 20일 채록
[서2동 서2동할머니경로당]

보꿀보꿀 보꿀새야¹³⁶⁾ 니왜그리 슬피우노
옥중낙엽이 굵어진낭기¹³⁷⁾ 부러질까봐 염려로다¹³⁸⁾
석발가오¹³⁹⁾ 포상줄에 묶여가신 우리오빠
군경대판엘랑 가시리라도 강제공판엘랑 가지마소
얼씨구 절씨구 아니 노지를 못하리라

[금정구 민요 134]

창부타령(2)

김영자(여, 1932년생) 가창
2017년 1월 20일 채록
[서2동 서2동할머니경로당]

신구명장 망장공에 바람불어 허쓰러진낭기¹⁴⁰⁾
눈비온다고 일어날까
송곳같이 곧은절개 매맞는다고야 허락하리

135) 왜 못 파나.

136) 보꿀새는 '소쩍새'의 방언.

137) 굵어진 나무.

138) 염려로다.

139) 세 발 가량.

140) 쓰러진 나무.

몸은빌러¹⁴¹⁾ 기상일망정¹⁴²⁾ 절개조차 기상이나
얼씨구나 좋다~ 지화자 좋다~
아니 아니 노지를 못하리라

[금정구 민요 135]

노랫가락[그네 노래]

이해자(여, 1933년생) 가창
2017년 1월 10일 채록
[서2동 평화나눔경로당]

[말로 읊으며]

수천당 세모지낭개 그네를매어

[노래하며]

임이타면 내가나밀고 내가타면은 임이민다 (청중: 좋다!)

임아임아 줄미지말아라 줄떨어지면은 정떨어진다

[금정구 민요 136]

너냥 나냥

이해자(여, 1933년생) 가창
2017년 1월 10일 채록
[서2동 평화나눔경로당]

(조사자: [노래로] 너냥 나냥) 둘이둥실놀고요

낮이낮이나 밤이밤이나 (청중: 아이고! 잘한다.) 참사랑이로세

아침에 우는새는 배가고파 울고요

저녁에 우는새는 입을찾아운다 (청중: 아이고! 잘한다.)

[금정구 민요 137]

모심기 노래

이해자(여, 1933년생) 가창

141) 몸은 비록.

142) 기생일망정.

2017년 1월 10일 채록
[서2동 평화나눔경로당]

낭창낭창 베루끝에¹⁴³⁾ 무정할사 우리오빠 (청중: 잘한다.)
우리오빠 날살렸나 수용버들이 날살렸지
나도죽어 후세상에가서 낭군한분만나 심겨볼까

[말로 읊으며]
모시적삼안에 분통같은 저젓봐라
아니보면 병날소나 살푼살푼 쥐보라고¹⁴⁴⁾

[말로 읊으며]
포롱포롱 봄배추는 봄비오길 기다리고
옥에갇힌 춘향이는 이도령오기만 기다린다

[금정구 민요 138]

백발가

이해자(여, 1933년생) 가창
2017년 1월 10일 채록
[서2동 평화나눔경로당]

이팔청춘 소년들아 백발보고서 반절마라
어제같이 소년이더니 오늘까지도 백발이요

[금정구 민요 139]

사발가

이해자(여, 1933년생) 가창
2017년 1월 10일 채록
[서2동 평화나눔경로당]

[말로 읊으며]

143) 벼랑 끝에.
144) 쥐어 보라고.

석탄백탄 타는데는 연기나퐁퐁 나지만은
이내가슴 타는건 한방에 들은님도 (모르는 거라.)

[노래로]

기차떠난 철도에는 까만연기만 남아있고
임떠난 요방중에는 담배야꽁추만 남아있네

[금정구 민요 140]

시집살이 노래(1)

이해자(여, 1933년생) 가창
2017년 1월 10일 채록
[서2동 평화나눔경로당]

성아성아¹⁴⁵⁾ 사촌형아 시집살이 어떻더노 (청중: 맞아.)
시집살이 말도마라 승도 많고¹⁴⁶⁾ 말도 많고
쪼그마난 도래판에 수저놓기 어렵더라
(쪼그만은 시아재비) 중우벗은 시아재비 말하기도 어렵더라

[금정구 민요 141]

심청이 노래

이해자(여, 1933년생) 가창
2017년 1월 10일 채록
[서2동 평화나눔경로당]

[말로 읊듯이 가창하며]

애통하도 한가정에 나의식구 세사람
계집아해 낳으신지 칠일에 눈먼맹인
남겨두고 이세상을 떠났네
(심청이 저거 어매가 떠나는 기라. 칠일 안에.)
젓쫄 [말을 바꾸어] 불쌍하고 가련한 이어린것 살리주고

145) 형아 형아.

146) 흥도 많고.

이와같이 구걸해
젓좁주소 젓좁주소 이어린것 살리주고
이와같이 구걸해라
(그래 심청이로 15살 묵어서 저거 아배가 키얏어. 심봉사가. 그래가지고는 인자
공양백쌀¹⁴⁷⁾ 삼백 석에 심청이가 팔려 안 갔나? 저거 아버지 눈 밝힐라꼬.)

[금정구 민요 142]

시집살이 노래(2)

이해자(여, 1933년생) 가창
2017년 1월 10일 채록
[서2동 평화나눔경로당]

[말로 읊듯이 가창하며]
앞밭에는 꼬치심어¹⁴⁸⁾ 맵고짭고 맛동시아
뒷밭에는 배차심어¹⁴⁹⁾ (청중: 눈물 날라 한다.) 더풀더풀 시아바씨
충시끝에 제비얏아 재빌재빌 시누부야
닌치준치¹⁵⁰⁾ 끈달아차고 잔소리많은 시어마시
(안 그런교? 맞제? 시오마씨.)
사랑앞에 봉숭아심어놓고 봉실봉실 내만보나 [웃음]

[금정구 민요 143]

화투타령[화투뒤풀이]

이해자(여, 1933년생) 가창
2017년 1월 10일 채록
[서2동 평화나눔경로당]

정월술가지 술술한마음
이월매주에¹⁵¹⁾ 맺아놓고

147) 공양미.
148) 고추 심어.
149) 배추 심어.
150) 주머니.
151) 이월 매조에.

삼월사쿠라 산란한마음
사월흑싸리에 허사로썸
오월난초 나는나비
유월목단에 떨어지고
칠월홍싸리¹⁵²⁾ 홀로누워
팔월공산에 달떠오네
구월국화야 꽃자랑마라
시월단풍에 떨어진다
오동장롱 값많다한들
비삼십에 당할소나

[금정구 민요 144]

사친가

이해자(여, 1933년생) 가창
2017년 1월 10일 채록
[서2동 평화나눔경로당]

[말로 읊으며]

한두살의 철을몰라 부모은공을 갚을라하니
그때서말고 대동강전장이 일어나서
총갈을메고 어깨다메고 한발가고 두발가고
서발너발 발을맞춰가갸디 국가로상대로 하엿디
조선에 해방이왔네 해방왔네 해방왔네
(카면서 안 있나? 돌아서자꼬, 그래가지고 장개갈 사람은 장개 가고, 시집갈 사람
은 가고 부모님 앞에 선신가자 카면서는.)

[금정구 민요 145]

노들강변¹⁵³⁾

원종수(여, 1928년생) 가창
2017년 2월 21일 채록
[서3동 서곡경로당]

152) 일반적으로 '칠월 흥돼지'로 부름.

153) 1934년에 발표된 신민요풍의 대중가요(신불출 작사, 문호월 작곡, 박부용 노래).

노들강변 봄버들 휘휘늘어진 가지다가
무정세월 한허리어¹⁵⁴⁾ 땡땡동여서 매어나볼까¹⁵⁵⁾
에헤이오~ 봄버들도 아니 노지는 못하리라¹⁵⁶⁾

[금정구 민요 146]

너냥 나냥

원종수(여, 1928년생) 가창
2017년 2월 21일 채록
[서3동 서곡경로당]

너냥 나냥 두리둥실 놀고요
낮이낮이나 밤이밤이나 참사랑이로구나
(조사자: 아침에.) 우는새는 배가고파울고요
저녁에 우는새는 님이그리워운다
(조사자: 너냥.) 나냥 두리둥실 놀고요
낮이낮이나 밤이밤이나 참사랑이로구나

[금정구 민요 147]

도라지타령

원종수(여, 1928년생) 가창
2017년 2월 21일 채록
[서3동 서곡경로당]

도라지 도라지 백도라~지
심~심 삼천에 백도라지
한두 뿌리 캐어~도
대바구니 사리살살 해노라

154) 한 허리를.

155) 칭칭 동여 매어나 볼까.

156) 원래 가사는 “에헤요 봄버들도 못 믿으리로다 / 푸르른 저기 저 물만 흘러 흘러서 가노라.”다.

[금정구 민요 148]

파랑새요

이귀옥(여, 1928년생) 가창
2017년 2월 21일 채록
[서3동 서곡경로당]

새야새야 파랑새야 녹두낭게¹⁵⁷⁾ 앉지마라
녹두꽃이 떨어지면 청포창사 울고간단다
열씨구 절씨구 차차차
지화자 줄구나 차차차
아나방초¹⁵⁸⁾ 사시절에 아니 놀지는 못하리라 차차차

[금정구 민요 149]

아리랑

이귀옥(여, 1928년생) 가창
2017년 2월 21일 채록
[서3동 서곡경로당]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오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나를 버리면 (조사자: [노래로] 가시는 님은.) (그것도 다 안 되네.)
십리도 못가서 발병난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오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금정구 민요 150]

태평가¹⁵⁹⁾

이원님(여, 1934년생) 가창
2017년 2월 21일 채록

157) 녹두 나무에.

158) 후렴구는 노랫가락으로 원래 가사는 만화방창임.

159) 태평가의 원래 제목은 '태평연'으로 1935년에 발표된 대중가요(고마부 작사, 정사인 작곡)로 곡조는 창부타령과 비슷하다. 제보자는 태평가와 노랫가락 사설을 섞어서 가창했다.

[서3동 서곡경로당]

짜증을 내어서 무엇하나
강짜는¹⁶⁰⁾ 하여서 무엇하나
인생일장 춘몽인데 아나는 놀지는 못하리라
 니나노~ 날리리야 날리리야 니나노~
 얼싸아 좋다 얼씨구~ 좋다 (까묵었다.)
 얼씨구 좋다 아나는 놀지는 못하리라 (아이구! 마 까몯네.) (청중: 까몯다 그래.)

[금정구 민요 151]

모심기 노래

이남태(여, 1933년생) 가창
2017년 1월 23일 채록
[서3동 서곡할머니경로당]

(모노래 와 모르노?) (조사자: 할머니 아시는 대로.)
물끼야¹⁶¹⁾청청 혈어야놓고 첩의야방에 놀러간다
우런님은¹⁶²⁾ 어데가고 날찾을줄 모르던고
(이 카대. 모 빼가 하고 이랬는데 인자는.)

[금정구 민요 152]

화투타령[화투뒤풀이]

최정순(여, 1940년생) 가창
2017년 1월 23일 채록
[서3동 서곡할머니경로당]

정월속속
(고건 모르겠네. 잊어뿌렸어, 그러니까.)
이월매주에 맺어놓고
삼월사쿠라 산란한마음

160) '강샘'을 속되게 이르는 말. 원래 가사는 "성화를 받치어 무엇하나"이다.

161) 물꼬야.

162) 우리 님은.

(조사자: 사월 흑싸리.) 사월흑싸리 흠어놓고
오월난초 놀던나비
유월목단에 춤을춘다
칠월홍돼지 홀로누워
팔월공산에 구경가니
구월국화가 홀로피어
시월단풍에 떨어지고
동지선달 설한풍에
낙엽만떨어져도 임의생각
이리생각 저리생각
임의생각이 절로난다 (이래.)

[금정구 민요 153]

노랫가락[그네 노래]

최정순(여, 1940년생) 가창
2017년 1월 23일 채록
[서3동 서곡할머니경로당]

[말로 읊으며]
수천당 세모진낭개¹⁶³⁾ 동쪽가지에 그네를메고
임이뛰면 내가밀고 내가뛰면은 임이밀고
임아임아 줄밀지마라 줄떨어지면 정떨어진다

[금정구 민요 154]

권주가

허필순(여, 1934년생) 가창
2017년 1월 23일 채록
[서3동 화목경로당]

잡으세요 잡으나시요 이술한잔을 잡으세요
이술이 술이아니라 먹고놀자는 백화주요 (그렇지 뭐.)

163) 추천당 세모진 나무.

[금정구 민요 155]

만고강산¹⁶⁴⁾

허필순(여, 1934년생) 가창
2017년 1월 23일 채록
[서3동 화목경로당]

만고강산 유람할적 삼신산이 뵈아니나
일봉래 이방장과 삼영준¹⁶⁵⁾이 아니나
죽장짚고 풍월세라¹⁶⁶⁾ 봉래산을 올랐으니
천봉만학 부용들아 하늘이닥쳐 솟아있고
백절폭포 급한물은 은하수에 거울렀다¹⁶⁷⁾
잠든구름 개우잡고 맑은안개 잠겼으니
선경일시가 분명쿠나 때맞아 모춘¹⁶⁸⁾이라
붉고꽃¹⁶⁹⁾ 푸른잎과 나는나비 우는새는
춘광춘색을 자랑한다¹⁷⁰⁾ 경치좋은 만고강산
지척에 던져두고 못본자가 몇해던고
이고절 당도하야 일일이 새로워라
어화 벗님네야 산연백희¹⁷¹⁾ 연기마소
엽진화락 왜없으리 동경에¹⁷²⁾ 솟은달은 계수에 머물렀다
서산에 지는해는 사해살을 걸어놓고
한없이 놀아보고 거들렁거리고 놀고가세

[금정구 민요 156]

모심기 노래

164) '만고강산'은 판소리를 부르기 전 목을 풀기 위해 부르는 단가(短歌)임.

165) 삼영주(三瀛州).

166) 풍월 실어.

167) 기우렸다.

168) 모춘(暮春)이라.

169) 붉은 꽃.

170) 자랑한다.

171) 상전벽해(桑田碧海).

172) 동령(東嶺)에.

허필순(여, 1934년생) 가창
2017년 1월 23일 채록
[서3동 화목경로당]

모야모야 노랑모야 니언제커서 열매열래 [웃음]
이논빼미 모로심어¹⁷³⁾ 첩의집에 밤일가네

[금정구 민요 157]

모찌기 노래

박선례(여, 1935년생) 가창
2017년 1월 19일 채록
[선두구동 대두경로당]

밀치라 닥치라 호미손을 놀리라 (이래 안 하나.)

(조사자: 또 뭐 “쫓루자 쫓루자” 그거는?) (와? 있지.) (조사자: 그거 한 번 해보
이소.)

쫓루자 쫓루자 이뭇강을 쫓루자

(그래. 그라고. 잊어뿌고 몰라. “장구판만치 남았다” 이런 거도 있고. 있는데, 다
모르겠다. 한 개도 모르겠다.)

하늘에다 목화를갈아~ 목화따기도 난감하네 (청중: 잘한다.)

한강에다 모를부어~ 모찌기가 난감하네 (청중: 잘하네.)

[금정구 민요 158]

모심기 노래

박선례(여, 1935년생) 가창
2017년 1월 19일 채록
[선두구동 대두경로당]

이물기저물기 혈어놓고~ 주인네양반은 어덜갔노
문에야대전복 손에들고

173) 모를 심어.

(그래 뭐라 카노?) (조사자: 첩의 방에.) (아! 맞다.)

첩어야방에 놀러갔네

풍당풍당 찰수지비¹⁷⁴⁾ 사우야판에 다올랐네

(근데) (조사자: 에미년은 어데 가고.)

에미년은 어데가고

(그래 또 뭐?) (조사자: 딸에 동자를.) (아! 딸에 동자를 맬깃던고.)

딸애동자를 맬깃던고

서울이라 왕대밭에~ 금비둘기가 알을낳네

그알하나 내조았시면¹⁷⁵⁾ 금년과계를¹⁷⁶⁾ 내할꾸로

해다야지고 저문날에 골목골목이 연개¹⁷⁷⁾나네

우리야임은 어데가고~ 연기낼줄을 모르던고 (청중: 이 후 후 후~)

서울갔던 선배님이 우리야선부는 안오시나

오시기사 오시건만은 칠성판에 얹혀오네

[금정구 민요 159]

사발가

박선례(여, 1935년생) 가창

2017년 1월 19일 채록

[선두구동 대두경로당]

석탄백탄 타는데는 연개나풍풍 나건만은

이내가슴 타는데는 연개도짐도¹⁷⁸⁾ 아니나네

[금정구 민요 160]

174) 찰수제비.

175) 내 주웠으면.

176) 금년 과거를.

177) 연기.

178) 연기도 김도.

비 노래

박선례(여, 1935년생) 가창
2017년 1월 19일 채록
[선두구동 대두경로당]

비야비야 오지마라
우리새이 시집갈때
가매문에 비들치면
다홍치마 얼룩진다¹⁷⁹⁾

[금정구 민요 161]

다리세기 노래

박선례(여, 1935년생) 가창
2017년 1월 19일 채록
[선두구동 대두경로당]

이거리 저거리 갓거리
청사맹건 도맹건¹⁸⁰⁾
도리춤치¹⁸¹⁾ 돈버선
범우 짝지¹⁸²⁾
 짹 짹 공
(요거 다리.) (조사자: 먼저 재끼고.) (그라몬 인자 그 사람 노래 부르든동 벌금,
벌로 씹운다.)

[금정구 민요 162]

아기 재우는 노래[자장가]

박선례(여, 1935년생) 가창
2017년 1월 19일 채록
[선두구동 대두경로당]

179) 얼룩진다.
180) 청사 망건 도 망건.
181) 도래주머니.
182) 범의 짝지.

자장자장 우리자장
우리아기 잠잘잔다
은자동아 금자동아
수명장수 부자동아
은을준들 너를사나
금을준들 너를사나
자리자자

하늘에는 (아이구! 무신 동이고?) (조사자: 하늘에는 무슨 동이. 나라에는 뭐 충신
동이.)

나라에는 충신동아
부모에는 효자동아
형제에는 우애동아
자장자장 우리자장 (그래 한다.)

[금정구 민요 163]

모심기 노래

최양자(여, 1943년생) 가창
2017년 1월 19일 채록
[선두구동 대두경로당]

포름포름 봄배추는 참이슬오도로만¹⁸³⁾ 기다리고 (청중: 잘한다.)
옥에갓던 춘향이는 이대령오도로¹⁸⁴⁾ 기다리네 (청중: 아이구 잘한다.) [일동 박수]

모시야~적삼 안্ষ안애~ 분통같은 저젓보소
많이~보면 병들끼고 담배씨만치만 보고가소

[금정구 민요 164]

노랫가락[나비 노래]

최양자(여, 1943년생) 가창

183) 참이슬 오도록만.

184) 이도령 오도록.

2017년 1월 19일 채록
[선두구동 대두경로당]

나비아 청산을가자 노랑나비아 너도가자
가다가 저무나거든 나무속에나 자고가소
그나무앞이 낙화가되면 요네품속에 자고가소

[금정구 민요 165]

청춘가

최양자(여, 1943년생) 가창
2017년 1월 19일 채록
[선두구동 대두경로당]

세월아 미월아~ 오고가지를 말어라~아하
아까운 내청춘 다늠어 간다~
(조사자: 중간에 좋~다 한 번 해야 되는데.) (청중: 좋다~.)

산이 높아야~ 골도 깊어지~이히
요놈의 가슴에 (조사자: 좋~다.) 수심도 많더라

기차는 가자꼬 고동을 트는데~에헤
요놈의 수심도 많더라 (다 잊어뵈다. 모르겠다.)

[금정구 민요 166]

산비둘기 소리 흥내 노래

최양자(여, 1943년생) 가창
2017년 1월 19일 채록
[선두구동 대두경로당]

기집죽고 자석죽고
내호문차¹⁸⁵⁾ 꿀짜농사¹⁸⁶⁾ 어째짓노

185) 내 혼자.

186) 꿀짜기 농사.

[금정구 민요 167]

모심기 노래(1)

김영선(여, 1937년생) 가창
2017년 1월 18일 채록
[선두구동 선동경로당]

모야모야 노랑모야~아 니언제커서 열매열래
이달가고 저달가고~오 내훗달에 열매연다

머리아종고 실한처녀~어 울뽕낭게¹⁸⁷⁾ 앓아우네
울뽕줄뽕 내따주마~ 백년하리¹⁸⁸⁾를 내강살제¹⁸⁹⁾

풍당풍당 찰수제비~이 사우야판에¹⁹⁰⁾ 다올랐네
해미년은¹⁹¹⁾ 어데가고~ 딸을동자 맏깃던고

모시아적삼 안섰안에~ 분통같은 저젓보소
많이보모 뽕들끼고~¹⁹²⁾ 쌀날만땅¹⁹³⁾ 보고가소

수천당모랭이¹⁹⁴⁾ 썩돌아서니~ 아니먹어도 술내가나네
(또 그 다음 모르겠다.) (조사자: 임이야 보선에 불을 걸어.) (아!)
님이야버선에 보를걸어~¹⁹⁵⁾ 임줄정이 정이없네

비물었네 비물었네 준주야덕산에¹⁹⁶⁾ 비물었네

187) 울뽕 마무에. 울뽕은 울타리가 되도록 심은 뽕나무. 또는 그 뽕나무의 잎.

188) 백년해로(百年偕老).

189) 나하고 살자.

190) 사위(야) 판에.

191) 어머니는. '해미년' 또는 '에미년(어미년)'은 어머니의 속된 표현.

192) 많이 보면 병 들 것이고.

193) 쌀날만큼.

194) 추천당(鞦韆堂) 모퉁이. 추천당은 그네를 뛰는 곳.

195) 불을 걸어. 불은 버선이나 양말 밑바닥의 앞뒤에 덧대는 형겅 조각.

196) 진주야 덕산에.

그~비~가 비아니~라 억만군사 눈물일~세

해다지고 저문날에~ 우연행상¹⁹⁷⁾ 떠나가네
이태백이 본처죽고~오 이별행상¹⁹⁸⁾ 떠나가네

오늘일기가 요만되면 산골마주¹⁹⁹⁾ 연개난다²⁰⁰⁾
우리야님은 어데가고~ 연개낼줄 모르던고

초롱아초롱아 영사초롱~ 임의방에 불밝혀라
임도눅고 저도눅고~ 저불끝이가 누있으리²⁰¹⁾

[금정구 민요 168]

쌍가락지 노래

김영선(여, 1937년생) 가창
2017년 1월 18일 채록
[선두구동 선동경로당]

쌍금쌍금 쌍가락지
주석질로²⁰²⁾ 늦가락지
먼데보니 달일래라
잘에보니²⁰³⁾ 처잘래라
그쳐자야 자는방에
숨소리가 두일래라²⁰⁴⁾
청도복사²⁰⁵⁾ 오라버님
거짓말씀 말아시소
나함핑이²⁰⁶⁾ 디리불러²⁰⁷⁾

197) 웬 행상(行喪).

198) 이별 행상.

199) 산골마다.

200) 연기 난다.

201) 저 불(을) 끝 이가 누(가) 있으리.

202) 주석(晝夕)으로 보는 일로. 즉, 밤낮으로 쌍가락지를 보거나 만지작거리는 일로.

203) 곁에 보니.

204) 둘일래라.

205) 천도복숭.

풍지떠는 소릴래라
(그렇심더.) (조사자: 그 말 듣기.) (또 있다 참.)
그말듣기 애덜바서²⁰⁸⁾
따깨칼²⁰⁹⁾로 목에품고
자는듯이 죽었구나
이내나는 죽거들랑
앞산에도 묻지말고
뒷산에도 묻지말고
연단²¹⁰⁾밑에 묻어주소

[금정구 민요 169]

비 노래

김영선(여, 1937년생) 가창
2017년 1월 18일 채록
[선두구동 선동경로당]

비야비야 오지마라
우리생이²¹¹⁾ 시집간다
가매문에 비들치면²¹²⁾
홍지치마²¹³⁾ 어령진다²¹⁴⁾

[금정구 민요 170]

아기 재우는 노래[자장가]

김영선(여, 1937년생) 가창
2017년 1월 18일 채록

206) 남풍이.
207) 세계 불어. 들이치도록 불어.
208) 애답아서.
209) 주머니칼.
210) 연단(蓮壇). 연꽃으로 수놓은 단.
211) 우리 형이. 여기서는 우리 언니.
212) 가마 문에 비(가) 들치면.
213) 붉은 색 치마. 즉, 다홍치마.
214) 얼룩진다.

[선두구동 선동경로당]

자장자장
우리아기 잘도잔다
꼬꼬달(닭)아 울지마라 ([잠시 멈추었다가 말로 되뇌이며] 꼬꼬달아 울지 마라.)
껌등개야 짓지마라
우리아기 잘도잔다

[금정구 민요 171]

산비둘기 소리 흉내 노래[뽕꿈새 노래]²¹⁵⁾

김영선(여, 1937년생) 가창
2017년 1월 18일 채록
[선두구동 선동경로당]

부꾸부꿈 부꿈부꿈
지접죽고²¹⁶⁾ 부꿈부꿈
자석죽고 부꿈부꿈
내호무차²¹⁷⁾ 어째살고
부꿈부꿈

[금정구 민요 172]

모심기 노래(2)

김영선(여, 1937년생) 가창
2017년 1월 18일 채록
[선두구동 선동경로당]

이물기저물기²¹⁸⁾ 다혈어놓고~ 주인네양반 어데갔소
문어야전복은²¹⁹⁾ 손에들고~오 첩의야집에 놀러갔소

215) 본래 산비둘기 소리를 흉내내는 노래인데, 제보자는 이 노래를 ‘뽕꿈새 노래’로 인식했다.
뽕꿈새, 뽕꿈새는 버꾸기의 방언이다.

216) 계집 죽고.

217) 내 혼자.

218) 이 물꼬 저 물꼬.

219) 문어야 전복은.

첩의야집에는 낮에가고~오 주무²²⁰⁾야집에는 밤에간다

[금정구 민요 173]

다리세기 노래

김영선(여, 1937년생) 가창
2017년 1월 18일 채록
[선두구동 선동경로당]

이거리 저거리 갓거리
동서남북 도남북
절에줌치²²¹⁾ 장도칼
까마구 까우
아우 지우

[금정구 민요 174]

비 노래

정옥임(여, 1939년생) 가창
2017년 1월 20일 채록
[선두구동 수내경로당]

비야비야 오지마라
우리새이 시집간다
가매문에 비들치고
다홍치마 (뽀뽀.) (조사자: 얼롱진다.) 얼롱진다

[금정구 민요 175]

다리세기 노래

천복자(여, 1949년생) 가창
2017년 1월 20일 채록
[선두구동 수내경로당]

220) 주모(酒母).
221) 도래주머니.

이거리 저거리 갓거리
동서남북 대남북
요리김치 장독간

[금정구 민요 176]

산비둘기 소리 흥내 노래

천복자(여, 1949년생) 가창
2017년 1월 20일 채록
[선두구동 수내경로당]

구구구구 구구구구
구구구구 구구구
자식죽고 (인자)
나혼자서 우째살고

[금정구 민요 177]

파랑새요

김순남(여, 1940년생) 가창
2017년 1월 18일 채록
[선두구동 신천경로당]

새야새야 파랑새야 녹디낭계²²²⁾ 앉지마라
녹디나치²²³⁾ 떨어지모 청포장사 울고간다

[금정구 민요 178]

아기 어르는 노래[불매소리]

김순남(여, 1940년생) 가창
2017년 1월 18일 채록
[선두구동 신천경로당]

222) 녹두나무에.

223) '녹두꽃이'를 바로 기억하지 못해 얼버무리다 이렇게 불렀다.

불매불매 불매야
이불매가 누불매고
경상도 대불매
불어라 불떡

[금정구 민요 179]

비 노래

이순선(여, 1940년생) 가창
2017년 1월 18일 채록
[선두구동 신천경로당]

비야비야 오지마라
샷갓장시 배터진다

[금정구 민요 180]

아기 재우는 노래[자장가]

조영선(여, 1948년생) 가창
2017년 1월 18일 채록
[선두구동 신천경로당]

자장자장
우리아기 잘도잔다
꼬꼬달아²²⁴⁾ 울지마라
[잠시 생각한 후에] (조사자: 검둥개야.)
검둥개야²²⁵⁾ 짓지마라
우리아기 잘도잔다

[금정구 민요 181]

임 그리는 노래

224) 꼬꼬달아.
225) 검둥개야.

임달연(여, 1918년생) 가창
2017년 1월 18일 채록
[선두구동 신천마을 제보자 자택]

달아달아 둥그튼달아²²⁶⁾
임의사창에 빠친달아²²⁷⁾
임을러²²⁸⁾ 누웠더니
어렴푸럼²²⁹⁾ 작품을뜯공²³⁰⁾

[금정구 민요 182]

쌍가락지 노래

임달연(여, 1918년생) 가창
2017년 1월 18일 채록
[선두구동 신천마을 제보자 자택]

[윽듯이]
쌍금쌍금 쌍가락지
주석질로 늦가락지
먼데보이 달일래라
잘에보이 처잘래라
저처자여 자는방에
숨소리도 둘일래라
청두복숭 오라배요²³¹⁾
거짓말씀 말으시소
나한풍이²³²⁾ 들이부니
풍지뜨는 소리로다

[금정구 민요 183]

226) 둥그런 달아.
227) 비친 달아.
228) 임을 그려.
229) “어렴풋이”의 뜻으로 말한 듯하다.
230) 얼버무리듯 말해서 정확한 의미를 알 수 없다.
231) 천도복숭 오라버니요.
232) 남풍이.

이(風) 노래

임달연(여, 1918년생) 가창
2017년 1월 18일 채록
[선두구동 신천마을 제보자 자택]

옷에있는 백삼춘아
머리있는 감금춘아
니발이가 옥발인데 (이 발이 옥발이란다. 옥발인데.)
이팔십리 걸음걸어
니등더리 납닥해²³³⁾
석마살 성쌀직에²³⁴⁾
돌한당이²³⁵⁾ 저쥬나
나이름이 작금이다
작금하이 죽거라 (카매 그래 직이(죽여).)

[금정구 민요 184]

모심기 노래(1)

임달연(여, 1918년생) 가창
2017년 1월 18일 채록
[선두구동 신천마을 제보자 자택]

풍당풍당 찰수지비²³⁶⁾ 사우판에²³⁷⁾ 다올랐네
딸년은 어데가고 며늘년을²³⁸⁾ 시깃더노 (이러 카고.)

[금정구 민요 185]

다리세기 노래

임달연(여, 1918년생) 가창

233) 너 등(등더리) 납작해. ‘등더리’는 등의 방언.
234) 성 쌀을 적에.
235) 돌 한 덩이.
236) 찰수제비.
237) 사위 판에.
238) 며느리를.

2017년 1월 18일 채록
[선두구동 신천마을 제보자 자택]

이거리 저거리 갓거리
청사맹근 도맹근²³⁹⁾
서울양반 두양반
선지댁이 열석냥 (이래.)

[금정구 민요 186]

모심기 노래(2)

임달연(여, 1918년생) 가창
2017년 1월 18일 채록
[선두구동 신천마을 제보자 자택]

[윽듯이]

낭창낭창 베리끝에²⁴⁰⁾ 무정하다 저오랴아
나도죽어 군자되어 처자곤석²⁴¹⁾ 생각혈래

해다지고 저문날에 우연행상 떠나가노
이태백이 본처죽고 이별행상 떠나간다

[노래로]

비물었네 비물었네~이 진주덕산에 비물었네
그비가 비아니라~ 억만군사 눈물이네

초롱초롱 양사초롱²⁴²⁾ 임의방에 불밝혔네 (조사자: 임도.)
임도눅고 나도눅고 저불끝이가 누있으리

반달겉은 저발꾸리²⁴³⁾~이

239) 청사 망근 도 망근.

240) 벼랑 끝에.

241) 처자 권속(眷屬).

242) 청사초롱.

243) 저 발끝에.

(조사자: 새별같은. 새별같은.) (아!)
새별같은 (조사자: 저 밭골에.) 반달각시가 떠들오네
지가무슨 반달이고 초승달이 반달이지

[금정구 민요 187]

노랫가락[나비 노래]

김수자(여, 1945년생) 가창
2017년 1월 20일 채록
[선두구동 임석마을경로당]

나비야 청산을가자 호랑나비야 너도가자
가다가 저무나거든 앞에서라도 자고가자 (안 된다.)
자다가 피대접하거든²⁴⁴⁾ 이내몸에서 자고가자

[금정구 민요 188]

다리세기 노래

김숙자(여, 1945년생) 가창
2017년 1월 20일 채록
[선두구동 임석마을경로당]

이거리 저거리 갯거리
청사맹근 도맹근²⁴⁵⁾
떠리짐치²⁴⁶⁾ 장뚫간
서울양반 두양반 [일동 웃음] (우리 애릴 때 했어요.)

[금정구 민요 189]

모심기 노래

박소이(여, 1930년생) 가창
2017년 1월 20일 채록

244) 푸대접하거든.
245) 청사 망근 도 망근.
246) 떼이 김치.

[선두구동 임석마을경로당]

[가사를 읊으며]

이물기저물기 헐어놓고 주인네양반은 어데갔노
문어야전복 손에들고 첩의방에 놀러갔다

낭창낭창 베리끝에²⁴⁷⁾ 무정하다 울오랍아
잘에있는²⁴⁸⁾ 동생두고 먼데있는 니쳐잡나
(또.) (조사자: 니 쳐 잡나. 나도 죽어.)
나도죽어 하승해야²⁴⁹⁾ 처자곤석²⁵⁰⁾ 되어볼래

해다지고 저문날에 (조사자: 골골마다.) 골골마주²⁵¹⁾ 연개나네²⁵²⁾
우리님은 어데가고 연개낼줄 모르는고 (조사자: 그렇지.) (청중: 총기 있네.)

풍당풍당 찰수지비²⁵³⁾ 사우야판에²⁵⁴⁾ 다올랐네
장모님은 어데가고 딸의동자로 맏깃던고 (또 있는데.) (조사자: 거 많지애.)

[금정구 민요 190]

아기 어르는 노래[알강달강요]

박소이(여, 1930년생) 가창
2017년 1월 20일 채록
[선두구동 임석마을경로당]

[가사를 읊으며]

알강달강

뺨(밤)을한되 주아가²⁵⁵⁾

247) 벼랑 끝에.

248) 곁에 있는. 가까이에 있는.

249) 환생하여.

250) 처자 권속.

251) 골골마다.

252) 연기 나네.

253) 찰수제비.

254) 사우야 판에.

255) 주워서.

오매가매 다까먹고
단지하나 남았는거
(또 뭇이라 카노?) [일동 웃음] (조사자: 껍질은.)
껍질은 아배주고
보리(보니)는 엄마주고
알키는²⁵⁶⁾ 니캉내카²⁵⁷⁾ 갈라묵자

[금정구 민요 191]

쌍가락지 노래

박소이(여, 1930년생) 가창
2017년 1월 20일 채록
[선두구동 임석마을경로당]

[가사를 읊으며]
쌍글쌍금 쌍가락지
금덕질로²⁵⁸⁾ 금가락질
옥독질로²⁵⁹⁾ (조사자: 먼 데 보이 달일래라.) (아!)
먼데보이 달일래라
잘에보이²⁶⁰⁾ 처잘래라 (조사자: 그 처자.)
그처자 자는방에
숨소리도 돌이고
말소리도 들릴래라
(또 뭇이라 카노?) (웃, 금도, 금이라 캬나 뭇이라?)
오라버님
거짓말씀 하지마소
다한풍이²⁶¹⁾ 내리불어
풍지뜨는 소릴래라

256) 알맹이는.

257) 너와 내가.

258) 금도끼질로.

259) 옥도끼질로.

260) 곁에 보니. 가까이 보니.

261) 남풍이.

[금정구 민요 192]

권주가

박소이(여, 1930년생) 가창
2017년 1월 20일 채록
[선두구동 임석마을경로당]

[가사를 읊으며]

받으시오 받으시오 이술한잔 받으시오

이술이 술이아니라 묵고노자는 동백주라 (또 모르겠대이.)

[금정구 민요 193]

사발가

박소이(여, 1930년생) 가창
2017년 1월 20일 채록
[선두구동 임석마을경로당]

석탄백탄 타는데 연개만퐁퐁 나고요

이내가슴 타는데 연개도집도 안나네

에헤요 에헤요 에여라난다 지어라

허송세월만 넘겼네

[금정구 민요 194]

창부타령[춘향 노래]

박소이(여, 1930년생) 가창
2017년 1월 20일 채록
[선두구동 임석마을경로당]

[가사를 읊듯이]

포롱포롱 봄배추는 봄이슬나도록 지다리고

옥에갈힌 춘향이는 임오도록 (아!) 이도롱오도록 지다린다

[금정구 민요 195]

산비둘기 소리 흥내 노래

심복남(여, 1943년생) 가창
2017년 1월 20일 채록
[선두구동 임석마을경로당]

지집죽고 자식죽고²⁶²⁾
내호무차²⁶³⁾ 어째살꼬 [일동 웃음]

[금정구 민요 196]

모심기 노래

김옥재(여, 1946년생) 가창
2017년 1월 19일 채록
[선두구동 조리경로당]

풍당풍당 찰수제비 사우야 판에 다 올랐네
(그라믄 또 받아가 뭐라 카노?) (조사자: 애미년은.)
애미년은 어디가고 (청중: 딸애년을 맷졌던고.)

[금정구 민요 197]

모심기 노래

이명순(여, 1947년생) 가창
2017년 1월 19일 채록
[선두구동 조리경로당]

모야모야 노랑모야 니 언제커서 열매열래
이달크고 저달크고 모르겠네, 내후달에 열매열래

[금정구 민요 198]

모심기 노래(1)

김종철(여, 1934년생) 가창

262) 계집 죽고 자식 죽고.
263) 내 혼자.

2017년 1월 19일 채록
[선두구동 중리경로당]

포름포름 봄배추는 밤이슬오기만 기다리고
옥에갇힌 춘향이는 언제커서 (청중: 아! 아이다.) (조사자: 밤, 봄이슬 오도록.)
밤 (하 인자 모르겠네 그것도.) (조사자: 봄이슬 오기만 기다리고.) (기다리고.)
옥에갇힌 춘향이는 이도령오기만 기다린다

이물기저물기 다혈어놓고~ (조사자: 주인네 양반.) 주인네양반 어디갔노 (조사자:
문어야 대전북.) (청중: 손에 들고 첩의야 방에 들어갔네.) (첩의야 방에.)
문어야²⁶⁴)야방은 어디다두고~ 첩의방에 놀러갔나

낭창낭창 베루끝에²⁶⁵)~ 무정하다 울오바야²⁶⁶) (조사자: 나도 죽어.)
나도죽어 연자²⁶⁷)가되어 처마끝에 집을지아 (그래 안 하는교?)

[금정구 민요 199]

모찌기 노래

김종철(여, 1934년생) 가창
2017년 1월 19일 채록
[선두구동 중리경로당]

쫓루자 쫓루자 이못자리를 쫓루자
쫓루자 쫓루자 이못자리를 쫓루자
(또?) (조사자: 영감 상투를 쫓루자 그래 하대.) ([웃으며] 영감 상투로 그래 칸다.)

[금정구 민요 200]

모심기 노래(2)

김종철(여, 1934년생) 가창
2017년 1월 19일 채록

264) 문어야.
265) 벼랑 끝에.
266) 우리 오빠야.
267) 연자(燕子). 즉, 제비.

[선두구동 중리경로당]

이논빠미 모를승가~ (조사자: 반달같이.) 반달가 (모르겠다.) (조사자: 반달같이 남
았구나. 니가 무슨 반달이고.) (내가.) (조사자: 초승달이 반달이지.) (니가.)

[말로 읊으며]

니가무슨 반달이고 초승달이 반달이지

해다지고 저문날에~ 우리님은 어디갔노

(조사자: 또.) (모르겠네. [웃음])

[금정구 민요 201]

비 노래

김종철(여, 1934년생) 가창

2017년 1월 19일 채록

[선두구동 중리경로당]

비야비야 오지마라

우리새이²⁶⁸⁾ 시집간다

흥지치마²⁶⁹⁾ (청중: 가매 문에 비 들치고.) (아!)

가매문에 비들치면²⁷⁰⁾

흥지치마 어렁진다²⁷¹⁾

[금정구 민요 202]

잠자리 잡는 노래

김종철(여, 1934년생) 가창

2017년 1월 19일 채록

[선두구동 중리경로당]

얹은뱅이 꿈꿈

268) 우리 형이.

269) 붉은 치마. 즉, 다홍치마.

270) 가매 문에 비 들치면.

271) 얼룩진다.

앉은자리 앉아라
먼데가면 죽는다

[금정구 민요 203]

산비둘기 소리 흥내 노래

김종철(여, 1934년생) 가창
2017년 1월 19일 채록
[선두구동 중리경로당]

에미죽고 자식죽고
내호무차²⁷²⁾ 어째살꼬
구구구구 [웃음]

[금정구 민요 204]

모심기 노래

정봉화(여, 1936년생) 가창
2017년 1월 19일 채록
[선두구동 중리경로당]

모야모야 노랑모야 니언제커서 열매열래
(조사자: [노래로] 이 달.) (청중: 내가 하께. 내가 하께.)
이달가고 저달가고~ (청중: 내훗달²⁷³⁾에.) 내훗달에 열매열래

풍당풍당 찰수지비 사우야판에 다올랐네
애미년은 어디가고 딸애동정을 맏긴던고

서울이라 왕대밭에~ 금비둘기 알을놓아
그알한개 주었시면 금년과게 내할구로

[금정구 민요 205]

272) 내 혼자서.

273) 내 다음 달에. 다음 다음 달에.

모심기 노래

노남기(여, 1931년생) 가창
2017년 2월 6일 채록
[장전1동 금정경로당]

[말로 읊으며]

포름포름²⁷⁴⁾ 봄배추는 봄비오기만 기다리고
옥에간힌 춘향이는 이도령오기만 기다린다

[금정구 민요 206]

화투타령[화투뒤풀이]

장귀안(여, 1933년생) 가창
2017년 2월 6일 채록
[장전1동 금정경로당]

[말로 읊으며]

정월속가지 속속한마음
이월매조 맺어놓고
삼월사꾸라 꽃이피어
사월흑싸리 허송하다
오월난초 나비가되어
유월목단에 앉았구나
칠월홍돼지 홀로누워
팔월공산 달밤은데
구월국화 꽃이피어
시월단풍에 쓰러진다
동짓달에 가신손님
선달에
(아! 몰라. 그래 캐.)

[금정구 민요 207]

274) 파릇 파릇.

노랫가락[그네 노래]

장귀안(여, 1933년생) 가창
2017년 2월 6일 채록
[장전1동 금정경로당]

추천당 새모진낭개²⁷⁵⁾ 오색가지다 추천을매어²⁷⁶⁾
니가뛰면 내가야밀고 내가뛰면은 니가민다
임아임아 줄밀지말아 줄떨어지면은 정떨어진다

[금정구 민요 208]

양산도

장귀안(여, 1933년생) 가창
2017년 2월 6일 채록
[장전1동 금정경로당]

(조사자: 양산읍내 물레방아는.) 물을안고 돌고
우리집에 저문둥이는 나를안고 돈다
에하라 웅화라~ 아니 못노니~라
아기를 모아도 나는 몬놀겠다

[금정구 민요 209]

너냥 나냥

장귀안(여, 1933년생) 가창
2017년 2월 6일 채록
[장전1동 금정경로당]

[조사자와 함께 가창하며] 너냥 나냥 도리동실 놀고요
낮이낮이나 밤이낮이나 참사랑이로다
신작로 널러서²⁷⁷⁾ 길가기 좋고요
전깃불 밝아서 임보기 좋다

275) 추천당 세모진 나무에.

276) 추천(그네)을 매어.

277) 신작로 넓어서.

너냥나냥 도리동실 놀고요
낮이낮이나 밤이낮이나 참사랑이로구나
(조사자: 할머니, 우리 집 그 명태잡이를 갔는데.)
[조사자와 함께 가창하며] 바람아강풍아 석달열흘만 불어라

[금정구 민요 210]

사발가

장귀안(여, 1933년생) 가창
2017년 2월 6일 채록
[장전1동 금정경로당]

석탄백탄 타는데~ [가사를 잊어버려 조사자와 함께 가창하며] 연기만 풀풀나는데
요내가슴 타는데는 연기도김도 안나네

[금정구 민요 211]

권주가

장귀안(여, 1933년생) 가창
2017년 2월 6일 채록
[장전1동 금정경로당]

(조사자: [노래로] 받으시오~.) (아!) 받으나시오~ 이술한잔을 잡으나시오
이술은 술이아니고 먹고놀자는 동배주요

[금정구 민요 212]

밀양아리랑

장귀안(여, 1933년생) 가창
2017년 2월 6일 채록
[장전1동 금정경로당]

(조사자: 날 좀 보소.) 날좀보소 날좀보소
동지선달 꽃본듯이 날좀보소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 아라리가났네~
아리랑 고개로 날넘겨주소

[조사자와 함께 가창하며] 정든임이 오시는데 인사를못해
행주치마 입에물고 입만뽀긋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 아라리가났네~
아리랑 고개로 날넘겨주소

[금정구 민요 213]

모심기 노래

정정석(여, 1928년생) 가창
2017년 2월 6일 채록
[장전1동 금정경로당]

[말로 읊으며]
해다지고 저문날에 임아임아 우런님아
(해다지고 저문날에.) 문어전복 손에들고 첩우집에²⁷⁸⁾ 놀러간다
(그래 찢더라.)

[금정구 민요 214]

시집살이 노래

정정석(여, 1928년생) 가창
2017년 2월 6일 채록
[장전1동 금정경로당]

(조사자 : 성아성아 사촌성아 시집살이 어떻더노.)
[말로 읊으며]
돌아가는 도래판에 수저놓기 어렵더라
중우벗은 시아자바이 (뭘.) 말하기가 어렵더라

[금정구 민요 215]

278) 첩의 집에.

모심기 노래

이애식(여, 1929년생) 가창
2017년 2월 6일 채록
[장전1동 장전1동경로당]

[말로 읊으며]

이물끼저물끼 혈어놓고 주인네양반 어디갔노 (이라고.)
문어야전복 예와들고²⁷⁹⁾ 첩우방에 놀러갔단다

모야모야 노랑모야 니언제커서 열매열꼬 (카면.)
이달크고 훗달크고 내훗달에 열매연다 (그란다.)

풍당풍당 찰수제비 사우야판에 다오르고
(또 뭐라던데.) (조사자: 우리 마누라는 어디 가고.) (그래.)
우리마누래 어델가고 (조사자: 딸에, 딸년을 동자를) 딸년동재를 맏기더니

낭창낭창 배리끝에²⁸⁰⁾ 울오랍아 (뭐라 카노?) (조사자: 무정하다 울오랍아.) (무정하다.) 무장하다
(조사자: 나도 죽어.) 나도죽어 신선되고 오빠는죽어 (뭐 되고. 그라더라.)

[금정구 민요 216]

사발가

이애식(여, 1929년생) 가창
2017년 2월 6일 채록
[장전1동 장전1동경로당]

석탄백탄 타는데는~ 연기만 (조사자: [노래로] 연기만 풍풍 나고요.) (맞다. 아이고!)
이내가슴 타는데는 연개도김도 안난다

[금정구 민요 217]

279) 손으로 감싸서 들고.
280) 벼랑 끝에.

백발가

이애식(여, 1929년생) 가창
2017년 2월 6일 채록
[장전1동 장전1동경로당]

이팔청춘 소년들아 백발보고 웃지마라
[말로 읊으며]
너저도 늙어지몬 백발이 앞에온다

[금정구 민요 218]

노랫가락[그네노래]

이애식(여, 1929년생) 가창
2017년 2월 6일 채록
[장전1동 장전1동경로당]

[말로 읊으며]
추천당 (조사자: 세모진 낭계.) 새모진낭계²⁸¹) 그네를밧어
니도뛰고 나도뛰고
(조사자: 임이 뛰면 내가 밀고.) 임이뛰면 내가밀고 내가뛰면 임이밀고
(그래 그렇다.) (조사자: 임아 임아 줄 살살.)
임아임아 정든임아 줄로살살 밀어주면
(저저 줄이 안 떨어지지.) (조사자: 줄 떨어지면.) (줄 떨어지면 정 떨어진다 한
다.)

[금정구 민요 219]

너냥 나냥

이애식(여, 1929년생) 가창
2017년 2월 6일 채록
[장전1동 장전1동경로당]

[조사자와 함께 가창하며]

281) 세모진 나무에,

너냥 나냥 두리둥실하고요
낮이낮이나 밤이밤이나 참사랑이로구나

[금정구 민요 220]

아리랑

이애식(여, 1929년생) 가창
2017년 2월 6일 채록
[장전1동 장전1동경로당]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임은
십리도 못가서 발병난다

[금정구 민요 221]

아기 어르는 소리[알강달강요]

이애식(여, 1929년생) 가창
2017년 2월 6일 채록
[장전1동 장전1동경로당]

알콩달콩 밤한톨을 껍질뺏겨 아빠주고
살키는 보니는뺏기가²⁸²⁾지주고
살키는 뺏기가 (지 묵는다 카더나?)

[금정구 민요 222]

화투타령[화투뒤풀이]

이애식(여, 1929년생) 가창
2017년 2월 6일 채록
[장전1동 장전1동경로당]

282) 보늬는 벗겨서.

(조사자: [노래로] 정월 솔가지 속속한 마음.)
[말로 읊으며]
이월매조에 맺이놓고
삼월사꾸라 산란한마음
사월흑싸리 흘여놓고
오월난초 나는나비
유월목단에 춤을치고
(그라대.) (조사자: 칠월.)
칠월칠석에 (무슨 달에 뵈이라 카는데.) (조사자: 팔월.)
팔월봉산에 달이밝고
구월국화 쓰러지라고
시월단풍 다떨어진다 (고.)

[금정구 민요 223]

아기 재우는 노래 [자장가]

이애식(여, 1929년생) 가창
2017년 2월 6일 채록
[장전1동 장전1동경로당]

자장자장 (조사자: 자장자장.)
우리애기 잘도잔다
(조사자: 또 그 다음에는?) (모르겠다.)
(조사자: 나라에는.) 충신이고
부모에게는 효도하고

[금정구 민요 224]

도라지 캐는 노래

이애식(여, 1929년생) 가창
2017년 2월 6일 채록
[장전1동 장전1동경로당]

도라지캐러 간다고

아장아장 걸어가고

[금정구 민요 225]

모심기 노래

홍희정(여, 1941년생) 가창
2017년 2월 7일 채록
[장전2동 벽산블루밍경로당]

이물끼저물끼²⁸³⁾ 다혈어놓고~ 주인네양반 어데갔노
이물 ([말을 바꾸어] 요거는 2절이거든.)
이물끼저물끼 다혈어놓고 처부야집에²⁸⁴⁾ 놀러갔다
(청중: “이 후후후~”, 이래 캐야지.)

(조사자: 모야 모야 노랑모야 니 언제 커서.)
모야모야 노랑모야~ 니언제커서 열매열래
이달크고 저달크고~ 칠팔월에 열매열지

[금정구 민요 226]

너냥 나냥

홍희정(여, 1941년생) 가창
2017년 2월 7일 채록
[장전2동 벽산블루밍경로당]

오동나무 열매는 알각달각하고요
큰애기 앞가슴은 몽실몽실하다
너냥 나냥 두리둥실놀고요
낮이낮이나 밤이밤이나 참사랑이로구나

오동나무 열매는 (고기 첫 머린데, 아까 큰 애기 그거부터 먼저 했다. 그거만 하고 끝을 내면 안 되나?) (조사자: 더 있는데 할머니.)

283) 이 물꼬 저 물꼬.

284) 첩의 집에.

오동나무 열매는 알각달각하고요
큰애기 젓가슴은 몽실몽실하다
(됐다. 인자.) (조사자: [노래로] 아침에 우는 새는. 맞지예?)
아침에 우는새는 님이기리워 (아이다.) 배가고파 울고요
저녁에 우는새는 님이기리워 운다
 너냥나냥 두리둥실 놀고요 [웃음]
 낮이낮이나 밤이밤이나 참사랑이로구나

(우리는 작곡 작사라. 우리가 하는 거는.)

서방님 드릴라꼬 호박을 삶았네
아차아차 생각하니 요강을 삶았네 [조사자 웃음]
 너냥 나냥 두리둥실 놀고요
 낮이낮이나 밤이밤이나 참사랑이로다

[금정구 민요 227]

사발가

홍희정(여, 1941년생) 가창
2017년 2월 7일 채록
[장전2동 벽산블루밍경로당]

석탄백탄 타는데 연기만 풍풍나고요
요내가슴 타는데 (뿜고?) (조사자: 연기도 김도.) 연기도짐도 안나네
(또 고 있다 아이가? 끝이. “연기도 짐도 안 나고.” 카고. 끝에도 뿜이 또 있는데
다 잇아뿜다. 다 잇아뿜다.)

[금정구 민요 228]

양산도

김순남(여, 1947년생) 가창
2017년 2월 7일 채록
[장전2동 GS금정아파트 경로당]

해명산천 물레방아는 물을안고 돌~고요

우리집에 저문디는²⁸⁵⁾ 나를안고 돈~다

[금정구 민요 229]

아기 재우는 노래[자장가]

김순남(여, 1947년생) 가창

2017년 2월 7일 채록

[장전2동 GS금정아파트 경로당]

자장자장 자장자장
우리아가 잘도잔다
앞집개야 짓지마라
우리아기 잠못잔다
(청중: “뒷집 개도 짓지 마라.” 캐야지.)
뒷집개도 짓지마라
우리아기 잠몬잔다²⁸⁶⁾
꼬꼬닭도 울지마라
우리아기 잠몬잔다
자장자장 자장자장
우리아가 잘자거라
(끝이다.)

[금정구 민요 230]

사발가

오옥분(여, 1941년생) 가창

2017년 2월 7일 채록

[장전2동 GS금정아파트 경로당]

석탄백탄 타는데 연기만퐁퐁 나고요
요내가슴 타는데는~ 연기도김도 안나네
에헤요 에헤이요~ 에헤라놀자~ 지화자좋~다

285) 저 문둥이는.

286) 잠 못 잔다.

니가내간장 스리간장을 다녹인다

[금정구 민요 231]

청춘가

오옥분(여, 1941년생) 가창

2017년 2월 7일 채록

[장전2동 GS금정아파트 경로당]

(청중: 돌려라 돌려라 청춘가 돌려라 함 해보소 형님아.) (같이 하요.)

돌려라 돌려라~ 청춘가를 돌려라~

(그 다음에 뭐고? 그거 우리 다 잊자뻘네.) (조사자: 청천하늘에.)

청천 하늘에 잔별도 많고요

요내 가슴에 좋~다 천심도 많더라

산이 높으면~ 골도 깊으제~

(쫘 해보소. 와들 안 하노? 형님아 한 번 해보자 내하고 같이. 꺼내봐 어서.) (청

중: 산이 높으면.) (청중: 조그만하이 여자숙이 얼마나 깊으랴.)

바람아 불어라~ 석달열흘만 불어라~

우리집 저잡놈이~ 고기잡이를 갔는데~ [청중 웃음]

[금정구 민요 232]

너냥 나냥

오옥분(여, 1941년생) 가창

2017년 2월 7일 채록

[장전2동 GS금정아파트 경로당]

너냥 나냥 두리둥실 하고요

낮이낮이나 밤이밤이나 참사랑이로구나

아침에 우는새는 배가고파울고요

저녁에 우는새는 님기리워운다

(조사자: [노래로] 우리집 신랑이 명태잡이를 갔는데.)

바람아 불어라 석달열흘만 불어라

[금정구 민요 233]

아리랑

정영실(여, 1933년생) 가창

2017년 2월 7일 채록

[장전2동 GS금정아파트 경로당]

아리랑 아리랑 아리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이렇게 다 부른다.) (조사자: 그 다음 가사는예?)
나를 버리고 가시는님은
십리도 못가서 발병난다

[금정구 민요 234]

아기 재우는 노래[자장가]

정영실(여, 1933년생) 가창

2017년 2월 7일 채록

[장전2동 GS금정아파트 경로당]

자장자장 자장자장
우리아기 잘도 잤나
멍멍개야 짖지마라
꼬꼬닭아 울지마라
우리아기 잠을 깼라
(이란다. 몰라 가사도 다 잊아뻘다.)

[금정구 민요 235]

너냥 나냥

안광희(여, 1936년생) 가창

2017년 2월 8일 채록

[장전3동 온천화목경로당]

(조사자: 너냥 나냥 이런 거 많이 하대에. 두리둥실 놓고요.)

낮이낮이나 밤이밤이나 참사랑이로구나
아침에 우는새는 배가고파 울고요
저녁에 우는새는 님이기리워 운다
(이래.) (청중: 그 노래는 요새도 해셨더라.)

니냥 내냥 두리둥실 놀고요
낮이낮이나 밤이밤이나 참사랑이로구나 (청중: 맞다.)
(조사자: 우리집 낭군님 명태잡이를 갔는데.)
바람아 강풍아 석달열흘만 불어라

[금정구 민요 236]

모찌는 노래

오상지(여, 1929년생) 가창
2017년 2월 8일 채록
[장전3동 온천화목경로당]

한강에다 모를부아 모찌기도 난감하네 (그리 카고.)
하늘에다 목화숨가²⁸⁷⁾ 목화따기도 난감하다

[금정구 민요 237]

모심기 노래

오상지(여, 1929년생) 가창
2017년 2월 8일 채록
[장전3동 온천화목경로당]

[말로 읊으며]
낭창낭창 베리끝에²⁸⁸⁾ 밀고가는 울오라바 [말을 바꾸어] 울오래비
나도죽어 남자되어 처자권속 심길라네

모시적삼 새적삼에 분통같은 저젓보소
마이보면 병날끼고 [청중 웃음] 좁쌀만치만 보고가소 (그런 거 있다. 그래.)

287) 목화 심어.

288) 벼랑 끝에.

물끼야청청 헐어놓고 주인네양반은 어데갔노 (카이)
문어야대장군 손에들고 첩우야집에 놀러갔다 (커대.)

찔레꽃은 장가가고 석류꽃은 요각²⁸⁹가네
만인간아 웃지마라 씨종자마련해가 간다

빈대벼룩 끓는방에 귀신걸은 저임보소 (카이, 그 카면서.)
한때두때 굶어나마 같은님을 만나주소

[금정구 민요 238]

쌍가락지 노래

오상지(여, 1929년생) 가창
2017년 2월 8일 채록
[장전3동 온천화목경로당]

[말로 읊으며]

은금은금 은가락지 쌍금쌍금 쌍가락지
호작질로 닦아내어
먼데보니 처잘레라 짚에보이 처잘레라
그쳐자 자는방에 숨소리도 다를레라
홍달바씨 오라바니²⁹⁰ 거짓말씀 말아주소
남풍이 디리부니²⁹¹ 풍지뜨는 소릴레라
죽고저라 죽고저라 댓잎걸은 칼을물고
죽고저라 죽고저라 엄마엄마 내죽거든
앞산에도 묻지말고 뒷산에도 묻지말고
연대밑에 묻어주소 연대꽃이 피거들랑
술한잔 끌러놓고 눈물한상 흘리주소

[금정구 민요 239]

사발가

289) 유곽(遊廓)가네.

290) 홍돌복숭 오라버니.

291) 들이부니.

윤차금(여, 1936년생) 가창
2017년 2월 8일 채록
[장전3동 장전3동할머니경로당]

석탄백탄 타는데는 연기만뽕뽕 나고요
요내가슴 타는데는 연기도짐도 안난다

[금정구 민요 240]

노랫가락[그네 노래]

윤차금(여, 1936년생) 가창
2017년 2월 8일 채록
[장전3동 장전3동할머니경로당]

추천당²⁹²⁾ 세모진나뭇가지 가지를 추천을매어
임이타면 내가나밀고 내가타면은 님이민다
임아임아 줄밀지말아 줄떨어지면은 정떨어진다

[금정구 민요 241]

양산도

윤차금(여, 1936년생) 가창
2017년 2월 8일 채록
[장전3동 장전3동할머니경로당]

영천읍내 물레방아 물을안고~ 돌고요
우리집 낭군은~ 나를안고 돈다

[금정구 민요 242]

너냥 나냥

윤차금(여, 1936년생) 가창
2017년 2월 8일 채록
[장전3동 장전3동할머니경로당]

292) 추천당.

너냥 나냥 두리둥실 놓고요
낮이낮이나 밤이밤이나 참사랑이로구나 [웃음]
(조사자: 아침에.) 우는새는 배가고파 울고요
밤중에 우는새는 님기러워서²⁹³⁾ 운다

너냥 나냥 두리둥실 놓고요
낮이낮이나 밤이밤이냥 참사랑이로구나
(조사자: 우리 집 낭군님은.) 명태배를 탔는데
바람아 강풍아 석달열흘만 불어라
너냥 나냥 두리둥실 놓고요
낮이낮이냥 밤이밤이냥 참사랑이로구나

[금정구 민요 243]

창부타령

윤차금(여, 1936년생) 가창
2017년 2월 8일 채록
[장전3동 장전3동할머니경로당]

(조사자: 노세 노세 젊어서 놀아.) (그거는 노랫가락.) (조사자: 늙어지면.)
늙어지면은 못노나니~
인생은 일장춘몽에 아니 놀지는 못하리라
(그건 그기 끝이고.)

[금정구 민요 244]

모심기 노래

구분택(여, 1946년생) 구술
2017년 1월 16일 채록
[청룡노포동 노포경로당]

이물기저물기²⁹⁴⁾ 다혈어놓고~ 주인네양반 어데갔소

293) 임이 그리워서.

물ैया전복²⁹⁵⁾ 손에들고~오 첩ैया집에 놀러갔다

풍당풍당 찰수지비²⁹⁶⁾~

(뭐라 카노?) (조사자: 사우야 판에.)

사우야판에 다올랐네²⁹⁷⁾

[금정구 민요 245]

이갈이 노래

이순옥(여, 1953년생) 구술

2017년 1월 16일 채록

[청룡노포동 노포경로당]

헌니 주께

새이 주가

[금정구 민요 246]

비 노래

이순옥(여, 1953년생) 구술

2017년 1월 16일 채록

[청룡노포동 노포경로당]

비야비야 오지마라

우리언니 시집간다

다홍치마 다젖으면

(아! 다홍치마 다 젖으면 뭐?) (조사자: 가마 문에 비 들치몬.) (아!)

가마문에 비들치면 (조사자: 다홍치마.)

다홍치마 다젖는다

[금정구 민요 247]

294) 이 물꼬 저 물꼬.

295) 문ैया 전복.

296) 찰수제비.

297) 사위 판에 다 올랐네.

모심기 노래

구덕자(여, 1948년생) 가창
2017년 1월 17일 채록
[청룡노포동 대룡경로당]

모야모야 노랑모야~ 니언제커서 열매맬래
이달크고 저달크고 내훗달에나 열매열래 (청중 일동: 여후~.)

낭창낭창 베리끝에²⁹⁸⁾ 무정하다 울오랍아 (우리 오랍아 이라는데. 울 오랍아.)
나는죽어서 연자가되여²⁹⁹⁾ [말로] (처마 끝?) 처자권석 섬겨볼래

(그레이 거기 생각이 안내.) (청중: 그래 뭐뭐 니도 눕고 나도 눕고 뭐 그것도 아
있니만.) (조사자: 청사초롱 불 밝히라.) (청중: 불 밝히라. 또 이런 거 있다.)

[금정구 민요 248]

화투타령

구덕자(여, 1948년생) 가창
2017년 1월 17일 채록
[청룡노포동 대룡경로당]

정월솔가지 속속한마음
이월매자에 맺어놓고
삼월사꾸라 산란한마음
사월흑싸리에 허사로다
오월난초 나비가되여
유월목단에 앉았구나
칠월홍돼지 홀로서누워
팔월공산에 놀러가자
구월국화 굳었던마음
시월단풍에 뚝떨어졌네
오동주야 달밤거든

298) 벼랑 끝에.

299) 연자(燕子)가 되어. 연자는 제비.

(청중: 긴긴 밤에.) 긴긴밤을 (뭘고? 뭇이고? 뭘 뭘 어째 됐노?) (조사자: 비가 올 때 우산 쓰고 뭘 어데 놀러가자 이라대.) (아, 우산 쓰고 놀러가자 겠나? 그거는 인자 뒤에는 모르요.)

[금정구 민요 249]

담배 노래³⁰⁰⁾

구덕자(여, 1948년생) 가창
2017년 1월 17일 채록
[청룡노포동 대룡경로당]

파랑새나 상록수나 파고다공원에서
금관담배 입에물고 사슴을 타고가네
아리랑 고개 넘어 진달래꽃밭에서 나비가 춤을 추네
백양아 풍년이 왔네 재건의 새나라

[금정구 민요 250]

창부타령

구덕자(여, 1948년생) 가창
2017년 1월 17일 채록
[청룡노포동 대룡경로당]

도라지평풍³⁰¹⁾ 미달이 방에
잠자는 처녀야 문열어라
니가 잘나 일색이나
내가 못나서 바보였나
얼씨구 좋다 지화자 좋아
아니 노지를 못하리라 (그런 노래 있대요.)

[금정구 민요 251]

300) 담배 이름을 가사에 넣어 부른 노래이다. 기존 노래에 가사를 바꾸어 부른 것으로 근대에 형성된 노래로 보인다.

301) 도라지평풍.

잠자리 잡는 노래

구덕자(여, 1948년생) 가창
2017년 1월 17일 채록
[청룡노포동 대룡경로당]

얹은배이 콩콩
진지배이 콩콩
불은자리 불어라
먼데가만 죽는다

[금정구 민요 252]

모찌기 노래

구말순(여, 1937년생) 가창
2017년 1월 17일 채록
[청룡노포동 대룡경로당]

쫓루자 쫓루자 이뭇자리를 쫓루자

[금정구 민요 253]

다리세기 노래

구말순(여, 1937년생) 가창
2017년 1월 17일 채록
[청룡노포동 대룡경로당]

이거리 저거리 갓거리
동사맨도 도맨도
도리쭈치 장뚝간
서울양반 대양반
전주댁 (뭘꼬?) (조사자: 전주댁이.)
전주댁이 열두번 (뭘, 뭘꼬? 잊어뿌 모르겠다.)

[금정구 민요 254]

춘향 노래

구말순(여, 1937년생) 가창
2017년 1월 17일 채록
[청룡노포동 대룡경로당]

포름포름 봄배추는 이대룡오기
(아, 그거.) (조사자: 봄이슬.) (맞아. 봄이슬. 아, 봄이슬.)
봄이슬오기만 기다리고
옥에갈힌 춘향이는 이대룡³⁰²⁾오기만 기다린다

[금정구 민요 255]

모심기 노래

구말순(여, 1937년생) 가창
2017년 1월 17일 채록
[청룡노포동 대룡경로당]

이물기저물기 다혈어놓고 주인양반만 기다린다
(조사자: 어데 갔노.) (어데 갔노. 혈어놓고 물길을. 혈어놓고 어데 갔노.) (조사자:
혈어놓고, 물길 혈어놓고 어데 갔노?)
(조사자: 문어 전복. 문어 전복 예와 들고, 첩의 방에 놀러갔네.)
(청중: 와 저 그거는 좋은 거는 첩 방에 또 가지고 가노?) [웃음]

[금정구 민요 256]

파랑새요

구말순(여, 1937년생) 가창
2017년 1월 17일 채록
[청룡노포동 대룡경로당]

새야새야 (니 해라 좀.) 파랑새야 녹두남게 앉지마라
녹두꽃이 떨어지면 청포장사 올고간다

302) 이도령.

[금정구 민요 257]

아리랑

구말순(여, 1937년생) 가창
2017년 1월 17일 채록
[청룡노포동 대룡경로당]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오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십리도 못가서 발-병난다

청천하늘에 잔별도 많고~
요내야 가슴에 수심도 많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오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금정구 민요 258]

너랑 나랑

구말순(여, 1937년생) 가창
2017년 1월 17일 채록
[청룡노포동 대룡경로당]

나랑너랑 두리둥실 놀고요
낮이낮이나 밤이밤이나 참사랑이로다

아침에 우는새는 배가고파 울구요
저녁에 우는새는 님그리워 운다
니랑내랑 두리둥실 놀구요
낮이낮이나 밤이밤이나 참사랑이로다

[금정구 민요 259]

도라지타령

구말순(여, 1937년생) 가창
2017년 1월 17일 채록
[청룡노포동 대룡경로당]

도라지 도라지 백도라~지
심~심 산천에 백도라지
한도³⁰³⁾ 뿌리만 캐여도~오
바구니 반실이 내놓힌다
 엥헤요 엥헤요 엥헤에요
 에야라 난다 지가지가자 좋다
 니가 내간장 스리슬슬 다놓힌다

[금정구 민요 260]

두꺼비집 짓기 노래

구말순(여, 1937년생) 가창
2017년 1월 17일 채록
[청룡노포동 대룡경로당]

(모래 손을 딱 열어놓고 요래 딱.)
뚜껑아 뚜껑아 (탁탁하이 뚜드린다 아입니까.)
헌집주께 새집 지아라 (이래 안 하나.)

[금정구 민요 261]

모심기 노래

문숙자(여, 1940년생) 가창
2017년 1월 17일 채록
[청룡노포동 대룡경로당]

풍당풍당 찰수제비~ 사우야판에 다올랐네
에미 (뭇뭇.) (조사자: 에미넨은 어데 가고.) 에미는 어데가고 (조사자: 딸에.) 딸애
동제를 [기억을 못해 말을 얼버무리며] 뭇뭇는고

303) 한두.

해다지고 저문날에~ 골골마다 연기나네
우리님은 어디가고~ 연개넬줄 모르는고 (이후후후 카고 이래.)

[금정구 민요 262]

창부타령(1)

문숙자(여, 1940년생) 가창
2017년 1월 17일 채록
[청룡노포동 대룡경로당]

아니 노지는 못하리라
갈방비 온다 갈바람 분다
뒷동산 풀잎이 춤잘춘다
니가 잘나서 춤잘추나
하느님 덕택을 춤잘추지
얼씨구 절씨구 지화자 좋네
아니 노지는 못하리라

[금정구 민요 263]

노랫가락

문숙자(여, 1940년생) 가창
2017년 1월 17일 채록
[청룡노포동 대룡경로당]

나비야 청산을가자 노랑나비야 너도가자
가다가 저무나거든 꽃잎속에나 자고가자

[금정구 민요 264]

노들강변³⁰⁴⁾

304) <노들강변>은 1930년대에 널리 유행한 신민요이다. 신불출 작사, 문호월 작곡, 박부용 노래로 1934년 오케레코드사에서 '창립 1주년 기념 특별호'라는 타이틀의 음반으로 발매되었다. 이후 여러 가수가 이 노래를 재취입했다. 일반 대중은 이 노래를 민요로 인식하고 있기에 채록했다.

문숙자(여, 1940년생) 가창
2017년 1월 17일 채록
[청룡노포동 대룡경로당]

노들강변에 봄버들 휘휘 늘어진 가지에다가
무정세월 한허리를 칭칭 놀면서 매어나볼까
 앵헤요 봄버들도 못믿으리로다
 흐르른 저기저물만 흘러흘러서 가노라

[금정구 민요 245]

태평가

문숙자(여, 1940년생) 가창
2017년 1월 17일 채록
[청룡노포동 대룡경로당]

닐리리야 닐리리야
니나노 난실로 내가 돌아간다
닐니 닐니리 닐니리야
청사초롱 불밝혀라~
잊었던 낭군이 다시 찾아온다
 닐니 닐니리 닐니리야

왜생겼나 왜생겼나
요다지 곧게도 왜생겼나
 닐니 닐니리 닐니리야

[금정구 민요 266]

창부타령(2)

문숙자(여, 1940년생) 가창
2017년 1월 17일 채록
[청룡노포동 대룡경로당]

석탄백탄 타는데 연기도풀독³⁰⁵⁾ 나오고

요내가슴 타는데 연기만김도 아니나네
얼씨구 절씨구 지화자 좋네
아니 노지는 못하리라

갈방비 온다 갈바람 분다
뒷동산 풀잎이 춤잘춘다
니가 잘나서 춤잘추나
하느님 덕으로 춤잘추지
얼씨구 절씨구 지화자 좋네
아니 노지는 못하리라

나물묵고 물마시고 팔을비고 누웠으니
대장군 살림살이 요만하면은 자족하지
얼씨구 절씨구 지화자 좋네
아니 노지는 못하리라

[금정구 민요 267]

권주가

문숙자(여, 1940년생) 가창
2017년 1월 17일 채록
[청룡노포동 대룡경로당]

(잡으시오 잡으시오 이술한잔을 잡으시오)³⁰⁵⁾
이술이 술이아니라 먹고놀자는 동백주요

[금정구 민요 268]

비 노래

문숙자(여, 1940년생) 가창
2017년 1월 17일 채록
[청룡노포동 대룡경로당]

305) “연기만 풀풀”을 부른다는 것이 2절의 “연기도 김도”의 가사와 헛갈려 “연기도 풀풀”과 같이 부르게 되었다.

306) 이 부분이 미처 녹음이 되지 않았다.

[말로 읊으며]

비야비야 오지마라

우리새이 시접간다 (뭐.) (조사자: 가마 문에 비 들치문.)

가매문에 비들치문

행주치마 얼룩진다 (조사자: 얼룩진다.) (얼룩진다.) (조사자: 그거 한 번 해보입시
더 그라문.)

비야비야 오지를마라 (또 뭐꼬?) (조사자: 우리 새이.) (아!)

우리언니 시접간다 (청중: 새이라 카지. 이전에는.) (새이.)

우리새이 시접간다

가매문에 비들치면

행주치마 (조사자: 다 젖는다.) [웃으며] 다젖는다

(조사자: 얼룩진다 해췄고.) (다 젖는다 카고 이란다.)

[금정구 민요 269]

달타령³⁰⁷⁾

문숙자(여, 1940년생) 가창

2017년 1월 17일 채록

[청룡노포동 대룡경로당]

달아달아 밝은달아 이태백이 놀던달아

저기저기 저달속에 계수나무 박했어러³⁰⁸⁾

옥도끼로 찍어내고 금도끼로 따듬어서³⁰⁹⁾

초가삼간 집을지아 (뭐이.)

초가삼간 집을짓고 (조사자: 천년만년.)

천년만년 살고집아 [말을 바꾸어] 살고지라 살고지라

천년만년 살고지라

307) <달타령>은 민요를 현대적으로 편곡한 신민요이다. 1960년대 이후 김부자 등 여러 가수가 취입하여 불렀다. 이 노래를 일반 민요로 인식하고 있기에 채록했다.

308) 박했어라.

309) 다듬어서.

[금정구 민요 270]

산비둘기 소리 흥내 노래

문숙자(여, 1940년생) 가창
2017년 1월 17일 채록
[청룡노포동 대룡경로당]

지집죽고 자석죽고³¹⁰⁾

내호무차³¹¹⁾ 어째살꼬

구구구구 구구구구

지집죽고 자석죽고

내혼차서 어째살꼬 (이라고, 그래 하더라. 그 전에.)

[금정구 민요 271]

꼬꾸랑 노래

김상금(여, 1935년생) 가창
2017년 1월 16일 채록
[청룡노포동 작장할머니경로당]

꼬꾸랑 짹대기를 째고

꼬꾸랑 길로 가다가

꼬꾸랑 똥을 놓았네

꼬꾸랑 땡땡 꼬꾸랑 땡땡 (이다. 그래 맞나?) (청중: 꼬꾸랑 길을 개가.) (아!)

꼬꾸랑 길을 가다가

꼬꾸랑 개가 꼬꾸랑 똥을 먹었는데

꼬꾸랑 짹대기가 때리주이

꼬꾸랑 깡깡 꼬꾸랑 깡깡

[금정구 민요 272]

310) 계집 죽고 자식 죽고.

311) 내 혼자(서).

창부타령

김상금(여, 1935년생) 가창
2017년 1월 16일 채록
[청룡노포동 작장할머니경로당]

사람마다 선비가되면
농부될이가 누있으면
의사마다 병다고치면
북망산천이 왜생겼나
 얼씨구나 좋다 지화자 좋네
 아니 노지를 못하리라

[금정구 민요 273]

모심기 노래

윤덕출(여, 1938년생) 가창
2017년 1월 16일 채록
[청룡노포동 작장할머니경로당]

이물기저물기 헐어놓고~ 주인네양반 어데갔노
문어야전복 헐어놓고 첩의집에 놀러간다

[금정구 민요 274]

청춘가

윤덕출(여, 1938년생) 가창
2017년 1월 16일 채록
[청룡노포동 작장할머니경로당]

청춘~ 하늘에~ 잔별도 많고요~오
요내야 가슴에~ 수심도 많더라~

2. 동래구 민요

[동래구 민요 1]

이같이 노래

박복자(여, 1941년생) 가창
2017년 2월 15일 채록
[명장1동 명장할머니경로당]

웃니빠진 개우지
아랫니빠진 소오지
뒷또라³¹²⁾ 가지마라
제비새끼 놀랜다 (이란다 아입니꺼.)

[동래구 민요 2]

잠자리 잡는 노래

박복자(여, 1941년생) 가창
2017년 2월 15일 채록
[명장1동 명장할머니경로당]

잠자리 꿈꿈
붙은자리 붙어라
먼데가몬 죽는다 (우리 그랬는데.)

[동래구 민요 3]

다리세기 노래

박복자(여, 1941년생) 가창
2017년 2월 15일 채록
[명장1동 명장할머니경로당]

이거리 저거리 갓거리

312) 뒷 도랑에. 도랑은 작은 개울을 말함.

동서맹글 또맹글
도리김치 담아서
니 한 그륵(그릇) 묵고
내 한 그륵 묵고 (그라고.)

[동래구 민요 4]

다리세기 노래

유말순(여, 1934년생) 가창
2017년 2월 15일 채록
[명장1동 명장할머니경로당]

이거리 저거리 갓거리
진도맹근 도맹근
짹발이 희양건
도래쭈치 장두칼

[동래구 민요 5]

창부타령[춘향 노래]

김지택(여, 1928년생) 가창
2017년 2월 15일 채록
[명장1동 옥봉경로당]

포롬포롬 봄배추는 찬이슬오도록 기다리고
옥에야간힌 춘향이는 이대룡³¹³⁾오도록만 기다리네

[동래구 민요 6]

창부타령(1) [춘향 노래]

변명임(여, 1941년생) 가창
2017년 2월 15일 채록
[명장1동 옥봉경로당]

313) 이도령.

[말로 읊으며]

포롬포롬 봄배추는 밤이슬오기만 기다리고
옥에갓힌 춘향이는 이을령³¹⁴이오기만 기다린다

[동래구 민요 7]

창부타령(2)

변명임(여, 1941년생) 가창
2017년 2월 15일 채록
[명장1동 옥봉경로당]

[말로 읊으며]

(거 들어옵서로.)
여시같은³¹⁵ 밀보시떡³¹⁶
이리차고 저리차고
밤잠자기도 어디한디 (죽었는디, 낮잠을 장께.)
낮잠이 웬말인가
사랑사랑 내사랑아
기생첩은 석달이고
장가첩은 백년이네
어이하여 죽었는가 (그거 그 소리 조금 노래는 알지.)

[조사자의 요청에 일부 가사를 노래로 부름]

사랑사랑 내사랑아
어이하여 죽었는가
장가첩은 백년인데
기생첩은 석달이요
어이하여 죽었는가 (그것이 아마 끝일거요.)

[동래구 민요 8]

양산도

314) '이도령'을 제보자가 '이을령'이라 했다.

315) 여우같은.

316) 밀보리떡.

변명임(여, 1941년생) 가창
2017년 2월 15일 채록
[명장1동 옥봉경로당]

함안산청 물레방아는 물을안고 도~오~돌고
우리집이 우리낭군 나를안고 돈다~아
에헤야라

에헤~헤~이~요~
세월아 봄철아 오고가지 말어~~라
아까운 내청춘 다놓어간다~ (아이 우리 제법 했는데, 잊어뿌렸어.)

[동래구 민요 9]

진도아리랑

변명임(여, 1941년생) 가창
2017년 2월 15일 채록
[명장1동 옥봉경로당]

아리 아리랑 스리 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응응응 아라리가 났네
강원도 논산은 얼마나 넓으아
남한일대 청년들을 다모셔 드느냐
아리 아리랑 스리 스리랑 아라리가 났네~~에
아리랑 응응응 아라리가 났네

넌보고 나를봐라 내가 널따러 가겠나
염분이³¹⁷⁾ 고와야 내가 널따러 간다

[동래구 민요 10]

강강술래

변명임(여, 1941년생) 가창
2017년 2월 15일 채록

317) 연분(緣分)이.

[명장1동 옥봉경로당]

강강술래
팔월이라 한가윗날
드높아서 해이에³¹⁸⁾ 걸고
강강술래
세원에서³¹⁹⁾ 털어입고
가사이다 가사이다
동무마중을 가사이다
동무마중 가사이니
우리벗들 나섬서로
손만잡고 강대하이네 (강강술래 이것은 미기는 노래, 미기는 노래여.)

[동래구 민요 11]

시집살이 노래

변명임(여, 1941년생) 가창
2017년 2월 15일 채록
[명장1동 옥봉경로당]

딸아딸아 막내딸아
하다용타³²⁰⁾ 하시길래
건네집이 혼사해서
시집가던 사흘만에
참깨닷말³²¹⁾ 몬깨³²²⁾닷말
은동이에 땀으라네
은동이에 땀아다가
은동으로 깨엿다소³²³⁾
시아버니 하신말씀

318) 해에.

319) 세원이 '서원(書院)'인지 불명확하다.

320) 하도 용하다.

321) 참깨 다섯 말.

322) '들깨'를 급하게 부르다 '몬깨'로 잘못 말한 것으로 봄.

323) 은동이를 깨엿소.

아강아강 메늘아가
건네집이 돌아가서
은동으로 사올려라
시어머님 하신말씀
아강아강 메늘아가
건네집이 돌아가서
시간살림 다팔아서
은동으로 사올려라
(그래 인제 아버지, 에 일러 치면 큰애기, 아버지, 아이 각시 아버지가 저게 머시
기.) 우리아버지 하신말씀 보던책을 (이!) [말을 바꾸어]
받은밥상 밀쳐놓고
먼산보고 탄식하고
우리어머니 하신말씀
жат던물레 젓쳐놓고³²⁴⁾
아흠폭 주름치마³²⁵⁾
눈물씻기 다쳐지고
우리오빠 하신말씀
보던책을 덮어놓고
야착하다 내동생아
못다게를 여웠구나
(인자 거 시누 올캐. 올캐.)
풀어노면 대자머리
박아노몬 애자머리
울산같이 집어영고
(옛날에 전라도는 여 그릇 얹은 것이 살강이라, 살강.)
살강머리 마주잡고
오동춤을 살짝친다
(인자 시누놀이를 하다 시집갔던가 보제이. 그랬던가.)
오동춤을 살짝친다.
에라요년 요망한년
너도삼년 살아봐라
나도삼년 그렇더라

324) 재쳐 놓고.

325) 아흠 폭 주름 치마.

(인자 올캐하는 소리가.)
누룩같이 디딜년아
마당같이 돌을년아
너도삼년 그렇디야
나도삼년 그렇더라
담안에라 화초심어
담밖에라 고추심어
고추화초 맵다한들
시누같이 매울소냐 (그 노래가 있어.)

[동래구 민요 12]

너냥 나냥

변명임(여, 1941년생) · 황순이(여, 1935년생) 가창

2017년 2월 15일 채록

[명장1동 옥봉경로당]

[변명임]

너냥 나냥 둘이둥실 너~냥
낮이낮이나 밤이밤이나 상사랑이로구나
아침에 우는새는 배가고파 울고요
저녁에 우는새는 임이그려 운다
[조사자가 “너냥 나냥”의 후렴을 계속 넣어 부르자 황순이 가창]
너냥 나냥 둘이둥실 놀고요
낮이밤이나 밤이밤이나 참사랑이로구나

[조사자가 앞 소절 “우리집”을 부르자 변명임 가창]

우리집때 서방님은 맹태잡이를 갔는데
바람아 불어라 석달열흘만 불어라

[동래구 민요 13]

모심기 노래

진삼순(여, 1932년생) 가창

2017년 2월 15일 채록

[명장1동 옥봉경로당]

물꼴랑 처렁청청 혈어놓고 주인네양반 어데갔노
등념에다 첩을두고 첩의집에 놀러갔네

유월달이 두달인가 첩을봐라 후채살지
구시월이 닥쳤는강 첩의생각 절로나네

모야모야 노랑모야 언제커서 열매열래
이달크고 훗달크고 칠팔월에 열매연다

모시야적삼 안섶안에 분통같은 저젓보소
그젓을한번 답삭쥐면 영길영천 귀양간다

[말로 읊음]

낭창낭창 저베루끝에 무정하다 울오빠야
나도죽어 저승가서 처자한번 섬길란다

[동래구 민요 14]

다리세기 노래

진삼순(여, 1932년생) 가창
2017년 2월 15일 채록
[명장1동 옥봉경로당]

이거리 저거리 갓거리
전두맹근 또맹근
도래쭈치 장두칼
수마이 동구시
끄 떡

[동래구 민요 15]

비 노래

진삼순(여, 1932년생) 가창

2017년 2월 15일 채록
[명장1동 옥봉경로당]

비야비야 오지마라
우리언니 시집갈때
가매꼭지 물드간다
다홍처매 얼룩지고 (뭘 어짜든동?) [웃음]

[동래구 민요 16]

이갈이 노래

진삼순(여, 1932년생) 가창
2017년 2월 15일 채록
[명장1동 옥봉경로당]

웃니 빠진 개오지
아랫니 빠진 개오지
우물가에 가지마라
송애³²⁶⁾새끼 놀랜다

[동래구 민요 17]

노랫가락[그네 노래]

황순이(여, 1935년생) 가창
2017년 2월 15일 채록
[명장1동 옥봉경로당]

(수천당)³²⁷⁾ 세모진남개³²⁸⁾ 오색당사실 그네를매여~
임이뛰면 내가나밀고 내가뛰면은 임이밀고~
임아임마 줄미지마라 줄떨어지면은 정떨어진다

326) 송어.

327) 미처 녹음이 되지 않은 부분이다. 흔히 '수천당'이라 하지만, 본래는 추천당(鞦韆堂)이다.
추천당은 그네를 띄는 장소를 말한다.

328) 세모(로) 난 나무에.

[동래구 민요 18]

사발가

황순이(여, 1935년생) 가창
2017년 2월 15일 채록
[명장1동 옥봉경로당]

석탄백탄 타는데~ 연기만풍풍 나고요
요내가슴 타는데 연기짐도 아니나네 [웃음]

[동래구 민요 19]

모찌기 노래

황순이(여, 1935년생) 가창
2017년 2월 15일 채록
[명장1동 옥봉경로당]

한강에다 모를숨귀 모찌기가 난감하니
하늘~에다 목화를숨귀 목화따기가 난감하네

[동래구 민요 20]

모심기 노래

김순조(여, 1935년생) 가창
2017년 2월 20일 채록
[명장2동 명장2동할머니경로당]

낭창낭창 베루끝에³²⁹⁾~ 무정하다 울오랍아
나도죽어 남자되어 처녀곤석³³⁰⁾ 심길라네³³¹⁾

모시적삼 안섶안에~ 분통같은 저젓보소
많이보면 병날끼고 쌀날마침³³²⁾ 보고가소

329) 벼랑 끝에.

330) 처자 권속.

331) 섬길라네.

[동래구 민요 21]

아기 어르는 노래[은자동아 금자동아]

김순조(여, 1935년생) 가창

2017년 2월 20일 채록

[명장2동 명장2동할머니경로당]

은자동아 금자동아
둥실둥실 금자동아
은을준들 너를살까
금을준들 너를살까
둥둥둥둥 둥굴레
둥실둥실 둥굴레
은자동아 금자동아
천상동 보배동아

[동래구 민요 22]

아기 재우는 노래[자장가]

김순조(여, 1935년생) 가창

2017년 2월 20일 채록

[명장2동 명장2동할머니경로당]

자장자장 우리애기
우리애기 잘도잔다
앞집개도 짓지말고
뒷집개도 짓지마라
자장자장 우리애기
잠도잘도 자는구나

[동래구 민요 23]

산비둘기 소리 흥내 노래

332) 쌀날만큼.

김순조(여, 1935년생) 가창
2017년 2월 20일 채록
[명장2동 명장2동할머니경로당]

구구구구
지집죽고 자석죽고
내호무차³³³⁾ 우째살고

[동래구 민요 24]

객귀 물리는 소리

김순조(여, 1935년생) 가창
2017년 2월 20일 채록
[명장2동 명장2동할머니경로당]

어허~헛세~
나 팔십 두, 세 살 묵는 김순조 일수가 사나봐서러
한발 내디디고 한발 더디디고 들우왔거들랑
한한 백이 밥강 뭐강 진수성상을³³⁴⁾ 한한 팩이 말았다
이 칼에 받아가 나가거라
만일에 이 밥에 안 받아 나가면
심실 뽕나무에다가 뽕나무 양젓물에다가
칭질 감애다가 폭~폭 삶아가
삼태 네거리에 갖다 퍼해쳐가
눈까리 뽕야이 해가
아무 천년에도 못 얻어 먹으이께네
빨리 받아 나가거라
헛~세~ 헛~세 헛~세 [청중 박수]

[동래구 민요 25]

권주가

김희순(여, 1938년생) 가창

333) 내 혼자.
334) 진수성찬을.

2017년 2월 20일 채록
[명장2동 명장2동할머니경로당]

잡으시오 잡으시오 이술한잔을 잡으시오
(물라요. 잊아뿌고.) (조사자: 이 술이 술이 아니라.)
이술이 술이아니라 먹고노자는 동백주라

[동래구 민요 26]

창부타령[춘향 노래]

김희순(여, 1938년생) 가창
2017년 2월 20일 채록
[명장2동 명장2동할머니경로당]

포름포름 봄배추는 찬이슬 오도록만 기다리고
옥에갓던 춘향이는 이대룡³³⁵⁾ 오도록 기다린다
얼씨구 좋다 기화자 좋아 아니 놀지는 못하리라

[동래구 민요 27]

화투타령

안상식(여, 1934년생) 가창
2017년 2월 20일 채록
[명장2동 명장2동할머니경로당]

정월이라 속속들인정
이월매조에 맺어놓고
삼월사쿠라 살란한 마음
사월흙사리로 흩어지네
오월난초에 놀던나비
유월목단에 다떨어진다
칠월홍돼지 홀로나누워
팔월공산을 구경하니

335) 이도령.

구월국화 만발한데
시월단풍에 다떨어진다
오동설산에 봉학이놀고
보원송리에 백학이논다
얼씨고 좋다 지화자 좋다 아니 놀지는 못하겠다

[동래구 민요 28]

모심기 노래

장순분(여, 1931년생) 가창
2017년 2월 20일 채록
[명장2동 명장2동할머니경로당]

[말로 읊으며]
타박타박 단발머리 해다진데 어데가노
올어머니 산소등에 젓묵으려 나는간다

[동래구 민요 29]

이갈이 노래

조갑선(여, 1934년생) 가창
2017년 2월 20일 채록
[명장2동 명장2동할머니경로당]

까치야 까치야
헌이는 니가가고³³⁶⁾
새이 날도가³³⁷⁾ (카고 지붕에 훌쩍 던진다 아입니꺼.)

[동래구 민요 30]

비 노래

조갑선(여, 1934년생) 가창
2017년 2월 20일 채록

336) 헌 이는 너 가져가고.

337) 새 이(는) 나를 달라.

[명장2동 명장2동할머니경로당]

비야비야 오지마라
우리언니 시집가는데
다홍치마 얼룩진다

[동래구 민요 31]

쌍가락지 노래

최임출(여, 1932년생) 가창
2017년 2월 20일 채록
[명장2동 명장2동할머니경로당]

쌍금쌍금 쌍가락지
호작질로 닦아내라
멀리보니 달일레라
잘해보니 (뭐라?) (조사자: 처잘래라.) 진달래라
그쳐녀가 사던방에
숨소리도 듣고짚고
말소리도 듣고 (잊어묵고 모르겠다.)
(조사자: 흥돌복숭 오라버니 거짓 말씀 하지 마소.) (예.) [웃음]
삼우에 핑근달아³³⁸⁾
핑근술이 홀라도라

[동래구 민요 32]

산비둘기 소리 흥내 노래

김상현(여, 1935년생) 가창
2017년 2월 20일 채록
[명장2동 세실경로당]

북구북구
지집죽고³³⁹⁾ 자석죽고

338) 풍경 달아.

호불애비³⁴⁰⁾ 우예사노 (카고 그래.)

[동래구 민요 33]

모심기 노래

김순옥(여, 1928년생) 가창
2017년 2월 10일 채록
[복산동 음성경로당]

낭창낭창 베리끝에~이³⁴¹⁾ 무정할사 울오랍아
나도죽어서 남자되어~이 처자부텀 섬길라네

모시야적삼 안섶안에~이 함박꽃이 봉지졌네
그꽃한쌍 딸라하니~ 호랑소리가 벽락갈네³⁴²⁾

물꼬야처정청 헐어놓고~이 주인양반 어디갔노
문어야전복을 예와들고~이³⁴³⁾ 첩의방에 놀러갔네

서월이라³⁴⁴⁾ 왕대밭에~이 금비둘기 알을낳어
그알하나 주우시면 금년과게는³⁴⁵⁾ 내할꺼구로

찔레야꽃은 장가가고 석류꽃은 유곽가네
만인간아 웃지마라~ 씨종재를³⁴⁶⁾ 바라간다

풍당풍당 수제비는~ 사우야판에 다올랐네
우리할맘 어디가고~이 딸애동자 시깃던고

해다지고 저문날에~이 우연상부가³⁴⁷⁾ 떠나가네

339) 계집 죽고.

340) 홀아비.

341) 벼랑 끝에.

342) 호령 소리가 벼락갈네.

343) (손으로) 감싸서 들고.

344) 서월이라.

345) 금년 과거는.

346) 씨종자를.

[동래구 민요 34]

모찌기 노래

김순옥(여, 1928년생) 가창
2017년 2월 10일 채록
[복산동 음성경로당]

한강에다 모를부어 모찌기도 난감하네
하늘에다 목화심어 목화따기가 애럽구나³⁴⁸⁾

[동래구 민요 35]

쌍가락지 노래

김순옥(여, 1928년생) 가창
2017년 2월 10일 채록
[복산동 음성경로당]

쌍금쌍금 쌍가락지
호작질로 닦아내어
먼데보니 달일레라
절에³⁴⁹⁾보니 처잘레라
그쳐자 자는방에
숨소리가 둘일레라
홍달바시 오라바시
거짓말씀 말아주소
동남풍이 들이부니
풍지떠는 소리로다

[동래구 민요 36]

비 노래

347) 원 상부(喪夫)가.
348) 어럽구나.
349) 곁에.

임순덕(여, 1936년생) 가창
2017년 2월 10일 채록
[복산동 음성경로당]

비야비야 오지마라
(가매 꼬....)
우리새이³⁵⁰⁾ 시집간다
(가매꼭지 얼릉지려고. 얼릉지고 이란다 우리는. 물 드간다 이래갓고.)
가매꼭지³⁵¹⁾ 물드간다
비단치매 얼릉지고³⁵²⁾

[동래구 민요 37]

다리세기 노래

임순덕(여, 1936년생) 가창
2017년 2월 10일 채록
[복산동 음성경로당]

이거리 저거리 갓거리
진주맹건 도맹건³⁵³⁾
짹발이³⁵⁴⁾ 휘양근³⁵⁵⁾
도래춤치³⁵⁶⁾ 장도칼

[동래구 민요 38]

아기 어르는 노래[불매소리]

정인열(여, 1933년생) 가창
2017년 2월 10일 채록

350) 우리 형. 여기서 ‘형’은 언니.

351) 가매 꼭지.

352) 비단치마 얼룩지고.

353) 진주 망건 도 망건.

354) ‘뚝 바르게’의 경상도식 어휘인 “짹 바리”로 해석하기도 한다.

355) 휘양건(揮揚巾). ‘휘양건’은 무관이나 병졸들이 목을 보호하기 위해 머리에서부터 쓰는 방호용 쓰개를 말한다.

356) 도래주머니.

[복산동 음성경로당]

불매³⁵⁷⁾불매 불매야
어느불매가 여기왔노
경상도 대불매 (그렇다.)
[웃으며]
불어라 불어라
불딱딱 [웃음]

[동래구 민요 39]

아기 어르는 노래[알강달강요]

정인열(여, 1933년생) 가창
2017년 2월 10일 채록
[복산동 음성경로당]

알강달강 알강달강
서울가신 선비님이
밤한대를 주아다가
살강밑에 묻어놓고
머리카만 새앙쥐가
오몬가몬³⁵⁸⁾ 다까묵고
다문한개 남안거로³⁵⁹⁾
껍데기는 할배주고 (조사자: 보늬는?)
알맹이는 니캉내캉 갈라묵자

[동래구 민요 40]

아기 재우는 노래[자장가]

정인열(여, 1933년생) 가창
2017년 2월 10일 채록
[복산동 음성경로당]

357) '풀무'의 방언.
358) 오며 가며.
359) 다만 한 개 남은 것을.

자장자장 자장자장
우리아기 잘도잔다
멍멍개야 짖지마라
꼬꼬달아³⁶⁰⁾ 울지마라
우리아기 잘도잔다

[동래구 민요 41]

산비둘기 소리 흥내 노래

정인열(여, 1933년생) 가창
2017년 2월 10일 채록
[복산동 읍성경로당]

기집자석 다골루고³⁶¹⁾
내호무차³⁶²⁾ 우째살고
구구구구 구구구구

[동래구 민요 42]

모심기 노래

박정숙(여, 1942년생) 가창
2017년 2월 10일 채록
[복산동 학산경로당]

(조사자: 낭창낭창 벼랑 끝에 무정하다 울 오랍아.) 무정하도다 울오라배³⁶³⁾
나도야죽어 후생가서 낭군님만나서 살아보세

물끼야청청³⁶⁴⁾ 혈어놓고~ 진네양반은³⁶⁵⁾ 어덜로갔노
문어야전복 손에들고~ 첩의집으로 놀러갔다

360) 꼬꼬달아.

361) 계집 자식 다 (배를) 골리고.

362) 내 혼자(서).

363) 우리 오라버니(오빠).

364) 물꼬야 청청.

365) 주인네 양반은.

해다지고 저문날에~ 어는행상이 떠나가네
이태백이 본처죽어~ 이별행상이 떠나간다

해다지고 저문날에~ 골목골목이 연기나네
우리야임은 어디가고~ 연기낼줄을 모르는고

오면가면 빛만뵈고~오³⁶⁶) 대장부간장을 다눕인다
(우리는 그래 부르는, 부르는 그리. 오 그거.) (조사자: 혹시 받는 소리 기억나는
교?) (고것도 받는 소리, 처음, 이기, 이기 인자 받는 소린데, 처음에는 “농자농자
그물농자 저게 우물가에다 그물로 놓자”, 인자 그래가 안자, “잘고 잔 처녀는 다
빠지고 알배기 처녀만 걸리주소”, 인자 이래 하고 뒤에 또 그래 “오몬 가몬 빛만
뵈고 대장부간장을 다눕인다.” 카모 그래 하는데.)

[동래구 민요 43]

청춘가

박정숙(여, 1942년생) 가창
2017년 2월 10일 채록
[복산동 학산경로당]

청춘가를 돌려라~아
하기좋고 듣기좋은 청춘가 돌려라

[동래구 민요 44]

모심기 노래

반득연(여, 1933년생) 가창
2017년 2월 10일 채록
[복산동 학산경로당]

아래웃논 모꾼들아 춘삼월이 어느때냐
(한 사람이 이래 하몬, 한 사람이 받아갖고.)

366) 빛만 보이고.

우리님은 어디가고 춘삼월로 모리는고

[동래구 민요 45]

다리세기 노래

반득연(여, 1933년생) 가창
2017년 2월 10일 채록
[복산동 학산경로당]

이거리 저거리 갓거리
진주맹건 또맹건³⁶⁷⁾
갓거리 비양근³⁶⁸⁾
도루매줍치³⁶⁹⁾ 장꼬방³⁷⁰⁾

[동래구 민요 46]

노랫가락[그네 노래]

반득연(여, 1933년생) 가창
2017년 2월 10일 채록
[복산동 학산경로당]

추천당 시모시낭계³⁷¹⁾ 오색당사실 줄을매어
임이타면 내가나밀고 내가타면은 임이밀고
임아임아 줄미지마라 줄떨어지면은 정떨어진다

[동래구 민요 47]

비 노래

반득연(여, 1933년생) 가창
2017년 2월 10일 채록
[복산동 학산경로당]

367) 진주 망건 도 망건.

368) 휘양건(揮項巾).

369) 도래주머니.

370) 장독대의 전라도 방언.

371) 추천당 세모진 나무에.

비야비야 오지마라
우리 (우리 새이가? 아! 우리, 우리.)
우리언니 시집간다
가매꼭지 물드가면
곱은옷에 얼룩진다

[동래구 민요 48]

산비둘기 소리 흥내 노래

반득연(여, 1933년생) 가창
2017년 2월 10일 채록
[복산동 학산경로당]

지집죽고 자식죽고
내혼자서 우찌살꼬
구구구구

[동래구 민요 49]

이 빠진 아이 놀리는 노래[결치 노래]

반득연(여, 1933년생) 가창
2017년 2월 10일 채록
[복산동 학산경로당]

웃니빠진 개오지³⁷²⁾
새미가³⁷³⁾ 가지마라
빈대한테 뽀뽀맞는다

[동래구 민요 50]

잠자리 잡는 노래

반득연(여, 1933년생) 가창

372) 새끼 호랑이를 지칭하는 방언.
373) 샘(우물) 가에.

2017년 2월 10일 채록
[복산동 학산경로당]

공돌아 공돌아
(앉인 자.) 앉인자리 붙어라
먼데가몬 죽는다

[동래구 민요 51]

창부타령

반득연(여, 1933년생) 가창
2017년 2월 10일 채록
[복산동 학산경로당]

시들사들 봄배추는 봄비오기만 기다리고
옥에갇힌 열녀춘향 이도령³⁷⁴오기만 기다린다
열씨구나 좋다 정말로 좋네 태평성제가 여기로다

곰돌아~ 금강산은 들어갈수록 갱치³⁷⁵좋고
너와나와 단둘이몸은 살아갈수록 정만든다
열씨구나 좋다 기화자 좋네 아니 노지는 못하리라

[동래구 민요 52]

청춘가

반득연(여, 1933년생) 가창
2017년 2월 10일 채록
[복산동 학산경로당]

세월아~ 봄철아~아 오고가지를 말어라~아
아깝다 내청춘 좋~다 다늬어 갔구나~

세월이~ 가기느~은 바람길 같고요~오

374) 이도령.

375) 갱치.

우리야 청춘은 좋~다 물길과 같구나~

[동래구 민요 53]

화투타령

반득연(여, 1933년생) 가창
2017년 2월 10일 채록
[복산동 학산경로당]

이월맷대에 뗏어놓고
삼월사꾸라 산란한마음
사월흑싸리 허송세월
오월난초 나는나비
유월목단에 춤잘춘다
칠월홍사리 홀로누워
팔월공산에 달도밝다
구월국화 굳었던마음
시월단풍에 다떨어졌네
동지오동 뗏은열매
섣달비에 다녹았다

[동래구 민요 54]

파랑새요

손순덕(여, 1931년생) 가창
2017년 2월 15일 채록
[사직1동 사직1동경로당]

[말로 읊으며]
새야새야 파랑새야 녹디나무에³⁷⁶⁾ 앉지마라
녹디꽃이 떨어지몬 청포장사 울고간다

[동래구 민요 55]

376) 녹두 나무에.

노들강변

손순덕(여, 1931년생) 가창
2017년 2월 15일 채록
[사직1동 사직1동경로당]

노들~강변 봄버들~ 히히늘어진 가지들아
무정~세월~ 하늘~이요 친친돌려서 매자나볼까
에헤에~요~ 에헤에~요~ 봄버~들도 (아이구! 숨 차라. 몬 하겠다.) 못믿으리라
불언적이 저물~만 흘러~흘러서~ 가노~라³⁷⁷⁾
(아이고! 나 이제 모르겠다.)

[동래구 민요 56]

다리세기 노래[이거리 저거리 갓거리]

손순덕(여, 1931년생) 가창
2017년 2월 15일 채록
[사직1동 사직1동경로당]

이거리 저거리 갓거리
진주맹근 또맹근³⁷⁸⁾
짹바리 해양근³⁷⁹⁾

[동래구 민요 57]

화투타령[화투뒤풀이]

임정옥(여, 1926년생) 가창
2017년 2월 15일 채록
[사직1동 사직1동경로당]

377) 가사 일부를 잘 못 불렀다. 원래 가사는 “노들강변 봄버들 휘휘 가지에다가 무정세월 한 허리를 칭칭 동여 매여나 볼까 에헤요 봄버들도 못 믿을 이로다 푸르는 저기 저 물만 흘러 흘러서 가노라.”다.

378) 진주 망근 도 망근.

379) 휘양건(揮揚巾). 조선시대 남성들이 추위를 막기 위해 썼던 모자의 일종으로 형겅으로 만 들었다.

[말로 읊으며]

정월솔가지 속속한내마음

이월매자에 맺아놓고

삼월사꾸라 산란한내마음

사월흑싸리 흠어지고

오월난초 나비가되어

유월목단에 춤잘춘다

칠월홍단에 홀로누워

팔월공산에 달도보다

(그리고 뭐 끝에는 뭐.) (조사자: 구월은 안 하십니까? 구월 국화.)

구월국화 굳어난마음

시월단풍에 떨어져서

[동래구 민요 58]

너냥 나냥

박수연(여, 1935년생) 가창

2017년 2월 15일 채록

[사직1동 석사경로당]

[청중들이 함께 부르며]

너냥 나냥 두리둥실 놀고요

낮이낮이나 밤이밤이나 참사랑이로~구나

아침에 우는새는 배가고파 울고요

저녁에 우는새는 임이그리워 운다

너냥 나냥 두리둥실 놀고요

낮이낮이나 밤이밤이나 참사랑이로~구나

우리집 서방님 명태잡이를 갔는데

바람아 강풍아 석달열흘만 불어라 (죽어라고 그라는 거라.)

[동래구 민요 59]

다리세기 노래[이거리 저거리 갓거리]

박수연(여, 1935년생) 가창

2017년 2월 15일 채록
[사직1동 석사경로당]

이거리 저거리 갓거리
동사맨금 도맹금
도래쭈치 장두깁
정두머리가 살이야

[동래구 민요 60]

쌍가락지 노래

박수연(여, 1935년생) 가창
2017년 2월 15일 채록
[사직1동 석사경로당]

[말로 읊으며]
쌍금쌍금 쌍가락지 호작질로 닦아내어
먼데보니 달일레라 짚에보니³⁸⁰⁾ 처잘레라
그쳐자 자는방에 숨소리도 들을레라³⁸¹⁾

[동래구 민요 61]

진주난봉가

박수연(여, 1935년생) 가창
2017년 2월 15일 채록
[사직1동 석사경로당]

올도담도 없는집에 시집살이를 살고나니
시어머니 하시는말씀 야야아가 며늘아야
진주남군을 불러거든 진주가에³⁸²⁾ 빨래가라
[청중들이 함께 읊조리며]
진주남강에 빨래가니 날도 좋고 물도 좋고

380) 옆에 보니.

381) 둘일레라.

382) 진주강을 잘못 발음함. 일반적으로 진주남강이라 함.

(청중: 흰 빨래는 희게 씻고 검은 빨래 검게 씻고.)

[동래구 민요 62]

모심기 노래

설복선(여, 1932년생) 가창
2017년 2월 15일 채록
[사직1동 석사경로당]

이물끼저물끼 헐어놓고 주인네양반 어데갔노 (청중: 그래.)
문어야전복 에와들고 첩의야방을 놀러갔다 (청중: 그래 그래.)

[동래구 민요 63]

사발가

신금휴(여, 1933년생) 가창
2017년 2월 15일 채록
[사직1동 석사경로당]

석탄백탄 타는데~ 연기만퐁퐁 뜨고요
요내가슴 타는데~ 연기도짐도 안나네

[동래구 민요 64]

청춘가

안순재(여, 1932년생) · 이명숙(여, 1936년생) 가창
2017년 2월 15일 채록
[사직1동 석사경로당]

[이명숙]

좋구나 동경이~ 얼마나 좋건데~
꽃같은 나를두고~ 좋~다 연락산³⁸³⁾ 타느냐~

간다 못간다~ 얼마나 울었던지~

383) 연락선.

정거정 마당에~ 한강수 되노라~

청춘 하늘에~ 잔별도 많고요~
우리에 살림살이~ 좋~다 잔말도 많더라~

[안순재]
술과 담배는~ 내심중을 알구만은~
한품에 잠든님은~ 좋~다 내심중 몰라주네~

[이명숙]
술은 술술이~ 잘넘어 가고요~
찬물아 냉수는~ 좋~다 입안에 뱅뱅돈다~

[안순재]
산이 높아야~ 골고나 깊지요~
쪼끄만은 여자속이~ 좋~다 얼마나 깊을쏘나

[이명숙]
담배 쪽쪽히~ 정들서 놓고요~
이별이 잣아서~ 좋~다 내뭇살리로나~

[안순재]
산은 내산이지만은~ 물은내물이 아니로세~
주와장창³⁸⁴⁾ 흐르난물을~ 내물이라고 할수있나~ (청중: 좋다!)

[동래구 민요 65]

남녀연정요

안순재(여, 1932년생) 가창
2017년 2월 15일 채록
[사직1동 석사경로당]

빨래하니³⁸⁵⁾

384) 주야장창을 잘못 말함.

서울갔던 권도령이 화살걸은 굽은길에
 비우겔은³⁸⁶⁾ 말을타고 어서배뻘 후차오네³⁸⁷⁾
 태수각을³⁸⁸⁾ 내라줍서
 떠서주소 떠서주소 도랑냉수 떠서주소
 도랑³⁸⁹⁾언제 날봤다꼬 도랑냉수 떠서줄꼬
 하고나서 돌아보니 비단줍치³⁹⁰⁾ 흘렀구나
 한손으로 주운편지 두손으로 피어보니
 내가고 삼일만에 저건네라 저버들이
 한가지가 죽거들랑 뺑난줄을 알아여라
 두가지가 죽거들랑 날죽은줄 알아여라
 그리하고 삼일만에 저건네라 저버들이
 가지가지 죽어오네

[동래구 민요 66]

노랫가락 차차차³⁹¹⁾

이명숙(여, 1936년생) 가창
 2017년 2월 15일 채록
 [사직1동 석사경로당]

[청중들이 함께 가창하며]
 노세노세 젊어서놀아 늙어지면 못노나니
 화무는 십일홍이요 달도차면 기우나니라
 열씨구 절씨구 차차차
 지화자 좋구나 차차차
 만화방창 사계절에 아니 노지는 못하리라 차차차
 (인자 됐다.)

385) 사설 앞 부분을 여러 청중들이 제각기 사설을 읊어 제보자의 사설을 알아들을 수 없음.

386) 비우(飛羽)같은. 새의 깃털을 단 듯 빨리 달린다는 의미.

387) 쫓아오네.

388) 뜻을 알 수 없음.

389) 도령.

390) 비단으로 만든 주머니.

391) 제보자가 가창한 노래는 1962년에 발표된 김영일 작사 김성근 작곡 신민요 ‘노랫가락 차차차’이다.

[동래구 민요 67]

너냥 나냥

이명숙(여, 1936년생) 가창
2017년 2월 15일 채록
[사직1동 석사경로당]

너냥 나냥 두리둥실 하고요
[청중들이 함께 가창하며]
낮이낮이나 밤이밤이나 참사랑이로구나
아침에 우는새는 배가고파 울고요
저녁에 우는새는 임이그리워 운다

[동래구 민요 68]

다리세기 노래[이거리 저거리 갓거리]

이명숙(여, 1936년생) 가창
2017년 2월 15일 채록
[사직1동 석사경로당]

이거리 저거리 갓거리
동사맹금 도맹금³⁹²⁾
도리쭈치³⁹³⁾ 장두칼

[동래구 민요 69]

구멍타령

이명숙(여, 1936년생) 가창
2017년 2월 15일 채록
[사직1동 석사경로당]

뒷동산 딱따구리는 나무를 잘뚫는데
우리집에 저문디는 뚝은구녕도 못한다 [일동웃음]

392) 동사 망근 도 망근.

393) 동그랗게 생긴 주머니.

[동래구 민요 70]

양산도

이명숙(여, 1936년생) 가창
2017년 2월 15일 채록
[사직1동 석사경로당]

에헤~이요~

[청중들이 함께 가창하며]

양산읍내 물레방아 물을안고 돌~고
우리집에 저문디는 나를안고 돈~다

[동래구 민요 71]

모심기 노래

이정자(여, 1937년생) 가창
2017년 2월 15일 채록
[사직1동 석사경로당]

[말로 읊으며]

서마지기 논뻘미가 반달같이 떠나가네
지가무슨 반달인가 초생달이 반달이지

하늘이라 목화심어 목화따기 난감하요
저승길에 부모잃고 부모찾기 난감하다

풍당풍당 수제비 (청중: 풍땅풍당 찰수제비 사우야 상에 다 올랐네.) 사우상에 다 올랐네

요놈우할마시 어디가고 딸을동자 시키는가 [웃음]

서마지기 모를심어 금실금실 영화로다
우리부모 산소등에 술을심어 영화로다

해다지고 저문날에 이별상부³⁹⁴가 떠나가네

이태백이 첩을두고 본처죽은 상부로다

(조사자: 물꼬야 청청.)

물꼬야청청 헐어놓고 주인한량 어디갔노
이태백이 첩을두고 첩우방에 놀러갔다

무슨정이 그리있어 밤에가고 낮에가노
낮으로는 놀러가고 밤으로는 자러가요

다풀다풀 다박머리 해다진데 어디가노
우리부모 산수등에 젓먹으러 내가간다

갈떡³⁹⁵⁾에는 개가짓고 올떡에는 닭이우네
개야개아 짓지마라 밥상받아 니주꾸마
닭아닭아 울지마라 금쌀받아 니주꾸마

모야모야 나락모야 니운제커서 열매열래
이달가고 훗달가고 칠팔월에 열매열지

저기가는 저구름에 눈실었나 비실었나
눈도비도 아니실리고 소리명창을 내실었다

모시적삼 안섶안에 함박꽃이 봉지졌네
그꽃한쌍 날렸으면 백년언약을 맺을거로

포롱포롱³⁹⁶⁾ 봄배추는 봄비오기만 기다리고
우리집에 우런님은³⁹⁷⁾ 날오도록만 기다리네

[동래구 민요 72]

모심기 노래³⁹⁸⁾

394) 상부(喪夫).

395) 갈 때에는.

396) 파릇파릇.

397) 우리 님은.

이정자(여, 1937년생) 가창
2017년 2월 15일 채록
[사직1동 석사경로당]

늦었네 늦었네 점심참이가³⁹⁹⁾ 늦었네
뒷동산 모랭이⁴⁰⁰⁾ 도니라꼬⁴⁰¹⁾ 늦었나

늦었네 늦었네 점심참이가 늦었네
다같이 죽반에 세나라고 늦었나

늦었네 늦었네 점심참이가 늦었네
손가락 단반에 세나라고 늦었나

늦었네 늦었네 점심참이가 늦었네 (청중: 문자도 많네.)
행주치마 걸쳐입고 끄니라꼬 늦었나

[동래구 민요 73]

시집살이 노래

이정자(여, 1937년생) 가창
2017년 2월 15일 채록
[사직1동 석사경로당]

성아성아 사촌형아 시집살이 우뚝더노
시집살이 좋더만은
쪼끄만한 웅덩샘이 물퍼기도 어렵더라
도래납작⁴⁰²⁾ 수박개우⁴⁰³⁾ 밥담기도 어렵더라
중우벗은⁴⁰⁴⁾ 시아지비 말하기도 어렵더라

398) 제보자는 모심기 노래라 하며 타령조로 가창했다. '점심소리'로 부르는 것이다.

399) 점심참이.

400) 모퉁이의 방언.

401) 도느라고.

402) 둥글 납작. 둥글고 납작한 형태를 말함.

403) 수박 식기(食器).

404) 중의(中衣) 벗은.

[동래구 민요 74]

모심기 노래

이정자(여, 1937년생) 가창
2017년 2월 15일 채록
[사직1동 석사경로당]

낭창낭창 배리끝⁴⁰⁵에 무정하다 저오랍아
나도죽어 혼자되어 처자갱신⁴⁰⁶을 심겨볼래
울오래비가 날꺾졌나 수양버들이 날꺾졌지

[동래구 민요 75]

권주가

이정자(여, 1937년생) 가창
2017년 2월 15일 채록
[사직1동 석사경로당]

잡으시오 잡으시오 이술한잔 잡으시오
(사우로 보고 장모가 하는 기라.)
[청중이 함께 가창하며]
이술이 술이아니라 한번놀자는 술이로다
[말로 읊으며]
함모종 심모반에 이슬받은 술이오니
이술한잔 잡수시고
자네잔은 내딸주고 내딸잔은 자네하게
(이라면서 준다.)

[동래구 민요 76]

쌍가락지 노래

이정자(여, 1937년생) 가창
2017년 2월 15일 채록

405) 벼랑 끝에.

406) 처자 권속을 잘못 말함.

[사직1동 석사경로당]

[말로 읊으며]

쌍금쌍금 쌍가락지 호작질을⁴⁰⁷⁾ 닦아내어
먼데보니 달일레라 옆에보니 처녀레라
그처녀는 자는방에 숨소리가 돌일레라
홍달반달⁴⁰⁸⁾ 오랍아씨⁴⁰⁹⁾ 거짓말씀 하지마소

[동래구 민요 77]

노랫가락[그네 노래]

이정자(여, 1937년생) 가창
2017년 2월 15일 채록
[사직1동 석사경로당]

[말로 읊으며]

추천당 새모진낭게⁴¹⁰⁾ 오색당사실 그네를매어
임이뛰면 내가밀고 내가뛰면 임이밀고
임아임아 줄잡지마라 줄떨어지면 정떨어진다

[동래구 민요 78]

사발가

이정자(여, 1937년생) 가창
2017년 2월 15일 채록
[사직1동 석사경로당]

[말로 읊으며]

석탄백탄 타는데 연기만 풍풍나는데
요내가슴 타는데는 연기도짐도 아니나네 [웃음]

407) 호작질은 심심풀이로 손을 놀리어 하는 장난을 말함.

408) '홍돌복숭'이라고도 함.

409) 오라버니.

410) 세모난 나무.

[동래구 민요 79]

청부타령

김복순(여, 1928년생) 가창
2017년 2월 16일 채록
[사직2동 사직2동경로당]

백설같은 흰나비는~ 부모님 몽상을 입었는가
소복단장 곱게하고~ 짚다리밭으로 날아간다
니나노~ 얼씨구 절씨구 [웃음] 니나노~ [웃음] (아이고 몰라요.)

[동래구 민요 80]

백발가

김복순(여, 1928년생) 가창
2017년 2월 16일 채록
[사직2동 사직2동경로당]

이팔청춘 소년들아 백발보고 웃지를말어라
나도어제같이 청춘이디 백발되기가 잠깐일쎄

[동래구 민요 81]

성주풀이⁴¹¹⁾

김복순(여, 1928년생) 가창
2017년 2월 16일 채록
[사직2동 사직2동경로당]

저건너 잔솔밭에 솔솔기는~ 저포수야
저산비둘기 잡지마라 저산비둘기 나와같이도
임을잃고 임을찾아 해매노~라
에라 만수~ 에라 대신이야 [웃음]

낙양산 십리하에 높고낮은~ 저무덤에

411) 무가 성주풀이에서 파생된 민요다.

영웅호걸이 몇몇이며 절세가인이 그누구나
우리네 인생 한번 가~면 저모양이~ 될터이니
에라 만수~ 에라 대신이야

[동래구 민요 82]

너냥 나냥

김복순(여, 1928년생) 가창
2017년 2월 16일 채록
[사직2동 사직2동경로당]

(조사사: 너냥 나냥 둘이 등실 놓고요.)
낮이낮이나 밤이밤이나 참사랑이로구나
아침에 우는새는 배가고파 울고요
저녁에 우는새는~ 임이기리워⁴¹²⁾ 운다
나냥 너냥 두리등실 놓고요
낮이낮이나 밤이밤이나 참사랑이로구나

[동래구 민요 83]

화투타령[회투뒤풀이]

조연이(여, 1931년생) 가창
2017년 2월 16일 채록
[사직2동 사직2동경로당]

정월술가지 속속한마음
이월매조에 맺어놓고
삼월사쿠라 산란한마음
사월흑싸리 흩어놓고
오월난초 나는나비
유월목단에 똑떨어졌네
칠월홍돼지 홀로누워
팔월공산에 달이떴다

412) 임이 그리워.

구월국화 굳었던마음
시월단풍에 똑떨어졌다

[동래구 민요 84]

모심기 노래

조연이(여, 1931년생) 가창
2017년 2월 16일 채록
[사직2동 사직2동경로당]

모시아적삼 안섰안에~ 분통같은 저젓바라
많이보면 병날끼고~ 쌀날만치⁴¹³⁾ 보고가소 (그기 끝이다.)

[동래구 민요 85]

너냥 나냥

김옥구(여, 1936년생) 가창
2017년 2월 16일 채록
[사직2동 사직한신경로당]

우리집에 서방님은 고기낙이를 갔는데
바람아강풍아 석달열흘만 불어라 (청중: 고마 죽어빠라고 안 그라나.)
너냥 나냥 두리둥실 놀고요
낮에낮이나 밤이밤이나 참사랑이로구나

(조사자: 아침에 우는 새는.) 배가고파 울고요
저녁에 우는새는 임이기리워 운다
나이냥 너이냥 두리둥실 놀고요
낮이낮이나 밤이밤이나 참사랑이로구나

[동래구 민요 86]

연정 노래⁴¹⁴⁾

413) 쌀날 만큼.

414) 일제강점기에 불렀던 노래로 창가조로 가창했다. 노래 제목은 알지 못 했으나 청중들도

김옥구(여, 1936년생) 가창
2017년 2월 16일 채록
[사직2동 사직한신경로당]

꽃같은 처녀가 꽃밭을 메는데
반달같은 저총각이 고려 내손목잡노라
 좋이나 좋이나 도꼬셔

에라 이총각아 내손목 놓아라
범같은 우리오빠 고려 망보고있노라
 좋이나 좋이나 도꼬셔

에라 이처녀야 그말을 말어라
범같은 너희오빠 고려 내쳐남되노라
 좋이나 좋이나 도꼬셔
(잘 하제?) (조사자: 일제시대 때 했다 그지예?) (응.)

[동래구 민요 87]

다리세기 노래 [이거리 저거리 갓거리]

김옥구(여, 1936년생) 가창
2017년 2월 16일 채록
[사직2동 사직한신경로당]

이거리 저거리 갓거리
전두만두 도만두⁴¹⁵⁾
오리김치 당술갈날
나그네먹던 김칫국
동네 마누래
 홀짝 꿈
(“동네 마누래 홀짝 꿈.” 이래고는 끝이 되잖아?)

알고 있었다. 후렴구의 ‘도꼬셔’는 일본말로 추정되나 정확한 뜻은 알 수 없음,
415) 중국 손가락.

[동래구 민요 88]

사발가

김옥구(여, 1936년생) 가창
2017년 2월 16일 채록
[사직2동 사직한신경로당]

석탄백탄 타는데~ 연기도집도 아니나고
이내가슴 타는데~ 연기만퐁퐁 나노라
에헤이요 에헤이요 에헤~이요~
어허라 난다~ 지화자자 좋~다
니가 내간장 스리슬슬 다독인다 (그런 긴가 몰라.)

[동래구 민요 89]

권주가

김옥구(여, 1936년생) 가창
2017년 2월 16일 채록
[사직2동 사직한신경로당]

잡으시오 잡으시오 이술한잔을 잡으시오
이술은 술이아니고 먹고노자는 동배주요 (이래.)

[동래구 민요 90]

너냥 나냥

이영분(여, 1944년생) 가창
2017년 2월 16일 채록
[사직2동 사직한신경로당]

너냥 나냥 두리둥실 놓고요
낮이낮이나 밤이밤이나 참사랑이로구나 [웃음]
서산에 지는해가 지고싶어 지느냐
날두고 가는님이 가고싶어 가나

[동래구 민요 91]

노랫가락

이필년(여, 1939년생) 가창
2017년 2월 16일 채록
[사직2동 사직한신경로당]

노세노세 젊어서놀아 늙어병들면 못노나니
[청중들이 함께 노래하며]
화무는 십일홍이요 달도차면은 기우나니

[동래구 민요 92]

노랫가락 차차차

김두연(여, 1944년생) 가창
2017년 2월 20일 채록
[사직3동 여명경로당]

노세노세 젊어서놀아 늙어지면은 못노나니
화무는 십일홍이요 달도차면 기우나니라
얼씨구 절씨구 차차차
지화자 좋구나 차차차
하라방창⁴¹⁶⁾ 사시절에 아니 노지를 못하리라 차차차 차차차

[동래구 민요 93]

신세한탄 노래

박정순(여, 1931년생) 가창
2017년 2월 20일 채록
[사직3동 여명경로당]

[말로 읊으며]
오동장롱 은가락지 얼마나 좋아서
천금겉은⁴¹⁷⁾ 내몸을 허락을 했노 (쿠고.)

416) 원래 가사는 '화란춘성 만화방창' 임.

[동래구 민요 94]

파랑새요

박정순(여, 1931년생) 가창
2017년 2월 20일 채록
[사직3동 여명경로당]

[말로 읊으며]

새야새야 파랑새야 녹두낭게⁴¹⁸⁾ 앉지마라
녹두꽃이 떨어지면 청포장사 울고간다 (안 카나.)

[동래구 민요 95]

권주가

박정순(여, 1931년생) 가창
2017년 2월 20일 채록
[사직3동 여명경로당]

[말로 읊으며]

받으시오 받으시오 이술한잔 받으시고
(워라 쿤다 하더노?) 이술이 술이아이라 (조사자: 먹고 놀자는.) 묵고노자는 동백
주요

[동래구 민요 96]

모심기 노래

문소정(여, 1917년생) 가창
2017년 2월 13일 채록
[안락1동 안락할머니경로당]

[말로 읊으며]

풍당풍당 찰수제비 사우야판에 다오르고

417) 천금같은.

418) 녹두나무.

해미년은⁴¹⁹⁾ 어디가고 딸에동자 시겼노 (카고.)

[동래구 민요 97]

비 노래

문소정(여, 1917년생) 가창
2017년 2월 13일 채록
[안락1동 안락할머니경로당]

[말로 읊으며]
비야비야 오지마라
우리새이 시집간다
가매문에 비들친다 (그래.) (조사자: 다홍치마 얼룩진다.) (야.)
다홍치마 어룽진다 (카고 그래 썼다.)

[동래구 민요 98]

모심기 노래

최부자(여, 1936년생) 가창
2017년 2월 13일 채록
[안락1동 안락할머니경로당]

[말로 읊으며]
이물기저물기 헐어놓고 주인네양반 어디갔노
문어야대전복 손에들고 첩의야방에 놀러갔다

[동래구 민요 99]

모찌기 노래

김금수(여, 1939년생) 가창
2017년 2월 13일 채록
[안락1동 용산경로당]

밀치라 닥치라 모두 잡아서 흙치라

419) 예미년은.

[동래구 민요 100]

모심기 노래

김필남(여, 1937년생) 가창
2017년 2월 13일 채록
[안락1동 용산경로당]

이물기저물기 혈어놓고 왼네야양반은 어데가고
문어전복은 손에들고 첩의야방에 놀러갔네

난장난찬⁴²⁰ 피리끝에⁴²¹ 무정하다 울오랍아
(인자 떠내려가는 거를, 예 떠내려가는데, 그래 동생은 안 꺾지고 마니래(마누라)
꺼짚는갑대.)
나도죽어서 후승가면
(남자로 태어난다 켜나?) (조사자: 남자 되여.) (남자 되여.) (조사자: 처자 권속.)
(처자 곤석.) (조사자: 섬길란다.)

모시적삼 안섶안에 분통같은 저젓보소
많이보면 병날끼고 쌀날만큼만 보고가세

해다지고 저문날에
우리할망 어데가고 연기낼줄을 모르는고

[동래구 민요 101]

창부타령(1) [춘향 노래]

김필남(여, 1937년생) 가창
2017년 2월 13일 채록
[안락1동 용산경로당]

포롬포롬 봄배추는 찬이슬 오도록만 기다리고

420) 낭창낭창.
421) 벼랑 끝에.

옥에갇힌 열녀춘향 이도롱 오시기만 기다린다
얼씨구나 좋다 절씨구나 좋네 아니 놀고는 못살래라

[동래구 민요 102]

태평가

김필남(여, 1937년생) 가창
2017년 2월 13일 채록
[안락1동 용산경로당]

닐니리야 닐니리야
니나노 날실로 내가 돌아간다
닐릴리 닐릴리 닐니리야
청사초롱 불밝혀라 잊었던낭군이 나를찾아온다
닐릴리 닐릴리 닐니리야
어젯밤에 구경가고 오늘께밤에도 구경갔네
닐릴리 닐릴리 닐니리야

[동래구 민요 103]

사발가⁴²²⁾

김필남(여, 1937년생) 가창
2017년 2월 13일 채록
[안락1동 용산경로당]

석탄백탄 타는데는 연개만폴폴 나건마는
요내가슴 타는데는 연개도짐도 아니난다
얼씨구나 지화자 좋네 아니 놀고는 못살래라

[동래구 민요 104]

노랫가락(1) [그네 노래]

김필남(여, 1937년생) 가창
2017년 2월 13일 채록

422) 후렴 부분은 창부타령 곡조로 불렀다.

[안락1동 용산경로당]

수천당 세모진낭게 가지가지에 추천을매어
임이타면 내가밀고 내가타면은 저사랑이 민다
임아임마 줄미지마소 줄떨어지면은 정떨어진다 (청중: 아따 잘한다.)

[동래구 민요 105]

청춘가(1)

김필남(여, 1937년생) 가창
2017년 2월 13일 채록
[안락1동 용산경로당]

백년을 살자고~ 백년초를 심었더니
백년초가 변하여서~ 난초가 되었네

사람마다 다좋다 해도~
인간 백년이 원수로다

술과담배⁴²³)는~ 내심중 알건마는~
한품안에 잠잔님도~ 내심정 모리더라~

니가 잘나서~ 천하일색 되나요~오
내눈이 어두와서 좋~다 천하일색 너하나지

간데 쪽쫓~옥 정들여 놓고요
임기럽고 돈기럽어 내몫살겠네~

[동래구 민요 106]

청춘가(2)

김필남(여, 1937년생) 가창
2017년 2월 13일 채록

423) 술과 담배.

[안락1동 용산경로당]

니가 잘나서 천하일색 되나요
내눈이 어두워서 좋~다 천하일색 너하나지~

살다가 살다가 못살기 되면은
안압지 깊은물에 좋~다 고기밥이 되지요

[동래구 민요 107]

창부타령(2)

김필남(여, 1937년생) 가창
2017년 2월 13일 채록
[안락1동 용산경로당]

에~ 아니 놀지를 못하리라
화류한 불국사에 유람경도 왔건마는
산기팔기 생계럽고 모란봉도 솟아있고
동해바다 저바다에 해와성도 떴건마는
꽃같은 이십의 청년으로 훈련소에다 몸을매어
낮이오면은 밤을삼고 밤이오면은 낮을삼아
야밤에 일룩구서로에 일천간장을 다녹인다

[동래구 민요 108]

양산도

김필남(여, 1937년생) 가창
2017년 2월 13일 채록
[안락1동 용산경로당]

에헤~이예~
양산읍내 물레망아는 물을안고 돌~고
우리집에 저문둥이는 나를안고 돈~다
에라 놓아라 둥개 디어라 못노니로다
너능기를 하야도 나는 못노리다

[동래구 민요 109]

창부타령(3)

김필남(여, 1937년생) 가창
2017년 2월 13일 채록
[안락1동 용산경로당]

에~헤 아니 놀지를 못하리라
백두산 천지간에 들쭈열매⁴²⁴ 아름답고
부대채는⁴²⁵ 압록강에 뗏목⁴²⁶또한 경이로다(경이롭다)
금강산 비로봉에 기화이초⁴²⁷ 피여있고
해금강 척석정⁴²⁸에 넘실대는 파도우에
백조쌍쌍 흥겨운데 배를타고 노를저라
대자연 좋은풍경 마음대로 즐겨볼까
얼씨구 절씨구야 지화자 좋네
요리요리아 좋다매는 논팔겠네

[동래구 민요 110]

화투타령

김필남(여, 1937년생) 가창
2017년 2월 13일 채록
[안락1동 용산경로당]

정월소화 속속한마음
이월메조에 맺어놓고
삼월사쿠라 활활피어
사월흑싸리에 흠어지고
오월난초 나비가되여

424) 들쭈열매.

425) 부딪히는.

426) 뗏목.

427) 기이화초.

428) 총석정.

유월목단에 춤을추고
칠월홍돼지 홀로누워
팔월공산 달밝은데
구월국화 활활피여
시월단풍에 떨어지고
동짓달오동달 [말로] 밝아가
섣달마지막에 떨어진다

[동래구 민요 111]

다리세기 노래

박종순(여, 1937년생) 가창
2017년 2월 13일 채록
[안락1동 용산경로당]

이거리 저거리 갓거리
천도만도 도만도
쪽발이 나가는
도래쭈치 전기칼 (이래 켜다.)

[동래구 민요 112]

산비둘기 소리 흥내 노래

윤정순(여, 1935년생) 가창
2017년 2월 13일 채록
[안락1동 용산할머니경로당]

[말로 읊으며]
불꼭불꼭
지집죽고 자석죽고
똥두대기⁴²⁹⁾ 누가 씻어주꼬 (거 카는데 뭐.)

[동래구 민요 113]

429) 똥 포대기. 똥이 묻은 포대기.

모찌기 노래

조분갑(여, 1930년생) 가창
2017년 2월 13일 채록
[안락1동 용산할머니경로당]

(서마지기 모판을 “조루자 조루자” 해가지고 그래.)
조루장사 딸인가 조루치기도 잘하네 (그기라.)

[동래구 민요 114]

진주난봉가

조분갑(여, 1930년생) 가창
2017년 2월 13일 채록
[안락1동 용산할머니경로당]

[노래로 부름]

울도담도 없는집에
시접삼년을 살고나니
시오마씨 하는말씀이
아가아가 미늘아가
너거낭군을 불러하거든
진주남강에 빨래가거라

[여기부터 말로 읊으며 이야기하듯이 구술함]

(진주남개⁴³⁰) 가서 오동나무 통에다가, 또 박달재 방맹이에다가 주섬주섬 담아 입고 진주남개에 가 빨래를 해거든. 빨래를 한게로 어데 재죽⁴³¹) 소리가 떠북떠북 나서, 빨래를 하다가 옆을 돌아본게네, 하늘같은 서방님이 번개같은 말을 타고 본동만동 지내치뿌는 기라. 아이 그걸 보고난게 빨래할 정이 정히 없어. 예이 빌어 먹을 것, 오동, 껌은 빨래는 껌게 씻고, 흰 빨래는 희기 씻고, 인자 주섬주섬 담아 입고 집에 왔거든. 그래 시어마이가 또 하는 말이, 아가 아가 미늘아가 손 시리제 손 찌아라 발 시리제 발 찌아라. 그래 찌고난게 또 시어마이가, 아가 아가 너거 낭군 불러거든 사랑방을 디다봐라.⁴³²) 사랑방을 탁 열어재치고 처다본게.)

430) 진주 남강에.

431) 자국.

432) 들여다보아라.

[다시 노래로]

하늘같은 서방님이

기상첩⁴³³⁾을 옆에끼고

[다시 말로 읊음] (권주가를 늘어젼어. 늘어젼는데 그걸 보고 살 수 있나. 작은방
에라 마 썩 드가서 석자 수건 목에 걸고 자는 듯이 가고 없어. 마니라가. 그런게
인자 신랑이 올라가가지고 오가지고, 아이고 기상첩은 석달이오 본처는 백년인데
당신 이럴 줄은 내 몰랐네 커며 끝이라.)

[동래구 민요 115]

이갈이 노래

조분갑(여, 1930년생) 가창

2017년 2월 13일 채록

[안락1동 용산할머니경로당]

까치야 까치야

헌 이는

내 헌이는 니 가져가고

새 이는 나인더라⁴³⁴⁾ (이거뿌이라.)

[동래구 민요 116]

이 빠진 아이 놀리는 노래[결치(缺齒) 노래]

조분갑(여, 1930년생) 가창

2017년 2월 13일 채록

[안락1동 용산할머니경로당]

앞니빠진 개우지야

새미집에 가지마라

빈대한테 뽀뽀한다

[동래구 민요 117]

433) 기생첩.

434) 나를 달라.

노랫가락[그네 노래]

조분갑(여, 1930년생) 가창
2017년 2월 13일 채록
[안락1동 용산할머니경로당]

수천당 시모진낭개⁴³⁵⁾ 늘어진가지 군대를매어
임이뛰만 내가밀고 내가뛰면은 임이밀고
임아임아 줄미지마라 줄떨어지면은 정떨어진~다

[동래구 민요 118]

노랫가락 [나비 노래]

조분갑(여, 1930년생) 가창
2017년 2월 13일 채록
[안락1동 용산할머니경로당]

나비야 청산을가자 나도가고 너도간다
[웃으며 중단]

[동래구 민요 119]

창부타령(1)

조분갑(여, 1930년생) 가창
2017년 2월 13일 채록
[안락1동 용산할머니경로당]

석탄백탄 타는데는 연기나짐도 나겼만
요내가슴 타는데는 연기도짐도 아니나네
속이타서 녀미아나 곁이썩어야 녀미아지

나물먹고 물마시고 팔을베고선 누웠으니
대장부라 살림아살이 요만하면은 넉넉하지

435) 추천당(鞦韆堂) 세모진 나무에.

[동래구 민요 120]

너냥 나냥

조분갑(여, 1930년생) 가창
2017년 2월 13일 채록
[안락1동 용산할머니경로당]

우리집에 서방님은 미꾸놀이를 갔는데
사월흑싸리 오월난초만 서방님손질에 돌아라
너냥나냥 두리둥실 노던
낮이낮이나 밤이밤이나 참사랑이로구나

우리집 서방님 밍태쟁이를 갔는데
바람아 강풍아 석달열흘만 불어라
너냥나냥 두리둥실 노는냥
낮이낮이나 밤이밤이나 참사랑이로구나
(그래 다 보내놓고 여자는 지멋대로 딴 서방하고 잘 노는 기라.)

[동래구 민요 121]

창부타령(2) [춘향 노래]

조분갑(여, 1930년생) 가창
2017년 2월 13일 채록
[안락1동 용산할머니경로당]

포롬포롬 봄배추는 밤이슬오기만 기다리고
옥에갓힌 춘향이는 이도롱오기만 기다린다

[동래구 민요 122]

다리세기 노래

차삼연(여, 1933년생) 가창
2017년 2월 13일 채록
[안락1동 용산할머니경로당]

이거리 저거리 갓거리
청도맹근 도맹근
도래줄치 장두칼

[동래구 민요 123]

이같이 노래

차삼연(여, 1933년생) 가창
2017년 2월 13일 채록
[안락1동 용산할머니경로당]

앞니빠전 개오지⁴³⁶야
웃니빠진 개오지야
새미가 가져마라⁴³⁷
송애새끼⁴³⁸ 다죽는다
놀래서 다죽는다 (이 소리는 했어.)

[동래구 민요 124]

산비둘기 소리 흥내 노래

차삼연(여, 1933년생) 가창
2017년 2월 13일 채록
[안락1동 용산할머니경로당]

지집죽고 자석죽고
내호무차⁴³⁹ 어째살꼬

[동래구 민요 125]

각설이타령

차삼연(여, 1933년생) 가창

436) 개호주의 방언. 개호주는 범의 새끼를 말함.
437) 샘. 즉 우물 가(예) 가지 마라.
438) 송어 새끼.
439) 내 혼자.

2017년 2월 13일 채록
[안락1동 용산할머니경로당]

일짜나 한장 들고봐
일선에 가신 낭군님
돌아오기는 틀린 이야품아 각설아
이짜로 한장 들고봐
이승만은 대통령 (아 지금 생각커니) 부대통령
삼짜나 한장 들고~
삼천만명 우리군대
평화지금을 기다리네 (그래 그래 안 하나.) (조사자: 사짜.)
사짜나 한장 들고
사월 흑싸리 허사다 (다 모르겠어.)

[동래구 민요 126]

화투타령

차삼연(여, 1933년생) 가창
2017년 2월 13일 채록
[안락1동 용산할머니경로당]

정월속가지 솔솔한마음
이월매주⁴⁴⁰⁾다 맺어놓고
사월흑싸리 허술하다
오월난초 앓은나비
유월목단에 춤을추네
칠월홍돼지 홀로누워
팔월공산에 내팔자야
구월국화 꽃자랑마라
시월단풍에 절단난다
동지선달이 거잡어드니
나는한살 더먹었는데
우리님은 어더로 가시고

440) 이월 매조.

임찰을줄 모르는고 (그런 노래 있었어, 옛날에.)

[동래구 민요 127]

모심기 노래

강일필(여, 1936년생) 가창
2017년 2월 14일 채록
[안락2동 원리할머니경로당]

물기야처정청 혈어놓고~ 우리의님은 어디갔나
문어야전복 손에들고~ 첩의에집에 놀러갔다

[동래구 민요 128]

화투타령

김순자(여, 1942년생) 가창
2017년 2월 14일 채록
[안락2동 원리할머니경로당]

일월송학 속속들이
이월매조에 맺어놓고
삼월사쿠라 산란한마음
사월흑싸리에 흩어놓고
오월난초 놀던나비
유월목단에 춤을춘다
칠월홍돼지 홀로누워
팔월공산에 달구경 가사
구월국화 만발한데
시월시단풍에 다떨어진다
십일월 (뭐? 그건 또.) (조사자: 오동추야.) (청중: 오동추야.) (그건 또 모르겠네.
잊어버리가.)

[동래구 민요 129]

진주난봉가

김형숙(여, 1934년생) 가창

2017년 2월 14일 채록

[안락2동 원리할머니경로당]

울도담도 없는집에
시집삼년을 살고나니
시어마시 하시는말씀
진주남강을⁴⁴¹⁾ 불러거든
(아! 아이다.) (조사자: 진주남강 빨래 가라.)
빨래를가라
검은빨래는 껌기씻고
흰빨래는 희기씻으니
구름같은 말을타고
하늘같은 갓을쓰고
(집을 돌아갔단 말이지.)
검은빨래는 껌기씻고
흰빨래는 희기씻거
집이라고 돌아오니
시어마시 하시는말씀
야야아가 며늘아야
진주남강을 불러거든
안방전방을 살펴봐라
안방전방을 살펴보니
(지, 지, 그거 잘 모르겠네.) (조사자: 기생첩을 옆에 끼고.)
기생첩을 옆에끼고
권주가를 부르네
(시어마시, 아이고.) (조사자: 석 자 세 치 명지 수건.) (아.)
석자세치를 (뭐고?) (청중: 응, 대들보에.)
대들보에 묶어놓고
목을매어 죽고나니
(신랑이 나아서.)
신랑이 나아 버선발로 뛰어나와
본처는 백년이오

441) '진주남강을'이라 불러야 할 것을 '진주남강을'이라 불렀다.

기생첩은 오년인데
니가벌써 죽었느냐

[동래구 민요 130]

다리세기 노래

이명숙(여, 1936년생) 가창
2017년 2월 14일 채록
[안락2동 원리할머니경로당]

이거리 저거리 각거리
진주맹근 또맹근⁴⁴²⁾ (뭐?) (조사자: 도래쭈치.)
도래쭈치 장도카⁴⁴³⁾

[동래구 민요 131]

파랑새요

고재분(여, 1937년생) 가창
2017년 2월 10일 채록
[온천1동 마암경로당]

[말로 읊으며]
새야새야 파랑새야 녹두낭게⁴⁴⁴⁾ 앉지마라
녹두꽃이 떨어지면 청포장사 올고간다

[동래구 민요 132]

쌍가락지 노래

송구자(여, 1943년생) 가창
2017년 2월 10일 채록
[온천1동 마암경로당]

442) 진주 망건 도 망건.
443) 도래 쭈치(주머니) 장도칼.
444) 녹두나무.

(요거는 여동생이 너무 잘 생겼는 거라. 이쁘는 거라. 그래서 오빠가 항상 걱정이 돼가지고.) (청중: 누가 잡아갈까 싶어가지고?) (걱정이 돼서. 그래 뭐 잊아뒀다.) (조사자: 쌍금 쌍금 쌍가락지.) (응. 그래 맞아.)

[말로 읊으며]

쌍금쌍금 쌍가락지

멀리보니 달일레라 잘에서보니⁴⁴⁵⁾ 처잘레라

저저자야 자는방에 숨소리가

(두 나⁴⁴⁶⁾ 라고 그라니까네 동생이 오빠 그런 말씀, 오라버니 그런 말씀하지 말고.)

동남풍이 건들하니 서남풍이 또건들하네

풍지뜨는 소리올씨다

(내 그 소리 청승을 한 번 지깁더니만 우리 이모가 살아계실 때, “아이고! 야야, 해운대 그 가면 우리나라 수집하는 데가 있다는데 그 가서 니가 한 곡 뽑아라.” 이라는 기라.) [웃음]

[동래구 민요 133]

사친가

송구자(여, 1943년생) 가창

2017년 2월 10일 채록

[온천1동 마암경로당]

[말로 읊으며]

우리엄마 (뭐.) 보고싶은 우리엄마 (뭐.)

닭고기를 먹었던가 달달이도 보고싶고

물고기를 먹었던가 물물이도 보고싶고

(청중: 거 말 되네.) (“물고기를 먹었던가 물물이도 보고 싶고, 닭고기를 먹었던가 달달이도 보고 싶고.” 또 뭐 하이튼 많애. 엄마가 빨리 죽고 인제 엄마가 보고 싶으니까 청승을 지깁는 기라.)

[동래구 민요 134]

445) 옆에 보니.

446) 두 개.

모심기 노래

양재활(남, 1935년생) 가창
2017년 2월 10일 채록
[온천1동 마암경로당]

(청중: 우~ 후후후~.) [일동 박수]
모시아적삼 안적삼에~ 분통같은 저젓보소
(청중: [노래로] 많이보면 병날꺼니~ 담배씨만큼 보고가소.)
많이보면은 병들끼니~ 쌀날만큼만 보고가소

[동래구 민요 135]

도라지타령

이수향(여, 1933년생) 가창
2017년 2월 10일 채록
[온천1동 마암경로당]

도라지 도라지 도라~지
(또 뭐라 카노?) (청중: 심심.)
심~심 산천에 도라지
한두 뿌리만 캐어도~오
대바구니 반침만 되누~나
에헤야 데헤야 에헤여~
어여라 난다 지화자자 좋~다
니가 내간장 살이살살 다녹인다

[동래구 민요 136]

청춘가

이수향(여, 1933년생) 가창
2017년 2월 10일 채록
[온천1동 마암경로당]

이팔 청춘에~ 소년몸 되어서~

(뭐라 쿠노 또? 가사를 다 잊아뿌고 모르겠다.) (청중: 잘 하더만. 막걸리 한 잔 사오까?) [일동 웃음]

노자 노자요~ 저꺾어 눕시다~

늪고 병들면~ 좋~다 못노리로~다

간다 못간다~

(청중: 나온다 인자, 장구 가져 오까? 장구 가져 오까? 그러면 더 잘 놀잖아.) (가사를 다 잊아뿌다.) (조사자: 간다 못 간다.)

얼마나 울었나~

정거장 마당이~ 한강수 되노~라 좋~다 (청중: 좋~다.)

간다 못간다~ 얼마나 울었어~

정거장 마당이~ 한강수 되노~라

우리가 살면은~ 몇백년 사느냐~

늪고 병들면~ 못노리로~다~

(이기 청춘가고.)

[동래구 민요 137]

너냥 나냥

이수향(여, 1933년생) 가창

2017년 2월 10일 채록

[온천1동 마암경로당]

너냥 나냥 두리둥실 놀고요

낮이낮이나 밤이밤이나 참사랑이로~구나

아침에 우는새는 배가고파 울고요

저녁에 우는새는 님그리워 운다

[동래구 민요 138]

노들강변⁴⁴⁷⁾

이수향(여, 1933년생) 가창

2017년 2월 10일 채록

[온천1동 마암경로당]

447) 1934년에 발표된 신민요풍의 대중가요(신불출 작사, 문호월 작곡, 박부용 노래).

노들강변 봄버들 휘휘~늘어진 가지마다
만고청산 이바람에 내리나 매어나볼까
에헤에요~ 봄버들도~ 못민으리로~다
푸르른 저기저물만~ 흘러흘러 가노~라

[동래구 민요 139]

화투타령

이수향(여, 1933년생) 가창
2017년 2월 10일 채록
[온천1동 마암경로당]

정월속가지 속속한마음
이월매조에 맺어놓고
삼월사쿠라 산란한마음
사월흑싸리에 다흠여뿐다
오월난초 나비가되어
유월목단에 춤을추네
[말로 읊으며]
칠월홍돼지 홀로누워
팔월공산에
구월국화 굳은마음
시월단풍에 다떨어지네

[동래구 민요 140]

사발가

이수향(여, 1933년생) 가창
2017년 2월 10일 채록
[온천1동 마암경로당]

석탄백탄 타는데 연기만폴폴폴 나고요
요내가슴 타는데 연기도짐도 안나네
에헤야 데헤야 에헤에야~ 어여라 난다 지화자자 좋~다

니가 내간장을 스리살살 다독인다

[동래구 민요 141]

성주풀이

이수향(여, 1933년생) 가창
2017년 2월 10일 채록
[온천1동 마암경로당]

[청중들이 함께 노래하며]
낙양산 십리허에 높고낮은 저무덤은
영웅호걸이 몇몇이나 절~세가인이 그누구나
우리네인생 한번가면 저기저모양 될터이니
에라 만수~ 에라 대신이야

황송정 술을비어 조그맣게 배를놓아
울렁출렁 배뒹워놓고 술이나안주 가득실어
만경 청포대에 달구경 가세
에라 만수~ 에라 대신이야
(청중: 막걸리 주면 하루 종일 하겠다.)

[동래구 민요 142]

권주가

이수향(여, 1933년생) 가창
2017년 2월 10일 채록
[온천1동 마암경로당]

(청중: 잡읍시다 부르소.)
잡으시오 잡으나시오 (청중: 인자 잘 나온다.) 이술한잔을 잡으시오
(청중: 아이구! 잘 하신다. 어르신.)
이술은 술이아니라 먹고놀자는 동백주요
이술을 마시고나면은 늙지도젊지도 아니하요

[동래구 민요 143]

각설이 타령

이수향(여, 1933년생) 가창
2017년 2월 10일 채록
[온천1동 마암경로당]

얼씨구 씨구씨구 들어간다
절~씨구나 들어간~다
[청중들이 함께 노래하며]
작년에왔던 각설이가
죽지도않고 또왔네
품마 품마 각설아

[동래구 민요 144]

노랫가락[그네 노래]

박계옥(여, 1936년생) 가창
2017년 2월 14일 채록
[온천3동 금정할머니경로당]

사천당 세모진낭게⁴⁴⁸⁾ 높다랗기다 그네를메고 (청중: 좋고. 좋고.)
내가뛰면 님이서밀고 님이뛰면은 내가민다
[가사가 기억나지 않아 노래를 멈춤] (청중: 임아 임아 줄 살살 밀어라. 아닙니
까?) (그 다음은 모르겠어.) (청중: 임아 임아 줄 살살 밀어라.) (조사자: 줄 떨어
지면 정떨어지고 그지예?) (응, 그래.)
님이뛰면 내가밀고 내가밀면는 정떨어진다
 얼씨구 좋다 지화자~ 좋~다
 아니 노지는 못하리라

[동래구 민요 145]

권주가

박계옥(여, 1936년생) 가창
2017년 2월 14일 채록

448) 추천당 세모난 나무.

[온천3동 금정할머니경로당]

잡으시오 잡으나시오 이술한잔을 잡으시오
이술이 술이아니라 먹고노자는 동배주라 [웃음]

[동래구 민요 146]

청춘가

박계옥(여, 1936년생) 가창
2017년 2월 14일 채록
[온천3동 금정할머니경로당]

돌려라 돌려라~ 청춘가를 돌려라~
청춘가를 못돌리면~ 좋~다 내몸을 돌려라~

[동래구 민요 147]

너냥 나냥

박계옥(여, 1936년생) 가창
2017년 2월 14일 채록
[온천3동 금정할머니경로당]

(조사자: 너냥 나냥.) 두리둥실 놀고요
낮이낮이나 밤이밤이나 참사랑이로구나
아침에 우는새는 배가고파 울고요
[청중이 함께 노래하며]
저녁에 우는새는 님이그리워 운다
에헤에야 데헤에야~ 두리둥실 놀고요
낮이낮이나 밤이밤이나 참사랑이로~구나~
(조사자: 뒤에도 있는데, 뒤에 많다 아닙니까? [노래하며] 우리 집 낭군님 명태잡
이를.)
명태잡이를 갔는데
바람아 강풍아 석달열흘만 불어라
너냥 너이냥 두리둥실 놀고요
낮이낮이나 밤이밤이나 참사랑이로구나

[동래구 민요 148]

노랫가락

박계옥(여, 1936년생) 가창
2017년 2월 14일 채록
[온천3동 금정할머니경로당]

노세 젊어서 놀아 늙고병들면 못노나니
화무는 십일홍이요 달도채이면은⁴⁴⁹⁾ 기우나니
인생은 일장춘몽에 아니 놀지를 못하리라

[동래구 민요 149]

사발가

박계옥(여, 1936년생) 가창
2017년 2월 14일 채록
[온천3동 금정할머니경로당]

석탄백탄 타는데는 연기나폴폴~ 나고요
요내가슴 타는데는 연기나김도 아니난다
에헤이요 에헤이요 에헤이요~
어혀라 난다 지화자자 좋~다
니가내간장 스리살살 다녹힌다

[동래구 민요 150]

화투타령[화투뒤풀이]

박계옥(여, 1936년생) 가창
2017년 2월 14일 채록
[온천3동 금정할머니경로당]

정월속속 속세워놓고
이월매화를 맺었더니

449) 달도 차면은.

삼월사꾸라 산란한마음
사월흑사에 허사로다
오월난초 날이던나비
유월목단에 춤을추네
칠월칠싸리 홀로앉아
팔월공산에 달이떴다
구월국화 굳어나줄기
시월단풍에 다떨어졌다
얼씨고 좋~다 지화자자 좋~네
아니 노지를 못하리라 [웃음] (청중: 아이고! 잘 한다.)

[동래구 민요 151]

아리랑

박계옥(여, 1936년생) 가창
2017년 2월 14일 채록
[온천3동 금정할머니경로당]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님은
십리도 못가서 발병난다

[동래구 민요 152]

밀양아리랑

박계옥(여, 1936년생) 가창
2017년 2월 14일 채록
[온천3동 금정할머니경로당]

날좀보소 날좀보소 날좀보소
[청중들이 함께 노래하며]
동지선달 꽃본듯이 날좀보소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리리가 났네
아리랑 고개로 날넘겨주소

[동래구 민요 153]

새타령

박계옥(여, 1936년생) 가창
2017년 2월 14일 채록
[온천3동 금정할머니경로당]

새가 날아든다 왜갓잡새가 날아든다

(나 이 노래 모르는데.)

새중에는 봉황새 만주문전에 (무슨 새가 모르겠다.)

뒷산으로가면 쑥국 저산으로가면 쑥쑥국 쑥국

에헤~ 에히~ (모르겠다.) 에헤 에헤 에헤이야 (모르겠어.)

(조사자: [노래하며] 왜갓 잡새가.) 날아든다

II. 기존 현장조사 민요

1. 김승찬의 현장조사 민요
2. 류종목의 현장조사 민요
3. 박경수의 현장조사 민요

1. 김승찬의 현장조사 민요

- 김정구 민요

[김정구 민요 1]

모찌기요(1)

가 창 자: 박수식(여, 67)

가 창 일: 1987. 9. 6.

가창장소: 금성동 공해마을

낭창낭창 베루끝에 무정하다 저오랍아
나도죽어 남자되어 처자권석 섬겨볼래.

하늘에다 목화를심어 목화따기도 난감하다
한강수에 모를부어 모찌기도 난감하다.

*김승찬, 『부산 산성마을의 기층문화』, 부산대학교 부설 한국문화연구소, 1994, 241쪽. 제목은 '모찌기 노래(1)'.

[김정구 민요 2]

모찌기요(2)

가 창 자: 윤필순(여, 71)

가 창 일: 1987. 9. 27.

가창장소: 금성동 죽전마을

바대강 같은 이모판이 장개판만치 남았구나
장기야판이사 좋다마는 돌리없어 못두겠네

바랑붓짐 반보파리 처가야집을 상해가네
각시님은 얼른보고 칠보야단장 고이하네

동해야동산 돌은해가 일락서산 마주서네
나도어서 집에가서 우련님강 마주설래

*김승찬, 『부산 산성마을의 기층문화』, 부산대학교 부설 한국문화연구소, 1994, 241쪽. 제목은 ‘모찌기 노래(2)’.

[금정구 민요 3]

모찌기요(3)⁴⁵⁰⁾

가 창 자: 박차순(여, 82)

채 집 일: 1993. 7. 19.

채집장소: 두구동 신천마을

점심아 시깃던 순로씨여 어데 만땅(마루) 오시는고
이 등 저 등 건넛등에 찰이 걸리 더디 오네

한강에 모를 부아 찌내기도 난감하네
하늘에 목캐(목화) 갈아 따내기도 난감하다

알곰삼삼 곱은 처녀 달산 고개로 넘나드네
석자 수건 목에 걸고 총각 둘이 따라 간다

*김승찬, 『두구동의 기층문화』, 부산대학교 부설 한국문화연구소, 1993, 199~200쪽. 제목은 ‘모찌기 노래’. 조사 관련 정보 아래에 “『모내기 노래』와 같은 곡조이나 특별히 모 찢 때 부르므로 독립시켜 다루었다”는 설명이 붙어 있다.

[금정구 민요 4]

모심기요(1)

가 창 자: 이용악(여, 78)

가 창 일: 1987. 9. 6.

가창장소: 금성동 공해마을

임이죽어 燕子되어 추마끝에 집을지어

450) 김승찬, 『두구동의 기층문화』, 부산대학교 부설 한국문화연구소, 1993, 195쪽에는 제목이 ‘모찌기 노래’, 조사 관련 정보로 가창자의 사향은 ‘박차순(여·82·무학)’로 학력이 추가되어 있고, ‘가창일’은 ‘채집일’, ‘가창장소’는 ‘채집장소’로 기록되어 있다. 이하 이 책의 인용 시에는 제목이 다른 경우만 참고문헌에 별도 표기한다.

나멘보고 들멘봐도 임인줄로 내몰랐네.

이논에를 모를송가 금실금실 영화로다
우리부모 산소등에 솔을송가 영화로다.

물고는 처렁처렁 혈어놓고 주인네 양반은 어데갔노
문어야 전복을 손에 들고 첩의야 방에 놀러갔네

서울양반 머리끝에 지정 닳말 모를부어
지정꽃은 패건마는 임의꽃은 아니패네.

저게가는 저구름은 어떤신선 타고가노
대국이라 천자국에 노던신선 타고가네.

똥굴똥굴 쌀수지비 사우야 판에 다 올랐네
에미년은 어데가고 딸이야 동자로 시깃던고.

*김승찬, 『부산 산성마을의 기층문화』, 부산대학교 부설 한국문화연구소, 1994, 241~242쪽.
제목은 ‘모심기 노래(1)’.

[금정구 민요 5]

모심기요(2)

가 창 자: 김명순(여, 72)

가 창 일: 1987. 9. 6.

가창장소: 금성동 공해마을

필레꽃은 장개가고 석류꽃은 상각가네
萬人間아 웃지마라 씨種子바래 나는가네.

유자야석류야 근원이좋아 한꼭다리 둘열렸네
총각쳐녀 근원이좋아 한비개비고 둘눅었네

오늘낮에 점섬반찬 기뻐이가 올랐던고
전라도라 고심청어 마리반이 올랐다네.

*김승찬, 『부산 산성마을의 기층문화』, 부산대학교 부설 한국문화연구소, 1994, 242~243쪽.
제목은 ‘모심기 노래(2)’.

[금정구 민요 6]

모심기요(3)

가 창 자: 진두이(여, 59)
가 창 일: 1987. 9. 6.
가창장소: 금성동 공해마을

해다지고 저문날에 우연 행상 떠나오네
이태백이 본처죽고 이별행상 떠나오네.

모야모야 노랑모야 언제크서 열매열래
이달크고 훗달크고 내훗달에 열매열지.

*김승찬, 『부산 산성마을의 기층문화』, 부산대학교 부설 한국문화연구소, 1994, 243쪽. 제목은 ‘모심기 노래(3)’.

[금정구 민요 7]

모심기요(4)

가 창 자: 엄석렬(여, 87)
가 창 일: 1987. 9. 25.
가창장소: 금성동 죽전마을

서울이라 남정자야 점섬참이 늦어온다
미나리야 시금초야 맛본다고 드디오네.

*김승찬, 『부산 산성마을의 기층문화』, 부산대학교 부설 한국문화연구소, 1994, 243쪽. 제목은 ‘모심기 노래(4)’.

[금정구 민요 8]

모심기요(5)

가 창 자: 이장년(여, 79)

가 창 일: 1987. 9. 25.

가창장소: 금성동 죽전마을

맹화여 년덕속에 후여한들 저새쳐라
늬아무리 후여한들 임본새가 날아가나.

처녀야처녀야 뉘볼라고 달선이 고개 넘나드네
총각아총각아 너볼라고 수채궁계 넘나드네.

충청도 줄복숭 주리가휘청 열렸네
강남에 강대추 알강달강 열었네.

*김승찬, 『부산 산성마을의 기층문화』, 부산대학교 부설 한국문화연구소, 1994, 243~244쪽.
제목은 ‘모심기 노래(5)’.

[금정구 민요 9]

모심기요(6)

가 창 자: 김복련(여, 80)

가 창 일: 1987. 9. 27.

가창장소: 금성동 죽전마을

낙동강의 흐른물에 우연배가 두짝떠노
앞의배는 임의배요 뒤에배는 장사배요.

서울이라 왕대밭에 금비들키 알을날야
그알한개 조왔이믄 금년과게 내할꾸로.

배꽃일세 배꽃일세 처녀야수건이 배꽃일세
배꽃같은 수건밀에 거울같은 눈매보소

*김승찬, 『부산 산성마을의 기층문화』, 부산대학교 부설 한국문화연구소, 1994, 244쪽. 제목은 ‘모심기 노래(6)’.

[금정구 민요 10]

모심기요(7)

가창자: 윤필순(여, 71)

가창일: 1987. 9. 27.

가창장소: 금성동 죽전마을

일어라했님이 돋았는데	이슬꺄줄 모르는고
맹화대로 꺄거쥐고	털면가도 내갈라네.

서울갔던 선부들아	우리선부 안오더냐
오기사야 온다마는	칠성판에 실려오네.

머리도종고도 실한처녀	동산에곱게 넘나드네
오며가며 빛만보고	군자야간장 다놓는다.

삼강야오륜을 배모아서	임의배 돛달아라
효자야충신 열녀신고	공명선생 찾아가자.

하늘천자 따지밀에	집우자로 집을지어
넓은홍자 거친집에	날과달이 밝아오네.

우리야금자님 승군정자	삼정승이 물을주와
육판사로 뺨은가지	팔도강산 꽃이핳네.

진주야단성 안사랑에	장기두는 처남손아
여중아일색 너거누이	남중호걸 나를도고.

아기야도련님 연당못에	폴폴뛰는 금붕어야
금붕어잡아다 회쳐놓고	춘향이불러 술부어라.

한양야모시 처마끈에 서울양반 단초고리	씻대끈도 찬란하다 시계줄도 찬란하다.
하랑아청사 도원안에 청실뱅가 홍실뱅가	있너울사 배나모야 맛도좋고 연약하다.
알금아삼삼 고은독에 팔모로깍은 유리잔에	술을빚어 강화주야 나부가얏아 권주하네.
찔레야꽃을 살콤대쳐 임을보고 버선보니	임의버선 볼받았네 임줄뜻이 전혀없네.
빈대야닷되 끓는방에 한때두때 굶으나마	등신걸은 저임보소 같은임강 살아볼래.
화랑도라 좁은길에 임당수라 깊은물에	조맹국이 살아왔네 심소저가 살아왔네
소주야꼬코 약주꼬코 우리는언제사 한량되어	국화정자 놀로가자 국화정자 놀로갈꼬.
낭창낭창 베루끝에 나도죽어서 남자되어	무정하신 저오랍아 처자권석 섬길나네
저게가는 저구름은 웅천하고도 천자봉에	어데신선 타고가노 노던신선 타고가네.
명주야바지 잔줄바지 칠십에나는 노모두고	못다입고 황천가요 황천가는 날만한가.
한양아낭군님 밥담다가 아가아가 메늘아가	늦주걱닷컴 뿌질렀네 나도닷컴 뿌질렀다.
청사야초롱에 불밝혀라	임의방에 놀로가자

임도눅고 나도눅고 초롱에불을 누가끌고.

해다지고도 저문날에 우련행상 떠나오네
이태백이 본처죽어 이별행상 떠나오네

*김승찬, 『부산 산성마을의 기층문화』, 부산대학교 부설 한국문화연구소, 1994, 244~247쪽.
제목은 '모심기 노래(7)'.

[금정구 민요 11]

모심기요(8)

가 창 자: 강두이(여, 72)
가 창 일: 1993. 7. 16.
가창장소: 두구동 죽전마을

남창남창 베리 끝에 무정하다 울오라바
나도 죽어 호성(후생) 가서 처자권숙 거느릴래

해 다 지고 저문날에 우연 행상 떠나오노
이태백이 본처 죽어 이별 상여 떠나온다

방실방실 웃는 애기 몬다 보고 해 다 졌네
방실방실 웃는 입을 몬다 보고 해 다 졌네

임이 죽어 연자 되어 추량(추녀) 끝에 집을 지야
날멘 보고 들멘 봐도 님인줄을 내 몰랐네

명지바지 찬줄바지 몬다 입고 어데가노
칠십에 나는 부모 두고 황천 가는 날만하리

서울이라 왕대밭에 금비들기 알을 낳여
그 알 한 개 주웠으면 금년 과계 내 할구로

풍당풍당 찰수지비 사우야 판에 다 올랐네

에미년은 어데 가고 딸의 동재로 시켰더노

*김승찬, 『두구동의 기층문화』, 부산대학교 부설 한국문화연구소, 1993, 195쪽. 제목은 '모내기 노래(1)'.

[금정구 민요 12]

모심기요(9)

가 창 자: 전을순(여, 79)

채 집 일: 1993. 7. 13.

채집장소: 두구동 조리마을

이 논빠미 모를 심어 금실금실 영화로다
우리 부모 산소등에 솔을 심어 영화로다

*김승찬, 『두구동의 기층문화』, 부산대학교 부설 한국문화연구소, 1993, 195~196쪽. 제목은 '모내기 노래(2)'.

[금정구 민요 13]

모심기요(10)

가 창 자: 방이금(여, 77)

채 집 일: 1993. 7. 13.

채집장소: 두구동 조리마을

남창남창 베루 끝에 무정하던 울오빠야
나도 죽어 남자 되여 우리 임을 구해야지

이 물끼 저 물끼 혈어놓고 주인네 양반 어디 갔노
문예야 전복 손에 들고 첩우 방에 놀러갔네

*김승찬, 『두구동의 기층문화』, 부산대학교 부설 한국문화연구소, 1993, 196쪽. 제목은 '모내기 노래(3)'.

[금정구 민요 14]

모심기요(11)

가 창 자: 김필순(여, 78)
채 집 일: 1993. 7. 19.
채집장소: 두구동 신천마을

해 다졌네 해 다 졌네	일락서산에 해 다 졌네
우런 님은 어디 가고	연개 널 줄을 모르던고
서울이라 냉기 없어	죽절비녀 다리 나여
그 다리를 건너가니	쿵쿵절삭 소리 나네

*김승찬, 『두구동의 기층문화』, 부산대학교 부설 한국문화연구소, 1993, 196쪽. 제목은 '모내기 노래(4)'.

[금정구 민요 15]

모심기요(12)

가 창 자: 송순임(여, 68)
채 집 일: 1993. 7. 19.
채집장소: 두구동 신천마을

나온다 나온다	점심 밥고리 나온다
서마지기 논배미	반달만치 심구이
점심 밥고리 나온다.	

*김승찬, 『두구동의 기층문화』, 부산대학교 부설 한국문화연구소, 1993, 196~197쪽. 제목은 '모내기 노래(5)'.

[금정구 민요 16]

모심기요(13)

가 창 자: 홍위조(여, 80)
채 집 일: 1993. 7. 22.
채집장소: 두구동 중리마을

녕창녕창 저 비루(벼랑) 끝에 무정하다 저 오라배
난도 죽어서 후상(후생) 가여 낭군님버터(부터) 섬길소냐

크다 크다 큰어마니 행주치마 털쳐입고
아흔 아홉 칸 정지를 밟아 찹쌀 닷 말 밍쌀 닷 말
우리 생이(올케가) 점슴 진지로 지었더니
점슴참이(점심 참이) 늦었구나

해는 지고 저문 날에 우런 님은 어데 가고
고을 고을이 연기 나도 연기 난 줄 모리난고

알굼삼삼 얹으나 처녀 울뽕 남게 걸앳았네
울뽕 줄뽕은 내 따줌세 명주 배자나 해다오

모시 적삼 안섶 속에 연적겉은 젓통 보소
많이 보만 정이 들고 잠깐 보만 병이 된다

아가야 동자야 병환중에 순금씨야 배 깎아라
순금씨에 깎으나 배는 연하고도 맛이 좋다

*김승찬, 『두구동의 기층문화』, 부산대학교 부설 한국문화연구소, 1993, 197쪽. 제목은 '모내기 노래(6)'.

[금정구 민요 17]

모심기요(14)

가 창 자: 김동준(남, 77)
채 집 일: 1993. 7. 19.
채집장소: 선동 신천마을

서울이라 왕대밭에 금비둘개 알을 낳여
그 알 한 개 주었던들 금년 과게 내 할꺼로

담안에 꽃을 심어 담장밖을 후아넘네

길가는 행인들이	그꼇 보고 질(길) 안 가네
쫄래야 끝은 장개 가고	석누냐 끝은 상객 간다
만인간아 웃지 마라	씨 종자 하나로 바래 간다
점슴아 시기던 순로씨여	어데 만땅 오시던고
미나리야 수금초채를	맛 본다고 더디더네
저녁을 먹고 썩 나서니	월명당 안에서 손을 치네
손 치는 데는 밤에 가고	주모집에는 낮에 간다

*김승찬, 『두구동의 기층문화』, 부산대학교 부설 한국문화연구소, 1993, 198쪽. 제목은 '모내기 노래(7)'.

[금정구 민요 18]

모심기요(15)

가 창 자: 박금춘(여, 68)
채 집 일: 1993. 7. 19.
채집장소: 두구동 임석마을

임이 죽어 연자가 되어	처마 끝에 집을 지어
날맨 보고 들맨 봐도	님인 줄로 내 몰랐네
저 도련님 병이 나서	순금씨야 배 깎어라
순금씨야 깎은 배는	맛도 좋고 연하구나

*김승찬, 『두구동의 기층문화』, 부산대학교 부설 한국문화연구소, 1993, 198쪽. 제목은 '모내기 노래(8)'.

[금정구 민요 19]

모심기요(16)

가 창 자: 김성근(남, 77)
가 창 일: 1993. 7. 13.

가창장소: 두구동 조리마을

모시 적삼 시적삼에	분통 같은 저 젓 보소
많이 보면 병날 치니	손톱만치만 보고 가소
상주 함창 공굴못에	연밥 따는 저 처녀야
연밥 줄밥 내 따줍세	백년 언약을 날랑 맺자
백년 언약은 어렵잖소	연밥 따기 늦어간다.
칠보(칠포) 청천 진상 거리	영해 영덕 뻗혀 놓고
동래 울산 꽃 광지리	너무야 곱어도 못 삼겠네
화개산 높은 강개(景概)	너무야 못 봐도 못 살겠네
우리 엄마 피리 불고	우리 언니 나래 치네

*김승찬, 『두구동의 기층문화』, 부산대학교 부설 한국문화연구소, 1993, 198쪽. 제목은 '모내기 노래(9)'.

[금정구 민요 20]

모심기요(17)

가 창 자: 김종술(남, 63)
채 집 일: 1993. 7. 16.
채집장소: 두구동 수내 마을

담안에 꽃을 심어	담 밖으로 휘어 넘네
질 가는 호걸양반	그 꽃 보고 질 못가네
풍당 풍당 찰수지비	사우야 판에 다 오류네
우리 님은 어디 가고	딸의 동자를 맏겼던고

*김승찬, 『두구동의 기층문화』, 부산대학교 부설 한국문화연구소, 1993, 199쪽. 제목은 '모내기 노래(10)'.

[금정구 민요 21]

거무요(1)

가 창 자: 이장년(여, 79)
가 창 일: 1987. 9. 25.
가창장소: 금성동 죽전마을

거무야거무야 왕거무야
진주덕산 왕거무야
우한량우천룡 좌한량좌천룡
풍덕새는덕사당 열개동청방우
어리둥실어리둥실 노던거무.

*김승찬, 『부산 산성마을의 기층문화』, 부산대학교 부설 한국문화연구소, 1994, 247쪽. 제목은 '거미요(1)'.

[금정구 민요 22]

거무요(2)

가 창 자: 김복련(여, 80)
가 창 일: 1987. 9. 25.
가창장소: 금성동 죽전마을

거무야거무야 왕거무야
저줄로노는 왕거무야
니한량내천룡 천룡새청방우
닐리동삼비늘달아 닐리리라 왕거무야.

*김승찬, 『부산 산성마을의 기층문화』, 부산대학교 부설 한국문화연구소, 1994, 247~248쪽. 제목은 '거미요(2)'.

[금정구 민요 23]

거무요(3)

가 창 자: 엄세주(남, 81)
가 창 일: 1987. 9. 27.
가창장소: 금성동 죽전마을

거무야거무야 왕거무야
줄로노던 왕거무야
니한랑내천룡 천룡산청방우
황생강들생강 노든강새든강
남산밑에남대룡 서산밑에서쳐자
닐리동산비늘달아 닐릴릴쿵절사
왕거무야⁴⁵¹⁾

*김승찬, 『부산 산성마을의 기층문화』, 부산대학교 부설 한국문화연구소, 1994, 248쪽. 제목은 ‘거미요(3)’.

[금정구 민요 24]

노리개요

가 창 자: 강두이(여, 72)

가 창 일: 1993. 7. 16.

가창장소: 두구동 죽전마을

서 선부님 노루개	건딛담 말거게
애기야 방석이	육모야 태전에
장구야 바닥에	골패 싹도 노루개
가 각시 노루개	엔지(연지)야 분통
쪽집개 날날이	시침 바늘도 노루개

*김승찬, 『두구동의 기층문화』, 부산대학교 부설 한국문화연구소, 1993, 200쪽.

[금정구 민요 25]

굼기타령

451) 해운대구 반송2동 운봉마을의 변남세(여, 70)도 1996년 6월 8일에 「거무노래」를 가창하였다. 가사는 ‘거무야 거무야 왕거무 내 줄 있다 내리라. 오만리 자만리 마을리 마천리 동단자 덕산자 남한자 채린자 깨개동 창밖에 예기라 동줄 내리째’라 하여 주문과 같은 내용이다.(『해운대민속』, 해운대구, 1996.) -이상은 김승찬이 원고를 정리하며 붙인 주석임(편자 주).

가 창 자: 강두이(여, 72)

가 창 일: 1993. 7. 16.

가창장소: 두구동 죽전마을

여기 꽃고 저기 꽃고 주인네양반 마누라도 꽃고
꽃기사 꽃지마는 밤 농사는 뿔뿔말뿔

만첩 청산 땃때구리는 생나무 구영도 잘 뿔는데
우리집에 저 문둥이는 뿔빈 구영도 문 찾더라

*김승찬, 『두구동의 기층문화』, 부산대학교 부설 한국문화연구소, 1993, 200~201쪽.

[금정구 민요 26]

고아 한탄요

가 창 자: 강두이(여, 72)

가 창 일: 1993. 7. 16.

가창장소: 두구동 죽전마을

세살 먹어 아바이 죽고 다섯살 먹어 어마이 죽고
외갓집에 가йка네 외삼촌은 내 외삼촌이나
외숙모 설움에 못 살고
고모집에 가йка네 고모는 내 고모이나
고모부 설움에 못 살고
이모집에 가йка네 이모는 내 이모이나
이모부 설움에 못 살고
열다섯살에 시집 가 베도 잘 짜고 일도 잘 하이
시부모 나무랄끼 없어갖고
시어마이 메느리 발 뒤치기 곱은 거도 나무래고
시아바이 메느리 머리 곱은 거도 나무래고
베틀도 명지베로 낚는데 사흘만에 명지베로 한 필 짜서
뒷도랑에 찢쳐내고 앞도랑에 헤야(헝구어) 내가
일여덟에 풀을 먹여 지렁 도포 마련해서
은장반에 얹어놓고 대문밖에 써억 나서보이
돌아오는 달도 보고 서울 갔던 님도 보고

앞집에 선부네와 뒷집에 선부네 다 오는데
 어찌 저거 선부 안 오는가
 앞집에 선부네야 뒷집에 선부네야
 우리 선부 안 오더나
 오기는 온다마는 칠성판에 실려오네
 [설명조: 그래 선부님 죽어 와가지고, 그래 시어마이 시아바이 어찌 독한지 시집
 을 못 살아서]
 열두폭 처매를 내가
 한폭 뜯어 꼬깔 짓고 한폭 뜯어 바랑 짓고
 한폭 뜯어 행건 짓고 한폭 뜯어 장삼 짓고
 들고들고 목탁 들고 치고치고 행건 치고
 지고지고 바랑 지고 씨고씨고 꼬깔 씨고
 절로절로 들어가주 눈물짓고 살터란다

*김승찬, 『두구동의 기층문화』, 부산대학교 부설 한국문화연구소, 1993, 201~202쪽.

[금정구 민요 27]

베틀가

가 창 자: 박무성(여, 71)

채 집 일: 1993. 7. 22.

채집장소: 두구동 중리마을

베틀 놓세 베틀 놓세 옥란간에 베틀 놓세
 천상 선녀가 지하에 내려와서 옥란간에다 베틀 놓을 때
 선녀다리는 두 다리요 베틀 다리는 네 다리라
 앞다리는 돋기 놓고 뒷다리는 낮기 놓고
 그 우에다 안치널로 돋이 놓고 천상선녀가 앉았네
 옹골볼땡 등편은 허리말에다 둘렀는데
 용소산에 안개같고 바닷집 우는거는
 우리나라 금자님이 장구 바닥을 두는같고
 북 나드는 저 상은 백옥산 깊은 곳에
 백학이 알을 안고 백옥재로 넘는같고
 왕검에 줄을 내어 좌우로 잇어 놓고

사침대는 이형제요	잉엣대는 삼형제요
놀림대는 호부래비	용두마리 우는 양은
외기러기 짝을 잃고	짝 찾니라 우는 같고
언고불땅 신나무는	짚신짝을 목을 매야
무수강에 잠가 놓고	뱀대에 흐린 양은
구시월 설한풍에	벗거랑이 흐른듯고
낮에 짜면 일광단이고	밤에 짜면 월광단이라
금자 한 필 다 짜내여	덥은 물에 숨 죽이고
잡은 물에 숨 살리서	낭군님에 옷을 빌 때
두막 비고 도복 비고	바지저고리 다리여서

[가창자는 이것밖에 모르겠다 하고 중단함]

*김승찬, 『두구동의 기층문화』, 부산대학교 부설 한국문화연구소, 1993, 202~204쪽. 제목은 '베틀요'.

[금정구 민요 28]

베틀가⁴⁵²⁾

가 창 자: 홍위조(여, 80)
가 창 일: 1993. 7. 22.
가창장소: 두구동 중리마을

바람 솔솔 부는 날에 구름 등실 뜨는 날에
월궁에도 노던 선녀 금사 한 필 짜고 하니
하실 일이 전혀 없어
앞집에야 김대목아 뒷집에야 도대목아
나의 집에 돌아와서 술도 먹고 밥도 먹고
양친 가족 백통대에 담배 한 대 피운 후에
베틀 한 쌍 지어 주소.
월궁에 솟아올라
달 가운데 기수(桂樹)나무 동편으로 뺀은 가지
금도끼를 찍어내여 옥도끼를 다듬아서
굵은 나무 잘 자르고 가는 나무 곱기 잘라

452) 가창자가 사설조로 읊은 노래임.

은대패를 밀어내여 먹줄로 탕과내서
 베틀 한 쌍 지어 놓니 얼른뚝다 다듬어서
 베틀이야 좋건마는 베틀 놓을 데 전혀 없네
 좌우 한편 돌아보니
 비었구나 비었구나 옥난간이 비었구나
 베틀 놓자 베틀 놓자 옥난간에 베틀 놓자
 옥난간에 베틀 놓아
 앞다리는 높이 놓고 뒷다릴랑 낮게 놓고
 옥난간에 베틀 놓아 구름에다 잉아 걸고
 안개 속에 꾸리(실꾸리) 삼고
 잉앗대는 삼형제요 놀곳대(놀림대)는 위동(외동)이라
 앓일개에 앓인 선녀 양 구비에 널쭈런가(떨어지려는가)
 부테 허리 찻는 양은
 산 기실에(기슭에) 흐린 안개 두린(두른) 듯고
 말코라꼬 찻는 양은
 삼대 독자 외동 아들 첩첩이도 둘러싼 듯
 북이라꼬 나는 양은
 청학(靑鶴)이가 알을 품고 배우간(白雲間)에 넘나든 듯
 바디집을 치는 양은
 한양 국사암(國師庵) 절 지을 적에 재목 끊는 소리로다
 양궁양궁 행긴(흰, 굵은) 최활 쌍무지개 선을 둘러
 눈물 찔끔 젖을개는
 강태공의 낙숫댄가 이수강에 잠겼구나
 시모(세모) 졌다 버기미는 훌훌이도 벌려 있고
 사치미라 가린(갈린, 나뉜) 양은
 칠월이라 칠석날에 견우직녀 가린 듯고
 용두마리(용두머리) 우는 양은 새벽서리 찬바람에
 짝을 잃은 외기러기 벗 부리는 소리로다
 나풀나풀 나부손은(나부산대는) 나라에도 충신인가
 청철절석 도투마리 쿵철절석 뒤눕어서
 늙으신네 병이든가
 누워서도 후유하고 앉아서도 후유하고
 절로 굵은 신나무는 헌 신썸이 목을 매여
 밀어서라 땡기서라 바쁘기도 정량(情況) 없다

삼사월아 진진(길고 긴) 해에 명주 부주 짜여내여
하루 이틀 짜여내니 꼬박꼬박 잘도 는다
명주 부주 짜여내여
은장도야 드는 칼로 어리설렁 끊어내서
앞 냇물에 씻거뿌고 뒷 냇물에 행거뿌고
땅에 너니 땅때 묻고 줄에 너니 줄때 묻고
옷다리(울타리)에 널은 빨래 백옥걸은 풀을 하여
아다아당탕 뚜덜러서 흥두깨다 옷을 닦혀(녹여, 부드럽게 하여)
니무지기(네모 지게) 만들어서 방바닥에 던져두니
철모르는 시누이가 오민 가민 다 밟앤다(밟는다)
헌 다리미 다려내여
천첩(千疊, 여러 겹) 천첩 곱기 개여 자기(자개) 함룡(函籠) 반다지에
맵수(맵시) 좋기 개엿어 놓고 대문밖에 썩 나가 서니
저게 오신 저 선배는 우리 선배 안 오던가
오기로사 오두마는(오기는 오지만) 상두판(喪輿板)에 태여(태워)오네
원수로다 원수로다 서울 길이 원수로다
서울 길이 아니더만 우런 님이 안 죽었지
아가 아가 우지 마라 너그 아버지 죽었단다
스물 네 명 상두꾼의 상여 소리 웬 말이고
임아 임아 우런 님아 와(왜) 죽었소 와 죽었소?
배가 고파 죽었거든 밥을 보고 일어나소
옷 기려워(귀해서) 죽었거든 진(긴) 천 보고 일어나소
임 기려워 죽었거든 나를 보고 일어나소
목이 말라 죽었거든 술을 보고 일어나소
저승길이 길 같으면 오민 보고 가민 보지
저승문이 문 같으면 열고 보고 닫고 보지
사장 사장 옥사장아 옥문 장방안 따놔(열어놓아) 주소
우런 님을 다시 보자
날귀기(날고기)를 먹었든강 나날이도 보고지고
달귀기(닭고기)를 먹었든강 다달이도 보고지고
소귀기(쇠고기)를 먹었든강 속속들이 보고지고
물귀기를 먹었든강 물물(物物)이도 보고지라
저승길이 길 같으면 오민 보고 가민 보지
넓은 땅 좁은 길로 지망(志望, 志向) 없이도 달아났다.

*김승찬, 『두구동의 기층문화』, 부산대학교 부설 한국문화연구소, 1993, 221~224쪽.

[금정구 민요 29]

나물 캐기요

가 창 자: 박무성(여, 71)

채 집 일: 1993. 7. 22.

채집장소: 두구동 중리마을

꽤지나 칭칭 나네	
나물 캐로 가봅시다	꽤지나 칭칭 나네
서산 밑에 서처자가	꽤지나 칭칭 나네
남산 밑에 남 대롱아	꽤지나 칭칭 나네
거지 봉산을 치치 올라	꽤지나 칭칭 나네
이산 저산 양 산중에	꽤지나 칭칭 나네
언고 불뚱 할나물아	꽤지나 칭칭 나네
그래 좋다 미역초야	꽤지나 칭칭 나네
맛도 좋다 참나물아	꽤지나 칭칭 나네
여기 저기 쪽박나물	꽤지나 칭칭 나네
한 푼 두 푼 돈나물아	꽤지나 칭칭 나네
올라가는 올고사리	꽤지나 칭칭 나네
내리오는 늦고사리	꽤지나 칭칭 나네
시곡 보에다 귀걸었네	꽤지나 칭칭 나네
건네 등에 남대롱아	꽤지나 칭칭 나네
열두시가 되었으니	꽤지나 칭칭 나네
점섬먹기 오라 칸다	꽤지나 칭칭 나네
남대롱 밥은 보리밥인데	꽤지나 칭칭 나네
남대롱 반찬은 된장이라	꽤지나 칭칭 나네
서 처자 밥은 쌀밥이고	꽤지나 칭칭 나네
반찬은 더덕지고	꽤지나 칭칭 나네
점섬이라 묵은 후에	꽤지나 칭칭 나네
남대롱이 하는 말이	꽤지나 칭칭 나네
이것도 인연인데	꽤지나 칭칭 나네

천상에서 연분이고	꽤지나 칭칭 나네
지하에 인연이 아닐손가	꽤지나 칭칭 나네
처매 벗어나서 채일 치고	꽤지나 칭칭 나네
헐띠 벗어나서 평풍 치고	꽤지나 칭칭 나네
속치마 벗어나서 자리 깔고	꽤지나 칭칭 나네
적삼 벗어나서 비개하고	꽤지나 칭칭 나네
그날 동품을 하신 후에	꽤지나 칭칭 나네
백년 가약 맺아서	꽤지나 칭칭 나네
아들 놓고 딸도 놓고	꽤지나 칭칭 나네
오손도손 잘 산다네	꽤지나 칭칭 나네

*김승찬, 『두구동의 기층문화』, 부산대학교 부설 한국문화연구소, 1993, 204~205쪽.

[금정구 민요 30]

달거리요

가 창 자: 박무성(여, 71)

채 집 일: 1993. 7. 22.

채집장소: 두구동 중리마을

설이라 대보름 날은	오작교 하는 명절인데
청춘남녀 짝을 지어	쌍쌍이도 놀건마는
우러 님은 어디로 가고	달구경 가자 말이 없노
이월이라 한식날은	개자추가 아니던가
북망산천을 찾아가서	무덤을 안고 통곡하니
‘왔느냐’소리도 왜 못 하노	
삼월이라 삼짱날은	제비도 날라와서
옛주인 인사를 비비베베 하건마는	
우러 님은 어디로 가고	십년이 되어도 왜 못 오노
사월이라 초파일 날은	암자 큰 절에 등을 달고
자숙 발원도 하건마는	우러 님은 어디로 가고
자숙 발원도 못 하는고	
오월이라 단오날은	추천달이라 그네 똬데
우러 님은 어디를 가고	추천하자 말이 없노.

유월이라 유두날은	백설기 떡을 먹는 날인데
캄캄하는 빈 방 안에	혼차 앉아서 묵자 하니
목이 메어서 못 묵겠네.	
칠월이라 칠석날은	견우직녀 일년에 한번씩 만내는데
가련한 우리님은	백년이 가도 왜 못 오노.
팔월이라 한가위날은	쌍쌍이 짝을 지어
들구경도 가건마는	우리 님은 어디를 가고
들구경 가자 말이 없노	
구월이라 구일 날은	무지조상은 다 오는데
가련한 우리 님은	어디로 가고서 못 오노고.
시월이라 열엿새날은	자손 발원 재수 발원
대가정마정 다 하건마는	우리 님은 어디를 가고
자숙 발원도 못 하는고	
동짓달 당도하니	동지 팔죽을 먹고 나니
나는 한 살 더 묵었는데	님은 하나 안 생기노
선달이나 당도하니	복조래 사라고 외건마는
임 건질 조래는 왜 없노고	

*김승찬, 『두구동의 기층문화』, 부산대학교 부설 한국문화연구소, 1993, 205~207쪽.

[금정구 민요 31]

장모타령

가 창 자 : 박소남(여, 80)
 가 창 일: 1993. 9. 21.
 가창장소: 두구동 임석마을

이 마루 저 마루 청마루 끝에	빙빙 도는 빙모님요
빌립시다 빌립시다	탁배기 한 잔만 빌립시다
우리 장모 사람 좋네	
첫날 밤에 처녀 주고	이튿날 밤에 각씨 주고
첫번에 오니 소 잡아주고	두번째 오니 닭 잡아주네
우리야 빙모님 사람 좋네	
얼시고 좋다 절시구나	장모 태롱이 절로 난다

*김승찬, 『두구동의 기층문화』, 부산대학교 부설 한국문화연구소, 1993, 208쪽.

[금정구 민요 32]

지신풀이

가 창 자 : 박소남(여, 80)

가 창 일: 1993. 9. 21.

가창장소: 두구동 임석마을

원(주인) 원 문 여소
만복은 이리로
우리 주소 우리 주소
이 집 조상을 우리 주소
앞집에 박대목아
나무재단 하러가자
허리 녕청 짚어지고
한 나무를 거떠보니
성조집에도 불안하다
소래기란놈이 집을 지야
또 한 나무를 거떠보니
작은 톱이야 큰 톱이야
나무 자빠지는 소리는
작은 톱이야 큰 톱이야
나무 재단은 다 했는데
서울 앞산은 금강산
동래하고는 장산 밑
가래를 가지고서
돈은 데는 깎아내고
주춧돌로 송가(세워)놓고
서까래를 걸어보자
황토금토를 얹어놓고
성주 시준을 모시오자
절도섬으로 기경갔네

나갔던 손님이 디(들어)가요
잡구 잡신은 물 알로(아래로)
박씨 대주를 우리 주소
뒷집에 김대목아
작은 톱이야 큰 톱이야
뒷동 산천을 치치자
까막간치가 집을 지야
또 한 나무를 거떠보니
성조집에도 불안하다
어허! 그 나무 잘 생겼다
실근덕 실근덕 실그라
천둥치는 소리 난다
밀어라 땡기라 거두야
집터 한분 둘러보자
전라도라 지리산
어허 그 터는 잘 생겼다
그 집 집터를 땀아보자
깊은 데는 밀어영고
지동 남글 세워놓고
서까래를 걸었네
그집 짓기는 다 했는데
우리 성주님 어데 갔노
설령설령 배 저어라

우리 성주님 모셔오자	성주님아 성주님아
이 배 우에 상석해라	우리 집에 당도하자
설령설령 배 저어라	
성주님을 모시다가	성주당에다 좌정하고
조상님은 모시다가	조상당에다 좌정하고
조왕님은 모시다가	조왕당에다 좌정하고
큰방 치장을 둘러보자	큰방 치장을 둘러보니
피꼬리라 기는 방에	꿍(꿍)의 새끼 노는 방에
왜지로 도배하고	부우러는 장판 깔아
셋별같은 저 요강을	발치마중 밀어 놓고
두자 이불 치치 덮고	영감 할마이 자보세
아들애기 놓거들랑	경상감사 매련하고
딸애기 놓거들랑	평양감사 매련잡자
저방 치장은 그만 두고	
정지 치장을 둘러보자	정지 치장을 둘러보니
큰솔은 닷말지기	동솔은 서말지기
실농사 지은 농사	섬섬이도 일어내자
통통이도 퍼내자	은동이야 늦동이야
줄줄이도 얹혔네	정지 치장 그만 두고
장독간 치장 둘러보자	장독간 치장을 둘러보니
삼년 묵은 지령장	지령장은 껌았다
꼬오장은 붙었다	막장에는 꿀 치고
삼년 묵은 더덕쟁이	오년 묵은 명태쟁이
마구 한번 둘러보자	늪은 소도 천 마리
선 소도 천 마리	뛰는 말도 천 마리
도장을 한번 둘러보자	도장을 한번 둘러보니
밑에 섬은 썩어나고	우에 섬은 축이 난다
이 집 지은 삼년만에	
사모에 핑경 달아	핑경소리 요란하네
앞대문에 범 기리고	뒷대문에 용 기리네

*김승찬, 『두구동의 기층문화』, 부산대학교 부설 한국문화연구소, 1993, 208~212쪽.

장타령

가 창 자 : 박소남(여, 80)

가 창 일: 1993. 9. 21.

가창장소: 두구동 임석마을

울고 갔다	울산장	울다보니	못 보고
미끄러졌다	밀양장	미끄러져	못 보고
아가리 크다	대구장	너무 널려서	못 보고

떡전에	들어가니	고물 차지	내 차지
괴기전에	들어가니	꼬랑땡이 차지	내 차지
하릿장만	못 봐도	기집 자숙	다 꿔누네

*김승찬, 『두구동의 기층문화』, 부산대학교 부설 한국문화연구소, 1993, 212쪽.

[금정구 민요 34]

쌍가락지요(1)

가 창 자: 권숙자(여, 70)

채 집 일: 1993. 7. 13.

채집장소: 두구동 조리마을

쌍금쌍금	쌍가락지	수릿대기	밀가락지
호작질로	닭아내여		
먼데보니	달일래라	절에보니	처자로다
그쳐자라	자는방에	숨소리가	둘이로다
홍달바즌	오라버니	거짓말씀	말아주소
동네풀이	쌔리부니	풍지떠는	소리로다

*김승찬, 『두구동의 기층문화』, 부산대학교 부설 한국문화연구소, 1993, 212~213쪽.

[금정구 민요 35]

쌍가락지요(2)

가 창 자: 김필순(여, 78)

채 집 일: 1993. 7. 19.

채집장소: 두구동 신천마을

쌍금 쌍금 쌍가락지	주석질로 늦가락지
먼 데 보이 달일래라	얹(겹)에 보이 처잘래라
그 처자 자는 방에	숨소리도 두 가질래
청도복상 오라버니	거죽 말씀 말으시소
남풍이 디리부니	풍지 떠는 소릴래라

*김승찬, 『두구동의 기층문화』, 부산대학교 부설 한국문화연구소, 1993, 220~221쪽.

[금정구 민요 36]

쌍가락지요(3)

가 창 자: 박수식(여, 67)

가 창 일: 1987. 9. 6.

가창장소: 금성동 공해마을

쌍금쌍금 쌍가락지	호작질로 닦아내여
먼데보니 달일래라	절에보니 처잘래라.
저처자가 자는방에	숨소리가 둘일래라
청도봉사 오라버니	거짓말씀 말으시요
동남풍이 들이부니	풍지떠는 소릴래라
쫓그마한 재빳방에	비상불로 피워놓고
자는듯이 죽었구나.	

*김승찬, 『부산 산성마을의 기층문화』, 부산대학교 부설 한국문화연구소, 1994, 247쪽.

[금정구 민요 37]

쌍가락지요(4)

가 창 자: 임달련(여, 76)

가 창 일: 1993. 7. 19.

가창장소: 선동 신천마을

쌍금 쌍금 쌍가락지	주석질로 늦가락지
먼데 보니 달을래라	짚에 보니 처잘래라
저 처자야 자는 방에	숨소리가 돌일래라
청부박소 오라배요	긋인 말씀 마라시소
남핑이 디리부니	풍지 떠는 소릴래라
그 말 듣기 통곡해서	석자 수건 목을 매여
자는 듯이 죽었구나	

*김승찬, 『두구동의 기층문화』, 부산대학교 부설 한국문화연구소, 1993, 232~233쪽.

[금정구 민요 38]

진주난봉가(1)

가 창 자: 양이순(여, 73)
 채 집 일: 1993. 7. 13.
 채집장소: 두구동 조리마을

울도 담도 없는 집에	시집 삼년을 살고 나니
시어머씨 하시는 말씀	야야 아가 메늘아가
진주 낭군을 불러하거든	진주야 남강에 빨래 가라
진주 남강에 빨래를 가니	물도 좋고 돌도 좋네
오동통통 빨래를 씻거	검은 빨래는 검기 씻고
흰 빨래는 희기 씻고	오동통통 빨래를 하니
난데없는 발자죽 소리	난데없이도 들려와서
앞에 눈을 거뜰떠보니	하늘같은 갓을 씌고
구름같은 말클 타고	넘 본뜻이도 지내가네
검은 빨래로 검기 씻거	흰 빨래를 희기 씻거
집이라고 돌아오니	시어머님 하시는 말씀
야야 아가 메늘아가	진주 낭군을 불러 하거든
건디방을 거떠봐라	건디방을 내다보니
오색 가지라 술을 놓고	기성의 첩은 앞에다 두고
권주가로 하는구나	버선바닥 뛰어와서
내 자는 방에 들어가서	반포야 석 자 수건

목을 잘라서 죽었구나 진주 낭군이 뛰어와서
사령 사령 내 사령아 기성의 첩은 석달인데
본처는 백년인데 니 그래 할 줄은 내 몰랐다.
아 얼씨구 고리키 냉정하더라.

*김승찬, 『두구동의 기층문화』, 부산대학교 부설 한국문화연구소, 1993, 213~214쪽.

[금정구 민요 39]

진주 난봉가(2)

가 창 자: 김정자(여, 64)

가 창 일: 1987. 9. 13.

가창장소: 금성동 공해마을

울도담도 없는집에	시집삼년을 살고나니
시어마시 하시는말씀	진주야남강에 빨래가자
진주남강 빨래를가니	물도좋고 돌도좋아
검정빨래 검기씻고	흰빨래는 희기씻거
난데없는 재죽소리	하날걸은 갓을씨고
구름같은 말을 타고	못본듯이 지내가니
대문밖에 들어서니	시어마시 하시는말씀
아가야야 며늘아가	진주야낭군을 불러거든
아랫방문을 열고봐라	아랫방을 열고보니
아홉가지 술을놓고	기생첩을 옆에두고
권주가로 세월이라	못본듯이 지내왔네
웃방에라 올라와서	명지수건 닦을뒀어
아홉가지 약을묵고	자는듯이 가고없네
진주낭군 하시는말씀	이사람아 들어보게
본처에정은 백년이요	첩의에정은 삼년이라.

*김승찬, 『부산 산성마을의 기층문화』, 부산대학교 부설 한국문화연구소, 1994, 249~250쪽.

[금정구 민요 40]

사랑가

가 창 자: 양이순(여, 73)
채 집 일: 1993. 7. 13.
채집장소: 두구동 조리마을

하늘과 같이 높은 사랑	하해와 같이도 깊은 사랑
칠년대한 가물은 날에	빗방울걸이도 반긴 사랑
양류 안에 양귀비요	이대롱은 춘향이라
일년 삼백에 육십에 오일	하루만 못 봐도 못 살겠네
얼씨구나 절씨구나	아니 아니는 못하리라

*김승찬, 『두구동의 기층문화』, 부산대학교 부설 한국문화연구소, 1993, 214~215쪽.

[금정구 민요 41]

이별 한탄가

가 창 자: 양이순(여, 73)
채 집 일: 1993. 7. 13.
채집장소: 두구동 조리마을

너와 내가 만넬 적에
마당 우에는 덕석을 펴고
덕석 우에는 초석을 펴고
초석 우에는 지상 펴고
지상 우에는 암담 숫담을 마주 놓고
청실 홍실을 걸어 놓고
백년의 인연을 계약을 하여
백년도 못 살고 이별됐다
누가 냈노 누가 냈노
이별로 누가 냈노
날과 같이도 원수로구나
얼씨구 절씨구 놀아보자

*김승찬, 『두구동의 기층문화』, 부산대학교 부설 한국문화연구소, 1993, 215쪽.

[금정구 민요 42]

가짜타령

가 창 자: 방이금(여, 77)

채 집 일: 1993. 7. 13.

채집장소: 두구동 조리마을

다신에미 에미랄강 이붓애비 애빌랄강
소양갱이 갱일랄강 헌두더기 옷일랑강
보리뻘이 뻘일랑강 나무접시 접실랑강

*김승찬, 『두구동의 기층문화』, 부산대학교 부설 한국문화연구소, 1993, 215~216쪽.

[금정구 민요 43]

창부타령

가 창 자: 김성근(남, 77)

가 창 일: 1993. 7. 13.

가창장소: 두구동 조리마을

아니 아니 노지는 못하리라
송죽겉이 굳은 절개
매 맞는다고 허락하리
몸은 비록 기생일망정
절개조차 없을소냐
얼씨구나 좋네 정말 좋네
아니 노지는 못하리라.

*김승찬, 『두구동의 기층문화』, 부산대학교 부설 한국문화연구소, 1993, 216쪽.

[금정구 민요 44]

백구(白鷗)타령

가 창 자: 김성근(남, 77)

가 창 일: 1993. 7. 13.

가창장소: 두구동 조리마을

백구야 훨훨 나지 마라	너를 잡을 내가 아니다
성상(聖上)이 바리시니	너를 좇아 내가 왔네
나물 먹고 물 마시고	팔을 베고 누웠으니
대장부 살림살이	요만만 되여도 만족하다
일편단심 맺인 설음	부모님 생각만 절로 난다

*김승찬, 『두구동의 기층문화』, 부산대학교 부설 한국문화연구소, 1993, 216쪽.

[금정구 민요 45]

화투뒤풀이

가 창 자: 배옥식(여, 64)
채 집 일: 1993. 7. 13.
채집장소: 두구동 조리마을

정월 솔 가지 속속한 마음	이월 매조에 맺어 놓고
삼월 사꾸라 산란한 마음	사월 흑사리가 허송하다
오월 난초 나비가 날라	유월 목단에 춤 잘 춘다
칠월 홍돼지 홀로서 늙어	팔월 공산에 달 떠온다
구월 국화 굳은 마음	시월 단풍에 떨어져서
오동추야 오시는 손님	선달 비 맞아 못오시나

*김승찬, 『두구동의 기층문화』, 부산대학교 부설 한국문화연구소, 1993, 216~217쪽.

[금정구 민요 46]

양산도

가 창 자: 김성근(남, 77)
가 창 일: 1993. 7. 13.
가창장소: 두구동 조리마을

에에히이여
양덕(陽德) 맹산(孟山) 흐르는 물은
감돌아 든다고 부벽루로구나
남산(三山)은 반락(半落)에 모란봉이 되고

이수중로(二水中路)에 능라도로다
에에히이여
월천(越川)군아 말 물어 보자
저 건너 색주가(色酒家) 날 오라 하더나
에에히이여
가는 데 쪽쪽 정만 들여 놓고
이별이 찾아서 내가 못 놓겼다.

*김승찬, 『두구동의 기층문화』, 부산대학교 부설 한국문화연구소, 1993, 217쪽.

[금정구 민요 47]

방아타령

가 창 자: 김성근(남, 77)

가 창 일: 1993. 7. 13.

가창장소: 두구동 조리마을

얼루 방애야	강태구리 노적 방아
얼루 방애야	하루 찢고 이틀 찢어
얼루 방애야	보리 석 섬 다 찢이 놓고
얼루 방애야	밤질 가기 바쁘구나
얼루 방애야	언지나 찢이 놓고 난질 갈꼬
얼루 방애야	난질 갈라꼬 맘을 먹었더이
얼루 방애야	이 호랑(호룡) 저 호랑 다 달어 놓고
얼루 방애야	전보 치니 못 가겠네

*김승찬, 『두구동의 기층문화』, 부산대학교 부설 한국문화연구소, 1993, 217~218쪽.

[금정구 민요 48]

신작로(新作路) 노래⁴⁵³⁾

가 창 자: 김성근(남, 77)

가 창 일: 1993. 7. 13.

453) 이 노래는 新民謠이나, 가창자의 창의력이 돋보이고, 민요 일반의 형식을 갖추었으며, 민중 의식과 反文明 의식을 담고 있어 수록했다.

가창장소: 두구동 조리마을

신작로 숲풀에 뽕뿌라를 숨겼더니(심었더니)
자동차 바람에 시단풍 드노라
공동 묘지 철독에 아가씨를 숨겼더니
저 행상 바람에 시단풍 드는구나
나도 갈란다 나도 갈란다
고속도로 끝나면 나도 갈란다

*김승찬, 『두구동의 기층문화』, 부산대학교 부설 한국문화연구소, 1993, 218쪽.

[금정구 민요 49]

길쌈요 454)

가 창 자: 김성근(남, 77)

가 창 일: 1993. 7. 13.

가창장소: 두구동 조리마을

늦어간다 늦어간다 칠월 질쌈 늦어간다
침개 밑에 자분(졸은) 년아 매나 꿈꿈 맞아 봐라
어는 정에 잠이 오노? 칠월 질쌈 늦어간데
어는 정에 잠이 오노?

가고재라 가고재라 청도 미랑(밀양) 가고재라
[설명으로: 카이, 시아버지가 “야! 이 똥겉은 년아!”]

갈고재라 갈고재라 팔발 쫓아가지고
미물(메밀) 갈라 켜니더.
[설명으로: 카이, “아! 그 켜나(그렇게 말했나)?” 카네. 인제 엉뚱한 소리하는 기
라.]

*김승찬, 『두구동의 기층문화』, 부산대학교 부설 한국문화연구소, 1993, 218~219쪽. 제목은

454) 여름 농사철이 가까와 오는 데도 졸음에 겨워 하는 며느리를 나무라는 시아버지, 고된 시
집살이에서 도피하고픈 며느리, 재차 꾸짖는 시아버지, 재치 있게 임기응변으로 모면하는 며
느리의 발언 등이 교차되고 있는 특이한 대화형 민요다.

‘길쌈 노래’.

[금정구 민요 50]

유산가

가 창 자: 김성근(남, 77)

가 창 일: 1993. 7. 13.

가창장소: 두구동 조리마을

만고 강산 유람할 제	삼신산이 어디메뇨?
일 봉래 이 방장과	삼 영주 이 아닌가?
백천폭포 급한 물은	은하수를 기울은 듯
잠든 학이 잠든 구름	맑은 안개 잠겼으니
선경일시가 이 아닌가?	죽장 짙고 풍월 실어
봉래산을 올라가니	폭포도 종단마는
여산 경치가 여기로다.	애애라 만수 애라 대신이야

*김승찬, 『두구동의 기층문화』, 부산대학교 부설 한국문화연구소, 1993, 219~210쪽.

[금정구 민요 51]

백발가

가 창 자: 김성근(남, 77)

가 창 일: 1993. 7. 13.

가창장소: 두구동 조리마을

어제 오날 청춘일리	홍안 백발이 웬 말인고
덧없이 오는 백발	넌들 아니 늙을손가
늙기도 설흔(서러운) 중에	모양조차 다 늙었네
꽃같이 곱던 얼굴	주름살은 웬 말인고
껌던 머리 백발 되고	곱던 얼굴 주름 잡고
이 삼십을 당하여도	부모 공을 모르더라
부모 공을 할라더니	어연간 백발 됐네
상탕에 메를 짓고	중탕에 모욕(목욕)하고
하탕에 수족 씻고	춧대 한 쌍 벌어놓고

향로 향합 불 갖추고	소지 한 장 올린 후에
적삼 내어 손에 들고	어어 허어
흔백 불러 초헌(초헌)하니	없던 곡설(哭聲) 낭장하다
일직사자 손을 끄고(끌고)	월직사자 등을 밀고
활등같이 굽은 길로	살대같이 달려와서
닫은 문을 바짝 치며	어서 가자 바빠 가자
뉘 영(令)이라 지체하리	
사자님요 사자님요	이 내 한 말 들어주소
시장한데 점심하고	신발이나 곤쳐신고
쉬어 가자 애결(哀乞)하니	어는 사자 말을 들어주리

*김승찬, 『두구동의 기층문화』, 부산대학교 부설 한국문화연구소, 1993, 220쪽.

[금정구 민요 52]

뱃놀이 노래

가 창 자: 김필순(여, 78)

채 집 일: 1993. 7. 19.

채집장소: 두구동 신천마을

낙양산 산 우에 막걸리 병을 차고
임 죽은 무덤에 더듬더듬 가노라
에야루 야누야아 에야루 야노 어기여차 뱃놀이 가잔다

우리의 낭군님은 명태발이 갔는데
몹쓸년의 셋바람만 석달 여흘 불어라
에야루 야누야아 에야루 야노 어기여차 뱃놀이 가잔다

*김승찬, 『두구동의 기층문화』, 부산대학교 부설 한국문화연구소, 1993, 221쪽.

[금정구 민요 53]

이별가

가 창 자: 홍위조(여, 80)

가 창 일: 1993. 7. 22.

가창장소: 두구동 중리마을

아아 휘돌아 감도는 산허리에
구름 잡아 임 맞은 꿈
고이 잡아 가슴에 품었더니
가는 설움 실고 세월만 흘러간다

설악산 깊은 골에 밤새가 울어
객창에 비친 달이 너무 아쉬워
꽃그림자 내려밟고 임 떠날 때
울밑에 귀뚜리도 슬피 울었지

*김승찬, 『두구동의 기층문화』, 부산대학교 부설 한국문화연구소, 1993, 224~225쪽.

[금정구 민요 54]

상여소리

가 창 자: 홍위조(여, 80)

가 창 일: 1993. 7. 22.

가창장소: 두구동 중리마을

너화 넘자 너화 흥
핑풍(병풍)에 기린 닭이 왜를 치만(치면) 오실랑가
너화 넘자 너화 흥
인지 가만 언제 오노 한분(한 번) 가만 못 오는 길
너화 넘자 너화 흥
동솔(옹달솔)에 안친 암닭 알 놓거든 오실랑가
너화 넘자 너화 흥
부뚜막에 널썬(떨어진) 밥이 축이 트만 오실랑가
너화 넘자 너화 흥

*김승찬, 『두구동의 기층문화』, 부산대학교 부설 한국문화연구소, 1993, 225쪽.

[금정구 민요 55]

우미인가(虞美人歌)

가창자: 홍위조(여, 80)

가창일: 1993. 7. 22.

가창장소: 두구동 중리마을

천하 동진 강동국에 산도 좋고 물도 좋다
아황 년년 노던 곳에
만고절색 고운 얼굴 우미인이가 새로 나서
초패왕에 부인인강 귀동여의 따님인강
십오 십육 좋은 시절 초패왕을 만났구나
장할시구 우리 대왕 역발산기개시라
하늘 높고 달 밝은 데 덩꼬(데리고) 가고 구경하고
불 현(견) 사창 별당 안에 반달 걸은 처자 두고
대궐 걸은 집 놔두고 태산 걸은 부모 두고
연당 안에 빌당 안에 반달 걸은 처자 두고
대왕님요 대왕님요 가지 마오 가지 마오
대왕 따라 난도 가요 대왕님요
바늘 간 데 실 안 가나
대왕님이 나를 두고 가지 마오 가지 마오
대왕님요 가지 마오 대왕 따라 난도 가요
대왕님이 가신 후에
뒷도장에 맛 존 술은 어느 대왕 맛을 보노
은상자야 뇨상자야 금 실경(시령)에 얹어두고
대왕님이 가신 후에 날과 같은 아녀자는
어는 곶에(곶에) 없어가주고 대왕따라 난도 가요
우미인이야 우지 마라
대장부 남자가 이력이 무엇이나
죽어도 전장에 가여 죽고
살아도 전장에 가여 살고
대장부 이력이 그것인데
우미인이야 우지 마라
이 세상에 못 만나면 후세상에 만나가주
부귀영화 좋은 팔자 미인박이 또 있는강
널랑 죽어 궁기 되고 날랑 죽어 쟁피(菖蒲) 되고

오월이라 초단옷날 약숫물에 만납시더.

*김승찬, 『두구동의 기층문화』, 부산대학교 부설 한국문화연구소, 1993, 225~226쪽.

[금정구 민요 56]

임타령

가 창 자: 홍위조(여, 80)

가 창 일: 1993. 7. 22.

가창장소: 두구동 중리마을

휘영청 찬 달아 임우 사창에 비친 달아
임 홀로 누워 뵈더냐?
명월아 본대로마 일러나 다오
어난(어느) 부랑자 품었더냐?
지내간 밤에 꿈이 좋더니
왔소 왔소 편지 왔소
임우키에서(임에게서) 편지 왔소
편지야 왔거난마는
임은 어이 못 오시노?
동자야 먹 갈아라
임우키로 답장하자
아이 종아 술을 부어라
잔대로만 가뜰 부어라
취토록 먹어난 후에
임 오기로써 사생결단.

*김승찬, 『두구동의 기층문화』, 부산대학교 부설 한국문화연구소, 1993, 226~227쪽.

[금정구 민요 57]

구월산요

가 창 자: 홍위조(여, 80)

가 창 일: 1993. 7. 22.

가창장소: 두구동 중리마을

황해도라 구월산 밑에	주추 캐는 저 큰아가가
해 다 지고 저문 날에	너의 집은 어데 두고
주추만 캐고나 있소	
나의 집을 찾으라며는	황해도라 구월산 밑에
굶은 바늘 기동(기둥) 서고	대침바늘 대들보 걸고
중침바늘 서까래 걸어	시침바늘을 산자 얹고
안개 걷어 알매 치고	구름 걷어 지붕 이고
황해도라 구월산 밑에	초가삼간이 내집이요
오실라면 오십시고	가실라면 가십시오
오시며는 대장부요	못 오시면 졸장부라
주는 거도 못하는 것	왕장군에도 고재(고자)로다

*김승찬, 『두구동의 기층문화』, 부산대학교 부설 한국문화연구소, 1993, 227~228쪽.

[금정구 민요 58]

장미요

가 창 자: 홍위조(여, 80)
가 창 일: 1993. 7. 22.
가창장소: 두구동 중리마을

대천 바다 한 가운데 뿌리 없는 남기 나서
가지는 열 두 가지요 잎은 피어 삼백 육십
그 남게 열매가 열어 꽃이야 곱거난마는
가지 높아 못 꺾겠소
꺾지야 못할망정 일흠(이름)이나 짓고 가세
그 꽃 일흠은 아마도 장명화(장미화)요
장명화가 곱다고 해도
그 꽃 부이며는(부러뜨리면) 가시(까시)로다

*김승찬, 『두구동의 기층문화』, 부산대학교 부설 한국문화연구소, 1993, 228쪽. 제목은 ‘장미 노래’.

[금정구 민요 59]

미녀(美女)요

가창자: 홍위조(여, 80)

가창일: 1993. 7. 22.

가창장소: 두구동 중리마을

대구부(大邱府) 영천(永川) 긴 골목에
머리 좋고 키 큰 처녀
봉숭아고개로 넘나들민
놀민가민 빛만 비노
늬 간장을 녹힐라고
오민가민 빛만 비노
대장부 간장을 다 녹힌데이

꽃을 꺾어 머리 꽂고
잎을 따서 입에다 물고
산천에 올라 들구경 가니
아마도 일색은 나 하나뿐인가
길 가던 행인이 길 못 간다.

*김승찬, 『두구동의 기층문화』, 부산대학교 부설 한국문화연구소, 1993, 228~229쪽. 제목은 '미녀(美女) 노래'.

[금정구 민요 60]

댕기요(1)

가창자: 홍위조(여, 80)

가창일: 1993. 7. 22.

가창장소: 두구동 중리마을

댕기 댕기 금박(金箔) 딱딱 박으낀 댕기
준지 철철 물린 댕기
올 아버지가 떠온 댕기
우리 엄마 접은 댕기

우리 월키(올케) 눈치나 땡기
우리 오빠 코치 땡기
순금씨야 머리 끝에 디리는 땡기
성안에서 널뛰다가 성밖에야 떨어진 땡기
저게 가는 저 도련님 나의 땡길 주웠거든
소문 없이 나를 주소 말수 없이 나를 주소
남 몰래서 나를 주소
순금씨 땡기야 주웠건만
이내 품에 잠 안 들마(들면)
순금씨 땡기를 못 주겠소

*김승찬, 『두구동의 기층문화』, 부산대학교 부설 한국문화연구소, 1993, 229쪽. 제목은 ‘땡기 노래’.

[금정구 민요 61]

땡기요(2)

가 창 자: 이용악(여, 78)

가 창 일: 1987. 9. 13.

가창장소: 금성동 공해마을

올아부지 서울가서 석 냥 주고 떠온 땡기
올어무니 접은 땡기 울오래비 야단 땡기
우리 올키 눈쌀 땡기 우리 셰이(형) 개살 땡기
우리 동생 눈물 땡기 내한테는 좋은 땡기
[그 땡기를 가(가지고) 가다가 잃어뺐거든. 잃어뺐는데.]
주았구나 주았구나 김통이 주았구나
[김통이 그 땡기를 주았거든]
통이통이 김통이요
[통이한테 가서 이바구를 잘 했다. 그런데 김통이]
청실홍실 한뫼대라 걸치놓고
그때 시절 네 오너라 그때 시절 네 주꾸마
덕석비강 초석비강 한 뫼대라 걸치놓고
그때시절 네 오너라 그때 시절 너 주꾸마

[그래 처이가 오래비 야단친다고]

청부복상 오라버니요 거짓말씀 하지 마소

[카고, 그런(그러한) 내가 아이라고, 그래 처이가 오빠가 거짓말 한다고, 애민타고, 앞 동산에 올라가서 석자 수건 목을 매어 자는 듯이 죽더란다.]

*김승찬, 『부산 산성마을의 기층문화』, 부산대학교 부설 한국문화연구소, 1994, 256쪽. 제목은 '댕기 노래'.

[금정구 민요 62]

지신밟기

가 창 자: 홍위조(여, 80)

가 창 일: 1993. 7. 22.

가창장소: 두구동 중리마을

어루하 성할 지신아 지신 지신을 놀루세(누르세)

이 집 좌향 불진대는 좌좌우로 서왔네(세웠네)

좌좌우로 서운 집은 장자문을 달으소

사모에 핑경 달아 핑경 소리도 작작하다

이 집 좌향 불진대는

앞으로 봐도 이천 석 뒤로 봐도 이천 석

길이로 봐도 이천 석 모로 봐도 이천 석

집 치장은 고만 두고 부인네 치장을 해여 보자

난초 같은 체머리를 물결 같이 흘러빚기

위 타라(틀어) 움히(움아 매어)엿고 뒤에는 금봉잠(金鳳簪)

아들 형제는 팔 형제요 딸의 형제는 사형제라

십이 남매 명(命)을 두자

명을 두자 명을 두자 십이 남매 명을 두자

천 석 만 석 불아가주 십이 만 석 불아주자

아들 형제 팔 형제로 한 서당에 글을 갈치

경주 서울 저 서울에 과거하기만 힘을 씀다

이 집이라 지을 적에 어느 대목이 지었는고

앞집에야 김대목아 뒷집에야 박대목아

연장 망태로 둘러 미고(메고) 뒷동산천에 치치달라

이 나무 저 나무 건너다 보니
만천장수 광자목(萬千丈樹 廣長木)
이 톱 저 톱 걸어 놓고 밀어라 땡기라
시렁시렁 톱질이야 시렁시렁 톱질이야

*김승찬, 『두구동의 기층문화』, 부산대학교 부설 한국문화연구소, 1993, 230쪽.

[금정구 민요 63]

장끼타령

가 창 자: 홍위조(여, 80)

가 창 일: 1993. 7. 22.

가창장소: 두구동 중리마을

건곤이 초판하고 만물이 풍성할 제
유유충도 삼백이요 유모충도 삼백이라
신령할사 사람이요 무지할사 미물이라
콩의 몸이 삼길(생길) 적에
재관이 오색이요 별호(別號)는 화충이라
압록강 화충이는 중먹이 실 옥관자(玉貫子)에
다흥대단 절메기로 초록 궁초 깃을 달고
각씨 치장 불짝시면 맵씨 좋은 머리 끝에
곱기 빚어 단장하고
겉누비에 줄누비로 상하 의복 갓초아서
아홉 아들 열 두 딸과 스물 하나 둘러서니
줄줄이 늘어서서 좌우편전 발머리에
콩 주우로 들어가니 장끼란 놈이 한 말이
지내 간밤 꿈 좋더니 황학을 비껴타고
천상에 솟아올라 산림처사 봉하시고
만석고에 콩 한 섬을 벌금으로 대였더니
어허 그 콩 반갑구나
각씨란 놈이 한 말이
간밤에 꿈을 꾸니 내 몸이 과부되야
지발 그 콩 먹지 마오

설상(雪上)에 유인적(有人跡)하니
 동지선달 이 근동에
 첩첩이 쌓였노니 곳곳이 덮혔으니
 설상에 유인적하니 지발 그 콩 먹지 마오
 부디 그 콩 먹지 마오
 장끼란 놈이 한 말이
 기동서방 마다 하고 다른 서방 질기더니
 참바 올바 니(네)거리에 난장 패서 패 직일년
 종루거리 니거리에 난장 패서 패 직일년
 장끼란 놈 그에 불콩 똑딱 먹고
 두 발을 뺨을치고 두 활개 너불씩고 빼덩빼덩 넘어가니
 난데없는 삽살개가 두 발을 뺨을치며
 이빨을 형컬씩고 왈각덜컥 쫓아와서
 장끼란 놈 물어가니 황망길에 갈 길 없어
 각씨란 놈 난데 없는 삼발으로 달려드니
 굶은 삼대 뿌러지고 가는 삼대 쓰러지고
 아홉 아들 열두 딸과 줄줄이 산기슭을 올라서서
 황망길에 갈 길 없네.

*김승찬, 『두구동의 기층문화』, 부산대학교 부설 한국문화연구소, 1993, 230~232쪽.

[금정구 민요 64]

솔 때우기요

가 창 자: 홍위조(여, 80)

가 창 일: 1993. 7. 22.

가창장소: 두구동 중리마을

여 앉아서 솔 때우는 양반아
 솔 뿔버진 거는 때울줄 아는데
 정 떨어진 거는 못 때우느냐
 정 떨어진 거는 지화를 때우고
 솔 뿔버진 거는 무쇠로 때우지

*김승찬, 『두구동의 기층문화』, 부산대학교 부설 한국문화연구소, 1993, 232쪽. 제목은 '술 때우는 노래'.

[금정구 민요 65]

사랑가

가 창 자: 정수남(여, 74)

가 창 일: 1993. 7. 16.

가창장소: 두구동 수내마을

하해같이도 깊은 사랑 태산같이도 높은 사랑
석달장마 뱀살같이도 깊은 사랑
칠년대한 가물음에 빗발같이도 깊은 사랑
물길같이도 길었던 사랑 사랑 사랑 내사랑아
아니 놀던 못하리요

*김승찬, 『두구동의 기층문화』, 부산대학교 부설 한국문화연구소, 1993, 233~234쪽.

[금정구 민요 66]

상사요

가 창 자: 정수남(여, 74)

가 창 일: 1993. 7. 16.

가창장소: 두구동 수내마을

저 건너 나무 밑에	나무 비는(베는) 남도령아
오만 나무 다 비어도	오죽설대란 비지 마오
오늘 키와 명년 키와	낙수대를 후아잡아
남는다면 열녀로다	못 남는다면 상사로다
열녀상사 고를 매여	고 풀리두록 살아 보세

*김승찬, 『두구동의 기층문화』, 부산대학교 부설 한국문화연구소, 1993, 234쪽.

[금정구 민요 67]

갈가마구요

가 창 자: 김동준(남, 77)

가 창 일: 1993. 7. 19.

가창장소: 선동 신천마을

지리산 갈가마구야

니몸 검은 줄로 세상 사람 알건마는

내 쫓 검은 줄로 어느 누구 알아 주리⁴⁵⁵⁾

*김승찬, 『두구동의 기층문화』, 부산대학교 부설 한국문화연구소, 1993, 235쪽.

[금정구 민요 68]

권주가

가 창 자: 엄석렬(여, 87)

가 창 일: 1987. 9. 25.

가창장소: 금성동 죽전마을

이청저청 대청안에

빙빙도는 장모님요

빌립시다 빌립시다

탁주일배를 빌립시다

탁주일배를 배를모아

청주강에 띄아놓고

늦대가치 돛대를시와

바늘쳐마로 풍선달고

안주야섬속을 놀러가자.

*김승찬, 『부산 산성마을의 기층문화』, 부산대학교 부설 한국문화연구소, 1994, 248쪽.

[금정구 민요 69]

장사요

가 창 자: 이장년(여, 79)

가 창 일: 1987. 9. 25.

가창장소: 금성동 죽전마을

판장사는 판을지고

판산절사로 넘어간다.

독장시 독을지고

독지고개로 넘어간다

455) 가창자는 이 노래를 음사(淫詞)라 함.

명태장사는 때를지고 만덕절사로 넘어간다
조개장사 오글치라 चा이장사 빠들치라.

*김승찬, 『부산 산성마을의 기층문화』, 부산대학교 부설 한국문화연구소, 1994, 249쪽.

[금정구 민요 70]

항애장사요

가 창 자: 김복련(여, 80)
가 창 일: 1987. 9. 27.
가창장소: 금성동 죽전마을

장사장사 항애장사
니겔머진것이 괴멋인고
장부야장칼에 우동추에
포리야기성 머리댕기
연달래진달래 따드랑땅땅질래
맨드래미봉선화 꽃이더욱 좋네.

*김승찬, 『부산 산성마을의 기층문화』, 부산대학교 부설 한국문화연구소, 1994, 249쪽. 제목은 '항아장사요'.

[금정구 민요 71]

처녀·총각 화답가

가 창 자: 이조원(여, 91)
가 창 일: 1987. 9. 13.
가창장소: 금성동 공해마을

옥당안에 지당안에	씨앗이가 꽃이패여
책상에 도련님은	그꽃보고 희롱하고
천만공에 매인꽃은	금세상에 꽃일레라
유월염천 대추낭게	희희청청 땡기채라
쪽을승가 쪽저고리	잇을승가 분홍처매
주름잡아 들치입고	맹화집에 놀러가니

맹화씨는 간곳없고	함안땅 함대룻이
풀목잡고 희롱한다	풀뭍인들 말할소냐
너그부모 자택받고	우리부모 허락받고
글로하여 부뵈되자.	

*김승찬, 『부산 산성마을의 기층문화』, 부산대학교 부설 한국문화연구소, 1994, 250쪽.

[금정구 민요 72]

애원애기 노래(1)

가 창 자: 김원갑(여, 74)

가 창 일: 1987. 9. 13.

가창장소: 금성동 공해마을

[이전에 애원애기가 일찌기 에릴적에 부모를 잃었는데]

한살 묵어 어망 죽고	두살 묵어 아방 죽고
호부 닷새 글을 배와	열 다섯에 시집가니
시금시금 시어매는	키 작다고 나무래고
시금시금 시아배는	나 적다고 나무래고
호부 닷새 시동생은	별나게도 나무래고
칼날같은 시누부는	야시같이 나무래니
첫새복에 첫닭 울어	뒷동산에 치치달아
올라가는 올고사리	내려오는 늦고사리
야금야금 꺾어다가	

조끄마는 시양술에	새파라이 대치서러
목짚랴다 자래뱅이	기름 짚곰 황새뱅이
꼬작꼬작 문치서러	열두 판상 갈라놓고
소 천마리 잡아놓고	말 천마리 잡아놓고

[그래 해가 돋네]

시금시금 시어매요	고만 자고 일어나소
동산에 해 돋았소	
시금시금 시아배요	고만 자고 일어나소
동산에 해 돋았소	
작은 방에 들어가서	

칼날같은 시누부야 송곳같은 시누부야
 싯돋은네 해 돋았다 고만 자고 일어나게
 아릿방에 내리가서
 머슴들아 종놈들아 고만 자고 일어나서
 개밥통에 낫을 씻고 아침 먹기 조신해라
 다른데 일꾼들은 지게 목발 뚜드리고
 뒷동산을 치치달아 나무 한 짐 다 해간다
 서방님요 서방님요 어서 자고 일어나서
 아직진지 잡수시소
 애원애기 날 잡어로 저승차사 내려오요
 [그래가 밥을 먹네, 밥을 먹고 나이께네]
 은동우를 손에 들고 은따뱅이 팔에 걸고
 샘이 길에 나가서니
 난데없던 남대룡이 말 한 바리 빗기타고
 한쪽 손에 칼로 들고 한쪽 손에 철막들고
 애원애기 어데 가노 잠간 잠시 들어봐라
 [그래 애원애기 앞에 서서, 저승길 가자 하더라. 그래 애원애기가 못 가서러]
 잠간 잠시 쉬어주소 우리 집에 들어가서
 아버님께 허락받고 어머님께 허락받고
 [온다 카인께네, 그래 대문 열고 쑥 들어가서, 시금시금 시아버님 애원애기 부를
 라고, 저승에서 왔다고 말할라카이, 그래 아버님 대신에 갈랍니까 카이까네]
 네 대신은 내가 가고, 내 대신은 내가 가지
 네 대신을 내가 가나?
 [그래 안 갈라 카더라. 그래 시어마이한테 가서]
 시금시금 시엄매요 내 대신에 갈란교?
 어라 야야 물렸거라 네 대신은 내가 가고
 내 대신은 내가 가지 념의 대신 누가 가나?
 [할 수 없어서 들어가서]
 서방님요 서방님요 내 대신에 갈란교?
 네 대신은 내가 가고 내 대신은 내가 가는데
 우리 애기 어미라 내가 갈께
 [카이, 못가라 카더라. 그래 젓을 방에다가 한 종발이 짜 놓고 간다고 갔거든.
 저승차사 따라가이, 저승에 드가이 저승에서 가마이 인물을 보더라는]
 애원애기 애원애기 삼년만 더 살고 오너라

너그 집에 돌아가서 너그 애기 키아 놓고
[그래 오라 카더란다. 그래 다부 돌아오다가 못에 빠져 죽었다 카데.]

*김승찬, 『부산 산성마을의 기층문화』, 부산대학교 부설 한국문화연구소, 1994, 251~253쪽.

[금정구 민요 73]

애원애기 노래(2)

가 창 자: 이장년(여, 79)

가 창 일: 1987. 9. 25.

가창장소: 금성동 죽전마을

아밤 죽어서 앞산 묻고,	어맘 죽어서 뒷산 묻고,
두 쌍구라 한 가운데,	새별 상추 같았더니,
연해야 속잎은,	해가 열추 반이라도,
이슬 깰줄 모르더네.	
집에 와서 동생들아,	부모 찾아서 안 갈라나,
가기야 가지마는	이슬 있어서 어이 가리.
송지 꺾겨서 짝지짚고	신은 벗어나 허리차고
잎은 따서 채금불고	꽃은 따서 머리 꽃고
힘이 들민 내 못가리	수미산 깊은 골에
엄마야고 불렀더니	엄마 대답은 간 곳 없고
오만 새만 대답하네	
오만 새야 대답마소	우리 부모 대답 듣자

*김승찬, 『부산 산성마을의 기층문화』, 부산대학교 부설 한국문화연구소, 1994, 253쪽.

[금정구 민요 74]

부모 기리는 노래

가 창 자: 이조원(여, 91)

가 창 일: 1987. 9. 13.

가창장소: 금성동 공해마을

이청저청 대청밖에

양대초라 금초남게	금실나워 앉아우네
나워 기경 하시다가	일천자로 잇었구나
넬 아침에 조사끝에	우리 선생 아르신면
기엿시리 하오리꼬?	
아금자금 꽃밭안에	꽃깁거러 가다가
물명지 단속곳을	석자서치 짜쳤구나
글로 하여 안듣거든	넬 아침에 조사끝에
임금앞에 굶니다가	주치돌에 찼다 하소
글로 하여 안듣거든	넬 아침에 조사끝에
살꼼살짝 벗어주면	
물맹지라 당사실에	열기없이 기아주마
꽃도 꽃도 새평꽃도	패어놓고 유진꽃도
전라감사 딸이되어	순임금의 첩이되어
애기동동 설친다고	능금 하나 묵고집어
대궐담장 뛰어넘다	
들켰구나 들켰구나	통인에게 들켰구나
잡혔구나 잡혔구나	새롱(사령)에게 잡혔구나
그걸로서 죄로하고	열석달로 가되놓고
아침조석 채일받고	지녁조석 세경받고
모시적삼 단적삼에	땀이나서 다씩었네
기경하는 소년들아	우리 부모 만나거든
매맞아 죽었다고 카지 말고	
빙들어 죽었다고 캐주소	
꼬사리라 만덕구	수리 대자꼬까
저고개를 넘어가면	기린부모 보련마는
날마다고 가는부모	찾아간들 뵈할꼬

*김승찬, 『부산 산성마을의 기층문화』, 부산대학교 부설 한국문화연구소, 1994, 253~255쪽.

[금정구 민요 75]

부모 불공 노래

가 창 자: 윤필순(여, 71)

가 창 일: 1987. 9. 25.

가창장소: 금성동 죽전마을

한 살 묵거 어맘 죽고	두 살 묵어 아밤 죽고
호봇 닷새 글을 배와	열다섯에 절에 올라
아래 도장 내리가서	오른 짐바 왼 짐바
허리 영청 굶어지고	금강산 제월봉에
제물 불공 하러 가세	

*김승찬, 『부산 산성마을의 기층문화』, 부산대학교 부설 한국문화연구소, 1994, 255쪽.

[금정구 민요 76]

바느질요

가창자: 이조원(여, 91)

가창일: 1987. 9. 13.

가창장소: 금성동 공해마을

저 건네라	저 배는		
중배더냐	새배더냐	감도벼실	별이나
새벽달	열 사흔날	대궐 안에	불이 들어
친구들이	몬곤 불로	물이 들어	다 끄구나
은접시는	은꽃 패고	놋접시는	놋꽃 패고
행구 판에	수저피는	급자 꽃이	다 뺏구나
서울가서	남비단에	진주가서	물을 디러
하동 옷골	따귀네	수영 선반	지연군
잘대끼미	실 한 타래		
이 손곳도	바느질에	저 손곳도	바느질에
맹지 고름	깊이다라		
아직이슬	착 녹하서	은다래미	뺨놓아
입자하니	몸때 묻고	벗어놓이	살이 지네
뒷동산	치치올라	키 크다	정자나무
이 가지도	걸어 놓고	저 가지도	걸어 놓고
정반님	오두룩	바랴라네	

*김승찬, 『부산 산성마을의 기층문화』, 부산대학교 부설 한국문화연구소, 1994, 255~256쪽.
제목은 ‘바느질 노래’.

[금정구 민요 77]

아기 어르는 노래(1)

가창자: 양이순(여, 73)

채집일: 1993. 7. 13.

채집장소: 두구동 조리마을

금자동아	옥자동아	수명장수	부귀동아
은을 주어도	너를 사까	돈을 주면	너를 사까
동네방네	귀염동아	나라에는	충신동아
부모에는	효자동아	일가간에는	화목동아

얼씨구 지화자 좋네 요령기 좋다가 딸 놓겠다.

*김승찬, 『두구동의 기층문화』, 부산대학교 부설 한국문화연구소, 1993, 213쪽.

[금정구 민요 78]

아기 어르는 노래(2)

가창자: 강두이(여, 72)

가창일: 1993. 7. 16.

가창장소: 두구동 죽전마을

금자동아 옥자동아	부모에는 효자동아
일가친척에 화목동아	친구간에 신의동아
동네방네 귀염동아	
오색비단 채색동아	채색비단 오색동아
소발에 구슬동아	경주 남산에 수정동아
조개 안에 진주동아	그믐밤에 햇불동아
금을 주면 너를 사랑	은을 주면 너를 사랑
잠 잘 자고 잘 커거라	
하늘에 구름 일듯	몽실몽실 잘 자라라
모래밭에 수박 굴듯	줄기차게 잘 자라라

벼락나무 새순 돌듯 째룩째룩 잘 자라라

*김승찬, 『두구동의 기층문화』, 부산대학교 부설 한국문화연구소, 1993, 202쪽.

[금정구 민요 79]

아기 어르는 노래(3)

가 창 자: 박금춘(여, 68)

가 창 일: 1993. 7. 19.

가창장소: 두구동 임석마을

둥개 둥개 둥개야
은자동아 금자동아 칠기 청청 보배동아
나라에는 충신동아 부모님에게는 효자동아
형제간에는 윤기동아 일가친척에 화목동아
둥개 둥개 둥개야 이런 둥개가 어디 있노?

*김승찬, 『두구동의 기층문화』, 부산대학교 부설 한국문화연구소, 1993, 234쪽.

[금정구 민요 80]

자장가

가 창 자: 임달련(여, 76)

가 창 일: 1993. 7. 19.

가창장소: 선동 신천마을

자장 자장 자장개야 우리 아기 잠 잘 잔다
앞집 개도 짚지 말고 뒷집 개도 짚지 말고
우리 아기 잘도 잔다 자장 자장 자장개야
멍멍 개도 짚지 말고 꼬꼬 닭도 울지 마라
우리 아기 잠 잘 잔다 자장 자장 자장 자장

*김승찬, 『두구동의 기층문화』, 부산대학교 부설 한국문화연구소, 1993, 233쪽.

[금정구 민요 81]

불매요

가 창 자: 박금춘(여, 68)

가 창 일: 1993. 7. 19.

가창장소: 두구동 임석마을

불매 불매 불매야

이 불매가 누 불매고	경상도 대불매
쇠는 어데 쇠고	양산하고도 뒷골쇠
작은 아들은 불매 불고	큰 아들은 성냥하고
벌럭쿵 벌럭쿵 벌럭쿵	

*김승찬, 『두구동의 기층문화』, 부산대학교 부설 한국문화연구소, 1993, 235쪽.

2. 류종목의 현장조사 민요

1) 금정구 민요

[금정구 민요 1]

모심기소리(1)

T. 금정 1-앞.

금정구 두구동 두송경로당, 1999. 10. 31.

김창일, 김보경, 김명숙, 김혜란, 이선주 조사.

한경조(남 · 74세).

*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 아주 어릴 때 배운 것이라 한다. 혼자서 독창식으로 불렀다. *

물길랑화장창 헐어놓고이 주인네양반은 어데갔노
문에야대전복 손에들고이 처갓집에 놀러갔네

우리야부모님 어데가고이
새별같은 저밭골에바보래 반달같이 떠나오네
지가무슨 반달이가 초생달이 반달이지

우리부모님 어데가고 새별같은 저밭골에
반달같이 떠나오네
지가무슨 반달이가 초생달이 반달이지

*류종목, 『현장에서 조사한 구비전승민요 -부산편』, 민속원, 2010, 421~422쪽.

[금정구 민요 2]

모심기소리(2)

T. 금정 1-앞.

금정구 두구동 두송경로당, 1999. 10. 31.
김창일, 김보경, 김명숙, 김혜란, 이선주 조사.
정복순(여 · 71세), 박금춘(여 · 74세).

* 숨이 차서 노래로 부르지 못하고 말로 구연했다. 정복순 할머니가 허두를 끄집
어 내자 박금춘 할머니가 마무리를 했다. *

정복순 : 모야모야 노랑모야 니언제커가 열매열래

박금춘: 모야모야 노랑모야 니언제커서 시집갈래
이달크고 저달크고 내훗달에 시집간다

님이야죽어 연자되어 처마끝에다 집을짓네
날면보고 들면봐도 임인줄을 저몰랐네

애기야도련님 병이나서 송금씨라 배깁아라
송금씨야 깎은배는 맛도좋고 연하더라

*류종목, 『현장에서 조사한 구비전승민요 -부산편』, 민속원, 2010, 422~423쪽.

[금정구 민요 3]

모심기소리(3)

T. 금정 1-앞.
금정구 두구동 두송경로당, 1999. 10. 31.
김창일, 김보경, 김명숙, 김혜란, 이선주 조사.
박금춘(여 · 74세), 박재임(여 · 81세).

* 이 마을에서는 민요라 하면 거의 모심기소리를 연상할 정도로 널리 전승되고
있었다. 주고받기식으로 부르지 않고 박금춘, 박재임 두 할머니가 각편 전체를 번
갈아가며 불렀다. *

박금춘 : 해다지고 저문날에 우연아행상이 떠나오네
이태백이 본처죽고 이별행상이 떠나온다

박재임 : 오날일기가 다됐는가 산골마다 연개나네
우런님은 어드로가고 연기낼줄로 모르는공

박금춘 : 해다졌네 해다졌네 양산땅에 해다졌네
방실방실 웃는아기 몬다보고 해다졌네

*류종목, 『현장에서 조사한 구비전승민요 -부산편』, 민속원, 2010, 423쪽.

[금정구 민요 4]

고불고불고개

T. 금정 1-앞.

금정구 두구동 두송경로당, 1999. 10. 31.

김창일, 김보경, 김명숙, 김혜란, 이선주 조사.

정복순(여 · 71세).

* 원래 열 번째 고개까지 있다고 했으나 다 기억하지 못해 여섯째 고개까지 읊고 중단했다. 주워 넘기듯 매우 빠르게 읊조렸다. *

고불고불 첫째고개
첫사랑을 못잊어서
울고불고 넘던고개
고불고불 둘째고개
둘도없는 임을따라
아리랑고개 넘던고개
고불고불 셋째고개
셋방살이 삼년만에
보따리싸고 넘던고개
고불고불 넷째고개
니가내간장 서리서리
간장녹히고 넘어가는
고불고불 다섯째고개
다홍처마 첫날밤에
방구뛰고 넘던고개

고불고불 여섯째고개

*류종목, 『현장에서 조사한 구비전승민요 -부산편』, 민속원, 2010, 424쪽.

[금정구 민요 5]

모심기소리(4)

T. 금정 1-앞.

금정구 두구동 두송경로당, 1999. 10. 31.

김창일, 김보경, 김명숙, 김혜란, 이선주 조사.

한경조(남 · 74세).

* 두구동의 지명 유래를 한참 동안 이야기하다가 이 노래를 불렀다. 원래 주고반 기식으로 부르는 것이나 여기서는 제보자 혼자서 독창으로 불렀다. 모두들 옛날 노래를 잘 부른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

물기야화장창 혈어놓고이 주인네 양반은 어데갔노
문에야대전복 손에들고이 처갓집에 놀러갔네

알금아삼삼 고운처녀이 울뽕남게 앓아우네
울뽕아줄뽕 내따주마 백년살아도 내캉살래

밀양아삼당 궁노숲에 연밥따는 저큰아가
연밥줄밥 내따주마 백년살이도 내캉살래

한강에 모를심어 이모내기 난감하네
물길랑화장창 혈어놓고이 주인네양반은 어데갔노

*류종목, 『현장에서 조사한 구비전승민요 -부산편』, 민속원, 2010, 425쪽.

[금정구 민요 6]

모심기소리(5)

T. 금정 1-앞.

금정구 두구동 두송경로당, 1999. 10. 31.

김창일, 김보경, 김명숙, 김혜란, 이선주 조사.
김봉수(여 · 79세).

* 요사를 잊어버린 것 같았다. 두 번째 부른 각편은 아예 뒷소리를 받아 부르질 못했다. 독창으로 불렀다. *

이논빼미 모를심어이 금실금실 영화로다
우리야부모님 산소등에 술을숨가 영화로다

한강에다 모를부어 찌내기도 난감하다

*류종목, 『현장에서 조사한 구비전승민요 -부산편』, 민속원, 2010, 426쪽.

[금정구 민요 7]

모심기소리(6)

T. 금정 1-앞.
금정구 두구동 두송경로당, 1999. 10. 31.
김창일, 김보경, 김명숙, 김혜란, 이선주 조사.
김봉수(여 · 79세).

* 조사자의 채근에 못 이겨 불러 준 소리이다. 해가 질 무렵에 부르는 모심기소리라고 설명해 줬다. *

오늘해가 요만되면 골목골목 연기나네
우른님은 어데가고 연기낼줄을 모르던가

*류종목, 『현장에서 조사한 구비전승민요 -부산편』, 민속원, 2010, 426쪽.

2) 동래구 민요

[동래구 민요 1]

모찌기소리

T. 동래 2-앞.
동래구 복산동 내성노인정, 1999. 10. 30.
오세길, 김창일, 김아영, 박진주 조사.
안용태(남 · 79세).

* 제보자가 젊었을 때 의령에서 농사를 지었다는 말을 듣고, 조사자가 모심기소리를 부탁하자 노래로 하지 않고 말로 구술해 주었다. *

한강에다가 모를부가 모찌기가 난감하네
하늘에다 목화심구 목화따기가 난감하네

* 류종목, 『현장에서 조사한 구비전승민요 -부산편』, 민속원, 2010, 245쪽.

[동래구 민요 2]

모심기소리(1)

T. 동래 2-앞.
동래구 복산동 내성노인정, 1999. 10. 30.
오세길, 김창일, 김아영, 박진주 조사.
안용태(남 · 79세).

* 앞의 모찌기소리에 이어 조사자가 모를 심을 때 부르는 소리도 불러 달라고 하자 이것을 불러 주었다. 중간 부분에 가서는 청중들과 함께 불렀다. *

서마지기 논빼미 반달같이

[제보자: 허허, 모를 숨굴 때는 이래 하고.] [조사자: 뭐라고예?] [제보자: 서마지기 논빼미 모를 숨구(심어) 가지고.]

반달같이 떠나네
니가무슨 반달이라 초승달이 반달이지

[이하 청중들과 함께 불렀다.]
개면같이 개마꼴에 반달같이 떠나오네

* 류종목, 『현장에서 조사한 구비전승민요 -부산편』, 민속원, 2010, 245~246쪽.

[동래구 민요 3]

모심기소리(2)

T. 동래 2-앞.

동래구 복산동 내성노인정, 1999. 10. 30.

오세길, 김창일, 김아영, 박진주 조사.

안용태(남 · 79세).

* 계속하여 모심기소리를 불렀다. 청중들도 다 같이 불러주었다. 이 노래는 점심 때 부르는 소리라고 하였다. 그러나 모두 요사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 *

저즈같은 개마골에 반달같이 떠나오네
밥고리 밥상때

[청중: 고리 여자가 점슴(점심)때 이고 나오는 그런 기라.]

니가무슨 반달이라 초승달이 반달이지

[제보자: 점슴때 노래가 또 있기는 있니더.]

더디다 더디다
점슴차비가 더디다
머때문에 더디노
길강같은 독안에
쌀떠니라고 더디다
더디다 더디다
숫가락 단반에
쉬니라고 더디다
어질총없는 신을신고
끄니라고 더디다
술가락 단반에

쉬니라고 더디다

[청중: 이래가 지금 녹음이 되나, 이래가.] [조사자: 아, 지금 녹음이 되고 있습니다.] [제보자: 점심 노래는]

이등저등 점심바구니 떠나오네
자네가네 내동무야
네동생과 같이가자

* 류종목, 『현장에서 조사한 구비전승민요 -부산편』, 민속원, 2010, 246~247쪽.

[동래구 민요 4]

모심기소리(3)

T. 동래 2-앞.
동래구 복산동 내성노인정, 1999. 10. 30.
오세길, 김창일, 김아영, 박진주 조사.
안용태(남 · 79세).

* 계속하여 모심기소리를 불러 주었다. 노래가 끝난 후 노래말의 내용에 대하여 설명해 주었다. *

모시적삼 안설향이 [다시 고쳐서]
모시적삼 안설향에 함박꽃이 피었네
그꽃한쌍 딸라하니 호통소리가 벽력갈네

[제보자: 함박꽃이 여자 유곽이라 유곽. 여자 젖이라 젖. 그러니께네 모시적삼 안에 젖이 있는 걸 그거로 함박꽃이라 카거든. 그거를 딸라 카니까 호통소리가 벽력갈더라고. 그런 노래가 있어예. 웃음] [조사자: 참에 뭐라고예?] [제보자: 모시적삼, 모시옷이니까.]

모시적삼 안설향에 함박꽃이 봉지졌네
함박꽃이 봉지졌네
그꽃한번 딸라하니 호통소리가 벽력갈네

* 류종목, 『현장에서 조사한 구비전승민요 -부산편』, 민속원, 2010, 248쪽.

[동래구 민요 5]

모심기소리(4)

T. 동래 2-앞.
동래구 복산동 내성노인정, 1999. 10. 30.
오세길, 김창일, 김아영, 박진주 조사.
안용태(남 · 79세).

* 다른 노래를 청하자 노래로 하지 않고 설명을 곁들이면서 노래말의 내용을 구술해 주었다 *

[조사자: 뭐 또 생각나시는 거 있으세요? 또 생각나시는 거?] [제보자: 또 하나 하까? 옛날에는, 요시는 없지마는 옛날에는 본마누라 낚두고 다른 사람이 하나 있는 거로 첩이라고 쿠거든. 첩은 그래 모르구로(남모르게)·· 모 숨구는 물꼬를, 물꼬를 청청 흘려놓고 주인이 논 임자가 주인한량 어디갔노. 한량이라 쿠네. 주인 한량 어디갔노 하니, 문에(문어) 전복, 문애라 카는 거는 이 제사지내는 문에, 백 문에 있고, 그 당시에는 백문어 이거는 껍데기 뱉기뽀(뱉겨버린 것) 때문에 백문 애라. 커다하니 자기 지방 문에 전복 애아 들고 첩우방(첩의방)에 놀러갔네 첩우 방에 놀러갔네.]

[조사자: 이거는 제목을 뭐라 합니까?] [제보자: 모노래라.]

* 류종목, 『현장에서 조사한 구비전승민요 -부산편』, 민속원, 2010, 249쪽.

[동래구 민요 6]

모심기소리(5)

T. 동래 2-앞.
동래구 복산동 내성노인정, 1999. 10. 30.
오세길, 김창일, 박진주 조사.
안용태(남 · 79세).

* 해가 질 무렵에 부르는 모심기소리라고 하면서 이 노래를 불러 주었다. 노래를 다 부른 후 노래말의 내용에 대하여 설명해 주었다. *

[제보자: 하루 점두룩(저물도룩) 부르는데 몇 가지라고. 해가 다 지나고 또 뭐 우째 부르고 또 그로 하까?]

첩오집에 문이전복 외아들고 첩오집에
놀러갔네⁴⁵⁶⁾

[조사자: 예, 이제, 이제 불러주십시오.] [제보자: 그는 또 뭐꼬 커면 오늘 해가 다 졌는가.]

오늘해가 다졌는가 골골마다 연기나네
우리할맘은 어디가고 연기낼줄 모르네

[제보자: 옛날에 상처를 일찍 한 사람이 그 노래 부르면서 울면서 그래요. 울면서 와 그렇노 쿠면은 다른 집에는 연기가 짜다리(많이) 나는데 우리 할마이는 어디가고 연기낼 줄 모르노. 오늘 해가 다 졌는가 골골마다 연기 나네. 그 목고이(목구멍이) 일곱명 여덟명 다 후름(후렴)이 있거든. 전에 후름이 있고 뒤에 후름이 있거든.]

* 류종목, 『현장에서 조사한 구비전승민요 -부산편』, 민속원, 2010, 249~250쪽.

[동래구 민요 7]

모심기소리(6)

T. 동래 2-뒤.
동래구 복산동 내성노인정, 1999. 10. 30.
오세길, 김창일, 박진주 조사.
서인우(남 · 79세).

* 지금까지 청중으로 참여하고 있던 제보자가 나서서 모심기소리를 불렀다. 노래판은 완전히 모심기소리 일색으로 흘러갔다. *

서울한량 연을픽워 거지봉산에 연결렸네

456) 여기까지 부른 뒤에 테이프를 교환했다.

[청중: 거지공산, 우리는 거지공산이라 쿠는데.]

아래웃방 시네들아 열실감는 구경가세

[청중: 연줄 끊는 구경 가세.] [제보자: 연실 감는 구경 가세. 인자 다 했지예? 됐어요.] [조사자: 그냥 이야기 계속하시면 됩니다. 녹음 되니깐예.]

서울이라 명지음서 당사실로 다리났네
그다리를 근넬란께 쿵쿵절사 소리진동하네
서울갔던 성군님네 우리선부 와안오는고
오기야 오세데마는 칠성판에 실려오네

[청중: 죽어서 온다 이 말이지.] [제보자: 허허 참]

서울이라⁴⁵⁷⁾ 광대밭에 솟비둘기 알을낳네
저게가는 저선부가 지어보고 놓고가네

[제보자: 다 했어. 웃음. 서울노래 많습시다. 서울가는.] [조사자: 이런 노래를 뭐라고 하는가예?] [청중: 이런 거도 모심군노래라.]

* 류종목, 『현장에서 조사한 구비전승민요 -부산편』, 민속원, 2010, 250~252쪽.

[동래구 민요 8]

모심기소리(7)

T. 동래 2-뒤.

동래구 복산동 내성노인정, 1999. 10. 30.

오세길, 김창일, 박진주 조사.

서인우(남 · 79세).

* 이제 제보자는 본격적으로 노래판에 뛰어들었다. 서울노래는 그만두고 시골노래를 하겠다며 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으나 한 구절을 부르고는 더 진행하지 못

457) 여기서부터는 모두 말로 한 것이다.

했다. *

[제보자: 서울노래는 나두고 시골노래 한번 해봄세.]

한강에다 모를부어 모찌내기 난감하네

[청중: 아, 그러면 잘못됐는데.]

* 류종목, 『현장에서 조사한 구비전승민요 -부산편』, 민속원, 2010, 252쪽.

[동래구 민요 9]

모심기소리(8)

T. 동래 2-뒤.

동래구 복산동 내성노인정, 1999. 10. 30.

오세길, 김창일, 박진주 조사.

서인우(남 · 79세).

* 앞의 실패를 만회하려는 듯 이노래를 불러 줬다.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청중들도 함께 불렀다. *

석상에다 상추갈아 상추속기 난감하네
연원에다 모를숨귀 감실감실 영화로세
우리동상 곱게키워 갓을싸워 영화로세

[이하 청중이 같이 불렀다.]

청청가 열일곱살에 갓을씨아 영화로다
우리부모 산소중에 솔을숨귀 영화로세

[청중: 모노래가 여기 여여 곳곳에 틀리네. 틀리, 틀리.]

* 류종목, 『현장에서 조사한 구비전승민요 -부산편』, 민속원, 2010, 252~253쪽.

[동래구 민요 10]

모심기소리(9)

T. 동래 2-뒤.
동래구 복산동 내성노인정, 1999. 10. 30.
오세길, 김창일, 박진주 조사.
서인우(남 · 79세).

* 자청하여 모심기소리를 계속 불러 주었다. *

한삼모수 석자수건 우런님의 가중수건
낮으로는 목에걸고 밤으로는 줄에걸세

* 류종목, 『현장에서 조사한 구비전승민요 -부산편』, 민속원, 2010, 253쪽.

[동래구 민요 11]

모심기소리(10) [C26]

T. 동래 3-앞.
동래구 복산동 신선노인정, 1999. 10. 30.
오세길, 김창일, 박진주 조사.
안일순(여 · 73세).

* 조사자의 요청으로 불러 주었다. 처음에 모심기 현장을 설명한 다음에 불렀다.
모심기소리도 이제 단편적인 것밖에 할 수 없을 정도로 전승의 맥이 끊어져 가고
있음을 실감할 수 있었다. *



[제보자: 인제 숨굴 때 노랑모야 하잖아. 옛날에 어릴 때 들은 기야. 그런끼네 니 언제 클래, 열매 열래 쌓으면서 숨굴 때 할매들이.] [청중: 지금 녹음하랄 때 해 봐.] [조사자: 그냥 노래 못 부르시면은 그냥 가사로 방금같이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제보자: 아까 꺼를 노래로 불러라꼬?] [조사자: 그냥 생각나는 가사로 해주셔도 되고요.] [청중: 한번 해보래.]

모야모야 노랑모야 니언제커서 열매열래
한달크고 두달커서 내옷달에 열매열래

* 류종목, 『현장에서 조사한 구비전승민요 -부산편』, 민속원, 2010, 254~255쪽.

[동래구 민요 12]

모심기소리(11)

T. 동래 3-앞.
동래구 복산동 내성노인정, 1999. 10. 30.
오세길, 김창일, 박진주 조사.
안일순(여 · 73세).

* 앞의 소리에 이어 계속해서 불러 주었다. *

다풀다풀 다박머리 해다진데 어데가노
우리엄마 산소등에 젓먹으로 나는간다

* 류종목, 『현장에서 조사한 구비전승민요 -부산편』, 민속원, 2010, 255쪽.

[동래구 민요 13]

모심기소리(12)

T. 동래 3-뒤.
동래구 복산동 내성노인정, 1999. 10. 30.
오세길, 김창일, 박진주 조사.
안일순(여 · 73세).

* 앞의 소리에 이어 계속하여 불러 주었다. *

우리엄마 날설적에 죽신나무 묵었던가
그대커서 왕대되어 학은점점 안가는데
우리야부모 어데가고 간곳조차 모르느냐

[청중: 잘했다.] [조사자: 할머니는 일 많이 했습니까?] [제보자: 나 일 많이 안 해
봤어.] [조사자: 일 안 했는데 이렇게 기억을 하십니까?] [제보자: 어릴 때 모숨글
때 클 때 그렇게 하더라고.]

* 류종목, 『현장에서 조사한 구비전승민요 -부산편』, 민속원, 2010, 255~256쪽.

[동래구 민요 14]

모심기소리(13)

T. 동래 3-뒤.
동래구 복산동 내성노인정, 1999. 10. 30.
오세길, 김창일, 박진주 조사.
안일순(여 · 73세).

* 앞의 소리에 이어 계속하여 불러 주었다. *

서울이라 한복판에 지정닷말 모로부여
지정꽃튼 피는마는 우리부모 어데갔노

[제보자: 이라문 상대가 탁 받고 그라지.]

* 류종목, 『현장에서 조사한 구비전승민요 -부산편』, 민속원, 2010, 256쪽.

[동래구 민요 15]

동래행진곡

T. 동래 4-앞.

동래구 동래기영회, 1999. 8. 5.

정규식, 김대식, 김창일, 김보경, 김아영, 김나송, 이승희 조사.

신해근(남 · 84세).

* 전승민요는 아니지만 참고자료가 될 만하다고 여겨져 보고한다. *

도하동 마른방초
새싹이 돋으며
이쁜신 젊은이들이
임생각이 나네
인정없는 시절도
시절은 시절이요
돈있는 층세도
층층이 층층이요

[그기 일막입니다.]

* 류종목, 『현장에서 조사한 구비전승민요 -부산편』, 민속원, 2010, 257쪽.

3. 박경수의 현장조사 민요

1) 금정구 민요⁴⁵⁸⁾

[금정구 민요 1]

방귀 타령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707_PKS_KDH_0001

조사장소 : 부산시 금정구 서2동 삼한여명아파트경로당

조사일시 : 2010.7.7

조 사 자 : 박경수, 서정매, 정혜란, 황영태

제 보 자 : 강덕희, 여, 80세

구연상황 : 제보자가 재미있는 노래가 생각난다며 조용한 목소리로 살짝 부르자, 조사자가 다시 큰 소리로 불러달라고 부탁을 해서 다시 크게 불러 주었다.

시애비 방구 호랑방구

시애미 방구 유독⁴⁵⁹⁾방구

시누 방구 양살방구

시동생 방구 연지방구

[금정구 민요 2]

모심기 노래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707_PKS_KDH_0002

조사장소 : 부산시 금정구 서2동 삼한여명아파트경로당

조사일시 : 2010.7.7

조 사 자 : 박경수, 서정매, 정혜란, 황영태

제 보 자 : 강덕희, 여, 80세

구연상황 : 제보자는 다른 제보자의 모심기 노래를 듣고 난 뒤, 다음 노래의 가사가 생각이 났는지 긴 소리로 불러 주었다. 제보자가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자 옆에 있던 청중들도 함께 불러 주었다.

458) 이하 금정구 민요는 박경수·정규식·서정매, 『증편 한국구비문학대계8-22(부산광역시③-중부산권)』, 한국학중앙연구원·역락, 2015, 173~252쪽 게재.

459) 무서운.

물꼬는 철철~ 열어놓고~ 주인양~반 어디갔소~

문어전복 예와들고~ 첩의방~에 놀러갔소-

다풀다풀~ 다박머리~ 해다진~데 어데로 가노~

우리엄마 산소등에 젓먹으~로 나는가네~

[금정구 민요 3]

모심기 노래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707_PKS_KDH_0003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금정구 서2동 삼한여명아파트경로당

조사일시 : 2010.7.7

조 사 자 : 박경수, 서정매, 정혜란, 황영태

제 보 자 : 강덕희, 여, 80세

구연상황 : 제보자는 모심기 노래로 다음 노래를 불렀지만 사설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다른 노래의 사설을 섞어서 부른 것으로 보인다.

할멈할멈 어디가고 사우상에 다올라갔네 -

노랑감투 제치씩고 볼복서리라 더우셨네 -

[금정구 민요 4]

화투타령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707_PKS_KDH_0004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금정구 서2동 삼한여명아파트경로당

조사일시 : 2010.7.7

조 사 자 : 박경수, 서정매, 정혜란, 황영태

제 보 자 : 강덕희, 여, 80세

구연상황 : 다른 제보자가 부른 <화투타령>이 중간에 끊어져 다 부르지 못하자, 제보자가 다시 노래를 불러 주었다. 끝부분에서는 노래로 부르지 않고 가사로 읊어주었다. 노래를 부르는 동안 옆에 있던 청중들도 잘한다며 추임새를 넣으며 분위기를 돋우었다.

정월술가지 속삭한마음

이월매조에 걸어놓고

삼월사꾸라 산란한마음

사월흑사리 허사로다
오월난초 나는나비
유월목단에 춤을추네
칠월홍돼지 홀로앉아
팔월공산을 바라본다
구월국화 굳은 절개
시월단풍에 뚝 떨어졌네 (청중 : 잘한다.)

동지선달 설한풍에
백설이 내려도 임의생각
앉아생각 누워생각
생각생각 생각에 날새웠네

[금정구 민요 5]

못갈 장가 노래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707_PKS_KDH_0005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금정구 서2동 삼한여명아파트경로당

조사일시 : 2010.7.7

조 사 자 : 박경수, 서정매, 정혜란, 황영태

제 보 자 : 강덕희, 여, 80세

구연상황 : 제보자가 갑자기 노래가 생각이 났는지 이야기하던 중에 갑자기 노래를 구연했다. 노래를 구연하는 도중 청중들은 노래에 대한 설명과 생각을 말하기도 했다.

열아홉에 첫장로 갈라가니
앞집에라 궁합봐도
궁합봐도 못갈장개
뒷집에라 책력봐도
책력봐도 못갈장개
내가세워 가는장개
한모랑이 돌아강께
까막간치가 깍깍우네

두모랑이 돌아갈때
여우집새끼가 질로견네
시모랑이 돌아가니
팽이씩고 들락날락 -
한대문을 열고보니 -
툽쟁이는 널을쓰고 -
두대문을 열고보니
곡소리 절로나네
세대문을 열고가니
재인장모 썩나섬서
사위사위 내사위야
울고갈길을 왜왔더냐-

[금정구 민요 6]

이갈이 노래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707_PKS_KDH_0006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금정구 서2동 삼한여명아파트경로당

조사일시 : 2010.7.7

조 사 자 : 박경수, 서정매, 정혜란, 황영태

제 보 자 : 강덕희, 여, 80세

구연상황 : 조사자가 제보자에게 노래 가사의 앞 부분을 불러주자, 제보자가 처음부터 다시 불렀다. 빠진이를 지붕에 던지면서 부르는 노래이다.

깐치야 깐치야
헌이빨 니가지가고
새이빨 날도라

[금정구 민요 7]

주추 캐는 처녀 노래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121_PKS_KJP_0001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금정구 청룡노포동 작장마을 작장여자경로당

조사일시 : 2010.1.21

조 사 자 : 박경수, 서정매, 황영태, 최수정

제 보 자 : 강정필, 여, 84세

구연상황 : 제보자가 눈을 지긋히 감고 고개를 흔들면서 노래의 가사를 생각하며 구연해 주었다.

경상도울산 구월산밑에

주추개는 저큰아가

너집은 어더매두고

어덯운데 주추개노

나의집을 아실라들랑

심심산 안개야속에

초가나삼칸이 내집이요

오실라결랑 오십시고

가실라결랑 가십시오

[금정구 민요 8]

청춘가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121_PKS_KJP_0002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금정구 청룡노포동 작장마을 작장여자경로당

조사일시 : 2010.1.21

조 사 자 : 박경수, 서정매, 황영태, 최수정

제보자 1 : 강정필, 여, 84세

제보자 2 : 정무연, 여, 83세

구연상황 : 강정필과 정무연의 두 명의 제보자가 서로 주고 받으면서 <청춘가>를 불렀다. 노래를 듣고 있던 청중들도 박수를 치며 경청하였다.

제보자 1 세월아 봄철아~ 가고오지 말어라~

 덧없는 세월에~ 백발이 되는구나~

 청춘 하늘에~ 잔별도 많고요~

 요내야 가슴속에~ 수심도 많구나

제보자 2 높은 산골때~ 외로이 소나무~

날강 같이도~ 외로이 섰구나~

[금정구 민요 9]

인생허무가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121_PKS_KJP_0003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금정구 청룡노포동 작장마을 작장여자경로당

조사일시 : 2010.1.21

조 사 자 : 박경수, 서정매, 황영태, 최수정

제 보 자 : 강정필, 여, 84세

구연상황 : 조사자가 제보자에게 청춘가를 불러 달라고 요청하자 곧바로 불러 주었다. 창부타령 곡조로 부르는 것으로 내용이 청춘이 지난 후의 허무감을 노래하는 것이다. 노래를 시작하자, 듣고 있던 청중들도 낮은 목소리로 함께 불렀다.

남기라도 고목이되면 오던새도 아니오고
물이라도 낙하가되면 오던고기도 아니오고
우리청춘 늙어지면 오던임도 아니온다

[금정구 민요 10]

노랫가락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121_PKS_KJP_0004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금정구 청룡노포동 작장마을 작장여자경로당

조사일시 : 2010.1.21

조 사 자 : 박경수, 서정매, 황영태, 최수정

제 보 자 : 강정필, 여, 84세

구연상황 : 다른 제보자가 엉뚱하게 가사를 했다면서 강정필 제보자가 다시 노래를 구연해 주었다. 노래가 시작되자, 옆에 있던 청중들도 모두 아는 노래인지 함께 불러 주었다.

나뭇먹고 물마시고 팔을비고서 누웠으니
대장부 살림살이 요만하면은 만족하지

[금정구 민요 11]

모심기 노래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123_PKS_KDS_0001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금정구 회동동 동대마을 동대노인정

조사일시 : 2010.1.23

조 사 자 : 박경수, 서정매, 황영태, 최수정

제 보 자 : 김달순, 여, 85세

구연상황 : 앞의 제보자가 노래를 부르고 난 뒤 제보자에게도 노래를 불러달라고 요청하자 그제서야 제보자가 노래를 시작하였다. 청중들도 함께 불러 주었다.

이물기저물기 혈어놓고이 주인네양~반은 어데갔노

이논에 - 이 모를숨가 감실감실~ 영화로다

저게가는~이 저구름은 어떤신선 타고가-노

배도기를 노던신선 천국에서 내리온 - 다

풍당풍당 찰수제비~이 사우아판에 다올랐네

할머님은 어데가고~이 딸의동자가 올랐던고

[금정구 민요 12]

다리 세기 노래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123_PKS_KDS_0002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금정구 회동동 동대마을 동대노인정

조사일시 : 2010.1.23

조 사 자 : 박경수, 서정매, 황영태, 최수정

제 보 자 : 김달순, 여, 85세

구연상황 : 조사자가 제보자에게 다리 세기 노래에 대해 물어보자 바로 다음 노래를 불러 주었다.

이거리 저거리 갓거리

동사맹근 도맹근

주무리 바꾸 독바꾸

연두장개 열두양

가사머리

양두칼

[금정구 민요 13]

요로지기 타령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123_PKS_KDS_0003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금정구 회동동 동대마을 동대노인정

조사일시 : 2010.1.23

조 사 자 : 박경수, 서정매, 황영태, 최수정

제 보 자 : 김달순, 여, 85세

구연상황 : 조사자가 제보자에게 어릴 때 불렀던 노래를 불러 달라고 요청하자 큰 소리로 빠르게 다음 노래를 불러 주었다.

요로지기 요로지기

열시단말 닷대

오사칠오 팔아 짚어지고

오야이라 통법절에

불공하러 가신타니

이덕인가 저덕인가

하덕인가 중덕인가 목덕인가

부처님의 도덕인가

중 목덕인가

[금정구 민요 14]

쌍가락지 노래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123_PKS_KDS_0004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금정구 회동동 동대마을 동대노인정

조사일시 : 2010.1.23

조 사 자 : 박경수, 서정매, 황영태, 최수정

제 보 자 : 김달순, 여, 85세

구연상황 : 조사자가 <쌍가락지 노래>의 앞 구절을 불러주니, 제보자가 기억이 난다면서 빠른 소리로 읊어 주었다.

쌍금쌍금 쌍가락지

주석길로 녹가락지

먼데보이 달릴라

자태보이 처녀랴라
그쳐자 자는방에
숨소리가 돌일래라
오라버니
거짓말삼 말아시소
나암풍이(남풍이) 들이불어
풍지떠는 소릴래라

[금정구 민요 15]

처자 희롱가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123_PKS_KDS_0005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금정구 화동동 동대마을 동대노인정

조사일시 : 2010.1.23

조 사 자 : 박경수, 서정매, 황영태, 최수정

제 보 자 : 김달순, 여, 85세

구연상황 : 제보자가 조사자들에게 이런 노래가 있다며 들어보라면서, 다음 노래를 빠르게 읊듯이 불러 주었다.

상추갈아 상추갈아
겹사뜰에 상추갈아
상추갈아 열이렛만에
가랑잎풀은 제쳐놓고
즐기한쌍 나를주소

이러카더란다.

알긋어라 짓긋어라
질로가몬 곱게가지

지가 지로 욕을 해가매(하면서),

날같은년 하나잡고
희단말이 왜말이고

카더란다. 그러카이,

에라이 이년아 시끄럽다
니같은년 아니라도
온달같은 본댁있고
반달같은 첩도있고
글씨문양 아들있고
앵두같은 딸도있다

카더란다.

[금정구 민요 16]

남녀 희롱가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123_PKS_KDS_0006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금정구 회동동 동대마을 동대노인정

조사일시 : 2010.1.23

조 사 자 : 박경수, 서정매, 황영태, 최수정

제 보 자 : 김달순, 여, 85세

구연상황 : 제보자는 계속 이어서 노래를 구연하였는데, 노래로 부르지 못하고 가사를 빠르게 읊조리듯이 했다.

녹양동 저엄광뜰에 서령하는(사랑하는) 저처자야
성냥하나 낙성을해도 돌아볼줄 모르더나

카이,

무정하요 무정하요 여아같이 무정하요

카이카네,

석상의 도련님요 내가왜 무정하리

콩팔잡고 칠팔잡고 제일봉에다 꽃을심았는데
희롱한다고 니꽃이 되나

[금정구 민요 17]

사발가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123_PKS_KDS_0007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금정구 회동동 동대마을 동대노인정

조사일시 : 2010.1.23

조 사 자 : 박경수, 서정매, 황영태, 최수정

제 보 자 : 김달순, 여, 85세

구연상황 : 조사자가 제보자에게 노래의 앞 소절을 띄워주자 제보자가 바로 다음 노래를 불러 주었다.

석탄백탄 타는데는~ 연기나퐁퐁 나는데
요네아가슴 타는데는~ 연기도짐도 안나 - 네

[금정구 민요 18]

도라지 타령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123_PKS_KDS_0008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금정구 회동동 동대마을 동대노인정

조사일시 : 2010.1.23

조 사 자 : 박경수, 서정매, 황영태, 최수정

제 보 자 : 김달순, 여, 85세

구연상황 : 조사자가 제보자에게 도라지 타령의 앞 가사를 읊어주자 잘 안다며 곧바로 불러 주었다. 제보자가 노래를 부르다가 갑자기 가사가 생각이 나지 않자 청중도 끼어들어 함께 불렀다.

도라지 도라지 심신산천에 백도라지
한두뿌리만 캐어도~ 바구니 반실만 되노라
에헤요 에헤요 에~헤요
에헤야 난다 지화자자 좋다
니가내간장 스리슬슬 다녹힌다

[금정구 민요 19]

부모살이 노래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123_PKS_KDS_0009

조사장소 : 부산시 금정구 회동동 동대마을 동대노인정

조사일시 : 2010.1.23

조 사 자 : 박경수, 서정매, 황영태, 최수정

제 보 자 : 김달순, 여, 85세

구연상황 : 조사자가 제보자에게 또 다른 노래를 불러 달라고 요청하자, 제보자가 다음 노래를 불러 주었다.
구연을 하면서도 가사의 설명을 곁들이기도 하였다.

머리 좋아 머리 좋아

안카나. 머리 좋아 그래갖고,

서른석세 베로나여 부모팔로 가йка네

베는보고 탐을내도 부모팔이가 없단다

부모 살아가이 그렇더랍니다.

[금정구 민요 20]

부모 보고 양산 보고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123_PKS_KDS_0010

조사장소 : 부산시 금정구 회동동 동대마을 동대노인정

조사일시 : 2010.1.23

조 사 자 : 박경수, 서정매, 황영태, 최수정

제 보 자 : 김달순, 여, 85세

구연상황 : 조사자가 제보자에게 옛날에 불렀던 노래를 불러달라고 계속 요청을 하자, 제보자가 앞의 노래
에 이어서 불러 주었다.

부모보고 양산보고 대야대야 수영대야

한서당에 글을읽어 남자여자 몰랐더노

[금정구 민요 21]

창부타령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123_PKS_KDS_0011

조사장소 : 부산시 금정구 회동동 동대마을 동대노인정

조사일시 : 2010.1.23

조 사 자 : 박경수, 서정매, 황영태, 최수정

제 보 자 : 김달순, 여, 85세

구연상황 : 제보자는 다른 제보자의 노래를 듣고, 다음 노래가 기억이 났는지 앞 제보자의 노래에 이어서 바로 불러 주었다.

포름포름 봄배추는 봄비오두룩 기다리고
옥에갇힌 춘향이는 이대롱오기만 기다린다

[금정구 민요 22]

멍멍개 노래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121_PKS_KMN_0001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금정구 청룡노포동 작장마을 작장여자경로당

조사일시 : 2010.1.21

조 사 자 : 박경수, 서정매, 황영태, 최수정

제 보 자 : 김말년, 여, 78세

구연상황 : 조사자가 노래의 앞구절의 운을 띄우자 제보자가 그제야 기억이 났는 듯, 곧바로 불러 주었다.

[빠르게 가사를 읊으면서]

개야개야 멍멍개야
니 좋다고 밥을 주나
뒷집에 김대롱 오신다고
문지라고⁴⁶⁰⁾ 밥을 준다

[금정구 민요 23]

모찌기 노래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123_PKS_KDS_0001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금정구 청룡노포동 작장마을 작장여자경로당

조사일시 : 2010.1.21

조 사 자 : 박경수, 서정매, 황영태, 최수정

460) 못 짓으라고.

제 보 자 : 김말선, 여, 81세

구연상황 : 다른 제보자의 노래가 끝난 뒤 노래 가사를 의논하다가 김말선 할머니가 주축이 되어 모두 함께 모찌기 노래를 구연했다.

밀치라 닥치락 모두잡아 훌치소
영화연에 영천초목에 호미손들 놀리소

[금정구 민요 24]

모심기 노래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128_PKS_KMD_0001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성동 산성2통경로당

조사일시 : 2010.1.28

조 사 자 : 박경수, 서정매, 황영태, 최수정

제 보 자 : 김묘도, 여, 81세

구연상황 : 옆에서는 화투판이 벌어진 상황이었지만, 제보자는 화투판에서 잠시 쉬면서 다음 <모심기 노래>를 기억나는 대로 불러 주었다.

찔레꽃은 장가가고~ 석노-꽃~은 상각간다
만인간아 웃지말어 씨종재 바~래서 내가간다

오늘해가 요만되면~ 산골마~다 연기나네
울언님은 어데가고 연기낼~줄 모르던가

다풀다풀~ 다박머리~ 해다진데 어데가노

이논에다 모를숨겨~이 금실금실 영화-로다
우리부모 산소등에~이 솔을숨가 영화로다

물길랑처정청 헐어놓고 - 이 주인네양~반은 어데갔소
문에야대전복 손에들고~ 첩우야집~에 놀러갔소

이물기저물기 헐어놓고~ 첩우야방~에 놀러갔소

저녁먹고~ 썩나서니~울명당안에서 손을치네

손치는델랑 밤에가고~ 주모야집에는 낮에간다

[금정구 민요 25]

다리 세기 노래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128_PKS_KMD_0002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성동 산성2통경로당

조사일시 : 2010.1.28

조 사 자 : 박경수, 서정매, 황영태, 최수정

제 보 자 : 김묘도, 여, 81세

구연상황 : 조사자가 다리를 세면서 불렀던 노래를 아느냐고 하자, 제보자가 나서서 다음 노래를 불러 주었다.

이거리 저거리 갓거리

동사맹건 도맹건

까마구 까우 장독간

사시 노리개 둘러방

깽

[금정구 민요 26]

아기 어르는 노래 / 은자동아 금자동아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128_PKS_KMD_0003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성동 산성2통경로당

조사일시 : 2010.1.28

조 사 자 : 박경수, 서정매, 황영태, 최수정

제 보 자 : 김묘도, 여, 81세

구연상황 : 조사자가 제보자에게 아기 달래는 노래를 불러달라고 요청하자 예전에 많이 불렀던 노래라고 하면서 다음 노래를 불러 주었다.

은자동아 금자동아

칠기청단에 보배동아

나랏님께는 충신동아

부모님께는 효자동아

일가친척 화목동아

동네방네 인심동아

[금정구 민요 27]

권주가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128_PKS_KMD_0004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성동 산성2통경로당

조사일시 : 2010.1.28

조 사 자 : 박경수, 서정매, 황영태, 최수정

제 보 자 : 김묘도, 여, 81세

구연상황 : 조사자가 제보자에게 권주가를 부를 수 있느냐고 묻자, 제보자가 바로 다음 노래를 불러 주었다.

잡으시오 잡으나시오~ 이술한잔을 잡으시오

이술은 술아니라~ 묵고놀자는 동배주~요

[금정구 민요 28]

도라지 타령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128_PKS_KMD_0005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성동 산성2통경로당

조사일시 : 2010.1.28

조 사 자 : 박경수, 서정매, 황영태, 최수정

제 보 자 : 김묘도, 여, 81세

구연상황 : 제보자가 흥겹게 노래를 구연하자 청중들도 모두 즐거워하며 박수를 치고 추임새를 넣어 주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이루어졌다.

도라지 도라지 도라~지 심신 산천에 백도라지

한두 뿌리만 캐여~도 대바구니 반서리 되는구나

에헤요 에헤요 에~헤요

에헤라 난다 지화자 좋다

니가 내간장 스리살살 다독힌다

도라지 캐러 간다고 요핑게 조핑게 다하놓고

총각낭군이 무덤에 삼오지 지내러 간다네

에헤요 에헤요 에~헤요

에헤라 난다 지화자 좋다

니가 내간장 스리살살 다녹힌다

[금정구 민요 29]

사발가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128_PKS_KMD_0006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성동 산성2통경로당

조사일시 : 2010.1.28

조 사 자 : 박경수, 서정매, 황영태, 최수정

제 보 자 : 김묘도, 여, 81세

구연상황 : 제보자가 노래를 구연하자 다른 청중들도 가사를 읊어주며 적극적인 분위기로 조사가 이루어졌다. 제보자가 “한품에 든님도”를 부를 때는 “연기도 짐도 안난다”고 청중이 수정해서 말하기도 했다.

석탄백탄 타는데 연기만 포뽕퐁 나구요

요내가슴 타는데~ 한품에 든님도 모르던가

[금정구 민요 30]

양산도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128_PKS_KMD_0007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성동 산성2통경로당

조사일시 : 2010.1.28

조 사 자 : 박경수, 서정매, 황영태, 최수정

제 보 자 : 김묘도, 여, 81세

구연상황 : 옆에서는 화투판이 벌어졌지만, 제보자는 신경쓰지 않고 양산도를 멋지게 불러 주었다.

에헤~히~요~

물안동 허가녹고 그림자보~니

촌살림 살기가 다틀렸구~나-

에헤라 - 둥게 디어라 아니 못놓으리라~

능지를 하여도 나는 못놓겠네

에헤~히~요~

양산읍네 물레방아는 물을안고 돌~고~

우리집에 우리낭군님은 나를안고 돈다
에람아 동계 디어라 아니 못놓으리라
능지를 하여도 나는 못놓~겠네

[금정구 민요 31]

모심기 노래(1)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121_PKS_KSR_0001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금정구 청룡노포동 작장마을 작장여자경로당

조사일시 : 2010.1.21

조 사 자 : 박경수, 서정매, 황영태, 최수정

제 보 자 : 김소래, 여, 93세

구연상황 : 제보자가 가사를 미리 생각해 놓아야 한다면, 곰곰이 생각하고 난 뒤 노래를 불러 주었다. 이후
<모심기 노래>는 조사자와 청중들의 도움을 받아 가사를 기억해서 계속 부른 것이다.

해창해창 베루끝에 - 무정하던 저오랍바
나도죽어 군자되어~ 처자한번 섬기볼래

풍당 풍당 수지비~

[빠르게 읊듯이]

강남에 강대추 오랑조랑 열었네
충청도 중복선 주기야 가지야 열었네

[노래로 다시 부름]

충청도 중복선~ 주지나 가지나 열었구나
강남에 강대추 오랑조랑 열었네

마 끝에는 모른다.

물길랑청청~ 혈어놓고 주인네한량 어데갔노
등념에다 첩을두고~ 첩우집에 놀러갔네

다풀다풀다푸랑 머리~ 해다진데 어디갔노
우리야부모 산소등에~ 젓묵으러 나는가네

해창농창 비러끝에 무정하던 저오랍바
나는죽어 군자되어 처자한번 섬기볼래

이내머리 수절피가~ 어한일고
분통같은 이내얼굴 괴기밥이 우짚일고

[금정구 민요 32]

곰보 놀리는 노래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121_PKS_KSR_0002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금정구 청룡노포동 작장마을 작장여자경로당

조사일시 : 2010.1.21

조 사 자 : 박경수, 서정매, 황영태, 최수정

제 보 자 : 김소래, 여, 93세

구연상황 : 제보자는 다음 노래를 숨이 차듯 빠르게 구연했고, 가사가 재미있어서인지 청중들은 웃으면서 즐거워하였다. 이 노래는 곰보의 얇은 얼굴을 보고 놀리면서 부르는 동요이다.

얼경덜경 성님아 너덜궁계(너덜 구멍에) 빠질라
야야 동상아 니나살뽀(너나 살짝) 건너라

[금정구 민요 33]

무정한 님 노래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121_PKS_KSR_0003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금정구 청룡노포동 작장마을 작장여자경로당

조사일시 : 2010.1.21

조 사 자 : 박경수, 서정매, 황영태, 최수정

제 보 자 : 김소래, 여, 93세

구연상황 : 제보자는 다음 노래를 창부타령 곡조로 불렀다. 가사가 도중에 잘 생각이 나지 않는지 노래를 잘 모르겠다고 하면서 반복해서 부르기도 했다.

이산저산 저산중에 슬피우는 금봉새야

그집봉 - 선 - 어디두고 여산중에 슬피우노

술을 취토령(취하도록) 먹고 임날사랑을 찾아가면
임은점점 간데도 없고 모진강풍이 날속히나

술을 취토록 먹고~ 임날사랑을 찾아가니
임은점점 간데도없고 모진강풍이 날속히나

[금정구 민요 34]

권주가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121_PKS_KSR_0004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금정구 청룡노포동 작장마을 작장여자경로당

조사일시 : 2010.1.21

조 사 자 : 박경수, 서정매, 황영태, 최수정

제 보 자 : 김소래, 여, 93세

구연상황 : 제보자에게 권주가를 아는지 묻자, 다음 노래를 짚막하게 불러 주었다.

둘이 먹자고 약속을 하였더니
권주가 바람에 낙주가 되노라

[금정구 민요 35]

모심기 노래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123_PKS_KYS_0001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금정구 선두구동 선동마을 선동경로당

조사일시 : 2010.1.23

조 사 자 : 박경수, 서정매, 황영태, 최수정

제 보 자 : 김영선, 여, 76세

구연상황 : 제보자가 모심기 노래를 시작하자 청중들도 함께 불러 주었다. 기억력이 좋은 편이어서 긴 가사로 불러 주었다.

해다지고 저문날에~이 우연행상 떠나가노
이태백이 본처죽고~이 이별행상 떠나간다

머리아 좋고 실한처녀~이 올뽕남게 앓아우네

울뽕졸뽕 내따주마~이 백년하례를 내강살자

수천당모랭이 썩돌아서니 아니먹어도 술내가나네

임의아버선에 볼을걸어 임줄정이 다시없네

오늘일기가 요만되니 산골마중 연개나네

우리야남아 어데가고 연개낼줄 모르는공

초롱야초롱아 영사초령~ 임의방에 불밝히라

우리야임은 어데가고 초롱불~을 못밝히노

카든가 마 모리겠다.

[금정구 민요 36]

쌍가락지 노래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123_PKS_KYS_0002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금정구 선두구동 선동마을 선동경로당

조사일시 : 2010.1.23

조 사 자 : 박경수, 서정매, 황영태, 최수정

제 보 자 : 김영선, 여, 76세

구연상황 : 쌍금쌍금 쌍가락지에 대해 구연을 요청하자, 가사를 모두 기억할런지 모르겠다고 하였지만, 기억력이 좋은 편이어서 모두 구연해 주었다.

쌍금쌍금 쌍가락지

주석질로 녹가락지

먼데보몬 달일래라

잡에보이 처잘래라

그처자야 자는방에

숨소리가 돌일래라

청도복상 오라버님

거짓말썸 말아시소

나암풍이 디리불어

풍지떠는 소릴래라

그말듣기 애달파서
그 아가씨가
딱게칼로 목에품고
자는듯이 죽어품고
내가 죽거들랑
앞산에도 묻지말고
뒷산에도 묻지말고
연단밑에 묻어줄라

카대. (청중: 아이고 우짜노.)

[금정구 민요 37]

모찌기 노래

자료코드: 04_21_FOS_20100123_PKS_KYJ_0001

조사장소: 부산광역시 금정구 선두구동 임석마을 임석마을회관

조사일시: 2010.1.23

조 사 자: 박경수, 서정매, 황영태, 최수정

제 보 자: 김영주, 여, 75세

공연상황: 조사자가 모 찢 때 하는 노래를 아느냐고 물어보자, 제보자가 바로 구연해 주었다.

한~강에다~모를부아~ 모찌기~도 난감하네
우리야~부-모-님- 산소등에~ 솔을~ 숨가서 영화로다-

[금정구 민요 38]

모심기 노래

자료코드: 04_21_FOS_20100123_PKS_KYJ_0002

조사장소: 부산광역시 금정구 선두구동 임석마을 임석마을회관

조사일시: 2010.1.23

조 사 자: 박경수, 서정매, 황영태, 최수정

제 보 자: 김영주, 여, 75세

공연상황: 앞의 <모찌기 노래>를 부른 후 바로 이어서 다음 노래를 불렀다.

풍당~풍당~ 찰수지비~ 사우아판에 다올랐네-
애미야~년은 어둡가고~ 딸년~동제를 맺겼든고-

[금정구 민요 39]

아기 어르는 노래 / 불매소리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123_PKS_KYJ_0003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금정구 선두구동 임석마을 임석마을회관

조사일시 : 2010.1.23

조 사 자 : 박경수, 서정매, 황영태, 최수정

제 보 자 : 김영주, 여, 75세

구연상황 : 제보자는 혼자 노래하기가 쑥스러워 다른 제보자와 같이 부르자고 하면서 구연했다. 부르면서 쑥스러웠는지 노래 부르는 중간에 웃기도 했다.

불매불매 불매야~
이불매가 누불매고
전라도라 소불매
경상도라 [웃음] 대불매
불어라 딱딱 불매야

[금정구 민요 40]

검둥개 노래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123_PKS_KYJ_0004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금정구 선두구동 임석마을 임석마을회관

조사일시 : 2010.1.23

조 사 자 : 박경수, 서정매, 황영태, 최수정

제 보 자 : 김영주, 여, 75세

구연상황 : 제보자는 다른 제보자와 같이 불렀는데, 같이 부른 제보자가 옆에서 가사를 도와줘서 구연했다.

개야개야검둥개야
야밤중에 오시는 손님
짓지말고 밥먹어라
내가니를 밥을줄때
니가좋아서 밥을주나

야밤중에 오시는손님~
짓지마라고 너를주지

[금정구 민요 41]

창부타령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128_PKS_KOP_0001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성동 공해마을 공해경로당

조사일시 : 2010.1.28

조 사 자 : 박경수, 서정매, 황영태, 최수정

제 보 자 : 김옥분, 여, 81세

구연상황 : 조사자가 앞 운을 띄어주자 제보자가 기억을 더듬어 구연했다. 처음엔 유행가 음에 맞추어 노래를 불렀는데 수정하여 창부타령의 선율로 불러 주었다.

포름포름 봄배추는 봄비오도록 기다리고
옥에갈힌 춘향이는 이대롱오들만

(청중 : 대롱이 아니고, 이도롱.)

이도롱 오들만 기다리네

[금정구 민요 42]

다리 세기 노래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123_PKS_KIS_0001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금정구 회동동 동대마을 동대노인정

조사일시 : 2010.1.23

조 사 자 : 박경수, 서정매, 황영태, 최수정

제 보 자 : 김일순, 여, 76세

구연상황 : 조사자가 “이거리 저거리” 하면서 부르는 <다리 세기 노래>를 아느냐고 하자, 제보자가 나서서 다음 노래를 했다.

이거리 저거리 갯거리
동서남북 도남북
도리 짐치 장독간
서울양반 두양반

진주댁이 열석냥
까마꾸 까우 안은뱅이
노리야 사시야
방 해야 통 태

[금정구 민요 43]

인생허무가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121_PKS_KJS_0001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금정구 청룡노포동 작장마을 작장여자경로당

조사일시 : 2010.1.21

조 사 자 : 박경수, 서정매, 황영태, 최수정

제 보 자 : 김중순, 여, 89세

구연상황 : 조사자가 제보자에게 청춘가를 아는지 물어보자, 제보자가 곧바로 노래를 구연해 주었다. 그러나 <청춘가>가 아니라 창부타령 곡조로 부르는 노래로 내용이 청춘이 지나간 뒤의 허무함을 담은 노래이다. 옆의 청중들도 조용히 귀를 기울이며 들어주었다.

남기라도 고목이되면~ 오던새도 아니오고
물이라도 낙하지면~ 노던고기도 아니온다
꽃이라도 시들어지면~ 놀던나비도 아니오네
우리청춘 백발이되니~ 놀던 친구도 안찾아온다

[금정구 민요 44]

성주풀이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123_PKS_KJH_0001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금정구 선두구동 선동마을 선동경로당

조사일시 : 2010.1.23

조 사 자 : 박경수, 서정매, 황영태, 최수정

제 보 자 : 김진호, 남, 83세

구연상황 : 성주풀이를 자진모리 장단으로 신명나게 불렀다. 청중들도 박수를 치면서 장단을 맞추어 흥겹게 노래가 구연되었다.

하늘생겼다 갑자년
땅생겼다 월축년

갑자월축은 병환이오
천지절이 생긴
천지절이 생긴후에
인간의 근본이 어디메요
경상도 안동땅
제비조전이 본이라

짹짹.

제비조전에 솔씨를받아
던졌네 던졌구나
그집봉산을 던져
그솔씨 자라날때
삼정승 문월주
육판사 길러내어
소부동이가 되었구나

캥작 캥작.

소부동이 자라나서
황장목 중장목
낙락장송이 되었네

[금정구 민요 45]

모심기 노래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123_PKS_KHS_0001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금정구 선두구동 선동마을 선동경로당

조사일시 : 2010.1.23

조 사 자 : 박경수, 서정매, 황영태, 최수정

제 보 자 : 김해수, 남, 82세

구연상황 : 조사자가 제보자에게 모심기 소리를 불러 달라고 부탁하자 노래가 잘 기억이 안 날 것 같다고
자신이 없어 했지만, 노래를 구성지게 잘 불러 주었다.

서울갔던 선부님요~ 우리선부 안오던가
오기는 올지라도 칠성당에 실려온다

앞집에도 관등달고 뒷집에도 관등달고
울언님은 어디가고 관등달줄을 모르던가

[금정구 민요 46]

성주풀이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123_PKS_KHS_0002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금정구 선두구동 선동마을 선동경로당

조사일시 : 2010.1.23

조 사 자 : 박경수, 서정매, 황영태, 최수정

제 보 자 : 김해수, 남, 82세

구연상황 : 김진호(남, 83세) 노인이 먼저 <성주풀이>를 부른 후에 조사자가 다른 분도 <성주풀이>를 부를 수 있는지 물었다. 제보자는 마을에서 매년 성주풀이를 불러왔기 때문에, 귀동냥으로 기억을 하는 터라고 말해 주었다. 일단 기억나는 데까지만 구연을 부탁하자 제보자가 흔쾌히 구연해 주었다.

하늘 생겼다 갑자년
땅생겼다 월축년
천지월이 생긴후에
인간의 근본이 어더매냐
경상도 안동땅
제비주천이 본인이요
제비주천에다가
솔씨를 받아
던졌네 던졌네
거지봉산을 던졌네
그솔씨 자라나서
황장목 중장목
낭락장송이 되었구나

[금정구 민요 47]

모심기 노래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128_PKS_MYS_0001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성동 산성2통경로당

조사일시 : 2010.1.28

조 사 자 : 박경수, 서정매, 황영태, 최수정

제 보 자 : 문의석, 여, 83세

구연상황 : 민요에 관한 이야기를 하던 도중 제보자가 갑자기 다음 노래가 생각이 났는지 모심기 노래를 구연해 주었다.

네모판같은 이뭇자리~ 장구판만침(장기판만큼) 남았구나
장구아판이사 좋다마는~ 장구뜰이가 누있으리

이물기저물기 헐어놓고~ 전네양반은 어디갔소
문ैया전복을 손에들고~ 첩ैया방에 놀러갔소

풍당풍당 찰수지비~ 사우아판에 다올랐네
애미야년은 어디가고~ 딸을동자를 시켰던공

해다졌네 해다졌네~ 양산땅~에 해다졌네
우리아 울언님은 어디가고~ 연기널~줄을 모르던공

모시아적삼 안섶안에 분통같은 저젓보소
많ैया보면 병될끼고~ 쌀날만~치만 보고가소

배꽃일세~ 배꽃일세~ 처녀야수~건이 배꽃일세
배꽃같은 수건밑에 거울같~은 눈매보소

[금정구 민요 48]

창부타령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128_PKS_MYS_0002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성동 산성2통경로당

조사일시 : 2010.1.28

조 사 자 : 박경수, 서정매, 황영태, 최수정

제 보 자 : 문의석, 여, 83세

구연상황 : 조사자가 옛날 첩에 관한 노래가 있지 않느냐고 하면서 유도하자, 제보자가 다음 <창부타령>을 했다.

해다지고 저무신날에 꽃갓을 씌고서 어디가요
첩우야집을 갈라거들랑 나죽는 풀이나 보고가소
첩우야집은 꽃밭이요 나의집은 연못이라 (청중 : 좋~다.)
꽃과나비는 봄한철인데 연못의 금붕어는 사시장철
얼씨구나 좋네 지화자 좋네~
아니 노지를 못하리라 아니 서지를 못하리라

[금정구 민요 49]

노랫가락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128_PKS_MYS_0003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성동 산성2통경로당

조사일시 : 2010.1.28

조 사 자 : 박경수, 서정매, 황영태, 최수정

제 보 자 : 문의석, 여, 83세

구연상황 : 조사자가 제보자에게 권주가에 대해 아는지 물었더니, 제보자는 일명 ‘술 노래’인 다음 <노랫가락>을 조용히 불렀다.

창밖에 국화를심고 국화밑~에다 술빚어놓고
술익자 국화꽃피자~ 임이오시자 달도오신다
동자야 국화주걸러라 먹고노자는 동백주요-

[금정구 민요 50]

노랫가락 / 그네 노래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128_PKS_MYS_0004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성동 산성2통경로당

조사일시 : 2010.1.28

조 사 자 : 박경수, 서정매, 황영태, 최수정

제 보 자 : 문의석, 여, 83세

공연상황 : 제보자는 앞의 노래를 부르고 난 뒤 이어서 다음 노래를 불러 주었다.

사랑앞에 백일홍심고~ 백일~홍가지 추천을매~여
임이타면 내가나밀고 내가타면은 임이만~다
저님아 줄미지마라 줄떨어지면은 정떨어진다

[금정구 민요 51]

너냥 나냥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128_PKS_MYS_0005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성동 산성2통경로당

조사일시 : 2010.1.28

조 사 자 : 박경수, 서정매, 황영태, 최수정

제 보 자 : 문익석, 여, 83세

공연상황 : 조사자가 <너냥 나냥>의 앞 부분을 읊어주자, 제보자가 곧바로 다음 노래를 불러 주었다. 청중들도 박수를 치며 노래를 경청하였다.

너냥나냥 두리둥실 놀고요
낮이낮이나 밤이밤이나 참사랑이로구나
아침에 우는새는 배고파~ 울고요
저녁에 우는새는 임이기러 운다
너냥나냥 두리둥실 놀~고요
낮이낮이나 밤이밤이나 참사랑이로구나

[금정구 민요 52]

모심기 노래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121_PKS_PKS_0001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금정구 노포동 작장마을 작장여자경로당

조사일시 : 2010.1.21

조 사 자 : 박경수, 서정매, 황영태, 최수정

제 보 자 : 박길성, 여, 89세

공연상황 : 조사자가 제보자에게 모심기 노래를 불러 달라고 요청하자 제보자가 곧바로 다음 노래를 불러 주었다. 청중들은 제보자의 노래를 조용히 경청하였다.

이논에다 모를숨겨~이 금실금~실 영화로다
우리야 부모님 산소등에~ 솔을숨가서 영화로다

풍당풍당 찰수지비~ 사우아판에 다올랐네
애미년은 어디가고

딸년은 맏졌다글타 그 안 카대. 저거 시아방 다 퍼줬다 안 카더나.

풍당풍당 찰수지비~ 사우아판에 다올랐네
어미년은 어디가고~ 딸년으로 맏겼던공

[금정구 민요 53]

모심기 노래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123_PKS_PSI_0001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금정구 선두구동 임석마을 임석마을회관

조사일시 : 2010.1.23

조 사 자 : 박경수, 서정매, 황영태, 최수정

제 보 자 : 박소이, 여, 80세

구연상황 : 제보자는 다른 제보자가 노래를 구연하는 것을 듣고 있다가 문득 다음 노래가 생각이 났는지 불러 주었다. 먼저 가사를 읊어본 후에 노래로 다시 불렀다.

해다지고~ 저문날에~ 골골마주 연기나네 (청중 : 잘하네.)
울언~님은~ 어덜가고~이 연기낼~줄 내모르노

이물끼저물끼 청청 혈어놓고~ 주인네양반은 어디갔노
문에야대전복 손에들고~이 첩의방~에 놀러갔다

낭창낭창 베리끝에 무정하~다 울오랍아
잘태있는 동생두고~이 먼데있는 니쳐자나
나도죽어서 남자되어~이 처자곤석 땡기볼래

[금정구 민요 54]

아기 어르는 노래 / 알강달강요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123_PKS_PSI_0002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금정구 선두구동 임석마을 임석마을회관

조사일시 : 2010.1.23

조 사 자 : 박경수, 서정매, 황영태, 최수정

제 보 자 : 박소이, 여, 80세

구연상황 : 조사자가 아기 어를 때 노래를 요청하자 청중들이 제보자보고 이 노래를 잘한다며 추켜세웠다.

제보자는 쑥스러워 하면서 구연했다. 먼저 가사를 읊어본 후에 노래로 다시 불렀다.

[가사를 읊으면서]

알강달강 서울 가서 뺨을 한 되 조았더니 쌀독 안에 열었더니 뭐 생쥐가 다 까먹고 단지 하나 남은 것은 껍질은 애비 주고 또, 보늬는 엄마 주고 알키는 니강 내강 갈라묵자

알강달강 서울가서

뺨을한되 주았더니

쌀독안에 열었더니

오멘가메 다까먹고

껍질은 애비주고

보늬는 엄마주고

알키는 니강내강 돌이갈라 [웃으며 중단]

[금정구 민요 55]

창부타령(1)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123_PKS_PSI_0003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금정구 선두구동 임석마을 임석마을회관

조사일시 : 2010.1.23

조 사 자 : 박경수, 서정매, 황영태, 최수정

제 보 자 : 박소이, 여, 80세

구연상황 : 조사자가 제보자에게 노랫가락을 아는 지 물어보며 창부타령의 첫 구절을 불러주니, 노래가 생각났던지 자신 있게 구연해 주었다.

백설겇은 흰나우야(흰나비아) 부모님 목상을(몽상을) 입었더니

소복단장 곱게하고 짱다리 받으로 날아든다

포롬포롬 봄배추는 잔이슬오도록 기다리고~
옥에갇힌 춘향이는 이대룡 오기만 기다린다~

얼씨구 좋다 지화자 좋네~
아니 놀고서 못하리라

간다더니 왜또왔나~ 간다나더니 왜또왔나
내딸죽고 내사우야 울고갈길을 왜왔던공
이왕이사 완걸음에(왔던 걸음에) 발치잡이나 자고가소
자면자고 말면은말고 발치잡이 왜말이나

[금정구 민요 56]

권주가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123_PKS_PSI_0004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금정구 선두구동 임석마을 임석마을회관

조사일시 : 2010.1.23

조 사 자 : 박경수, 서정매, 황영태, 최수정

제 보 자 : 박소이, 여, 80세

구연상황 : 조사자가 제보자에게 이 노래의 사설을 조금 알려주면서 제보자에게 노래를 불러볼 것을 권하자
제보자가 다음 노래를 불러 주었다. 청중들은 박수를 치면서 장단을 맞추어 주었다.

받으시오 받으시오~ 이술한잔을 받으시오
이 - 술 - 이 - 술이아니라~ 묵고노자는 동백주라

아~ 좋네~
아니나 놀고서 무엇하리 (청중 : 잘하네.)

[금정구 민요 57]

창부타령(2)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123_PKS_PSI_0005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금정구 선두구동 임석마을 임석마을회관

조사일시 : 2010.1.23

조 사 자 : 박경수, 서정매, 황영태, 최수정

제 보 자 : 박소이, 여, 80세

구연상황 : 조사자가 알고 있는 노래를 더 불러 달라고 요청하자 제보자가 웃으면서 다음 노래를 구연해 주었다.

임은죽어 제비가되어 추양끝에다 집을지아
날면보고 들면봐도 임인 - 줄은 - 내몰랐네~

얼씨구 좋다 지화자 좋네
아니 놓고서 무엇하리

[금정구 민요 58]

사발가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123_PKS_PSI_0006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금정구 선두구동 임석마을 임석마을회관

조사일시 : 2010.1.23

조 사 자 : 박경수, 서정매, 황영태, 최수정

제 보 자 : 박소이, 여, 80세

구연상황 : 조사자가 <사발가>의 앞 부분 사설을 읊어주며 노래를 유도하자 제보자가 부른 것이다.

석탄백탄 타는데~ 연기만퐁퐁 나고요
요내가슴- 타는데는 연기도짐도 만나네

[금정구 민요 59]

모심기 노래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123_PKS_PYS_0001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금정구 선두구동 선동마을 선동경로당

조사일시 : 2010.1.23

조 사 자 : 박경수, 서정매, 황영태, 최수정

제 보 자 : 박영순, 여, 80세

구연상황 : 제보자는 예전에 많이 불렀다면서 <모심기 노래>를 불러 주었다. 청중들도 아는 노래를 함께 부르면서 제보자의 노래에 호응을 해주었다.

이물기 저물기 다혈어놓고 주인네양반은 어데갔노

문ैया전복 손에들고이 첩우야집에 놀러갔다

풍당풍당 찰수지비~ 사우야판에 다올랐네

부모님은 어데가고~이 딸을동자로 맺깃던고

[금정구 민요 60]

다리 세기 노래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128_PKS_SSI_01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성동 공해마을 공해경로당

조사일시 : 2010.1.21

조 사 자 : 박경수, 서정매, 황영태, 최수정

제 보 자 : 심순인, 여, 86세

구연상황 : 제보자에게 조사자가 옛날에 다리를 세면서 불렀던 노래를 유도하자 제보자가 부른 것이다.

이거리 저거리 갓거리

동사맹근 도맹근

용무 가시

칠대 장구

꼬드레 마누레

뽕 양 흥-

[금정구 민요 61]

도라지 타령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123_PKS_AJN_0001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금정구 화동동 동대마을 동대노인정

조사일시 : 2010.1.23

조 사 자 : 박경수, 서정매, 황영태, 최수정

제 보 자 : 안종내, 여, 76세

구연상황 : 제보자가 다른 제보자의 도라지 타령을 듣더니, 노래가 끝난 후 이어서 다음 노래를 불러 주었다.

도라지캐로 간다고 요팽기(요 핑계)저팽기 가더니

솔밭밑에 앉아서 시집갈 연구만 하노라

에헤용 에헤용 에헤용 어야라 난다 기화자~

얼씨구 절씨구 좋구나

산들산들 부는바람 산천초목을 휘날리고
방실방실 우는아긴 내장부간장을 다нок한다
에헤용 에헤용 에헤용 어야라 난다 기화자
저절-씨구나 좋구나

나물캐러 간다고~ 요팽기조팽기 가더니
총각낭군 무덤에 사우지(삼우제)지내러 가노라
에헤용 에헤용 에헤용 어야라 난다 기화자-
저절-씨구나 좋구나

[금정구 민요 62]

모심기 노래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123_PKS_AJN_0002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금정구 회동동 동대마을 동대노인정

조사일시 : 2010.1.23

조 사 자 : 박경수, 서정매, 황영태, 최수정

제 보 자 : 안종내, 여, 76세

공연상황 : 조사자가 제보자에게 모심기 노래를 불러달라고 요청하자, 적극적으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였다. 청중들도 처음엔 듣다가 함께 불러 주었다.

오늘해가 요만되면 산골마다 연개나네
우리야부모님 어데가고~이 연개넬~줄을 모르던가

타박타박 타박머리~ 해다진~데 어데가노
우리야부모님 산소등에~헤이 젓먹으~로 내가간다

울뽕졸뽕 내따주마~하이 이내품에 잠들어라

초랑초랑 영사초랑 임의야방에 불밝혀라
임도눕고 나도눕고 저불끌이는 누있으리

[금정구 민요 63]

아기 어르는 노래 / 알강달강요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123_PKS_AJN_0003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금정구 회동동 동대마을 동대노인정

조사일시 : 2010.1.23

조 사 자 : 박경수, 서정매, 황영태, 최수정

제 보 자 : 안종내, 여, 76세

구연상황 : 조사자가 아기 어를 때 부르는 노래를 유도하자 제보자가 나서서 다음 노래를 불러 주었다.

알강달강 우리애기한테

밤한톨을 줄라꼬

살강밑에 묻었더니

머리감은 생쥐가

들랑날랑 다까먹고

한톨두톨 남아있네

보닉기는 아버지주고

본디기는 엄마주고

알갱이는 니강내강

알강달강 다먹자

[금정구 민요 64]

아기 어르는 노래 / 불매소리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123_PKS_AJN_0004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금정구 회동동 동대마을 동대노인정

조사일시 : 2010.1.23

조 사 자 : 박경수, 서정매, 황영태, 최수정

제 보 자 : 안종내, 여, 76세

구연상황 : 조사자가 제보자에게 또 다른 아기 어르는 소리가 있지 않느냐고 하면서 유도하자 제보자가 부른 것이다.

불매불매 불매야

불어라 딱딱 불매야

이불매를 이래불면
불어라 왕
불어라 불어라
울컹덜컹
불어라 불어라

[금정구 민요 65]

나무 노래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123_PKS_AJN_0005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금정구 회동동 동대마을 동대노인정

조사일시 : 2010.1.23

조 사 자 : 박경수, 서정매, 황영태, 최수정

제 보 자 : 안종내, 여, 76세

구연상황 : 제보자는 다른 노래를 부르고 난 뒤, 또 연이어서 노래를 불러 주었다.

높은낭게는 할까지~
낮은낭게는 점까지
침치독에는 꼬까지(골마지의 방언)

[금정구 민요 66]

아기 재우는 노래 / 자장가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123_PKS_AJN_0006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금정구 회동동 동대마을 동대노인정

조사일시 : 2010.1.23

조 사 자 : 박경수, 서정매, 황영태, 최수정

제 보 자 : 안종내, 여, 76세

구연상황 : 조사자가 아기를 재울 때 부르는 노래를 요청하자 제보자가 조용히 박수를 치면서 아이를 재우
듯이 나지막하게 다음 노래를 불러 주었다.

자장자장 자장자장
우리애기 잘도잔다
뒷집개도 짓지마라
앞집개도 짓지마라

우리애기 잠깨운다

[금정구 민요 67]

파랑새요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123_PKS_AJN_0007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금정구 회동동 동대마을 동대노인정

조사일시 : 2010.1.23

조 사 자 : 박경수, 서정매, 황영태, 최수정

제 보 자 : 안종내, 여, 76세

구연상황 : 제보자가 나무 노래를 부르고 나서 이어서 <파랑새요>를 불러 주었다. 청중들도 아는 노래여서 인지 함께 불렀다.

새야새야 파랑새야

녹디낭게 앉지마라

녹디꽃이 떨어지면

청포장사 울고간다

[금정구 민요 68]

너냥 나냥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123_PKS_AJN_0008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금정구 회동동 동대마을 동대노인정

조사일시 : 2010.1.23

조 사 자 : 박경수, 서정매, 황영태, 최수정

제 보 자 : 안종내, 여, 76세

구연상황 : 조사자가 제보자에게 <너냥 나냥>의 첫 구절 운을 띄워주자 제보자가 다음 노래를 불러 주었다.

너거집의 서방님은 자전거를 타는데

우리집 못난이는 쳇바쿠도 못탄다

[금정구 민요 69]

보리타작 노래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123_PKS_AJN_0009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금정구 회동동 동대마을 동대노인정

조사일시 : 2010.1.23

조 사 자 : 박경수, 서정매, 황영태, 최수정

제 보 자 : 안종내, 여, 76세

구연상황 : 조사자의 유도에 따라 제보자가 노래를 불러 주었는데, 허 짧은 시늉을 하며 <보리타작 노래>를 불러 주었다.

어~ 이기도 이력저력 뜰들인다

갈미봉산에도 비문었다

뒷집에 정쭈쭈도(형수님도)

내쫓만 바래고

앞집에 썩쭈쭈도(제수씨도)

내쫓만 바라고

어쭈~ 넘어간다

잘도한다

[금정구 민요 70]

모심기 노래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123_PKS_ESY_0001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금정구 회동동 동대마을 동대노인정

조사일시 : 2010.1.23

조 사 자 : 박경수, 서정매, 황영태, 최수정

제 보 자 : 엄소연, 여, 82세

구연상황 : 제보자가 <모심기 노래>의 앞소리를 하기 시작하자, 노래 가사를 아는 사람들이 함께 노래를 불러 주었다.

이논에에~이 모를부아 잔나락이 절반이-네

서울가신~에이 선부님요 우리선부 안오던가

오기야만 온다만은 칠성판에 실려온다

이물기저물기 다혈어놓고~히 주인네-양~반은 어데갔소

문ैया전복 에와들고~이 - 첩우야집에 놀러갔소

송금씨야 깎은배는 어이 맛도 좋고도 연하도다

애기씨도련님 병이들어~이 송금씨야 배깎아라

송금씨야 깎은배는~이 맛도 좋고도 연하도다

이라제. (청중 : 안 하다가 하이.)

(알강달강)⁴⁶¹ 유자점채~이 팔사동동 끈을달아

언제나 좋을까 전제나 좋을까~이 달기(닭이)울어도 아니조네

오늘해가 요만되면 점심참이 늦어오네

서른세칸 정지안에~이 돌고돌다가 늦어왔네

시금치야 미나리는~ 맛본다~고 더디왔소

[금정구 민요 71]

창부타령(1)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123_PKS_ESY_0002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금정구 회동동 동대마을 동대노인정

조사일시 : 2010.1.23

조 사 자 : 박경수, 서정매, 황영태, 최수정

제 보 자 : 엄소연, 여, 82세

구연상황 : 제보자는 다른 제보자의 노래를 듣고 자신있게 다음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였다. 노래 중간에 청중들도 끼어들어 노래를 부르기도 했다.

포롬포롬 봄배차는 밤이슬오도록만 기다리고

옥에간힌 춘향~이는 이대룡오도록 기다린다

얼씨구나 좋다 절씨구나 아니 놓고서 무엇하나

내딸죽고 내사우야 울고갈길을 니왜왔나

이왕앞에 완걸음에 밤길잠이나 자고가소

적어도 대장분대 발질잠이 웬말이오

461) 실수로 녹음이 되지 않은 부분이다.

저기가는 저구름은 눈들었나 비들었나-
눈도비도야 아니들고~ 소리명창이 들었심더

나물먹고 물마시고 팔을비고 누웠으니
대장부 살림살이 요만하면은 넉넉하지
얼씨구좋다 절씨구좋다 젊을시절에 놀아보자

[금정구 민요 72]

사발가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123_PKS_ESY_0003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금정구 회동동 동대마을 동대노인정

조사일시 : 2010.1.23

조 사 자 : 박경수, 서정매, 황영태, 최수정

제 보 자 : 엄소연, 여, 82세

구연상황 : 조사자가 제보자에게 첫 운은 띄워주자 제보자가 다음 <사발가>를 짧게 부르고 마쳤다.

석탄백탄 타는데~ 연개짐만 나던마는
요내가슴 타는데는~ 연개도짐도 아니난다

[금정구 민요 73]

창부타령(2)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123_PKS_ESY_0004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금정구 회동동 동대마을 동대노인정

조사일시 : 2010.1.23

조 사 자 : 박경수, 서정매, 황영태, 최수정

제 보 자 : 엄소연, 여, 82세

구연상황 : <도라지 타령>을 불러 달라고 했더니, 제보자는 “도라지 병풍으로” 시작되는 <창부타령>을 불러 주었다.

도라지팽풍 미달이방에 잠자는큰아가 문열어라
바람불고 눈오는데 당신을줄을 몰랐심더
얼씨구 좋아 저절씨구~ 아니 놀지를 못하리라

나물먹고 물마시고 팔을베고 누웠으니
대장부 살림살이가 요만하면 넉넉하지

[금정구 민요 74]

권주가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123_PKS_ESY_0005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금정구 회동동 동대마을 동대노인정

조사일시 : 2010.1.23

조 사 자 : 박경수, 서정매, 황영태, 최수정

제 보 자 : 엄소연, 여, 82세

구연상황 : 조사자가 노래의 제목을 말해주자 제보자는 바로 권주가를 구연해 주었다. 창부타령 곡조로 부른 것이다.

잡으시요 잡으나시요 - 이술한잔을 잡으세요~
이술이 술이아니라 먹고노자는 동백주요 -

노세노세 젊어서놀아~ 늙고병들면 못노리다-

[금정구 민요 75]

창부타령(3)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123_PKS_ESY_0006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금정구 회동동 동대마을 동대노인정

조사일시 : 2010.1.23

조 사 자 : 박경수, 서정매, 황영태, 최수정

제 보 자 : 엄소연, 여, 82세

구연상황 : 제보자는 다음 노래가 생각났는지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바람불어 시들은남기 눈비온다고 일어날까~
뱅(병)이들어 누으신낭군 약을써서야 일어날까
얼씨구 절씨구 지화자 좋다~ 놀고놀고서 놀아보자

[금정구 민요 76]

너냥 나냥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123_PKS_ESY_0007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금정구 회동동 동대마을 동대노인정

조사일시 : 2010.1.23

조 사 자 : 박경수, 서정매, 황영태, 최수정

제 보 자 : 엄소연, 여, 82세

구연상황 : 조사자의 유도로 제보자가 다음 노래를 불러 주었다. 청중들도 함께 아는 노래를 따라 불렀다.

너냥내냥 두리둥실 농구요
밤이밤이나 낮이낮이나 참사랑이로다

아침에 우는새는 배가고파 울고요
저녁에 우는새는 임이그리와 운다
너냥내~냥 두리둥실 농구요
밤이밤이나 낮이낮이나 참사랑이로다

세월아 봄한철아 오고가지를 말어라
아깁은 우리청춘 다늙어간다

뒷집에 서방님은 하이야로 타는데
우리집의 서방님은 똥구루마로만 몬다

[금정구 민요 77]

화투타령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123_PKS_ESY_0008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금정구 회동동 동대마을 동대노인정

조사일시 : 2010.1.23

조 사 자 : 박경수, 서정매, 황영태, 최수정

제 보 자 : 엄소연, 여, 82세

구연상황 : 조사자가 제보자에게 <화투타령>을 아는지 물었더니, 바로 다음 노래를 불러 주었다. 제보자가 노래를 부르자 청중들도 함께 불러 주었다.

정월속가지 속속한마음
이월매조에 맺어놓고
삼월사꾸라 산란한마음

사월흑사리 씨러졌어

오월난초 날던나비가

유월목단에 올라앉아

칠월홍돼지 홀로누워

팔월공산아 달밝혀라

구월국화 굳은마음

시월단풍에 똑떨어졌다

오동 - 지야 오실런님이

선달이 다가도 아니오네

[금정구 민요 78]

파랑새요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121_PKS_YDC_0001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금정구 청룡노포동 작장마을 작장여자경로당

조사일시 : 2010.1.21

조 사 자 : 박경수, 서정매, 황영태, 최수정

제 보 자 : 윤덕출, 여, 74세

구연상황 : 조사자의 요청에 제보자는 다음 노래의 가사를 읊어 주었다.

새야 새야

녹디낭게(녹두나무에) 앉지마라

녹디꽃이 떨어지면

청포장사 울고간다

[금정구 민요 79]

모심기 노래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123_PKS_LGS_0001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금정구 선두구동 임석마을 임석마을회관

조사일시 : 2010.1.23

조 사 자 : 박경수, 서정매, 황영태, 최수정

제 보 자: 이금순, 여, 75세

구연상황: 제보자는 노래를 구연하면서 다른 것은 잘 모른다고 하면서 구연했는데, 조사자가 앞 운을 띄어주니 생각이 났는지 구연해 주었다. 한 번 노래가 나오기 시작하니, 가사가 술술 나오기 시작했다.

오늘낮에 점심반찬~ 무슨고기가 올랐는고
전라도라 볶안(볶은)제비 마리마리 올랐구나

바대야겔은(바다같은) 너른논에 장구판만치 남았구나

해다짚네 해다짚네-

아! [제보자가 문득 처음부터 부르는 가사가 생각나서 다시 노래를 부름]

다풀다풀 다박머리~ 해다진데 어데가노
우리야부모 선산등에~ 젓묵으로 내가가네

[금정구 민요 80]

화투타령

자료코드: 04_21_FOS_20100123_PKS_LGS_0002

조사장소: 부산광역시 금정구 두구동 임석마을 임석마을회관

조사일시: 2010.1.23

조 사 자: 박경수, 서정매, 황영태, 최수정

제 보 자: 이금순, 여, 75세

구연상황: 제보자는 조사자의 요청에 <화투타령>의 노래 가사를 기억하기 위해 말로 읊어본 후에 다음 노래를 불렀다.

정월속가지 속속한마음
이월매조 맺았구나
삼월사꾸라 산란한마음
오월난초 나비가되어
유월목단에 춤을추네
칠월홍돼지 흥덕한마음
팔월공산에 달이뜨네
구월국화 굳었던마음

시월단풍에 뚝떨어졌네
오동추야 달밤은데
비삼십 다리고 도망가자

[금정구 민요 81]

양산도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123_PKS_LGS_0003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금정구 두구동 임석마을 임석마을회관

조사일시 : 2010.1.23

조 사 자 : 박경수, 서정매, 황영태, 최수정

제 보 자 : 이금순, 여, 75세

구연상황 : 제보자는 조사자의 유도로 다음 노래를 부르면서 씩스러운 듯 중간에 웃기도 했다.

양산읍네 물레방아~ 물을안고 돌~고~
이십세게 청년들은 나를안고~ 돈~다~
에이라 동계디어라 아니 [웃으며] 못노나니~
능지를 하여~도 나는 못놀겠네

[금정구 민요 82]

노랫가락 / 그네 노래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128_PKS_LYC_0001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성동 산성2통경로당

조사일시 : 2010.1.28

조 사 자 : 박경수, 서정매, 황영태, 최수정

제 보 자 : 이임출, 여, 72세

구연상황 : 다른 제보자들의 노래를 한참 듣고 있다가 제보자가 한 번 불러 보겠다며 조심스럽게 노래를 구연해 주었다.

수천당 세모신랑게 높다랗게도 추천줄매어~
임이타면 내가나밀고~ 임이타면은 내가민다
임아임아 줄미지마라 줄떨어지면은 정떨어~진다~

[금정구 민요 83]

보리타작 노래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128_PKS_LJA_0001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성동 공해마을 공해경로당

조사일시 : 2010.1.28

조 사 자 : 박경수, 서정매, 황영태, 최수정

제 보 자 : 이점아, 여, 72세

구연상황 : 조사자가 <보리타작 노래>를 불러 달라고 요청하자 제보자가 기억을 더듬어 구연해 주었다. 가사가 익살스러워 부끄러워하면서도 웃으면서 구연해 주었다.

여기 때리라 웅해야

저기도 때리고 웅해야

(청중 : 제수씨는 뭐 어데 가고?)

제수씨도 내쫓만 바래고

형수씨도 내쫓만 배래고

지 손만 바랜다 이기라.

[금정구 민요 84]

아기 어르는 노래 / 불매소리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128_PKS_LJA_0002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성동 공해마을 공해경로당

조사일시 : 2010.1.28

조 사 자 : 박경수, 서정매, 황영태, 최수정

제 보 자 : 이점아, 여, 72세

구연상황 : 제보자는 조사자의 요청에 다음 <아기 어르는 노래>를 시작했지만 기억나는 데까지만 짤막하게 부르고 그쳤다.

불매불매 이불매야

이불매가 누불매고

경상도 대불매요

[금정구 민요 85]

너냥 나냥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123_PKS_LCJ_0001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금정구 회동동 동대마을 동대노인정

조사일시 : 2010.1.23

조 사 자 : 박경수, 서정매, 황영태, 최수정

제 보 자 : 이춘자, 여, 75세

구연상황 : 제보자는 조사자의 유도에 의해 다음 노래를 불러 주었다. 청중들도 아는 노래여서 큰 소리로 함께 불러 주었다.

우리집 서방님은 명태잡으러 갔는데
바람아 강풍아 석달열흘 불어라
너냥나냥 두리둥실 놀구요
낮이나 낮이나 밤이밤이나 참사랑이로다

[금정구 민요 86]

모심기 노래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123_PKS_LDY_0001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금정구 선두구동 신천마을 신천경로당

조사일시 : 2010.1.23

조 사 자 : 박경수, 서정매, 황영태, 최수정

제 보 자 : 임달연, 여, 93세

구연상황 : 청중들이 제보자가 모노래를 잘한다고 칭찬하자, 제보자는 처음에는 부끄러운듯 거절했으나, 한번 부르고 나자 기억이 났는지 이후에는 적극적으로 불러 주었다.

이물끼저물끼 혈어놓고~ 주인네말개 어데갔노
문에전복 손에들고~이 첩의집에 놀러갔네
해다졌네 해다졌네~이 저산중에 해다졌네

어린 애기 놔두고 저 달 뜬 줄 모르더라.

새별겘은 저밭골에~이 반달같이 떠다오네
지가무슨 반달이고~이 초승달이 반달이지

[금정구 민요 87]

이 노래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123_PKS_LDY_0002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금정구 선두구동 신천마을 신천경로당

조사일시 : 2010.1.23

조 사 자 : 박경수, 서정매, 황영태, 최수정

제 보 자 : 임달연, 여, 93세

구연상황 : 제보자는 이야기를 끝내고 문득 노래가 생각났는지 적극적으로 구연하겠다고 나섰다.

옷에있는 백삼춘아-

머리있는 깎동춘아-

니발이 육발인들

이팔십리 걸음건나

[가사를 이야기로 읊으면서]

니등더리 납짝해야

석매산 성쌍을적에

돌한당이 저쫘나

이이름이 작김이다.

작꿈아이 죽가라

이러 카더란다.

[금정구 민요 88]

쌍가락지 노래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123_PKS_LDY_0003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금정구 선두구동 신천마을 신천경로당

조사일시 : 2010.1.23

조 사 자 : 박경수, 서정매, 황영태, 최수정

제 보 자 : 임달연, 여, 93세

구연상황 : “쌍금쌍금 쌍가락지”로 시작하는 노래를 아는지 물어보니, 제보자는 예전에 불렀다며 천천히 기억을 되살리며 구연해 주었다.

[웁으면서]

쌍금쌍금 쌍가락지
주석질로 녹가락지
먼데보이 달일래라
잡에보이 처잘래라
저처자야 자는방에
숨소리가 둘일래라
청도복숭 올라배요
거짓말씀 말아시쇼
남한풍이 디리보니
풍지뜨는 소리로다

[금정구 민요 89]

아기 어르는 노래 / 알강달강요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123_PKS_LDY_0004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금정구 선두구동 신천마을 신천경로당

조사일시 : 2010.1.23

조 사 자 : 박경수, 서정매, 황영태, 최수정

제 보 자 : 임달연, 여, 93세

구연상황 : 조사자가 아기 달래는 노래를 아냐고 물어보자 제보자가 노래를 구연했다.

[가사를 웁으면서]

알강달강 서울가서
뺨(밤)한되로 실어다가
찰독안에 넣어놔디
이부지 시앙쥐가 다까먹고
다문하나 남았는거
니강내강 갈라먹자
알강달강 알강달강

[노래로 다시]

알강달강 서울가서
뺨한되로 실어다가
찰독안에 넣어놔니
이붓-집 새양주가 다까먹고
다문하나 남았는거
껍디기는 부모주고
알키는 갈라먹자
니강내강 갈라먹자
알강달강

[금정구 민요 90]

다리 세기 노래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123_PKS_LDY_0005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금정구 선두구동 신천마을 신천경로당

조사일시 : 2010.1.23

조 사 자 : 박경수, 서정매, 황영태, 최수정

제 보 자 : 임달연, 여, 93세

구연상황 : 조사자의 요청에 다음 노래를 빠르게 읊듯이 불러 주었다.

이거리 저거리 갯거리
동상맹근 도맹근
서울양반 두양반
진주떼기 열석냥

[금정구 민요 91]

모심기 노래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121_PKS_JMY_0001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금정구 청룡노포동 작장마을 작장여자경로당

조사일시 : 2010.1.21

조 사 자 : 박경수, 서정매, 황영태, 최수정

제 보 자 : 정무연, 여, 83세

구연상황 : 제보자는 다른 청중들이 노래하기를 부추기자 쑥스러워 하면서 다음 <모심기 노래>를 했다. 옆의 청중들도 함께 노래를 불러 주었다.

임이죽어서 연자되어~ 추연끝에 집을짓네
나면보고 들면봐도~ 임인줄을 내몰랐네

한강에다 모를부아~ 찌내기도 난감하다
하늘에다 목화갈아~ 따오기도 난감하다

이물끼저물끼 헐어놓고~ 주인네양반 어데갔노
문에야전복손에 들고~ 첩어야방에 놀러갔네

찢레야꽃은 장개가고~ 쫄레야꽃은 시집가네
만인간아 웃지마소~ 씨종자바래서 내가가요

[금정구 민요 92]

복남아 울지마라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121_PKS_JMY_0002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금정구 청룡노포동 작장마을 작장여자경로당

조사일시 : 2010.1.21

조 사 자 : 박경수, 서정매, 황영태, 최수정

제 보 자 : 정무연, 여, 83세

구연상황 : 제보자는 옛날 어릴 적에 불렀던 노래라고 하며 다음 노래를 읊어주었다. 그러나 노래 가사를 다 기억하지 못해 중간에서 그치고 말았다.

복남아 우지마라
우지를 말아라
너가울면 내눈에서 눈물이 난다
우리부모는 어데 가고

[금정구 민요 93]

너냥 나냥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121_PKS_JMY_0003

조시장소 : 부산광역시 금정구 청룡노포동 작장마을 작장여자경로당

조시일시 : 2010.1.21

조 사 자 : 박경수, 서정매, 황영태, 최수정

제 보 자 : 정무연, 여, 83세

구연상황 : 제보자가 노래를 시작하자 다른 청중들이 중간에 가사를 일러주며 함께 노래를 구연하였다.

우리야 남편은 명태잡으러 갔는데
바람아 강풍아 석달열흘 불어라
너냥내냥 두리둥실 놀고요
낮이낮이나 밤이밤이나 참사랑이로다

우리야 서방님은 명태잡으러 갔는데
바람아 강풍아 석달열흘 불어라

오동나무 열매는 월각달각 하고요
큰아기 젖통은 몽실몽실한다
너냥 나냥 두리둥실 놀고요
낮이낮이나 밤이밤이면 참사랑이로다

[금정구 민요 94]

도라지 타령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123_PKS_JYB_0001

조시장소 : 부산광역시 금정구 선두구동 임석마을 임석마을회관

조시일시 : 2010.1.21

조 사 자 : 박경수, 서정매, 황영태, 최수정

제 보 자 : 정운분, 여, 74세

구연상황 : 다른 제보자가 노래를 부르다 말자, 제보자가 가사가 기억난다면서 다시 구연했다.

도라지 캐로 간다고~
요핑기 조핑기 가는디
하도 날때가 없어서
쌍바위 틈에서 났느~냐
에헤이요 에헤이요 에헤이요~

에여라 난다 지화~자~
니가 내간장 쓰리 사리살 다녹힌다

[금정구 민요 95]

모심기 노래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707_PKS_CKS_0001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금정구 서2동 삼한여명아파트경로당

조사일시 : 2010.7.7

조 사 자 : 박경수, 서정매, 정혜란, 황영태

제 보 자 : 차경순, 여, 79세

구연상황 : 조사자가 <모심기 노래>를 작중에 요청하자 청중들이 모심기 노래의 앞 소절을 이야기 하던 도
중에 제보자가 갑자기 노래가 생각이 났는지 구연해 주었다. 이후 조사자의 요청에 따라 생각나
는 대로 틈틈이 부른 것이다.

해다지고 저문날에~ 어인상부가 질떠나노
이태백이 본처죽어 이별상부가 질떠나네

낭창낭창 베리끝에 무정하다 울오랍아
나도죽어 군자되어 처자곤석 섬기볼래

모야모야 노랑모야 니언제커서 열매열래
이달가고 저달가고 칠팔월에 열매열래

우리야 점슴늦었네~ 우리야 점슴늦었네
뒤척(뒤축)없는 신을신고~ 끄이라고 늦었네
바가치 죽반에 콩치킨다고 늦었네

바람불고 비온날에 첩의집에 어이갈꼬
우산우산 새우산에 갈모반치서 씌고가지

꼬막꼬막 꼬막집에 갈모우산 걸데없네
갈모을랑 베고자고~ 우산없걸랑 덮고자소

등념에다 첩을두고 밤에가고 낮에가노

밤으로는 자러가고 낮으로는 놀러가네

모시적삼 안섶안에 함박꽃이 봉지됐네
그꽃한쌍 꺾자하니~ 호통소리가 벽날갔네-

물꼬야청청~ 헐어놓고 주인네한랑 어디갔소-
등넘에라 첩을두고 첩의집에 놀러갔소

[금정구 민요 96]

쌍가락지 노래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707_PKS_CKS_0002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금정구 서2동 삼한여명아파트경로당

조사일시 : 2010.7.7

조 사 자 : 박경수, 서정매, 정혜란, 황영태

제 보 자 : 차경순, 여, 79세

구연상황 : 조사자가 <쌍가락지 노래>를 부탁하자, 제보자가 먼저 부른 <모심기 노래>의 늘어진 가락에 맞
추어 불러 주었다.

쌍금쌍금 쌍가락지
호작질을 닦아내어
먼데보면 달이로세
절에서보면은 처지로다
그쳐지라 자는방에
숨소리가 돌이로세
홍달박씨~ 오랍아시
거짓말씀 말아주소

[금정구 민요 97]

달 노래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707_PKS_CKS_0003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금정구 서2동 삼한여명아파트경로당

조사일시 : 2010.7.7

조 사 자: 박경수, 서정매, 정혜란, 황영태

제 보 자: 차경순, 여, 79세

구연상황: 제보자는 다음 노래를 계속 느린 템포로 나지막하게 불러 주었다. 청중이 계속 청송맞게 부른다
고 편찬을 부었다. 그러자 다른 청중이 그래도 눈물이 난다고 호응하기도 했다.

달아달아 밝은달아
이태백이 놀던 달아
저기저기 저달속에
계수나무가 밝혔으니
옥도끼를 찍어내어
금도끼를 따듬어서
초가삼칸 집을지어
양친부모 모셔놓고
천년만년 살고지어

[금정구 민요 98]

노랫가락 / 그네 노래

자료코드: 04_21_FOS_20100707_PKS_CKS_0004

조사장소: 부산광역시 금정구 서2동 삼한여명아파트경로당

조사일시: 2010.7.7

조 사 자: 박경수, 서정매, 정혜란, 황영태

제 보 자: 차경순, 여, 79세

구연상황: 조사자가 다음 노랫가락을 부탁하자 원래의 노래 선율대로 부르지 않고 계속 느리게 불렀다. 조사자가 본래의 가락으로 바꾸어 잠시 불러주어도 계속 같은 가락으로 불렀다. 청중이 “그 노래도 청송스럽게 부르는 것이 아닌데.”라고 참견을 했다.

수천당~ 세모신낭게~ 오색당사실 끊어내어
임이뛰면~ 내가밀고~ 내가뛰면은 임이 민다-
임아임아 줄미지마소 줄떨어지면은 정떨어지요

[금정구 민요 99]

남녀연정요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707_PKS_CKS_0005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금정구 서2동 삼한여명아파트경로당

조사일시 : 2010.7.7

조 사 자 : 박경수, 서정매, 정혜란, 황영태

제 보 자 : 차경순, 여, 79세

구연상황 : 제보자가 노래를 부르다가 멈추자 조사자가 아는데까지 끝까지 불러달라도 부탁하며 가사의 운을 띄워주자, 박수를 치며 흥겹게 노래를 불러 주었다.

남산밑에 남대롱아
서산밑에 서대롱아
나무비러 가자시아
오만나무 다비어도
오죽대 한쌍은 비지마소
올계(올해)키와 - 내년을 키와
낙숫대 한쌍을 후을소나
대 - 동 - 강 - 별당안에 -
옥당처녀를 낚을라요
잘낚으면은 백년부부
못낚으면은 상사로다
열녀상사 고를매어
고풀어지도록 살아보세

[금정구 민요 100]

도라지 타령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707_PKS_CKS_0006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금정구 서2동 삼한여명아파트경로당

조사일시 : 2010.7.7

조 사 자 : 박경수, 서정매, 정혜란, 황영태

제 보 자 : 차경순, 여, 79세

구연상황 : 제보자는 처음에 <도라지 타령>을 1절만 불렀는데, 조사자가 계속 운을 띄어주자 제보자가 신이 나서 노래를 이어서 불렀다.

도라지 도라지 도라~지

심심 산골에 백도라지~
한두 뿌리만 캐어도
우리낭군 반찬만 되는구나

도라지 도라지 도라지~
심심 산골에 백도라지
어디 날데가 없어서
쌍바위 틈실에서 났느냐
에헤용 에헤용- 에헤용-
에헤라 난다~ 지화자 좋다~
니가 내간장 스리살살 다녹힌다~

도라지~ 도라지~ 도라~지
심심산골에 백도라지~
도라지 캐러 간다꼬~
이핑기 저핑기 다땃더니-
총각낭군의 무덤에~
삼오제 지내러 가는구나

[금정구 민요 101]

사발가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707_PKS_CKS_0007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금정구 서2동 삼한여명아파트경로당

조사일시 : 2010.7.7

조 사 자 : 박경수, 서정매, 정혜란, 황영태

제 보 자 : 차경순, 여, 79세

구연상황 : 조사자가 제보자에게 노래 가사의 앞부분을 읊어주자 제보자는 다음 노래를 곧바로 구연해 주었다.

석탄백탄 타는데~ 연기만폴짝 나더니만
이내가슴 타는데는~ 연기도짐도 아니나네

[금정구 민요 102]

아기 어르는 노래 / 불매소리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707_PKS_CKS_0008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금정구 서2동 삼한여명아파트경로당

조사일시 : 2010.7.7

조 사 자 : 박경수, 서정매, 정혜란, 황영태

제 보 자 : 차경순, 여, 79세

구연상황 : 제보자가 다음 노래의 앞 소절만 기억나서 못 부르겠다고 하자, 조사자가 기억나는 부분까지라도 불러 달라고 하자, 그제야 노래를 불러 주었다.

불매 불매 불매
이불매가 누불매고
경상도 대불매
후루루 딱딱 불매야

[금정구 민요 103]

보리타작 노래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707_PKS_CKS_0009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금정구 서2동 삼한여명아파트경로당

조사일시 : 2010.7.7

조 사 자 : 박경수, 서정매, 정혜란, 황영태

제 보 자 : 차경순, 여, 79세

구연상황 : 조사자의 요청에 제보자가 <보리타작 노래>를 불러 주었다. 노래의 가사중에 민망한 부분이 나타나자, 청중들과 큰소리로 웃기도 하였다.

에화
에화
때리라
에화
낮보리 때리라
에화
형수씨도 내손만 바래고
제수씨도 내쫓만 바래고-

에화
때리라-
낮보리 때리라-

[금정구 민요 104]

양산도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707_PKS_CKS_0010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금정구 서2동 삼한여명아파트경로당
조사일시 : 2010.7.7
조 사 자 : 박경수, 서정매, 정혜란, 황영태
제 보 자 : 차경순, 여, 79세
구연상황 : 다른 청중이 양산도의 앞부분을 부르려고 하다가 멈추자, 제보자가 큰소리로 불러 주었다.

양산읍네 물레방아 물을안고 돌~고~
우리집에 올언님은 나를안고 돈다~

[금정구 민요 105]

권주가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707_PKS_CKS_0011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금정구 서2동 삼한여명아파트경로당
조사일시 : 2010.7.7
조 사 자 : 박경수, 서정매, 정혜란, 황영태
제 보 자 : 차경순, 여, 79세
구연상황 : 조사자가 앞 소절을 읊어주자 그제야 생각이 났는지 한 번 불러보겠다며 불러 주었다. 노래를 시작하자 청중들이 맞장구를 치는 등 분위기가 점점 무르익어갔다. 제보자는 노래를 부르던 중 가사를 읊기도 하고 소리내어 웃기도 하였다.

잡으시오 잡으시오 이술한잔 잡으시오
이술한잔잡으시면
천년만년을 늙지도 안하고 산다더라

잡으시오 잡으시오 이술한잔잡으세요
칠년대한- 가물음에 이슬따다운 술이로다

잡으세요 잡으세요 이술한잔잡으시면
천년만년을 산단다 [웃음]

[금정구 민요 106]

창부타령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707_PKS_CKS_0012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금정구 서2동 삼한여명아파트경로당

조사일시 : 2010.7.7

조 사 자 : 박경수, 서정매, 정혜란, 황영태

제 보 자 : 차경순, 여, 79세

구연상황 : 제보자는 다른 제보자가 부른 노래를 받아서 구연했다. 앞서 부른 제보자가 왜 노래를 빼앗아
가느냐며 농담을 하기도 하였다.

노세 좋다~ 저절어서 노자 늙고뱅들면 못노나니~
화무는 십일홍이요 달도뜨면은 - 기우나니
인생은 일장춘몽이요 아니 놀지는 무엇하나

[금정구 민요 107]

모심기 노래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707_PKS_CPY_0001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금정구 서2동 삼한여명아파트경로당

조사일시 : 2010.7.7

조 사 자 : 박경수, 서정매, 정혜란, 황영태

제 보 자 : 차복연, 여, 73세

구연상황 : 조사자가 노래의 앞 소절을 먼저 부르자, 제보자는 그제야 생각이 났는지 구연해 주었다. 카랑카
랑한 목소리로 밝게 노래를 불렀다.

풍당풍당 수지비 사우판에 다올라갔네 -
요노무할마이 어디가고 딸을동자 시켰노 -

[금정구 민요 108]

노랫가락 / 그네 노래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707_PKS_CPY_0002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금정구 서2동 삼한여명아파트경로당

조사일시 : 2010.7.7

조 사 자 : 박경수, 서정매, 정혜란, 황영태

제 보 자 : 차복연, 여, 73세

구연상황 : 다른 제보자의 노래가 끝나자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본인이 같은 노래를 부른다고 나섰다.

수천당 세모진낭게~ 오색가지로 군데를매어

(청중 : 노래 할라모 그래 하고.)

임이타면은 내가나밀고 내가타면은 임이민다

임아임아 줄미지말아 줄떨어지면은 정떨어진다

[금정구 민요 109]

너냥 나냥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707_PKS_CPY_0003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금정구 서2동 삼한여명아파트경로당

조사일시 : 2010.7.7

조 사 자 : 박경수, 서정매, 정혜란, 황영태

제보자 1 : 차복연, 여, 73세

제보자 2 : 차경순, 여, 79세

구연상황 : 차복연 제보자가 먼저 조사자의 유도에 따라 노래를 구연했다. 노래가 끝나자 차경순 제보자가
이어서 노래를 불렀다. 스스로 박수를 치며 밝은 목소리로 노래를 불렀다.

제보자 1 너냥나냥~ 두리둥실~ 놀고요
 낮이낮이나 밤이밤이나 참사랑이로구나
 아침에 우는새는 배가고파 울고요
 저녁에 우는새는 임을찾아 운단다

 냥나냥 두리둥실 놀고요
 낮이낮이나 밤이밤이나 참사랑이로다

제보자 2 우리야 서방님은 명태잡으러 갔는데
 바람아 강풍아 설달열흘만 불어라

[금정구 민요 110]

땡기 노래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707_PKS_CPY_0004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금정구 서2동 삼한여명아파트경로당

조사일시 : 2010.7.7

조 사 자 : 박경수, 서정매, 정혜란, 황영태

제 보 자1 : 차복연, 여, 73세

제보자 2 : 차경순, 여, 79세

구연상황 : 조사자가 제보자에게 땡기노래를 아는지 묻자 잘 안다며 바로 구연해 주었다. 노래가 끝나자 차경순 제보자가 끝머리를 안다고 하면서 이어 불렀다.

제보자 1 한살묵어 애미얹고
 두살묵어 애비얹고
 서돈주고 떠왔던땡기
 담안에다가 널뛰다가
 담밖에다 빠졌구나
 저기가는 저총각아
 주은땡기 돌려주소
 주웠기사 주웠지만은
 이유없이는 못주겠소
 열두폭 치마밑에
 암탉장닭 마주놓고
 맞절할때에 땡기줄게

제보자 2 솔걸고 밥을할 때 너를주마
 은세숫대 마주놓고
 세수할때 너를주마

[금정구 민요 111]

진주난봉가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707_PKS_CPY_0005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금정구 서2동 삼한여명아파트경로당

조사일시 : 2010.7.7

조 사 자 : 박경수, 서정매, 정혜란, 황영태

제 보 자 : 차복연, 여, 73세

구연상황 : 제보자가 노래 가사가 생각나지 않는다며, 가사를 읊으면서 설명하듯이 구연하였다.

[가사로 읊으면서]

시집삼년을 살고나니
아가아가 며늘아가
진주남강에 빨래를 가거라
진주남강에 빨래강계
하늘같은 서방님이
태산같은 갓을쓰고
못본듯이 지내가길래
인자 검은빨래 검게쓰고
흰빨래 흰게씻고
집이라고 돌아오니
사랑방을 반만열고
이래쳐다 본끼네
시아버지 하는말이
아가아가 며늘아가
기생첩은 삼년이고
본처는 백년이다

[금정구 민요 112]

너냥 나냥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123_PKS_CBR_0001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금정구 선두구동 임석마을 임석마을회관

조사일시 : 2010.1.23

조 사 자 : 박경수, 서정매, 황영태, 최수정

제보자 1 : 최복례, 여, 75세

제보자 2 : 이금순, 여, 75세

구연상황 : 조사자의 요구에 웃으면서 최복례 제보자가 먼저 앞 소절을 부르고, 뒷 가사를 아는 이금순 제보자가 이어 구연했다. 청중들도 박수를 치며 장단을 맞춰주었다.

제보자 1 니냥내냥 두리둥실 놀고요
 낮이낮이나 밤이밤이나 참사랑이로다
 아침에 우는새는 배가고파 울고요
 저녁에 우는새는 임이기렵아 운다
 니냥내냥 두리둥실 놀고요
 낮이낮이나 밤이밤이나 참사랑이로다

제보자 2 우리집엔 서방님은 명태잡으러 갔는데
 바람아 강풍아 석달열흘만 불어라
 너냥나냥 두리둥실 놀고요
 낮이낮이나 밤이밤이나 참사랑이로다-

[금정구 민요 113]

도라지 타령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123_PKS_CBR_0002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금정구 선두구동 임석마을 임석마을회관

조사일시 : 2010.1.23

조 사 자 : 박경수, 서정매, 황영태, 최수정

제 보 자 : 최복례, 여, 75세

구연상황 : 제보자에게 도라지타령을 아는지 물었더니, 선뜻 박수를 치며 신명나게 노래를 불러 주었다.

도라지 도라지 도라지~
심심산천에 백도라지
도라지 캐러~ 간다고~
요아지비 저아지비 애졌나
에헤이용 에헤이용 에헤요-
에야러 난다 디여라~ 둥티

[금정구 민요 114]

상여소리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121_PKS_CHJ_0001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금정구 청룡노포동 청룡마을 청룡경로당

조사일시 : 2010.1.21

조 사 자 : 박경수, 서정매, 황영태, 최수정

제 보 자 : 최호진, 남, 85세

구연상황 : 제보자는 상여소리를 구연해 주었는데, 최호진 할아버지가 앞소리를 부르면 청중들이 모두 함께 받는소리를 제창으로 불러 주었다.

인생만사중에 사람밖에 또있던가

에헤롱 에헤롱 에화넘차 에헤롱

이세상에 태어날때 석가여래 공덕으로

에헤롱 에헤롱 에화넘차 에헤롱

아버님전에 뼈를빌어 어머님전에 살을빌어

에헤롱 에헤롱 에화넘차 에헤롱

[금정구 민요 115]

논매기 노래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121_PKS_CHJ_0002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금정구 청룡노포동 청룡마을 청룡경로당

조사일시 : 2010.1.21

조 사 자 : 박경수, 서정매, 황영태, 최수정

제 보 자 : 최호진, 남, 85세

구연상황 : 제보자는 <논매기 노래>를 구연해 주었는데, 청중과 노래를 주고 받으면서 불러 주었다.

이히허 에헤~헤~이~

도련님이 병환이들어 송검씨야 배깁아라

어화 절리자

어화 절리자

어화 절리자

어화 절리자

이후후후후후~

이후후후후후

[금정구 민요 116]

창부타령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121_PKS_CHJ_0003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금정구 청룡노포동 청룡마을 청룡경로당

조사일시 : 2010.1.21

조 사 자 : 박경수, 서정매, 황영태, 최수정

제 보 자 : 최호진, 남, 85세

구연상황 : 제보자는 논매기 소리의 구연이 끝나고 이어서 <창부타령>을 불러 주었다.

노세노세 젊어서놀아 늙고병들면 못노나니

일생일장 춘몽이라도 아니놀고서 무엇하리 -

[금정구 민요 117]

보리타작 노래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121_PKS_CHJ_0004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금정구 청룡노포동 청룡마을 청룡경로당

조사일시 : 2010.1.21

조 사 자 : 박경수, 서정매, 황영태, 최수정

제 보 자 : 최호진, 남, 85세

구연상황 : 제보자는 다른 제보자와 보리타작 노래를 부르던 도중, 조사자가 가사의 운을 띄어주자 처음부터 다시 모두 함께 메기고 받으며 불러 주었다.

예화

예화

한바지

예화

겹바지

예화

잘도한다

예화

얼씨고

에화
절시고
에화
여게도
에화
보리다
에화
저게도
에화
보리다
에화
잘도한다
에화

[금정구 민요 118]

망개 소리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121_PKS_CHJ_0005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금정구 청룡노포동 청룡마을 청룡경로당

조사일시 : 2010.1.21

조 사 자 : 박경수, 서정매, 황영태, 최수정

제 보 자 : 최호진, 남, 85세

구연상황 : 조사자가 제보자에게 <망개 소리>에 대해 아는지 묻자, 제보자는 바로 다음 노래를 불러 주었다.

천근망개는 공중에놀고
어여라 망개
열두자말목은 땅밑에놀고
어여라 망개
다시보자 다시보자
어여라 망개

[금정구 민요 119]

모심기 노래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121_PKS_CHJ_0006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금정구 청룡노포동 청룡마을 청룡경로당

조사일시 : 2010.1.21

조 사 자 : 박경수, 서정매, 황영태, 최수정

제 보 자 : 최호진, 남, 85세

구연상황 : 조사자가 제보자에게 모심기 노래를 불러달라고 요청하자 스스로없이 바로 불러 주었다.

낭창낭창 저비리끝에 무정하다 정오랍아
나도죽어 후승에가서~ 남편한분 심기볼래

울뽕종고 실한처녀 울뽕낭게 앉아온다
울뽕줄뽕 내따주게~이 시간사리(세간살이) 같이하자

물길랑처정처정 혈어놓고~ 주인네양반 어데갔노
문어아대장부 손에들고 첩어아방~에 놀로갔네

점سم때가 되었는데~ 우리야임은 왜안오노
미나리아 시금추 맛본다고 늦었더네

해다지고 저문날에 우짚행상 떠나가노
이태백이 본처죽어 임의행상 떠나가네

* 이상 박경수 · 정규식 · 서정매, 『증편 한국구비문학대계8-22(부산광역시③-중부산권)』, 한국학 중앙연구원 · 역락, 2015, 173~252쪽.

2) 동래구 민요⁴⁶²⁾

[동래구 민요 1]

방귀 타령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126_PKS_KCH_0001

462) 이하 동래구 민요는 박경수 · 정규식 · 서정매, 『증편 한국구비문학대계8-22(부산광역시③-중부산권)』, 한국학중앙연구원 · 역락, 2015, 411~472쪽 게재.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동래구 칠산동 칠산할머니노인정

조사일시 : 2010.1.26

조 사 자 : 박경수, 서정매, 황영태, 최수정

제 보 자 : 강차희, 여, 83세

구연상황 : 조사자가 제보자에게 <방귀 타령>을 아는지 묻자, 다음 노래를 바로 불러 주었다. 창부타령 곡조로 부른 것이다.

할아버지 방구는 호랑이방구

시아버지 방구는 조심방구

시오마니 방구는 잔소리방구

딸의 방구는 인지방구(연지방귀)

며느리 방구는 조심방구

딸래미 방구는 인지방구

손지야 방구는 사당방구

[동래구 민요 2]

구멍 타령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126_PKS_KCH_0002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동래구 칠산동 칠산할머니노인정

조사일시 : 2010.1.26

조 사 자 : 박경수, 서정매, 황영태, 최수정

제 보 자 : 강차희, 여, 83세

구연상황 : 제보자는 재미있는 노래가 있다며 선뜻 다음 노래를 불러 주었다. 무릎장단을 치면서 창부타령 곡조로 흥겹게 노래를 불러 주었다. 주위 청중들도 즐거워하면서 노래를 경청하였다.

궁기 궁기 궁기로구나

큰솔밭밑에 뚝어난 궁기는

모든걸 보자고 뚝은궁기

그옆에라 뚝어난 궁기는

뚝할라고 뚝었던고

말소리 듣자고 뚝은궁기

그밑에라 뚝버는 궁기는

뚝할 라고 뚝었던고

냄새를 맡자고 뚝은궁기
그밑에라 뚝은 궁기는
뚫탈라고 뚫엇던고
말을 하자고 뚝은궁기
그밑에라 뚝은 궁기는
뚫탈라고 뚫엇던고
아들딸을 키우자고 뚝은궁기
그밑에는 뚝은 궁기는
뚫탈라고 뚫엇던고
밍복을(명복을) 타자고 뚝은궁기
그밑에라이 뚝은궁기는
뚫탈라고 뚫엇던고
울언님이 사랑하자고 뚝은궁기
궁기 궁기 궁기로구나
늦기 붙어도 뜻이높아
우리나라 대통령도
두무릎팍을 꾸리는구나
궁기 궁기 궁기로다

[동래구 민요 3]

다리 세기 노래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126_PKS_KCH_0003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동래구 칠산동 칠산할머니노인정

조사일시 : 2010.1.26

조 사 자 : 박경수, 서정매, 황영태, 최수정

제 보 자 : 강차희, 여, 83세

구연상황 : 조사자가 제보자에게 다리 세기 노래를 아는지 묻자, 어릴 때 많이 불렀다며 자신있게 불러 주었다. 그러나 중간에 가사가 생각나지 않자 청중의 도움을 받아서 처음부터 다시 불렀다. 청중들도 함께 가사를 읊으며 불러 주었다.

이거리 저거리 갓거리
진도맹근 도맹근

짜바리 해양근
도래쭈치 장두칼

[동래구 민요 4]

보리타작 노래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126_PKS_KCH_0004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동래구 칠산동 칠산할머니노인정

조사일시 : 2010.1.26

조 사 자 : 박경수, 서정매, 황영태, 최수정

제 보 자 : 강차희, 여, 83세

구연상황 : 조사자가 제보자에게 보리타작 노래를 불러달라고 요청하자, 제보자가 웃으면서 보리타작을 하는 시늉을 하며 노래를 구연해 주었다. 그 모습이 재미있는지 청중들도 소리내어 웃었다.

에화 때리라
에화 에에
거 여기도 있다 때리라
저기도 있다 때리라
에화 때리라

[동래구 민요 5]

뱃노래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126_PKS_KCH_0005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동래구 칠산동 칠산할머니노인정

조사일시 : 2010.1.26

조 사 자 : 박경수, 서정매, 황영태, 최수정

제 보 자 : 강차희, 여, 83세

구연상황 : 제보자는 스스로 박수를 치며 흥겹게 뱃노래를 구연해 주었다.

술은 술술술 잘넘어 가고요
찬물아 냉수는 입안에 도는구나
에야노 야노야~
에야노 야노 어기여차 뱃놀이 가잔다

[동래구 민요 6]

아기 어르는 노래 / 불매 소리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126_PKS_KCH_0006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동래구 칠산동 칠산할머니노인정

조사일시 : 2010.1.26

조 사 자 : 박경수, 서정매, 황영태, 최수정

제 보 자 : 강차희, 여, 83세

구연상황 : 조사자의 요청에 다른 제보자가 <아기 어르는 노래>를 부르다가 가사가 기억나지 않아서 노래를 멈추자, 제보자가 자신이 해보겠다며 다음 노래를 구연하였다.

불매불매 불매야

이불매가 누불매냐

정산도(경상도) 대불매

부르라 부르라 불매야

[동래구 민요 7]

권주가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126_PKS_KCH_0007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동래구 칠산동 칠산할머니노인정

조사일시 : 2010.1.26

조 사 자 : 박경수, 서정매, 황영태, 최수정

제 보 자 : 강차희, 여, 83세

구연상황 : 제보자는 다른 제보자가 부르는 노래를 듣고 자신도 안다며 다음 노래를 시작하였다.

이술이 술이 아니라~

칠년대항 가물음메 이술~받은~ 술이로다

이술 - 한잔을 잡으~시면 늙도젊도 아니하요

[동래구 민요 8]

노랫가락 / 그네 노래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126_PKS_KCH_0008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동래구 칠산동 칠산할머니노인정

조사일시 : 2010.1.26

조 사 자 : 박경수, 서정매, 황영태, 최수정

제 보 자 : 강차희, 여, 83세

구연상황 : 예전에 노래를 많이 불렀던 것으로 보이는 제보자는 다른 제보자의 노래가 끝나자 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이어서 노래를 시작하였다.

추천당 새모진낭게~ 오색가지를 주천을매~어 -
임이타면은 내가밀고~ 내가타면은 임이미요 (청중 : 좋다.)
임아임아 줄미지마오 줄떨어 - 지면은 정떨어지오

[동래구 민요 9]

창부타령 / 남시 노래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126_PKS_KCH_0009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동래구 칠산동 칠산할머니노인정

조사일시 : 2010.1.26

조 사 자 : 박경수, 서정매, 황영태, 최수정

제 보 자 : 강차희, 여, 83세

구연상황 : 다른 제보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보자가 갑자기 다음 노래를 시작하였다. 청중들이 예전에 많이 불렀던 노래인데 이제는 잊었다고 아쉬워했다. 제보자가 부르는 노래를 손뼉을 치며 경청하였다. 노래는 창부타령 곡조로 부른 것이다.

남산밑에 남도롱아 서산밑에 서도롱아 (청중 : 그것도 알았는데 모르겠다.)
오만나무 다비어도 오죽대하날랑 비지마오
그오죽대~ 기와갈고 후알라네 후알라네
낙숫대 한장을 복받았네
던졌다네 던졌다네 한강수에다 던졌구나
잘남아면은 상사로다 못남아며는 등사로다
상사등사 고를매어 풀립도록만 살아주소

[동래구 민요 10]

창부타령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127_PKS_KKI_0001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장2동 명장2동할머니경로당

조사일시 : 2010.1.27

조 사 자 : 박경수, 서정매, 황영태, 최수정

제 보 자 : 김금이, 여, 75세

구연상황 : 제보자가 다음 노래를 부르자 청중들이 함께 부르며 흥겨운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하늘과같이 높은~사랑 하해와같이도 깊은~사랑
칠년대왕 가문~날에~ 빗발같이나 반긴사랑
당황자에 양귀비도 이도령에 춘향이라
일년삼백 육십오일 하루만못봐도 못살겠네
봄들었네 봄들었네 이강산삼천리에 봄들었네
부러한가슴 버들~이요~ 누런것은 꾀꼬리다
항금같은 꾀꼬리는 숲속으로 날아들고
백설같은 흰나부는 장다리밭으로 날아든다
얼씨구좋다 절씨구좋네 아-니놀지를 못하리라

[동래구 민요 11]

양산도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127_PKS_KKI_0002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장2동 명장2동할머니경로당

조사일시 : 2010.1.27

조 사 자 : 박경수, 서정매, 황영태, 최수정

제 보 자 : 김금이, 여, 75세

구연상황 : 조사자가 제보자에게 <양산도>를 부를 수 있느냐고 물어보자, 제보자는 박수를 치며 흥겹게 노래를 불러 주었다. 옆에 있던 청중들도 함께 박수를 치며 불렀다.

에헤~이요
니잘났나 내잘났나 하지를 말고~
연지찍고 분바르면은 다잘 - 냇~네 -
에루화 놓아라~ 나는 못놓으리라
능 - 능지를 하여도 나는못놓 - 리~라-

[동래구 민요 12]

밀양아리랑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127_PKS_KKI_0003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장2동 명장2동할머니경로당

조사일시 : 2010.1.27

조 사 자 : 박경수, 서정매, 황영태, 최수정

제 보 자 : 김금이, 여, 75세

구연상황 : 다른 제보자의 아리랑 노래를 듣던 중 제보자가 다음 <밀양아리랑>을 불러 주었다.

정든님이 오셨는데 인사를 못해~

행주치마 입에물고~ 입만방긋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고개로 날넘겨주소

[동래구 민요 13]

모찌기 노래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127_PKS_KYJ_0001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동래구 칠산동 신선노인정

조사일시 : 2010.1.26

조 사 자 : 박경수, 서정매, 황영태, 최수정

제 보 자 : 김요조 여, 81세

구연상황 : 경상남도 고성 의 <모심기 소리>라고 하면서 구연해 주었다.

상사~다~여-

줄리자 줄리자 이논배미로 줄리자

여게도 꺾고 저기도 꺾고

상사~다~어-

[동래구 민요 14]

쌍가락지 노래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127_PKS_KYJ_0002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동래구 칠산동 신선노인정

조사일시 : 2010.1.26

조 사 자 : 박경수, 서정매, 황영태, 최수정

제 보 자 : 김요조 여, 81세

구연상황 : 조사자가 제보자에게 쌍가락지 노래를 아는지 묻자, 제보자는 곧바로 손뼉을 치면서 창부타령 곡조로 불러 주었다. 스스로 추임새를 넣으면서 즐겁게 다음 노래를 불러 주었다.

쌍금쌍금 쌍가락지
호적질로 닦아내어
먼데보니 달이로다
옆에보니 처자로다
처자애기 자는방에
숨소리가 돌이나네
천대복숭 울오랍씨
거짓말씀을 말아주소
피꼬리라 기린방에
참새같이 내누웠소
좋~다

[동래구 민요 15]

창부타령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127_PKS_KYJ_0003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동래구 칠산동 신선노인정

조사일시 : 2010.1.26

조 사 자 : 박경수, 서정매, 황영태, 최수정

제 보 자 : 김요조 여, 81세

구연상황 : 제보자는 스스로 추임새를 넣으면서 다음 노래를 흥겹게 불러 주었다.

진주야남강 새남강에 동동뜨는 저처자야
내자죽어 어떡헌데 물가운데다 결사짓노
내재주야 없지만은 짓고보니 결사로다
얼씨구나 좋다 정말로 좋아 아냐 놀지는 못하리라
좋~다

[동래구 민요 16]

베틀 노래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127_PKS_KYJ_0004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동래구 칠산동 신선노인정

조사일시 : 2010.1.26

조 사 자 : 박경수, 서정매, 황영태, 최수정

제 보 자 : 김요조 여, 81세

구연상황 : 조사자가 제보자에게 옛날에 베틀에 베를 짜면서 부르는 <베틀노래>를 아느냐고 하자 생각나는 대로 부르겠다고 하며 불렀다. 가사를 잘 기억하지 못할 때 청중이 큰 소리로 함께 불러 주었다.

세상살이 막심하여 옥난강에다 베틀채려
베틀다리 네다리는 동서남북을 갈라놓고
도투마리 맬치매는 소박하다 다신애미
목을매던 형용이요
요리조리 꼬던챗발 남의남쪽 무지개발
요리조리 가던복은 왕금복을 시기시고
오던길을 되돌아선다
나후손은 까닥까닥
잉엣대는 삼형지요 놀림대는 호불애비

[동래구 민요 17]

토끼화상 노래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127_PKS_KYJ_0005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동래구 칠산동 신선노인정

조사일시 : 2010.1.26

조 사 자 : 박경수, 서정매, 황영태, 최수정

제 보 자 : 김요조 여, 81세

구연상황 : 제보자는 토끼화상의 노래가 있다고 하면서 다음 노래를 리듬감 있게 불러 주었다. 긴 가사를 잘 기억하여 부르자 청중들도 놀라며 즐겁게 경청하였다.

기린다 기린다 토끼화상을 기린다
기적서 부황대 봉기리던 한장이
연수황에 황금대 맹기리든 한장이
동갱롤이 청왕력 금사주팍
거북아 영영 오중에 부러먹거라

양두한필 등병풀었다 백년선아 간전세
이리저리 기린다
쳐날행지 성지간에 행지보던 흥기리고
앵모공장 찢어볼때 소리듣던 귀기리고
만화방청 마름질에 팔팔뛰던 발기리고
저태는 청산이오 후태는 녹수로구나
녹수청산 깊은골에 계수나무 그늘속에
황금주치가 팔팔뛰었다
두귀는 쫓긋 두눈은 두리두리
앞발은 잘랐다 뒷발은 질었다
콩지는 몽땅 다리는 잘숙 깡충깡충 뛰어간다
할미산을 팔년들아
이래~도 기릴소냐 이래~도 기릴소냐
아나네다 별주부야 내가 가지고 나감세
아~아 에~에어~야-

[동래구 민요 18]

도라지 타령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127_PKS_KYJ_0006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동래구 칠산동 신선노인정

조사일시 : 2010.1.26

조 사 자 : 박경수, 서정매, 황영태, 최수정

제 보 자 : 김요조 여, 81세

구연상황 : 조사자가 제보자에게 <도라지 타령>을 불러달라고 했더니 제보자가 곧바로 다음 노래를 시작하였다. 청중들도 큰 소리로 함께 불러 주었다.

도라지 도라지 도라지~
심신 산천에 백도라지
한두 뿌리만 캐어도
대바구니만 철철철 넘는구나
에헤요 에헤요 에헤요~ 에헤야 난다 지화자 좋다
니가 내간장 스리살살 다녹힌다

[동래구 민요 19]

사발가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127_PKS_KYJ_0007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동래구 칠산동 신선노인정

조사일시 : 2010.1.26

조 사 자 : 박경수, 서정매, 황영태, 최수정

제 보 자 : 김요조 여, 81세

구연상황 : 조사자가 다음 노래의 앞 부분 가사를 띄워주자 제보자가 곧바로 불러 주었다. 청중들도 함께 박수를 치며 흥겹게 불렀다.

석탄백탄 타는데~ 연기만 폴폴~ 나고요
요내 - 가슴 - 타는데~ 연기도 아니나고 잘만탄다

[동래구 민요 20]

창부타령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127_PKS_KJS_0001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장2동 명장2동할머니경로당

조사일시 : 2010.1.27

조 사 자 : 박경수, 서정매, 황영태, 최수정

제 보 자 : 김정순, 여, 77세

구연상황 : 조사자가 다음 노래의 첫 구절을 읊어주니, 제보자는 노래 가사가 기억이 났는지 박수를 치면서 노래를 불러 주었다.

포름포름 봄배~추는 찬이슬 오기만 기다리고
옥에갈힌 춘향이는 이도령 오기만 기다린다
얼씨구 좋다 절씨구 좋아 아니 놀지를 못하리라

이창저창 마루창끝에~ 빙빙도는 장모님이여
인심종소 인심도좋아 우리야병원님 인심종으네
첫날밤에는 처녀를주더니 이튿날밤에 - 는 색시준다
처남 - 처남 - 내처~남아 자네누님은 뭐라던가
모시아적삼 봉달든가 신던버선에다 불발던가

[동래구 민요 21]

동래지신밧기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207_PKS_KJH_0001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 산 30번지 부산민속예술보존협회

조사일시 : 2010.2.7

조 사 자 : 박경수, 서정매

제 보 자 : 김준호 남, 48세

구연상황 : 조사자가 제보자에게 <동래지신밧기>를 불러달라고 요청하자 장구를 들고 와서 직접 장단을 치며 큰 소리로 정확하게 불러 주었다. 긴 가사임에도 잘 기억을 하며 구연을 해주었다. 구연 뒤에는 가사에 대한 설명까지 곁들어 주었다. 청중들도 큰 소리로 추임새를 넣으며 분위기를 돋우었다.

지신지신 지신아 주산(主山)지신을 울리자

[자진모리 두 장단 연주]

천지현황 생긴후에 일월성진이 밝았다

[자진모리 두 장단 연주]

산천이 개탁(開拓)하고 만물이 번성할제

[자진모리 두 장단 연주]

함경도 백두산은 두만강이 둘러있고

[자진모리 두 장단 연주]

강원도 금강산은 임진강이 둘러다

[자진모리 두 장단 연주]

평안도 묘향산은 대동강이 둘러있고

[자진모리 두 장단 연주]

황해도 구월산은 세룡강이 둘러구나

[자진모리 두 장단 연주]

경기도 삼각산은 한강수가 둘러있고

[자진모리 두 장단 연주]

충청도 계룡산은 백마강이 둘러구나

[자진모리 두 장단 연주]

전라도 지리산은 영산강이 둘러있고

[자진모리 두 장단 연주]
 경상도 태백산은 낙동강이 돌렸구나
 [자진모리 두 장단 연주]
 낙동강줄기가 떨어져 동래금정산 생겼다
 [자진모리 두 장단 연주]
 금정산줄기가 떨어져서 이동네주산이 생겼구나
 [자진모리 두 장단 연주]
 금년해분 경인년에 이동네 가가호호
 [자진모리 두 장단 연주]
 나갈때는 반짐들고 들어올때는 온짐지소
 [자진모리 두 장단 연주]
 울리자 울리자 천년만년을 울리자
 [자진모리 두 장단 연주]
 잡귀잡신은 물알로 만복은 요리로
 [자진모리 두 장단 연주]

〈당산풀이〉

여루여루 지신아 당산지신을 울리자
 [자진모리 두 장단 연주]
 동방에는 청제당산 남방에는 적제당산
 [자진모리 두 장단 연주]
 서방에는 백제당산 북방에는 흑제당산
 [자진모리 두 장단 연주]
 중앙에는 황제당산 오방당산을 울리자
 [자진모리 두 장단 연주]
 박복자는 부귀공명 병고자는 즉득쾌차
 [자진모리 두 장단 연주]
 상업자는 운수대통 과거자는 적서환경
 [자진모리 두 장단 연주]
 잡귀잡신은 물알로 만복은 요리로

[자진모리 두 장단 연주]

〈대문 들어가는 풀이〉

주인주인 문여소 나그네손님 드가요

[자진모리 두 장단 연주]

주인주인 문여소 나그네손님 드가요

[자진모리 두 장단 연주]

주인양반 문열어라 인사없이 드가세

[자진모리 두 장단 연주]

주인양반 문열어라 인사없이 드가세

[자진모리 두 장단 연주]

〈성주풀이〉

1) 나무 작별하는 풀이

지신지신이 내려온다

지신지신이 내려와

하늘이생겨 갑자년지신

땅이생겨 을축년

갑자을축이 생긴후에

인간세상이 생겼다

인간세상이 생겼으니

성주본이 어드메냐

경상도 안동땅에

제비원이 본이다

제비원에다 솔씨를 받아

그지봉산에 던졌네

그솔이점점 자라날제

삼정승이 물을주고

육판서가 길러내니

낮이되면은 태양받고
밤이되면은 이슬맞아
타복솔이가 되었구나
타복솔이가 자라나
소부등이가 되었고
소부등이가 자라나
대부등이가 되었고
대부등이가 자라나
청장목이 되었고
청장목이가 자라나
황장목이가 되었고
황장목이가 자라나니
성주님 가제가 분명쿠나
앞집에 김대목
뒷집에 박대목
서른세가지 연장망태
아주능청에 짚어지고
지치올라 지치올라
그지봉산에 지치올라
나무한주를 잡아보니
어허 그나무 못쓰겠다
까막까지가 지을지서
성주집에 부정타
또한나무를 잡아보니
어허 그나무도 못쓰겠다
산새 들새야
산새들새가 알을나서
성주집이 부정타
또한나무를 잡아보니
올치구나 좋을씨구

이나무 내력을 들어봐라
이나무 이치를 들어봐라
동쪽으로 뺏은가지
청제장군이 모시고
남방으로 뺏은가지
적제장군이 모시고
서방으로 뺏은가지
백제장군이 모시고
북방으로 뺏은가지
흑제장군이 모시고
북망에 솟은가지는
황제장군을 모셨으니
여봐라 목수야 거동봐라
옷은 벗어서 망태걸고
갓은 벗어서 등에지고
고운대님을 바짝매고
홍도끼로 둘러메고
십리만치를 물러서라
오리마치를 기어들어
한찰찍어 두찰찍어
나무넘는 소리봐라
천지가 진동하고
사방이 소란하다

2) 나무 재단하는 풀이

나무작벌을 하였으니
나무재단을 하여보자
한토막을 덤벙끊어
이집기둥을 마련하고
또한토막을 덤벙끊어
이집의 납장을 마련하고

또한토막을 덤벼끓어
이집의 중보 마련하고
또한토막을 덤벼끓어
이집의 소래기 마련하고
한토막을 덤벼끓어
이집의 상보 마련하고
큰가지는 골라서
사방추련 마련하고
작은가지 골라서
육십사귀 연목빠자

3) 나무 운반하는 풀이

나무작별을 다했으니
나무운반을 하여보자
동네안에 초군들아
군내안에 역군들아
보리밭 초막밥
올목줄막 싸가지고
큰가지는 팔목도
작은가지는 사목도
나무운반 다했네

4) 집터 보는 풀이

집터하나를 보러가자
집터하나를 보러가자
이집터를 불러며는
어느풍수가 제일이나
경상도라 김풍수
전라도라 이풍수
너의쇠는 무슨쇠냐
나의쇠는 금쇠다

너의쇠는 무슨쇠냐
나의쇠는 은쇠다
금쇠은쇠 합세하야
백두산정상에 올랐다
백두산 정기가 떨어져
두만강이 생겼고
두만강이 떨어져
강원도 금강산 생겼고
금강산 정기가 떨어져
임진강이 생겼고
임진강 정기가 떨어져
평안도 묘향산 생겼고
묘향산 정기가 떨어져
대동강이 생겼고
대동강 정기가 떨어져
황해도 구월산 생겼고
구월산 정기가 떨어져
제련강이 생겼고
제련강 정기가 떨어져
경기도 삼각산 생겼고
삼각산 정기가 떨어져
한강수가 생겼고
한강수 정기가 떨어져
충청도 계룡산 생겼고
계룡산 정기가 떨어져
백마강이 생겼고
백마강 정기가 떨어져
전라도 지리산 생겼고
지리산 정기가 떨어져
영산강이 생겼고

영산강 정기가 떨어져
경상도 태백산 생겼고
태백산 정기가 떨어져
낙동강이 생겼고
낙동강 정기가 떨어져
동래금정산 생겼고
앞산에 내령받고
뒷산에 주령받아
이집터를 잡았으니
백자천손 다할터라

5) 집터 닦는 풀이

집터하나를 잘보았으니
집터하나를 닦아보자
동네안에 초군들아
군네안에 역군들아
보리밥 조막밥
올망졸망 싸가기고
눗가래는 눗줄매고
나무가래는 짚줄매고
낮은데는 돋우고
돋은데는 낮추고
집터하나를 닦았다네

6) 집을 짓는 과정 풀이

오행으로 물반놓고⁴⁶³⁾
금개구리⁴⁶⁴⁾ 주추심어
주추 위에는 기둥세우고
기둥 위에는 납장걸고

463) 수평을 맞추는 것.

464) 재복을 상징.

납장 위에는 중보
중보 위에는 소래기
소래기 위에는 상보
사방으로 추녀매고
육십사귀 연목뺀고
오색토로 알매치고
태극으로 기와엮어
사모에다가 풍경달아
동남풍이 건듯부니
풍경소리가 요란하다

7) 집 고사 풀이

대명당에다 집을 짓고
수명당에다 우물 파고
아들 낳으면 효자날고
딸을 낳으면 열녀날고
선팔십 육팔십
일백육십 점지하고
석승에 복을빌어
물밥은 흘러가고
귀복을 흘러든다

8) 집 구경 풀이

집을 진지 석달만에
이집 좋다는 말을듣고
온갖사람이 구경온다
이집치장을 둘러보자
앞치장을 둘러보니
구리기둥에 늦중방
광채가 찬란하고
후원을 둘러보니

청룡황룡이 놀고있네

9) 큰방 치장풀이

큰방치장을 둘러보자
각지장판⁴⁶⁵에 소란반자⁴⁶⁶
능아도벽⁴⁶⁷이 좋을시고
팔간병풍을 둘러쳐
평새끼는 기는방
매새끼는 나는방
샛별같은 요강은
발치끝에 밀쳐놓고
공단이불에 비단요
아계자게 놓여있고
짚단같은 베개는 머리말에 놓여있네

10) 작은방⁴⁶⁸ 치장풀이

큰방치장은 그만두고
말방치장을 둘러봐라
싱긋향내 나는방
봉두각시 기른방
아들애기를 낳거들랑
효자충신을 마련하고
딸애기를 낳거들랑
열녀호부 마련하고
길르소 길르소
만대유전을 길르소

11) 대청방 치장풀이

465) 두꺼운 장판.

466) 나뭇잎파리 모양으로 붙인 것.

467) 마름모꼴로 해서 벽지를 붙여 놓은 것

468) 머느리가 주로 기거하는 방. 물방, 말방이라고도 함.

말방치장 그만두고
청방치장 둘러보자
집채같은 그릇장은
보기 좋게 놓여있고
바위같은 쌀뒤주
위치 좋게 놓여있고
선반위를 둘러보니
목이 짜리다⁴⁶⁹⁾ 자라병
목이 길다 항새병
허리가 잘록 장구병
교자상 자개판
만반진수를 차려놓고
둥글둥글 수박병
인삼주를 부어라
불로주를 부어라
일배에 부일배
세상만사가 여길세

12) 사랑방 치장풀이

청방치장을 그만두고
사랑방치장을 둘러보자
동쪽을 건듯보니
도원도리 편시춘에
봄풍경이 완연하고
남쪽을 둘러보니
녹음방초 성화시에
여름풍경이 완연하고
서쪽을 둘러보니
환로상풍이 요란하여

469) 째다.

가을풍경이 완연하고
북쪽을 둘러보니
백설이 분분하니
겨울풍경이 완연하고
손님이 오시거든
골패잡기로 희롱하소
사돈이 오시거든
바둑장기로 희롱하소

13) 큰방 성주풀이(굿거리로)

모시오자 모시오자 우리성주님 모시오자
[자진모리 두 장단 연주]
한송정 솔을베어 조그마하게 배를모아
[자진모리 두 장단 연주]
앞강에다가 띄워놓고 앞이물에 관음보살
[자진모리 두 장단 연주]
술렁술렁 노를저어서 뒷이물에 지장보살
[자진모리 두 장단 연주]
순풍에다 돛을달아 황토섬으로 들어가서
[자진모리 두 장단 연주]
성주님을 모시다가 이집가정에 좌정할제
[자진모리 두 장단 연주]
나무일월 산신님은 명당으로 좌정하소
[자진모리 두 장단 연주]
오부토주 성주님은 명당으로다 좌정하소
[자진모리 두 장단 연주]
팔만사천 조왕님은 정지명당에 좌정하소
[자진모리 두 장단 연주]
기목위속 성주님은 상량으로 좌정하소
[자진모리 두 장단 연주]
성망후망 조상님은 옥당으로 좌정하소

[자진모리 두 장단 연주]

금년해분 경인년에 이집대주 양반님네

[자진모리 두 장단 연주]

남의눈에는 꽃이되고 앞이되기가 발원이요

[자진모리 두 장단 연주]

자죽자죽 옹기주고 말끝마다 향기주소

[자진모리 두 장단 연주]

잡귀잡신은 물알로 가고 만복은 요리로

[자진모리 두 장단 연주]

14) 조왕풀이

어여루와 지신아 조왕지신을 올리자

[자진모리 두 장단 연주]

올리자 올리자 조왕지신을 올리자

[자진모리 두 장단 연주]

큰솔에는 닛말치 작은솔은 세말치

[자진모리 두 장단 연주]

통영판⁴⁷⁰⁾ 게다리판⁴⁷¹⁾ 자게자게 놓여있고

[자진모리 두 장단 연주]

간지간지⁴⁷²⁾ 하간지 아기자게가 놓여있네

[자진모리 두 장단 연주]

잡귀잡신을 물알로 만복은 요리로

[자진모리 두 장단 연주]

15) 우물풀이⁴⁷³⁾

어여루 지신아 우물지신을 올리자

[자진모리 두 장단 연주]

동방에는 청제용왕 남방에는 적제용왕

470) 양반들이 쓰는 고급판.

471) 작은 상.

472) 수저.

473) 우물풀이에서는 물이 흐려지면 안 되기 때문에 중앙황제는 부르지 않는다.

[자진모리 두 장단 연주]

서방에는 백제용왕 북방에는 흑제용왕

[자진모리 두 장단 연주]

칠년대한 가뭄에는 물이나 철령 실어주소

[자진모리 두 장단 연주]

구년 장마 홍수에도 물이나 철령 맑아주소

[자진모리 두 장단 연주]

잡귀잡신은 물알로 만복은 요리로

[자진모리 두 장단 연주]

16) 장독간 풀이

어여루 지신아 장독간지신을 울리자

[자진모리 두 장단 연주]

꿀치자 꿀치자 이집장독을 꿀치자

[자진모리 두 장단 연주]

강원도별이 날아와 이집의 장독에 꿀치네

[자진모리 두 장단 연주]

된장은 물어사 고추장은 붉으사

[자진모리 두 장단 연주]

까막간장은 까마사 지름장을 짧아사

[자진모리 두 장단 연주]

꿀치자 꿀치자 이집에 장독에 꿀치자

[자진모리 두 장단 연주]

잡귀잡신은 물알로 만복은 요리로

[자진모리 두 장단 연주]

17) 마굿간 풀이

어여루와 지신아 마굿간 지신을 울리자

[자진모리 두 장단 연주]

소배도 불리고 말배도 불리자

[자진모리 두 장단 연주]

작은 머슴아 나와서 이집에 마소 밥줘라

[자진모리 두 장단 연주]

송아지를 낳거들랑 황태소를 낳고요

[자진모리 두 장단 연주]

망아지를 낳거들랑 용마를 낳으소

[자진모리 두 장단 연주]

기리자 기리자 마소대신을 기리자

[자진모리 두 장단 연주]

잡귀잡신은 물알로 만복은 요리로

[자진모리 두 장단 연주]

18) 곡간 풀이

어여루와 지신아 도장지신을 올리자

[자진모리 두 장단 연주]

천석꾼 살림도 올리고 만석꾼 살림도 올리자

[자진모리 두 장단 연주]

막구자 막구자 온갖짐생을 막구자

[자진모리 두 장단 연주]

지점생도 막구고 촛불네로 막구자

[자진모리 두 장단 연주]

올리자 올리자 남에유전을 올리자

[자진모리 두 장단 연주]

잡귀잡신은 물알로 만복은 요리로

[자진모리 두 장단 연주]

19) 정랑풀이

어여루와 지신아 정랑지신을 올리자

[자진모리 두 장단 연주]

막구자 막구자 온갖질병을 막구자

[자진모리 두 장단 연주]

설사질병도 막구고 이질설사도 막구자

[자진모리 두 장단 연주]

토사광란도 막구고 온갖질병을 막구자

[자진모리 두 장단 연주]

막구자 막구자 온갖질병을 막구자

[자진모리 두 장단 연주]

잡귀잡신을 물알로 만복은 요리로

[자진모리 두 장단 연주]

20) 대문풀이

어여루와 지신아 대문지신도 울리자

[자진모리 두 장단 연주]

막구자 막구자 온갖도독놈 막구자

[자진모리 두 장단 연주]

간큰도독도 막구고 발큰도적도 막구자

[자진모리 두 장단 연주]

총든도적도 막구고 칼든도적도 막구자

[자진모리 두 장단 연주]

울리자 울리자 천년만년을 울리자

[자진모리 두 장단 연주]

잡귀잡신은 물알로 만복은 요리로

[자진모리 두 장단 연주]

21) 주신풀이

어여루와 지신아 술귀신도 울리자

[자진모리 두 장단 연주]

이술한잔 먹거들랑 금년해분 경인년에

[자진모리 두 장단 연주]

남의눈에는 꽃이되고 잎이되기가 발원이요

[자진모리 두 장단 연주]

탱자탱자 갱서방아 얹어지고는 술먹자

[자진모리 두 장단 연주]

미역국에는 맛내고 조피국에는 짐난다

[자진모리 두 장단 연주]

잡귀잡신을 물알로 만복을 만복은 요리로

잡귀잡신을 물알로 만복을 만복은 요리로

[자진모리 두 장단 연주]

잡귀잡신을 물알로 만복을 만복은 요리로

잡귀잡신을 물알로 만복을 만복은 요리로

[자진모리 두 장단 연주]

[동래구 민요 22]

담바구 타령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128_PKS_MJW_0001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1동 부산민속예술보존협회 사무실

조사일시 : 2010.1.28

조 사 자 : 박경수, 서정매, 황영태, 최수정

제 보 자 : 문장원, 남, 94세

구연상황 : 조사자가 제보자에게 담뱃대 노래에 대해 아는지를 묻자, 첫 부분만 생각이 난다며 앞부분만 짚막히 불러 주었다.

우리 동래 담뱃대라 카는 기, 담뱃기 타령도 하나 들어갔어요. 그 구야구야 담뱃구야, 울, 울 산에~나 동래나 담뱃기야 카는.

구야-구야~ 담뱃기-야~

동래-울~산에 담뱃기야

너도~

[동래구 민요 23]

모심기 노래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126_PKS_BTJ_0001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동래구 칠산동 칠산할머니노인정

조사일시 : 2010.1.26

조 사 자 : 박경수, 서정매, 황영태, 최수정

제 보 자 : 병태주, 여, 82세

구연상황 : 제보자에게 조사자가 <모심기 노래>의 첫 소절을 제시하니 바로 다음 노래를 불러 주었다. 스스로 박수를 치며 장단을 맞추었다. 그런데 가사를 정확하게 기억을 못해 여러 각편의 사설을 뒤섞어 불렀다.

이물끼저물끼 혈어놓고~ 부르나임~은 어덜갔나-
반달겔은~ 저젓보소 모시아적~삼 반적삼에
울언님 보라고 반내났지 누구를 보라고 내냈던가

집집마다 굴뚝마다 연가지면 올라오는데-
우리아임은 어덜가고~ 짐도연~기도 안내는가

이물끼저물기 막아놓고~ 우리아임~우는 어디갔나
갈곳마다 청드려놓고 임을 기다려 내맡었네

이물끼저물기 혈어놓고 주인네야 양반은 어덜갔나
모시아적삼 반적삼에 분통같으나 저젓보소
우리아임은 어덜가고 해가져도 올줄을 모르나

산천초목 푸른잎은 봄이오면은 다시오고
우리청춘 한번가면 다시올줄을 모르더라

임아임아 울어님아
첩의야집이 아무리좋아도 내집만은 못하더라

[동래구 민요 24]

임 그리는 노래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126_PKS_BTJ_0002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동래구 칠산동 칠산할머니노인정

조사일시 : 2010.1.26

조 사 자 : 박경수, 서정매, 황영태, 최수정

제 보 자 : 병태주, 여, 82세

구연상황 : 조사자가 제보자에게 아는 노래를 더 불러 달라고 유도하자 제보자는 잠시 생각한 후에 다음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였다. <모심기 노래>와 같은 선율로 불러 주었다.

해는서산을 넘어가고
내님은 어디로 가셨는가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를않네
동지야설달 긴긴밤에~
문풍지만 떨어려도 임의생각

[동래구 민요 25]

아기 어르는 노래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126_PKS_BTJ_0003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동래구 칠산동 칠산할머니노인정

조사일시 : 2010.1.26

조 사 자 : 박경수, 서정매, 황영태, 최수정

제 보 자 : 병태주, 여, 82세

구연상황 : 조사자가 제보자에게 <아기 어르는 노래>를 불러달라고 요청하자 다음 노래를 가사를 읊듯이 구연해 주었다.

똥도 똥도 육월달
보지 똥도 육월달
열매도 열매도 육월달
자지 열매도 유월달

[동래구 민요 26]

진주난봉가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126_PKS_BTJ_0004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동래구 칠산동 칠산할머니노인정

조사일시 : 2010.1.26

조 사 자 : 박경수, 서정매, 황영태, 최수정

제 보 자 : 병태주, 여, 82세

구연상황 : 조사자의 유도과 주변 청중들의 권유에 따라 제보자는 다음 노래를 시작하였다. 가사의 내용이 절절해서 주위 청중들도 귀를 기울여 노래를 경청하였다.

울도담도 없느냐집에 시집석삼년 살고나니

시어머니 하시는말씀 아가아가야 우러아가
 너의낭군을 불러거든 진주남강에 빨래러가라
 그말을들은 며늘아기가 검은빨래를 검게치네
 흰빨래를 희게다치대 진주남강에 빨래로가니
 하늘같은 서방님이 대상같은나 말을타고
 백로와 같이 지나가네
 그것을보던 며늘아기가 처의집으로 돌아오니
 시어머님이 하시는말씀 아가아가 진주아가
 너의낭군을 불러거들랑 사랑방으로 내려가라
 그말을들은 며늘아기가 사랑방문을 덜컹여니
 방한편에 술상을놓고 목뒤다 황세병에다
 목자로다 차로병에 오색화주를 갖춰놓고
 오른편에 기생을끼고 왼편엘라 첩을끼고
 부어라마셔라 술마셔라 그것을보던 며늘아기가
 저의방으로 올라와서 오동장농을 훨쩍열고
 명주석자를 덜컹끌어 목을메어 죽었나
 아이고답답 이웬일고 아이고답답 이웬일고
 본처야집은 연못이오 첩의야집은 꽃밭이라
 꽃밭에화초는 봄한철인데 연못의금붕어 사시장철
 어화세상 벗님네들아 요내한말씀 들어보소
 여자의한평생 살다가보니~ 목숨조~차 아깝지않니

[동래구 민요 27]

창부타령(1)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126_PKS_BTJ_0005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동래구 칠산동 칠산할머니노인정

조사일시 : 2010.1.26

조 사 자 : 박경수, 서정매, 황영태, 최수정

제 보 자 : 병태주, 여, 82세

구연상황 : 다른 제보자의 권유에 따라 제보자가 다음 노래를 구연하기 시작했다. 청중들도 아는 노래인지
 모두 함께 박수를 치며 노래를 불러 주었다.

포름포름 봄배추는 봄이오기만 기다리고
울의님은 어데를가고 나로들어 몬기다리나
사랑사랑 내사랑이야 점점사랑이 늘었구나

[동래구 민요 28]

권주가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126_PKS_BTJ_0006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동래구 칠산동 칠산할머니노인정

조사일시 : 2010.1.26

조 사 자 : 박경수, 서정매, 황영태, 최수정

제 보 자 : 병태주, 여, 82세

구연상황 : 제보자는 앞의 <창부타령>을 부른 후 같은 곡조로 부르는 다음 노래가 생각이 났는지 시원한 목소리로 불러 주었다.

잡으시오 잡으나시오~ 이술한잔을 잡으시오
이술이 술이아니라 백년살자는 동백~주요 -

[동래구 민요 29]

창부타령(2)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126_PKS_BTJ_0007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동래구 칠산동 칠산할머니노인정

조사일시 : 2010.1.26

조 사 자 : 박경수, 서정매, 황영태, 최수정

제 보 자 : 병태주, 여, 82세

구연상황 : 제보자는 권주가에 이어서 계속 다음 노래를 불러 주었다. 주위 청중들은 박수를 치며 경청하였다.

에헤이아니 놀지는 못하리로다
한살먹고 울엄마죽고 두 - 살먹어 아기죽어
삼오야십오 열다섯살에 시집이라 내가가니
이구야십팔 열여덟살에 청춘과부가 니웬말이고
얼씨구 좋구나 지화자 좋네 아니 놀지는 못하리라

[동래구 민요 30]

모심기 노래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127_PKS_SBS_0001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동래구 칠산동 신선노인정

조사일시 : 2010.1.26

조 사 자 : 박경수, 서정매, 황영태, 최수정

제 보 자 : 손복순, 여, 83세

구연상황 : 제보자는 약간 빠른 속도로 다음 <모심기 노래>를 구연하였다. 청중들은 박수를 치며 노래를 경청하였다.

낭창낭창 버리끝에 무정하다 울오랍아
나도야죽어 남자되어~이 처자곤석 섬겨볼래

오늘야낮에 점심반찬 무슨반찬 올랐더노
전라 - 도라 독간제비 마리아반이 올랐더라

이논에다 모를송가 금실금실 영화로다
우리야부모 산소터에~이 솔을숨가 영화로다

풍당-풍당- 찰수지비 사우야판에 다올랐네
에미야년은 어데가고~ 애기동자를 시켰던고

해다지고 저문날에~ 우연행상이 떠나가네
이태백이 본처죽어 이별행~상이 떠나간다

오늘해가 요만한데~히 골목골~목이 연개난다
우리야임은 어디가고~이 이골연개를 못내더냐

[동래구 민요 31]

각설이 타령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127_PKS_SBS_0002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동래구 칠산동 신선노인정

조사일시 : 2010.1.26

조 사 자 : 박경수, 서정매, 황영태, 최수정

제 보 자 : 손복순, 여, 83세

구연상황 : 다른 제보자가 다음 노래의 제목을 말하자, 제보자는 잘 아는 노래라며 완창해 주었다. 청중들은 박수를 치며 흥겨운 분위기를 즐기며 경청하였다.

얼씨구씨구씨구 들어간다 절씨구나 들어간다
이때저때 어느때요 춘삼월 호시때요
꽃은피어서 만발하고 잎은피어서 늘어졌네
품빠 품빠라 각설아

요놈의 각설이가 요래도
하리짝만 못돌면 기집자식을 골린다
품빠라 품빠라 각설아

그자저자를 던지고 일자나한자나 들고보니
일월이송송 야밤에 밤중에 새벽이 완연했다
품 - 품빠라 각설아

그자저자로 던지고 이자나 한자나 들고보니
님이라하는 기생이 우리야 조선 구할라고
애자천자 모란고 진주야 남강에 떨어졌다
품 - 품빠라 각설아

그자저자로 던지고 삼자나 한자나 들고보니
삼하나 신령 토신령 신령중에도 어른이요
품 - 품빠라 각설아

그자저자로 던지고 사자나 한자나 들고보니
사깨나행사 늙은중 아홉쌍년을 거느리고
점심아침이 늦어온다 한푼에도 시주요 두푼에도 시주라
장태로이나 들어가자
품 - 품빠라 각설아

그자저자로 던지고 오자나 한자나 들고보니
오후나동동 하늘천~ 만모나 장산에 따~지
품 - 품 잘한다

그자저자로 던지고 육자나 한자나 들고보니
육기나태사 성진이 팔승을 잡고서 희롱한다
품 - 품빠라 각설아

그자저자로 던지고 칠자나 한자나 던져보니
칠금칠금 따머리 옥비나 한쌍이 질기요
총각머리 늘어졌네 반포수군이 지적이라
품 - 품빠라 잘한다

그자저자로 던지고 팔자나 한자나 들고보니
우리야형제 팔형제 진주야 가게 첩가게
가게하기만 늘어졌다
품 - 품빠라 각설아

그자저자로 던지고~ 구자나 한자나 들고나보니
국기나행사 늙은중 아홉상좌를 거느리고
백발염주를 목에걸고 시나당주를 팔에걸고
열두작지 짚어짚고 우줄후줄 날아든다
품빠라 품빠라 각설아

그자저자로 던지고 장자나 한자나 들고보니
장하나 숲의 범들이 일자포수 담모아
그범한마리 못잡고 총질하기만 늘어졌다
품빠라 품빠라 각설아

[동래구 민요 32]

다리 세기 노래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127_PKS_SBS_0003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동래구 칠산동 신선노인정

조사일시 : 2010.1.26

조 사 자 : 박경수, 서정매, 황영태, 최수정

제 보 자 : 손복순, 여, 83세

구연상황 : 조사자가 제보자에게 다리 세는 노래의 앞 부분을 말하니, 제보자는 곧바로 빠른 속도로 다음 노래를 불러 주었다. 가사가 재미있었는지 청중들도 웃으며 즐거워하였다.

이거리 저거리 갯거리
동사맹근 도맹근
도리줌치 장독간
서울양반 두양반
진주댁이 열석냥
까마구 까우 암체 범이
사시 노랭이 조지가
빵 - 대야 동 태

[동래구 민요 33]

보리타작 노래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127_PKS_SBS_0004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동래구 칠산동 신선노인정

조사일시 : 2010.1.26

조 사 자 : 박경수, 서정매, 황영태, 최수정

제 보 자 : 손복순, 여, 83세

구연상황 : 제보자는 다른 제보자가 부르는 보리타작 노래를 듣고 예전에 우스개 노래로 불렀던 것을 기억하여 불러 주었다.

오헤야
재수씨 보소
오헤야
이보리 저보리
낮보리 보면서
다리를 들면서
지땀 뚫디려 보소

오혜아

[동래구 민요 34]

창부타령(1)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127_PKS_SBS_0005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동래구 칠산동 신선노인정

조사일시 : 2010.1.26

조 사 자 : 박경수, 서정매, 황영태, 최수정

제 보 자 : 손복순, 여, 83세

구연상황 : 조사자가 제보자에게 창부타령을 한 번 불러달라고 요청하니, 곧바로 다음 노래를 불러 주었다.
청중들도 박수를 치며 함께 불러 주었다.

이팔청춘 소년들라 백발보 - 고~ 웃지마라
나도어제 청춘이더니~ 오늘백발이 웬말이나
얼씨구나 좋다 지화자 좋네 아니놀지를 못하리라

[동래구 민요 35]

너냥 나냥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127_PKS_SBS_0006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동래구 칠산동 신선노인정

조사일시 : 2010.1.26

조 사 자 : 박경수, 서정매, 황영태, 최수정

제 보 자 : 손복순, 여, 83세

구연상황 : 조사자가 제보자에게 <너냥 나냥> 노래를 아느냐고 묻자, 제보자는 청중들에게 함께 부르자고 한 후에 다음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이에 청중들은 박수를 치며 함께 불러 주었다.

너냥나냥 두리둥실 놀고요
낮이낮이나 밤이밤이나 참사랑이로구나

저녁에 우는새는 임이고파 울고요
아침에 우는새는 임이기러워 운다
나냥너냥 두리둥실 놀고요
낮이낮이나 밤이밤이나 참사랑이로구나

우리집 서방님은 맹태잡으러 갔는데
바람아 강풍아 석달열흘 불어라
나랑너랑 두리등실 놓고요
낮이낮이나 밤이밤이나 참사랑이로구나

[동래구 민요 36]

창부타령(2)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127_PKS_SBS_0007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동래구 칠산동 신선노인정

조사일시 : 2010.1.26

조 사 자 : 박경수, 서정매, 황영태, 최수정

제 보 자 : 손복순, 여, 83세

구연상황 : 조사자가 제보자에게 도라지 타령을 아느냐고 물어보니, 자신이 불러보겠다면서 다음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였다. 창부타령의 곡조로 불렀다.

도라지팽풍 미단이방에 잠든큰아가 문열어라
바람불고 비올줄알았지 낭군님 오실줄 내몰랐네

[동래구 민요 37]

명 잣는 노래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127_PKS_LBN_0001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장2동 명장2동할머니경로당

조사일시 : 2010.1.27

조 사 자 : 박경수, 서정매, 황영태, 최수정

제 보 자 : 이분남, 여, 87세

구연상황 : 조사자가 제보자에게 <베를 노래>를 아는지 물었더니, 비슷한 노래가 있다면서 다음 노래를 불러 주었다.

빼그덕빼그덕 앓는명~ 언제나 다갓고 친정가나
푸드덕푸드덕 타는명 언제나 다타고 친정가나
칠쫄쫄쪽 마는고추 언제나 다말고 친정가나
포로롱포로롱 잣는명~ 언제나 다잡고 친정가나

[동래구 민요 38]

남녀 연정요(1)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127_PKS_LBN_0002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장2동 명장2동할머니경로당

조사일시 : 2010.1.27

조 사 자 : 박경수, 서정매, 황영태, 최수정

제 보 자 : 이분남, 여, 87세

구연상황 : 다른 제보자가 노래하는 도중, 제보자가 갑자기 끼어들며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였다. 청중들도 박수를 치며 장단을 맞추었다.

~474)미나리캐는 저큰아가

미나리보고 던진돌이 큰아기손목이 다맞았네

맞은-손목을 맞이나잡고 구찌렁구찌렁 우는구나

구찌렁구찌렁 우는소리 대장부 간장이 다녹는다

[동래구 민요 39]

남녀 연정요(2)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127_PKS_LBN_0003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장2동 명장2동할머니경로당

조사일시 : 2010.1.27

조 사 자 : 박경수, 서정매, 황영태, 최수정

제 보 자 : 이분남, 여, 87세

구연상황 : 조사자가 앞의 노래에 이어 제보자에게 또 다른 노래를 유도하자 제보자는 다음 노래를 큰 소리로 불러 주었다. 청중들도 박수를 치며 즐거워하였다.

황해도라 구월산밑에 주취캐는 저큰아가

너에집에 어디매길랑 해가다져도 아니가노

나의집을 아실라거든 심신산 안개~속에 초가~삼칸이 내집이오

연분이걸랑 찾아오고 연분이 아니면은 돌아서소

474) 제보자가 갑자기 노래를 부르는 바람에 미처 녹음을 하지 못한 부분이다.

[동래구 민요 40]

밀양아리랑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127_PKS_LBN_0004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장2동 명장2동할머니경로당

조사일시 : 2010.1.27

조 사 자 : 박경수, 서정매, 황영태, 최수정

제 보 자 : 이분남, 여, 87세

구연상황 : 조사자가 제보자에게 아리랑을 아는지 물었더니, 선뜻 밀양아리랑을 불러 주었다. 박수를 치며 흥겹게 노래를 불렀다.

오동나무 열매는 알각달각하고
큰애기 젖통은 몽실몽실하~다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고개를 나를 넘겨주소-

울너매 담너매 잎을숨겨놓고
호박잎이 난들난들~ 날속~이네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고개를 나를 넘겨주소-

[동래구 민요 41]

보리타작 노래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127_PKS_JSB_0001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장2동 명장2동할머니경로당

조사일시 : 2010.1.27

조 사 자 : 박경수, 서정매, 황영태, 최수정

제 보 자 : 장순분, 여, 80세

구연상황 : 제보자는 다른 제보자의 옹헤야 노래를 듣고 곧바로 노래를 시작하였다. 기억이 나는 데까지만 불러 주었다.

옹헤야
올라간다
옹헤야

내려온다
옹헤야
요게조게 때리라
옹헤야

[동래구 민요 42]

바늘 노래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126_PKS_JDC_0001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동래구 칠산동 칠산할머니노인정
조사일시 : 2010.1.26
조 사 자 : 박경수, 서정매, 황영태, 최수정
제 보 자 : 정도출, 여, 90세
구연상황 : 제보자는 다음 노래를 가사를 읊듯이 불러 주었다.

질로질로 가다가
바늘로 한개 주었네
주운바늘 넘주까
후았네 후았네
남시를하나 후았네
뽕짚네 뽕짚네~
송이가 한 마리
물었네 물었네

[동래구 민요 43]

너냥 나냥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126_PKS_JDC_0002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동래구 칠산동 칠산할머니노인정
조사일시 : 2010.1.26
조 사 자 : 박경수, 서정매, 황영태, 최수정
제 보 자 : 정도출, 여, 90세
구연상황 : 조사자가 제보자에게 <너냥 나냥>을 아는지 묻자, 예전에 많이 부른 것이었는지 바로 노래를 불러 주었다.

우리야 서방님은 명태잡이러 갔~는데
바람아 강풍아 석달열흘만 불어라
나냥 이리 등실 높이떠
낮에낮이나 밤이밤이나(밤이 밤이나) 참사랑이로구나

아침에 우는새는 배가고파 울고요
저녁에 우는새는 님이기립아 운다
너냥 나냥 이리등실 높이떠
밤에밤이나 낮에낮이나 참사랑이로구나

[동래구 민요 44]

사발가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126_PKS_JDC_0003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동래구 칠산동 칠산할머니노인정

조사일시 : 2010.1.26

조 사 자 : 박경수, 서정매, 황영태, 최수정

제 보 자 : 정도출, 여, 90세

구연상황 : 조사자는 제보자에게 노래의 첫 소절을 읊어주자, 제보자는 노래가 생각이 났는지 바로 구연해 주었다.

석탄백탄 타는데 연기만 풍풍나구나
요내가슴 타는데 연기도 안나고 잘간다

[동래구 민요 45]

도라지 타령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126_PKS_JDC_0004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동래구 칠산동 칠산할머니노인정

조사일시 : 2010.1.26

조 사 자 : 박경수, 서정매, 황영태, 최수정

제 보 자 : 정도출, 여, 90세

구연상황 : 제보자는 흥을 내어 앞의 노래에 이어서 다음 <도라지 타령>을 불러 주었다.

도라지 도라지 도라~지~ 심심산천에 백도라지
한두뿌리만 캐어도~ 바구니 반석만 되노라
에헤용 에헤용 에헤용
어아라 난다 지화자자 좋네
니가 내간장 스리살살 다녹인다

도라지 캐로 간다 - 고 요핑기 조핑기 하더니
총각낭군 무덤에~ 삼오지(삼오제) 지내려 간다지

[동래구 민요 46]

사위 노래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126_PKS_JDC_0005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동래구 칠산동 칠산할머니노인정
조사일시 : 2010.1.26
조 사 자 : 박경수, 서정매, 황영태, 최수정
제 보 자 : 정도출, 여, 90세
구연상황 : 제보자는 계속 생각나는 노래를 이어서 불러 주었다. 청중들도 박수를 치며 노래를 경청하였다.

내딸죽 - 고 내사위야~ 울고갈길로 뭐하러왔노
이왕지라 온결음에 발지에라도 자고가소
자몬자고 말몬말지 발길잡은 안잘라요

[동래구 민요 47]

장가 노래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126_PKS_JDC_0006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동래구 칠산동 칠산할머니노인정
조사일시 : 2010.1.26
조 사 자 : 박경수, 서정매, 황영태, 최수정
제 보 자 : 정도출, 여, 90세
구연상황 : 제보자는 이런 저런 노래를 부르던 중에, 또 생각이 났는지 다음 노래를 불러 주었다.

하동 땅 하선부는 밀양땅을 장개감서
맹지수건 석재수건~ 눈물백기 다녹았네

[동래구 민요 48]

모찌기 노래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127_PKS_JOS_0001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장2동 명장2동할머니경로당

조사일시 : 2010.1.27.

조 사 자 : 박경수, 서정매, 황영태, 최수정

제 보 자 : 주옥생, 여, 80세

구연상황 : 제보자는 다른 제보자들의 유도도 다음 <모찌기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가사를 더 많이 기억하지 못하고 한 소절만 부르고 중단했다.

쫓우자 쫓우자 요모판을 쫓우자

쫓우자 쫓우자 큰애기 가슴을 쫓우자

[동래구 민요 49]

베들 노래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127_PKS_JOS_0002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장2동 명장2동할머니경로당

조사일시 : 2010.1.27

조 사 자 : 박경수, 서정매, 황영태, 최수정

제 보 자 : 주옥생, 여, 80세

구연상황 : 제보자는 다른 제보자의 유도도 인해, 자신이 없어 했지만, 막상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자 흥겹게 불러 주었다.

물레야뽕뽕~ 너돌아라~ 밤중새별이 완연하다

큰애기다리 두다린데 베들다리 네다리요

잉엣대는 삼형제요 놀림대는 이동이라

낮에짜면 일광단되고 밤에짜면 월광단되고

꼭꼭짜서 낭군님 도복을 해입힌다

[동래구 민요 50]

아기 어르는 노래 / 불매소리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127_PKS_JOS_0003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장2동 명장2동할머니경로당

조사일시 : 2010.1.27

조 사 자 : 박경수, 서정매, 황영태, 최수정

제 보 자 : 주옥생, 여, 80세

구연상황 : 조사자가 제보자에게 아기 어를 때 부르는 노래를 아는지 물어보자 다음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였다.

불매불매 불매야
이불매가 누불매고
은자동아 춘자동아
은을주면 너를사나
금을주면 너를사나

[동래구 민요 51]

다리 세기 노래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127_PKS_JOS_0004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장2동 명장2동할머니경로당

조사일시 : 2010.1.27

조 사 자 : 박경수, 서정매, 황영태, 최수정

제 보 자 : 주옥생, 여, 80세

구연상황 : 제보자는 자신있는 노래라며 청중들에게 다리를 겹치며, 놀이하는 것을 직접 보여주며 구연해주었다.

이거리 저거리 갓거리
동사맹근 도맹근
수구리박고 독박고
연지통에 열두잔

[동래구 민요 52]

보리타작 노래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127_PKS_JOS_0005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장2동 명장2동할머니경로당

조사일시 : 2010.1.27

조 사 자 : 박경수, 서정매, 황영태, 최수정

제 보 자 : 주옥생, 여, 80세

구연상황 : 제보자는 다른 제보자의 옹헤야를 듣고 기억이 조금 난다며 몇 구절을 불러 주었다.

옹헤야 음흙

그래가 때려라 음흙흙

일어라 음흙

이래쌌더라고. 못한다. (조사자 : 진짜로 “음흙” 이릅니까?) 응. 그때 그래쌌더라고. (조사자 : 아, 힘들어서.)

[동래구 민요 53]

사발가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127_PKS_JOS_0006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장2동 명장2동할머니경로당

조사일시 : 2010.1.27

조 사 자 : 박경수, 서정매, 황영태, 최수정

제 보 자 : 주옥생, 여, 80세

구연상황 : 제보자는 처음에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다가, 다른 제보자들의 참여로 인해 자신있게 부르기 시작하였다.

석탄백탄 타는데~ 연기만퐁퐁 나고~요

요내가슴 타는~데~ 연기도김도 안나네

에헤야 에헤야 어야라 난다 지화자~

요내 간장이 다탄다

[동래구 민요 54]

삼 삼기 노래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127_PKS_JOS_0007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장2동 명장2동할머니경로당

조사일시 : 2010.1.27

조 사 자 : 박경수, 서정매, 황영태, 최수정

제 보 자 : 주옥생, 여, 80세

구연상황 : 조사자의 도라지 타령이나 아는 노래를 불러 달라고 하자, 제보자가 바로 다음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였다.

웃방문고리 삼줄걸고~ 삼삼은 처녀야 얼굴보자
누구간장 녹힐라꼬~ 요령기 곱기 생겼더나
바람불고 눈비 - 온데~ 날을줄 모르고 문닫았나

[동래구 민요 55]

권주가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127_PKS_JOS_0008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장2동 명장2동할머니경로당

조사일시 : 2010.1.27

조 사 자 : 박경수, 서정매, 황영태, 최수정

제 보 자 : 주옥생, 여, 80세

구연상황 : 조사자가 노래의 제목을 띄어주자, 제보자가 기억이 났는지 바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였다.

잡수시오 잡수~시오 이술한잔을 잡수시오
이술이 술아니라
칠년대한 가물음에 이슬받은 술이로다

[동래구 민요 56]

쌍가락지 노래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127_PKS_CIC_0001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장2동 명장2동할머니경로당

조사일시 : 2010.1.27

조 사 자 : 박경수, 서정매, 황영태, 최수정

제 보 자 : 최임출, 여, 78세

구연상황 : 조사자의 요청에 제보자는 처음에 가사로 읊어주었으나, 다시 노래로 불러 달라고 요청하자 부른 것이다.

쌍금쌍금 쌍가락지
호닥짚로 닦아내라

먼디보니 달일레라
자태보니 처잘레라
그처자야 자는방에
숨소리도 두꺼재라
말소리도 두꺼재라

[동래구 민요 57]

장타령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127_PKS_HJJ_0001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동래구 칠산동 신선노인정

조사일시 : 2010.1.26

조 사 자 : 박경수, 서정매, 황영태, 최수정

제 보 자 : 한정자, 여, 81세

구연상황 : 제보자는 익살스러운 가사 내용이라며 다음 <장 타령>을 불러 주었다. 청중들도 가사가 재미있
다며 즐거워 했다.

자빠졌다 자춘장(좌천장)
엎어졌다 읍내장
돌래돌래 부산장
아가리크다 대구장
꽁지넓다 가해장
정제짚다 칼치장
질기도지다 칼치장
주디나왔다 콩치장
펼떡된다 팔원장
날라봤다 날장
돌아보니 동래장

[동래구 민요 58]

모심기 노래(1)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127_PKS_HJJ_0002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동래구 칠산동 신선노인정

조사일시 : 2010.1.26

조 사 자 : 박경수, 서정매, 황영태, 최수정

제 보 자 : 한정자, 여, 81세

구연상황 : 다른 제보자의 모심기 소리를 듣고, 자신도 불러보겠다며 적극적으로 불러 주었다.

담상담상 닷마지기 일천석만 쏟아지소
지아무리 나기언덕 일천석이 쏟아질까 이 후 후 후 후 후~

여보세요 선부님요~ 우리선부 안오더냐
오기야 오지만은~어히 칠성판에 실려온다 이 후 후 후 후 후~

새야새야 원앙새야 니어데서 자고왔노
명사십리 나무끝에~이
이리헌들 저리헌들 이리헌들 허헌들 자고~왔네

서울이라 왕대밭에~에이 금빛들때 알을날여
그알한배만 조았으면 금년과~게로 내할긴데

에야도련님 벗님들들아 송금씨야 배깁아라
송금씨야 깎은배는~어히 맛도좋고 연할래라

한강에다~이 모를부아 그모찌기도 난감하네
하늘에~이 목화갈고 목화따기도 난감하네

울뽕졸봉 내따주게 에이~ 내나품에 잠들라나
아이처녀야 그말마라~이 호랭이겇은 우리오빠

잡으러 온다 이거라.

[동래구 민요 59]

남녀 연정요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127_PKS_HJJ_0003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동래구 칠산동 신선노인정

조사일시 : 2010.1.26

조 사 자 : 박경수, 서정매, 황영태, 최수정

제 보 자 : 한정자, 여, 81세

구연상황 : 제보자는 <모심기 노래>를 끝내고 이어서 불러 주었다. 목청이 좋고 기억력이 좋아서 흥겨운 분위기를 잘 유도해주었다.

구월산 밑에 주취개는 저처녀야
그 주취는 내중에개고 요내품에 잡들거라
아이 - 총각아 그말을마라 니품에는 안갈란다

[동래구 민요 60]

모찌기 노래 / 짧은 등지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127_PKS_HJJ_0004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동래구 칠산동 신선노인정

조사일시 : 2010.1.26

조 사 자 : 박경수, 서정매, 황영태, 최수정

제 보 자 : 한정자, 여, 81세

구연상황 : 조사자와 청중들의 유도에 따라, 제보자가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였다. 모를 찢을 때 부르는 <짧은 등지>이다.

쫓루자 쫓루자 주인네소꿉말을 쫓루자
쫓루자 쫓루자 영감삼지로 쫓루자

[동래구 민요 61]

창부타령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127_PKS_HJJ_0005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동래구 칠산동 신선노인정

조사일시 : 2010.1.26

조 사 자 : 박경수, 서정매, 황영태, 최수정

제 보 자 : 한정자, 여, 81세

구연상황 : 제보자는 창부타령의 곡조로 다음 노래를 불러 주었다.

상추야상칸 흐른물에~이 상추씻~는 저처녀야
겉에아떡잎은 제치놓고~이 속에속~대를 나를줄래
이총각아 그말마라 니언제봤다고 속대주나

[동래구 민요 62]

모심기 노래(2)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127_PKS_HJJ_0006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동래구 칠산동 신선노인정

조사일시 : 2010.1.26

조 사 자 : 박경수, 서정매, 황영태, 최수정

제 보 자 : 한정자, 여, 81세

구연상황 : 제보자는 앞의 노래에 이어 다음 노래를 불러 주었다.

모시아적삼 안섶반에 얹은삼삼 저젓봐라
이어총각아 보지마라~이 많이보면 병이나고

작게 보면 병이 나고 많이 보면 정든단다.

[동래구 민요 63]

아기 어르는 노래 / 불매소리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127_PKS_HJJ_0007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동래구 칠산동 신선노인정

조사일시 : 2010.1.26

조 사 자 : 박경수, 서정매, 황영태, 최수정

제 보 자 : 한정자, 여, 81세

구연상황 : 조사자가 제보자에게 아기를 어를 때 부르는 노래로 앞 소절을 읊어주니, 제보자가 바로 기억이 났는지 불러 주었다.

불매불매 불매야
이불매가 누불매고
경상도 대불매
후루룩딱딱 불매야

[동래구 민요 64]

보리타작 노래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127_PKS_HJJ_0008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동래구 칠산동 신선노인정

조사일시 : 2010.1.26

조 사 자 : 박경수, 서정매, 황영태, 최수정

제 보 자 : 한정자, 여, 81세

구연상황 : 제보자는 웃으면서 <보리타작 노래>를 불러 주었다. 청중들도 가사가 재미있어서인지 웃으면서 노래를 들었다.

옹해야

여기봐라 쫓대거리 나간다

조기때리라 요기때리라

앞집의 재수씨도 내쫓만바래고

뒷집의 형수씨도 내쫓만바래고

재미산에는 비문어온다

여기저기 때리라

넘어간다 때리라

쫓대거리 보이거든 딱때리라 넣구로

[동래구 민요 65]

창부타령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127_PKS_HJJ_0009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동래구 칠산동 신선노인정

조사일시 : 2010.1.26

조 사 자 : 박경수, 서정매, 황영태, 최수정

제 보 자 : 한정자, 여, 81세

구연상황 : 제보자는 크고 시원한 목소리로 창부타령을 불러 주었다. 목청이 좋아서 청중들도 즐거워하며 소리를 경청하였다.

술이라고 목거들랑 취정을말고~ 살아가고

임이라고 만나거든 유별없이 살아보자

얼씨구나 좋네 지화자 좋고 아니놀고 못살겠네

내딸죽고 내사우야 울고갈길을 왜왔더냐

이왕일에 왔거들랑 발치잡이나 자고가소

자면자고 말면은말지 발치잠은 못자겠소
얼씨구나 좋네 지화자 좋고 아니놀지를 못하리라

가요가요 나는가요 너를두고 나는가요
내가-가면은 아주가나 아주야간들 잊을소나
얼씨구나 좋네 지화자 좋고 아니나놀지를 못하리라

[동래구 민요 66]

권주가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127_PKS_HJJ_0010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동래구 칠산동 신선노인정

조사일시 : 2010.1.26

조 사 자 : 박경수, 서정매, 황영태, 최수정

제 보 자 : 한정자, 여, 81세

구연상황 : 제보자는 연이어서 다음 노래를 불러 주었다. 청중들은 박수를 치면서 장단을 맞추어 주었다.

잡으시오 잡으나시오~ 이술한잔을 잡으세~요
이술이 술이아니라~ 묵고노자는 동백주요
얼씨구 좋네 지화자 좋고 아니놀지를 못하리라

* 이상 박경수 · 정규식 · 서정매, 『증편 한국구비문학대계8-22(부산광역시③-중부산권)』, 한국학 중앙연구원 · 역락, 2015, 411~472쪽.

Ⅲ. 문헌 소재 민요

1. 금정구 민요
2. 동래구 민요

1. 김정구 민요

[김정구 민요 1]

분홍 같은 젖

모시적삼 시적삼 안에
분홍같은 저 젖 봐라
많이보면 병난다네
조금조금 보고가지
총각총각 손목놓게
질상사적삼리 등나간다
질상사 한자에 한냥해도
임적삼이 내떠주마
도리도리 샷갓집에
연기풀숙 나는 집에
일금삼상 곱은 처자
오미영 조미영
대장부간장 다 녹인다
낙수대로 낙아내자
시냇물데로 찾아내까

*김정구청, 『김정구지』, 소문출판인쇄사, 1991, 666쪽.

[김정구 민요 2]

큰 애기

동래 부산 큰 애기들은
작으나 크나 알백이
마포야 선창 큰 애기들은
청어엮이도 날새네

*금정구청, 『금정구지』, 소문출판인쇄사, 1991, 666쪽.

[금정구 민요 3]

하룻밤

왜왔드냐 왜왔드냐
울고 갈 것을 왜왔드냐
이왕지사 왔거들랑
하룻밤이나 쉬고가소

*금정구청, 『금정구지』, 소문출판인쇄사, 1991, 667쪽.

[금정구 민요 4]

첩의 노래

달이 떴네 달이 떴네
홍살문에 달이 떴네
저 달이 누달인고
양산원님 달일네라
양산원님 어데가고
달떴는 줄 모르난고
첩의방에 놀러갔네
양산원님 놀러갔네
처의 집은 꽃밭이고
본댁집은 칠밭이다
밤으로는 자러가고
낮으로는 놀러가네

*금정구청, 『금정구지』, 소문출판인쇄사, 1991, 669쪽.

2. 동래구 민요

[동래구 민요 1]

念佛船(東來)

우리 錦珠 심은나무
금강水－ 물을주어
六判書 버든가지
各邑守令 쫓치피고
三政丞 열이열어
銀斧와 金斧로
모왓구나 모왓구나
念佛船을 모왓구나
사공은 바라보니
대라十六 사공이오
敵軍은 바라보니
오방라한 敵軍이라
찹쌀닷말 맵쌀닷말
류리를 짐싸거러
이물가득 시러눕코
아범줄노 허파줄노
어멈줄노 간경줄노
兄弟줄로 愛情줄로
허리능청 둘너미고
그어대 가는비오
兩親父母 계시더니
金剛山 第一峯에
재미불공 가나이다.

*엄필진, 『조선동요선』, 창문사, 1924, 123~125쪽.

*『동아일보』(1923. 11. 18)의 ‘지방동요’란에 ‘동래지방 유행동요’로 ‘동래군 동래면 복천동(東萊郡 東萊面 福泉洞) 이인선(李仁善)’이 제보한 것으로 먼저 발표됨. 엄필진의 『조선동요선』에는 이에 대한 기록 없음.

[동래구 민요 2]

염불선

우리 금주 심은 나무
금강수 물을 주어
육판서 뺨은 가지
각읍 수령 꽃이 피고
삼 정승 열매 열어
은 도끼와 금 도끼로
그 낭글 비여 내여
모왔구나 모왔구나
염불선을 모왔구나
사공은 바라 보니
대사십륙 사공이요
적군은 바라 보니
오방나한 적군이라
찹살 닷 말 맵살 닷 말
유리를 짐빠 걸어
이물 가득 실어 놓고
아범 줄로 허파 줄로
어멈 줄로 간경 줄로
성계 줄로 애정 줄로
허리 능청 둘러 메고
그 어대 가는 배요
양친 부모 가시더니
금강산 제일봉에
제미 불공 가나이다.

(1934年 8月 東萊郡 東萊邑 壽安洞 金仁善 報)

*경상남도지편찬위원회, 『경상남도지(하)』, 경상남도 공보실, 1963. 12, 209쪽.

*이재욱, 『영남전래민요집』(수고본), 1930, 065ㄴ쪽(동래).⁴⁷⁵⁾ / 김사엽·최상수·방종현, 『조선

475) 제보자 장부인(張夫人, 45세), 조사일시는 1930. 8. 22, ‘東亞日報 再’로 기록함. 배경숙,

민요집성』, 정음사, 1948, 161~162쪽. ‘동래지방’ 민요로만 기록. / 임동권, 『한국민요집 I』, 집문당, 1972, 90쪽(446번)과 『한국민요집 II』, 집문당, 1974, 223쪽(973번). 이상 ‘동래지방’ 민요로 제목은 <염불요>. / 김승찬 외, 『부산민요집성』, 세종출판사, 2002, 342쪽에 작품만 수록.

[동래구 민요 3]

꽃노래

이새가 어느썩고
 春三月 好時절가
 울야바지 生辰썩가
 술을부어 금청주라
 그술묵고 醉中썩헤
 노래한장 지어주소
 무슨노래 지어줄고
 꽃노래를 써어주소
 묵고묵고 도리썩흔
 야산에서 피어나고
 쓰고남은 피렁이썩
 심산에서 피어나고
 미나리 洗천썩흔
 물가운디 피어나고
 맨두람이 봉선화는
 장독간에 피어나고
 요네몸에 처녀썩흔
 방가운디 피어난다.

*엄필진, 『조선동요선』, 창문사, 1924, 67쪽(44번)에 ‘창원’ 노래로 표시.

*『동아일보』(1923. 11. 4)의 ‘지방동요’란에 ‘창원지방에서 유행하는 동요’로 ‘경성(京城) 강경영(姜慶永)’이 제보한 것으로 제목 없이 발표됨. 엄필진의 『조선동요선』에는 이에 대한 기록 없음.

[동래구 민요 4]

『이재옥과 영남전래민요집 연구』, 국학자료원, 2009, 587쪽 재수록.

꽃 노래

이 때가 어느 땐고
춘삼월 호시 땐가
올아부지 생신 땐가
술을 부어 금청주라
그 술 묵고 치정 끝애
노래 한장 지여 주소.

무슨 노래 지여 줄꼬
꽃노래를 지여 주소.

묵고 묵고 도래꽃은
야산에서 피여 나고.
시고 남은 피랭이꽃
심산에서 피여 나고.
미나리아 시천꽃은
물 가운데 피여 나고.
맨두래미 봉숭아는
장독간에 피여 나고.
요내 몸에 처자꽃은
방 가운데 피여 난다.

(1934年 8月 東萊郡 東萊邑 壽安洞 金宅洙 母親 口誦)

*경상남도지편찬위원회, 『경상남도지(하)』, 경상남도 공보실, 1963. 12, 207쪽.

*김사엽·최상수·방종현, 『조선민요집성』, 정음사, 1948, 135쪽. / 임동권, 『한국민요집Ⅳ』, 집문당, 1979, 318쪽(719번, 통영). / 김승찬 외, 『부산민요집성』, 세종출판사, 2002, 337~8쪽.

[동래구 민요 5]

處女謠

尹斗守 投

아가울손 목단화가
역땅에가 피었구나.
돌미나리 캐어다가
천질땅에 송가보소.

*『신생』 제11호(제2권 제6호, 1929. 6), 21쪽에 ‘동래민요’로 발표됨.

[동래구 민요 6]

學童謠

尹斗守 投

이청저청 대청밖에
실과청청 실파남에
비단나우 앉았드니
나우구경 하시다가
일천자를 다잇었네.

*『신생』 제11호(제2권 제6호, 1929. 6), 21쪽에 위 <처녀요(處女謠)>와 함께 ‘동래민요’로 발표됨.

[동래구 민요 7]

꽃놀애

(東萊 尹斗守 投)

납딱납딱 피리꽃은
陽地陽地 자리잡고
키크다 연달래는
石上에 자리잡고
열없도다 할미꽃은
守節이라 하는듯이
남면이라 피어나네

*『신생』 제14호(제2권 제9호, 1929. 9), 26쪽.

[동래구 민요 8]

모심을 때(「등지」라 함)

尹斗守(張浩辰 丈母) 67才 5年⁴⁷⁶⁾ 8月 22日

납작납작 피리꽃은 陽地陽地 자리잡고
키크다 연달네는 돌우에 자리잡고
열업도다 할미꽃은 守節이나하는 듯이 남면이라 피어나네 尹(再)

*이재옥, 『영남전래민요집』(필사본, 1930), 064ㄱ쪽. 배경숙, 『이재옥과 영남전래민요집 연구』, 국학자료원, 2009, 415쪽 전제.

[동래구 민요 9]

저구리

(東萊 尹斗守 投)

개자하니 살이지고
입자하니 목때문고
줄때끝에 걸어놓고
날면보고 들면보고
눈쌀맛아 다떨어지네

*『신생』 제14호(제2권 제9호, 1929. 9), 26쪽.

[동래구 민요 10]

사랑놀이

(東萊 尹斗守 投)

머리 좋고 실한처자
울뽕남에 앓아우네

476) '5년'은 당시 소화 5년으로 1930년을 말한다.

울뽕갈뽕 내따주께
백년해래⁴⁷⁷⁾ 내강살자

*『신생』 제14호(제2권 제9호, 1929. 9), 26쪽.

[동래구 민요 11]

혼인놀이

(東萊 鄭仁植 投)

상투야 한분 뽕뽕쫓고
장가로 한분 가고지라
머리야 한분 쫓쫓땅코
시즙을 한분 가고지라

*『신생』 제14호(제2권 제9호, 1929. 9), 26~27쪽.

[동래구 민요 12]

혼인노래

鄭仁植

(張氏 丈母로부터 再調.) 5年⁴⁷⁸⁾ 8月 22日

상투야 한분 뽕뽕쫓고
장가로 한분 가고지라
머리야 한분 쫓쫓땅코
시집을 한분 가고지라 (再)

*이재옥, 『영남전래민요집』(필사본, 1930), 064ㄴ쪽. 배경숙, 『이재옥과 영남전래민요집 연구』, 국학자료원, 2009, 417쪽에서 전재.

[동래구 민요 13]

477) '백년해로'의 오식인 듯함.

478) '5년'은 당시 소화 5년으로 1930년을 말한다.

며누리

(東萊 尹斗守 投)

헌신 짝이 딸딸 끌고
부리든 것 불상해라
오금쟁이 옷작죽작
방아 짙든 것 불상해라
연지뿔이 뿔룩뿔룩
밥 먹든 것 불상해라
비녀 꼭지 뽕뽕뽕
베 짜는 것 불상해라

*『신생』 제14호(제2권 제9호, 1929. 9), 27쪽.

[동래구 민요 14]

불상해라

尹斗守(張氏 丈母) 67才 5年⁴⁷⁹⁾ 8月 22日

헌신 짝이 딸딸 끌고
부리든 것 불상해라
오금쟁이 옷작죽작 尹(新生, 再)

*이재욱, 『영남전래민요집』(필사본, 1930), 064ㄱ쪽. 배경숙, 『이재욱과 영남전래민요집 연구』, 국학자료원, 2009, 418쪽에서 전재.

[동래구 민요 15]

게모스 놀애

(東萊 尹斗守 投)

수시스대야 수만대야 오실동동 울아배야

479) ‘5년’은 당시 소화 5년으로 1930년을 말한다.

전처에 자식두고 후실장가 가지마소
모시적삼 속적삼이 눈물담아 다젖는다

*『신생』 제14호(제2권 제9호, 1929. 9), 27쪽.

[동래구 민요 16]

게모스놀애

尹斗守(張浩辰 丈母) 67才 5年⁴⁸⁰⁾ 8月 22日
比項 (新生 十一号 發布된 것, 及 大學 採集)을 再調함

수싯대야 수만대야 오실동동 올라배야
전처에 자식두고 후실장가 가지마소
모시적삼 속적삼이 눈물까닥⁴⁸¹⁾ 다젖는다

*이재욱, 『영남전래민요집』(필사본, 1930), 063ㄱ쪽. 배경숙, 『이재욱과 영남전래민요집 연구』, 국학자료원, 2009, 415쪽 전제.

[동래구 민요 17]

장타령

셋바람반지 下端장
너무칩어서 몬보고.
나리건너 鳴湖장
船價가업서 몬보고
골목골목 釜山장
질몬차자 몬보고
꾸벅꾸벅 龜浦장
허리가압파 몬보고
미지기짴다 密陽장
싸개를묵어서 몬보고

480) '5년'은 당시 소화 5년으로 1930년을 말한다.

481) '눈물까닥'의 오식으로 보임(편저자 주).

고개넘어 東萊장
다리가압파 몬보고
아가리크다 大邱장
너무널너서 몬보고
이산저산 梁山장
산이만아서 몬보고
코푸렀다 興海장
밋거러버서 몬보고
똥샷다 求禮장
냄새가나서 몬보고

*김소운, 『언문조선구전민요집』, 제일서방, 1933, 256쪽(899번). ‘於 東萊 孫晋泰 採集’으로 기록. / 임동권, 『한국민요집 I』, 집문당, 1972, 225쪽(805번, 부산).

[동래구 민요 18]

장 타령

셋바람 반지 하단 장
너무 칩어서 몬뽀고.
나리 건너 맹호 장
선까 없어 몬뽀고.
골목 골목 부산 장
질 못찾아 몬뽀고.
꾸벅꾸벅 구포 장
허리가 아파 몬뽀고.
미지기 짬다 밀양 장
싸개를 묵어서 몬뽀고.
고개 넘어 동래 장
다리가 아파 몬뽀고.
아가리 크다 대구 장
너무 널러서 몬뽀고.
이산 저산 양산 장
산이 많아서 몬뽀고.

코 풀었다 흥해 장
미끄럽어서 몬뽏고.
똥쌌다 구레 장
냄새가 나서 몬뽏고.

(1931年 4月 東萊郡 東萊邑 壽安洞 李鎭洙 口誦)

*경상남도지편찬위원회, 『경상남도지(하)』, 경상남도 공보실, 1963. 12, 199~200쪽.
*김사엽·최상수·방종현, 『조선민요집성』, 정음사, 1948, 258쪽. / 김승찬 외, 『부산민요집성』, 세종출판사, 2002, 345쪽. 이상 문헌에서 ‘몬뽏고’는 ‘못보고’로 고치고 모두 2음보로 채록함.
*동래지편찬위원회, 『우리 고장 동래(동래지)』, 부산직할시 동래구, 1982, 17쪽. / 강서향토지발간추진위원회, 『강서향토지』, 동 발간위원회, 1988, 274쪽. / 부산직할시 동래구청 문화공보실, 『동래의 역사』, 부산직할시 동래구청, 1990, 198쪽. / 금정구청, 『금정구지』, 소문출판인쇄사, 1991, 671쪽.

[동래구 민요 19]

쌍가락지(雙指環)

慶南 東萊郡 東萊邑 壽安洞

쌍금쌍금	쌍가락지
호작질로 (좋은)	딱아내여
먼대서보니	달일내라
젓해서보니	처잘내라
저쳐자가	자는방에
숨소리가	두릴내라
오라바시	흥달바시
거짓말시	말으시오
위거청청	마루겻해(젓테)
위기복숭(돌복성)	마시종와
씨한부래	먹엇드니
그애기는	낙을들랑(날거든)
도령씨라(道令)	이름지소
조고맛한	접히방에

비상불을(砒霜)	피아눅코
아홉까지	약을먹고
열손가락	엮해끼고
명지천대(錢帶)	목을잘라
자는 듯이	죽거들랑
앞산에도	못지말고
뒷산에도	못지말고
련대밑에	무더주소
련꽃이나	피여거든
날보드시	돌아보소

*서복균, 『우리 민謡(私註・餘錄 - 嶺南・湖南・湖西 篇』, 大阪: 僑文社, 1987, 25~26쪽. 이 책의 머리말에서 1936년 여름부터 1937년에 걸쳐 구자균(具滋均) 선생의 지도 아래 조사된 민요라고 함. 이하 [동래구 민요 20]부터 [동래구 민요 22]까지 동일 내용에 의함. 관련 표기 생략.

[동래구 민요 20]

시집살이

慶南 東萊郡 東萊邑 壽安洞

성아성아	사촌성아
시집사리	엇드트노
아이고야야	말도마라
그초당초(巨・唐草)	맵다하되
시집사리보다	더매우라
얼룩들룩(룽)	비단치마
살강끝에	걸으노코
오다가다	눈물씩기
다씩엇네	

*서복균, 『우리 민謡(私註・餘錄 - 嶺南・湖南・湖西 篇』, 大阪: 僑文社, 1987, 51쪽.

[동래구 민요 21]

동요

慶南 東萊郡 東萊邑 壽安洞

새야새야	백바람참바람에
(새벽바람)	(찬바람에)
울고가는	저기력이
우리선생	기신곶에
편지한장	전해주소
오룩도야	잘있거라
(오룩도야	무룩도야)
무룩도야	언재볼고
일본대판	남마당에
(일본대판)	너린곳에)
쌀랑쌀랑	잘도간다
(설능성능	잘도간다)
봉지봉지	꽃봉지는
범나비오도록	기다리고
(범나비오도록	기다리고)
(푸른푸른	풀잎으는)
(찬이설오도록	기다리고)
천이천이	큰천이는
(낭계안진	창계고리)
백발되가(白髮)	수심이요(愁心)
(비오끄마	수심이요)
물기밑에(계)	박시송에
(웅당세매	송에섹기)
물마러가(干)	수심이요
(무리말너	수심이요)
청청과부(젊은)	유복자는
(논두렁밑에	빼뜰나비)
명짜러가(목숨)	수심이요
(풀죽까봐(枯)	수심이요

註()는 蔚山에서 부름

노랑터리	뒤범벅상투
저잡것을	운제나길어(키워)
내랑군으로	삼을가 참

강걸씨인강	강걸씨인강
유주강걸씨인강(雨·우)	(유·油)
이슬같은	자내씨인강
누간장을	녹힐나고
저리곱게	생것넌공(昆)
내가무삼	절이곱아(매우)

서울이라	장안안에 (長安)
매하꽃이(梅)	저리곱아(第一)
저쪽건너	유리영창
버들숲에	
어리동동	저임물은(美人)
영남에도	안이없네

옥해수로	바우곁에
정내수로	푸러내니
마슬보니	젓맛이고
빛을보니	술빛이요

*서복균, 『우리 민謡(私註·餘錄 - 嶺南·湖南·湖西 篇』, 大阪: 僑文社, 1987, 80~81쪽.

[동래구 민요 22]

담바귀타령

慶南 東萊郡 東萊邑 壽安洞

귀야귀야	야단방귀야
네국을라	어대두고

조선국에	네나왔노
천년과부	만년과부
신애푸로(심애)	내나왔다
거담배씨	바다내여
단장안에	헐쳐더니
거릴개라	물을주에(여)
각와내고(키와)	각와내여
언장두라	더는칼로
어습비습	비여다가
모숨모숨	역겨내여(거)
한대으를	먹고나니
나래가(나라)	자는듯고
두대를	먹고나니
조선이	자는듯고
삼새대를(三)	먹고나니
옥등잔에	끓는기름(沸)
이내가슴	끓는것다

*서복균, 『우리 민謡(私註・餘錄 -嶺南・湖南・湖西 篇』, 大阪: 僑文社, 1987, 88쪽.

[동래구 민요 23]

빗님이 오실능가

오늘날로 빗님이 오실능가
주춧돌에 땀이 나네
바람이 부실능가
자던 풀잎이 일어나네.

(1930年 7月 東萊郡 東萊邑 校洞 尹家和 口誦)

*경상남도지편찬위원회, 『경상남도지(하)』, 경상남도 공보실, 1963. 12, 194쪽.

*김승찬 외, 『부산민요집성』, 세종출판사, 2002, 371쪽. 제목 <빗님이 오실능가>.

[동래구 민요 24]

아랫 눈에 새야

아랫 눈에 새야
웃 눈에 새야
오늘만 까 묵고
내일은 까묵지 마라
정에 정대롱 장개 가는데
떡 얻어 묵으려 갈란다.
후여 -

(1930年 7月 東萊郡 東萊邑 校洞 尹家和 口誦)

*경상남도지편찬위원회, 『경상남도지(하)』, 경상남도 공보실, 1963. 12, 194쪽.

*임동권, 『한국민요집 V』, 집문당, 1980, 집문당, 1980, 245쪽(717번). 제목 <파랑새요>(동래)
/ 김승찬 외, 『부산민요집성』, 세종출판사, 2002, 370쪽.

[동래구 민요 25]

나무꾼 아이 노래

동지 선달 진진 밤에
할맘 없어 못살네라.
삼사월 진진 해에
점심 굶고 못살네라.
노고주리는 순질 뜨고
갈바지는 짱짱 울고.
(뒷소리) 이후후 잘한다.

(1930年 7月 東萊郡 東萊邑 校洞 尹家和 口誦)

*경상남도지편찬위원회, 『경상남도지(하)』, 경상남도 공보실, 1963. 12, 194쪽.

*임동권, 『한국민요집 IV』, 집문당, 1979, 77쪽(302번). 제목 <초부요>(동래). / 김승찬 외, 『부산민요집성』, 세종출판사, 2002, 365쪽.

[동래구 민요 26]

접방살이 말도 많다

해기 좋은 녀우 서방
하고 나면 그 뿐이고
때기 좋은 덩불나무
때고 나면 그 뿐이고
시집 시집 댄 시집은
살고 나면 끝이고
시집 살이 탈도 많고
접방 살이 말도 많다.

(1930年 7月 東萊郡 東萊邑 校洞 尹家和 口誦)

*경상남도지편찬위원회, 『경상남도지(하)』, 경상남도 공보실, 1963. 12, 194쪽.

*임동권, 『한국민요집 V』, 집문당, 1980, 314쪽(710번). 제목 <시집살이요>(동래). / 김승찬 외, 『부산민요집성』, 세종출판사, 2002, 367쪽.

*동래지편찬위원회, 『우리 고장 동래(동래지)』, 부산직할시 동래구, 1982, 16쪽. / 강서향토지발간추진위원회, 『강서향토지』, 동 발간위원회, 1988, 271쪽. / 김정구청, 『금정구지』, 소문출판인쇄사, 1991, 670쪽.

[동래구 민요 27]

과부 한탄가

사월이라 초파일 날
앞 집에도 관등 달고
뒷 집에도 관등 달고
어열프다 우리 낭군
어데 가고 관등 달 줄
모르르고.

돌키라도 망석돌은
둘이 쌍쌍 짝₁₎이 있고
구리 촛대 늦 촛대도
둘이 쌍쌍 짝이 있고

냉키라도 행장목은
둘이 쌍쌍 짝이 있고
짚은 산중 도래삭²⁾도
둘이 쌍쌍 마주 서고
챙이³⁾ 걸은 내 팔자야.

*₁₎ 짝=짝

*₂₎ 도래삭=도라지

*₃₎ 챙이=키

(1932年 7月 東萊郡 東萊邑 校洞 尹家和 口誦)

*경상남도지편찬위원회, 『경상남도지(하)』, 경상남도 공보실, 1963. 12, 194쪽.

*임동권, 『한국민요집Ⅳ』, 집문당, 1979, 236쪽(546번). 제목 <과부요>(고성). / 김승찬 외, 『부산 민요집성』, 세종출판사, 2002, 368쪽.

*동래지편찬위원회, 『우리 고장 동래(동래지)』, 부산직할시 동래구, 1982, 16쪽. / 강서향토지발 간추진위원회, 『강서향토지』, 동 발간위원회, 1988, 274쪽. / 김정구청, 『금정구지』, 소문출판인쇄사, 1991, 666쪽.

[동래구 민요 28]

죽은 사람 뒤에

팽풍에 기린 달기
해치거든 오말른가
갱솔에 안친 달기
해치거든 오말른가
삽짝거래 고목나무
잎 패거든 오말른가
부뜨막에 흘린 밥티
씻 나거든 오말른가.
저성 질이 질 걸으면
오고 갈 이 하리마는
한분 가니 다시 오나
저성이 어데든고
대문 전이 저승일네

건네 산이 저승일네.

땃장으로 집을 삼고
송묵으로 울을 삼고
개똥버리 초롱 삼고
임제 없는 저 산천에 누웠으니
어느 친구 날 찾으리.

석삼년 대였시니
살은 썩어 물이 대고
뼈는 썩어 흘₁₎이 대고.

*₁₎ 흘=흙

(1932年 7月 東萊郡 東萊邑 校洞 尹家和 口誦)

*경상남도지편찬위원회, 『경상남도지(하)』, 경상남도 공보실, 1963. 12, 194~5쪽.

*임동권, 『한국민요집 II』, 집문당, 1974, 281쪽(877번). 제목 <청상요>(고성). / 김승찬 외, 『부산 민요집성』, 세종출판사, 2002, 368~9쪽.

[동래구 민요 29]

까치를 보고

깐창아 깐창아 어데 가노
준지₁₎ 간다
멋하러 가노 새 잡으러 간다
한 마리 주가 끊어 묵자
두 마리 주가 찌지₂₎ 묵자
찌지 낭게 불이 붙어
오룩쫓룩 박쫓룩
승어 새끼 납쫓룩
허허허

* 아이들 노래

*₁₎ 준지= 晉州

*₂₎ 찌지=지저

(1930年 7月 東萊郡 東萊邑 校洞 尹家和 口誦)

*경상남도지편찬위원회, 『경상남도지(하)』, 경상남도 공보실, 1963. 12, 195쪽.

*임동권, 『한국민요집 V』, 집문당, 1980, 238쪽(676번). 제목 <까치요>(부산). / 김승찬 외, 『부산 민요집성』, 세종출판사, 2002, 369쪽.

[동래구 민요 30]

나부야

나부야 나부야 범나부야

무슨 꽃이 좋다노

따드랑땅땅 땅질래

맨드래미 봉숭아

봉숭아꽃이 좋다네.

(1932年 6月 東萊郡 東萊邑 校洞 金小龍 母親 口誦)

*경상남도지편찬위원회, 『경상남도지(하)』, 경상남도 공보실, 1963. 12, 195쪽.

*임동권, 『한국민요집 V』, 집문당, 1980, 256쪽(776번). 제목 <나비요>(부산). / 김승찬 외, 『부산 민요집성』, 세종출판사, 2002, 369쪽.

*부산직할시 동래구청 문화공보실, 『동래의 역사』, 부산직할시 동래구청, 1990, 205쪽.

[동래구 민요 31]

내 하나는 옥단천이

제비 제비 초록 제비

능금 한쌍 물어다가

대골 안에 집을 지야

그 집 짓던 삼년 만에

울어무이¹⁾ 준지댁이²⁾

울울애비 앵기별상

내 하나는 옥단천이³⁾

*¹⁾ 울어무이=우리 어머니

*²⁾ 준지댁=플州宅

*₃) 천이=처녀

(1930年 7月 東萊郡 東萊邑 校洞 尹家和 口誦)

*경상남도지편찬위원회, 『경상남도지(하)』, 경상남도 공보실, 1963. 12, 195쪽.

*김승찬 외, 『부산민요집성』, 세종출판사, 2002, 371쪽.

[동래구 민요 32]

과부 노래

눅었으니 잼₁)이 오나
앞았으니 잼이 오나
임도 잼도 아니 오네.

늙은 가부₂)는 담배질
젊은 가부는 한심질
한심 끝에는 도망질
서방 얻어 갔단다.

*₁) 잼=잠

*₂) 가부=과부

(1930年 7月 東萊郡 東萊邑 校洞 尹家和 口誦)

*경상남도지편찬위원회, 『경상남도지(하)』, 경상남도 공보실, 1963. 12, 195쪽.

*임동권, 『한국민요집 II』, 집문당, 1974, 281쪽(875번). 제목 <청상요>(고성). / 김승찬 외, 『부산민요집성』, 세종출판사, 2002, 367~8쪽.

[동래구 민요 33]

모심기 노래(1)

【모 찢 때】

일월이 돌아 와도
이슬 깰줄 모르더라.
맹꽁대라 꺾어 들고

이슬 틀러 어서 가자.
한강에 모를 부어
그 모 찌기 낭감하다.
하늘에 목해 갈아
그 목해 따기도 낭감하다.

【거진 다 찌 갈 때】
밀치라 달치라
모도 잡아 훑치라.

【모 심을 때】
이 물끼 저 물끼 헐어 놓고
주인네 양반 어데 갔노.
문어야 대전복 손에 들고
첩의야 방에 놀러 갔네.

저게 가는 저 구름은
어떤 신선 타고 가노.
웅천¹⁾이라 천자봉²⁾에
노던 신선 타고 가네.

이 논뼤이 모를 송거
금실금실 영화로다.
우리 부모 산소 등에
솔을 송거 영화로다.

서울이라 양대 밭에
금 빼들키 알을 낳아
그 알 한 개 주았으면
금년 과거 내 할꾸로.

담장 밖에 화초 송가
담장 밖을 휘자졌네.
질 가는 호걸 양반

그 꽃 보고 질 안가네.

준지 덕산 안 사랑에
장구 뜨는 처남손아.
너거 누우 애궁일사
남정 호걸 나를 주마.

임당수 풍랑 전에
심낭자가 살아 오고.
하룡도 좁은 길에
조맹덕이 살아 오네.

쫄네야 꽃을 대치 내여
임의야 버선에 볼을 걸어
임을 보고 버선 보니
임 줄 뜻이 전혀 없네.

꽃은 꺾어 머리 꽃고
잎은 따서 채강 불고.
송기 따서 짹지 잡고
우리 부모 찾아 가네.

저 건너라 노양강에
개기 낚는 선녀들아
이내 일신 건지다가
육지 밖에 놓아 주소.

준지 덕산 엮은 독에
쌀로 썩힌 과하주야
팔모 깨끼 유리 잔에
나부 한쌍 날아 드네.

서울이라 유담 안에
해 달 뜨는 구경 가자.

상주 땅 공걸 못에
잉어 노는 구경 가자.

애기야 도령님 땡이 들어
송금시아 배 깎아라.
송금시아 깎은 배는
맛도 좋고 연할네라.

사공아 배 둘리라.
우리 동생 보러 갈네.
너거 동생 무슨 재³⁾로
절두섬⁴⁾에 기양⁵⁾ 갔노.

점심아 시키던 술노야
어디 만치나 오는고.
이등 저등 건너다가
침에 걸려 더디던가.

*₁₎ 웅천=熊川. 慶尙南道 昌原郡內의 地名.

*₂₎ 천자봉=天子蜂. 昌原郡과 金海郡 接境에 있는 山.
이 蜂에 대하여 朱天子의 傳說이 있다.

*₃₎ 재=죄

*₄₎ 절두섬=絶影島

*₅₎ 기양=귀양

*경상남도지편찬위원회, 『경상남도지(하)』, 경상남도 공보실, 1963. 12, 195~197쪽.

*동래지편찬위원회, 『우리 고장 동래(동래지)』, 부산직할시 동래구, 1982. 17쪽. / 강서향토지발간추진위원회, 『강서향토지』, 동 발간위원회, 1988. 272쪽. / 부산직할시 동래구청 문화공보실, 『동래의 역사』, 부산직할시 동래구청, 1990. 207~208쪽. / 김정구청, 『금정구지』, 소문출판인쇄사, 1991. 672쪽. 단, 위에서 “저 건너라 …… 연할네라” 부분이 빠져 있음.

【점심 때】

새별 걸은 저 밭골이
반달 걸이 떠나 오네.
너가 무슨 반달인고.

초생달이 반달이지.

【점심이 더디 올 때】

미나리라 송금체라
맛 본다고 더디더라.
설흔 시강 정지¹⁾ 안에
도니라고 더디더라.

*¹⁾ 정지=부엌

【점심 먹고 나서 오후】

벨이가 달 걸으면
어느 골시 어두우리.
복성이 꽃마중²⁾ 열면
어느 섬에 다 담으리.

서울이라 낭기 없어
쭉쭉 비녀 다리 놓아
그 다리를 건널라면
쿵쿵걸사 소리나네.

알금삼삼 곱은 처자
달성이 고개 넘나든다.
오면 가면 뿔만 비고³⁾
장부 간장 다 녹인다.

쭈네야 꽃은 장개 가고
석노꽃은 상객 가네.
만인간아 웃지마라
시종자를 바래 간다.

한재 나락 모를 부아
잡나락이 반이로다.
성 안에 첩을 두니
기성 첩이 반이로다.

상추 산칸 흐른 물에
뱀추 씻는 저 처자야
앞은 따서 강지⁴⁾ 담고
쫄긴 뜯어 나를 주오.

저게 가는 저 처자는
속옷 가래 풀고 가네.
풀고 가나 놓고 가나
수재에게 제관이요⁵⁾.

주천당 모랭이 돌아 가니
아니 묵어도 술내 나네.
시녀야 고름 안 고름에
고름마중 상내 난다.

유자캉 석노캉 근원 좋아
한 덩거리 둘 열렸네.
처녀 총각 근원 좋아
외통 베게 둘 비였네.

저녁 묵고 썩 나서니
올명당 안에서 손을 치네.
손 치는 데는 밤에 가고
주모야 집에는 낮때 감세.

해빌놈 해빌놈 꼬장지바지
궁딩이 시럽아 못살겠네.
덮어 줌세 덮어 줌세
한산 소매 덮어 줌세.

모시야 적삼 안섶 안에
연적같은 저젓 보소.
담배씨 만치만 보고 가소

많이 보면 병 납니다.

비 묻었네 비 묻었네.
진주 덕산 비 묻었네.
그 비가 비 아닐나
만백성의 눈물ियो.

오늘 해가 다 졌는가
산골마다 연개 나네.
우릿 임은 어디 가고
연개 널줄 모르는고.

청사 초롱 불 밝혀라
청사 초롱 임의 방에
임도 눕고 나도 눕고
저 불 끝이 누 있을고.

해 다 지고 저문 날에
우인 행상 떠나 가노.
이태백이 본처 앓고
이별 행상 떠나 가네.

서울 갔던 선보네야
우리 선보 오시던가
오기야 온다마는
칠성판에 실려 오데.

상주 땅 공걸 못에
연밥 따는 저 큰 아가
연밥 줄밥 내 따 주께
이내 말삼 듣고 가소.

강남에 강대추
앙글 방글 열렸네.

충청도 중복성

주지가 층층 열렸네.

*₁) 벨=별(星)

*₂) 마중=마다

*₃) 비고=보이고

*₄) 강지=광주리

*₅) 제관이요=상관이요

【해가 다 저 갈 때】

매자구 잠 잘 땀가.

난들산이 오를땀가.

썰썩리 어데 갔소.

썰서리 산에 갔네.

있으시면 볼랐더니

오거들랑 보고 가소.

(1932年 7月 東萊郡 東萊邑 校洞 尹家和 口誦)

*경상남도지편찬위원회, 『경상남도지(하)』, 경상남도 공보실, 1963. 12, 197~198쪽.

*김사엽·최상수·방종현, 『조선민요집성』, 정음사, 1948, 173~6쪽. / 김승찬 외, 『부산민요집성』, 세종출판사, 2002, 326~31쪽.

[동래구 민요 34]

모심기 노래(2)

남창 남창 배루 가에

무정하다 울 오라바

나도 죽어 남자 되어

처자 곤석¹⁾ 구할네라.

〔후렴〕 이후 이후 이후

머리 좋고 실한 처자

울뽕 낭게²⁾ 앉아 우네.

울뽕 달뽕 내 따 주께

시간 살이 나캉³⁾ 사자.
〔후렴〕 이후 이후 이후

알곰살곰 곱은 처자
눌어라 떴다 금청주야
팔모로 깎아 사기잔에
꽃을 꺾어 안주 놓고
처자 할량이 권주하네.

*₁₎ 곤석=권석(眷屬). 한 집안 식구

*₂₎ 낭계=남에, 나무에

*₃₎ 나캉=나하고

(1934年 8月 東萊郡 東萊邑 樂民洞 鄭大木 夫人 口誦)

*경상남도지편찬위원회, 『경상남도지(하)』, 경상남도 공보실, 1963. 12, 198쪽.

*김승찬 외, 『부산민요집성』, 세종출판사, 2002, 364쪽.

[동래구 민요 35]

쌍가락지 노래

쌍금쌍금 쌍까락지
주석질로 땀아 내여
먼데 보니 달일네라
잘에 보니 처잘네라.

그 처자야 자는 방에
숨 소리도 들일레라
청도 복성 오라부님
거짓 말쌈 말아시소
나안풍이 들이 부니
풍지 떠든 소릴네라.

조고마는 조피 방에
비상불을 피워 놓고

맹지 수건 목을 매고
자는 듯이 죽고지라.

(1932年 8月 東萊郡 東萊邑 校洞 尹家和 口誦)

- *경상남도지편찬위원회, 『경상남도지(하)』, 경상남도 공보실, 1963. 12, 198~9쪽.
- *김사엽 · 최상수 · 방종현, 『조선민요집성』, 정음사, 1948, 161쪽. / 김승찬 외, 『부산민요집성』, 세종출판사, 2002, 341쪽.
- *부산직할시 동래구청 문화공보실, 『동래의 역사』, 부산직할시 동래구청, 1990, 199쪽.

[동래구 민요 36]

초록제비(1)

제비 제비 초록 제비
나부 나부 분홍 나부
은금보화 물어다가
좋은 터에 집을 지여
앞 문에는 석류 정자
뒷문에는 국화 정자
그 집 짓던 삼년만에
우리 아베 서울 가서
알성 급제 하더라네.

(1932年 8月 東萊郡 東萊邑 校洞 金小龍 母親 口誦)

- *경상남도지편찬위원회, 『경상남도지(하)』, 경상남도 공보실, 1963. 12, 199쪽.
- *김사엽 · 최상수 · 방종현, 『조선민요집성』, 정음사, 1948, 153쪽. / 김승찬 외, 『부산민요집성』, 세종출판사, 2002, 340쪽.
- *부산직할시 동래구청 문화공보실, 『동래의 역사』, 부산직할시 동래구청, 1990, 201~202쪽.
/ 김정구청, 『금정구지』, 소문출판인쇄사, 1991, 670쪽.

[동래구 민요 37]

꽃 노래

이때 저때 어느 때뇨

춘삼월 호시절에
우리아름 생신 때에
술이 좋아 금청주요
이 술 한 잔 잡우시고
지상 절에 돌아 앉아
노래 한 장 지어 주소.

무슨 노래 지어 주꼬
꽃 노래를 지어 주소.

미나리아 시핀 꽃은
객사뜰에 총총하고.
묵고 남은 도래꽃은
야산에라 히롱하고.
도리 도리 접시꽃은
장독간에 히롱하고.
울긋 볼긋 봉숭아는
장독간에 히롱하고.
주묵 곁은 목단꽃은
사랑 앞에 히롱하고.
들기 좋은 조롱꽃은
듬뿍 마중 히롱하고.
뽕득 뽕득 일산 때는
곡살기도 더뎛도다.

(1933年 8月 東萊郡 東萊邑 壽安洞 李守鎭 報)

*경상남도지편찬위원회, 『경상남도지(하)』, 경상남도 공보실, 1963. 12, 199쪽.

*김사엽 · 최상수 · 방종현, 『조선민요집성』, 정음사, 1948, 137쪽. / 임동권, 『한국민요집 I』, 집문당, 1972, 147쪽(564번, 동래). / 김승찬 외, 『부산민요집성』, 세종출판사, 2002, 338쪽.

*부산직할시 동래구청 문화공보실, 『동래의 역사』, 부산직할시 동래구청, 1990, 202쪽. / 김정구 청, 『금정구지』, 소문출판인쇄사, 1991, 671쪽.

[동래구 민요 38]

첩의 노래

달이 떴네 달이 떴네
홍살문에 달이 떴네.
저 달이 누 달이고
양산 원님 달일네라.

양산 원님 어데 가고
달 떴는 줄 모르난고.
첩으 방에 놀러 갔네.
양산¹⁾ 원님 놀러 갔네.

첩의 집은 꽃 밭이고
본댁집은 칠 밭이라.
밤으로는 자러 가고
낮으로는 놀러가네.

큰 어머님 거동 바라
첩으 집에 가니칸에
첩으 년의 거동 바라
잇몸으로 볼진대는
당다실로 엮은 듯고
선수박씨 깎은 듯고
눈섭 터는 어이 그리
시부시울 기른 듯고
여자 눈에 저만할 때
남자 눈에 예른할까.

첩으 년의 거동바라.
꽃방시기 화방시기
화죽 설대 내여 놓고
설하주에 담배 담고
큰 어머님 역앞이소.

어라 잇년 물러 가라

썩은 짚단 깔고 앉아
서른 진정 하고 갈네.
*삼 삼을 때 부른다.
*₁₎ 양산=梁山

(1932年 8月 東萊郡 東萊邑 樂民洞 鄭大木 夫人 口誦)

*경상남도지편찬위원회, 『경상남도지(하)』, 경상남도 공보실, 1963. 12, 200쪽.
*김사엽 · 최상수 · 방종현, 『조선민요집성』, 정음사, 1948, 53~4쪽. / 김승찬 외, 『부산민요집성』, 세종출판사, 2002, 333~4쪽.

[동래구 민요 39]

난감 춘이

춘아 춘아 난감 춘아
너 까락지 누 주드냐.
좌수 별감 주시드네.
무엇 보고 주시드냐
인물 보고 주시드네.

앉거라 인물 보자
서거라 거래₁₎ 보자
해끗 떠라 눈매 보자
빵끗 웃어라 입 매시 보자.
*₁₎ 거래=자태

(1931年 8月 東萊郡 東萊邑 校洞 尹家和 口誦)

*경상남도지편찬위원회, 『경상남도지(하)』, 경상남도 공보실, 1963. 12, 200쪽.
*김사엽 · 최상수 · 방종현, 『조선민요집성』, 정음사, 1948, 228~9쪽. / 김승찬 외, 『부산민요집성』, 세종출판사, 2002, 341~2쪽.

[동래구 민요 40]

판 장사 판을 지고

판 장사 판을 지고
판판절사 넘어 간다.
독 장사 독을 지고
독독독독 넘어 간다.

(1927年 8月 東萊郡 東萊邑 校洞 尹家和 口誦)

*경상남도지편찬위원회, 『경상남도지(하)』, 경상남도 공보실, 1963. 12, 200쪽.

*김사엽·최상수·방종현, 『조선민요집성』, 정음사, 1948, 223쪽.

[동래구 민요 41]

장구 장구 보장구야

장구 장구 양장구야
장구 장구 보장구야
새끼손에 물방구야
돌에 붙은 따깍이야
집치국에 꼭가지야.

(1930年 8月 東萊郡 東萊邑 校洞 尹家和 口誦)

*경상남도지편찬위원회, 『경상남도지(하)』, 경상남도 공보실, 1963. 12, 200쪽.

*김사엽·최상수·방종현, 『조선민요집성』, 정음사, 1948, 219쪽.

[동래구 민요 42]

초록제비(2)

제비 제비 초록 제비
능금 한 쌍 물어다가
시영 땅에 집을 지야
그 집 짓던 삼년만에
울아배는 서울 양반
울어매는 진주댁이
울오라배 책칼 선배

내 하나만 비단 처자.

(1934年 8月 東萊郡 東萊邑 壽安洞 李太壽 報)

*경상남도지편찬위원회, 『경상남도지(하)』, 경상남도 공보실, 1963. 12, 200~1쪽.

*김사엽·최상수·방종현, 『조선민요집성』, 정음사, 1948, 153쪽. / 김승찬 외, 『부산민요집성』, 세종출판사, 2002, 340쪽.

[동래구 민요 43]

새는 새는 낭게 자고

새는 새는 낭게 자고
지는 지는 궁게 자고
각시 각시 새 각시는
신랑 품에 잠을 자고.
우리 같은 아이들은
엄마품에 잠을 자고.

새는 새는 낭게 자고
지₁₎는 지는 궁게 자고
돌에 붙은 따깍이야
낭게 붙은 솔방울아
나는 나는 어데 자꼬
우리 엄마 품에 자지.

*₁₎ 지=쥐

(1932年 8月 東萊郡 東萊邑 校洞 洪甲子 口誦)

*경상남도지편찬위원회, 『경상남도지(하)』, 경상남도 공보실, 1963. 12, 201쪽.

*김사엽·최상수·방종현, 『조선민요집성』, 정음사, 1948, 219쪽. / 김승찬 외, 『부산민요집성』, 세종출판사, 2002, 345쪽.

*동래지편찬위원회, 『우리 고장 동래(동래지)』, 부산직할시 동래구, 1982, 16쪽. / 강서향토지발간추진위원회, 『강서향토지』, 동 발간위원회, 1988, 271쪽. / 부산직할시 동래구청 문화공보실, 『동래의 역사』, 부산직할시 동래구청, 1990, 202쪽. / 금정구청, 『금정구지』, 소문출판인쇄사, 1991, 670쪽.

[동래구 민요 44]

가자 가자 감나무야

가자 가자 감나무야
오자 오자 옷나무야
시리 밑에 곰백이야
니가 없어 못 놀겠나
내엘 모레 장에 가서
돌문둥이 하나 얻어 주께.

(1932年 8月 東萊郡 東萊邑 校洞 洪甲子 口誦)

*경상남도지편찬위원회, 『경상남도지(하)』, 경상남도 공보실, 1963. 12, 201쪽.

*김사엽·최상수·방종현, 『조선민요집성』, 정음사, 1948, 219쪽. / 김승찬 외, 『부산민요집성』, 세종출판사, 2002, 346쪽.

*동래지편찬위원회, 『우리 고장 동래(동래지)』, 부산직할시 동래구, 1982, 16쪽. / 강서향토지발간추진위원회, 『강서향토지』, 동 발간위원회, 1988, 274쪽. / 부산직할시 동래구청 문화공보실, 『동래의 역사』, 부산직할시 동래구청, 1990, 205쪽. / 금정구청, 『금정구지』, 소문출판인쇄사, 1991, 668쪽.

[동래구 민요 45]

주머니

대천지라 한 바다에
뿌리 없는 낭글 송가
그 낭게 가지 뺏어
열두 가지 뺏었다소.
그 낭게 앞이 피여
삼백하고 두일일네.
그 낭게 열매 열어
해도 열고 달도 열고
햐랑 잡아 곁을 대고
달랑 잡아 안을 대고
쌍무지개 선을 둘러

샛별로 종층 걸어
은절 늦절 끈을 끼여
서울이라 치치 달아
남대문에 걸어 노니
이정승네 말 아들이
펼적 뛰여 내달으며
그 주무이¹⁾ 누가 졌노²⁾
그 주무이 지은 솜씨
은도 천냥 돈도 천냥
수천냥이 헐타마는
다만 백냥 받으라요.
*₁₎ 주무이=주머니
*₂₎ 누가 졌노=누가 지었나

(1934年 8月 東萊郡 東萊邑 壽安洞 李太壽 報)

*경상남도지편찬위원회, 『경상남도지(하)』, 경상남도 공보실, 1963. 12, 201쪽.

*김사엽·최상수·방종현, 『조선민요집성』, 정음사, 1948, 147~8쪽. / 김승찬 외, 『부산민요집성』, 세종출판사, 2002, 339~40쪽.

[동래구 민요 46]

담바구 노래

구야 구야 담바구야
너으 나라 어똥길래
대한 나라 나왔느냐
우리나라도 좋거니와
대한나라 유람 나와
담배씨 한 줌 가지고 와서
건너 편 밭대기
이리 저리 숨어 놓고
낮이면 찬 냉수 주고
밤이면 찬 이슬 맞혀
절읻¹⁾이 점점 나타나서

속잎이 솟아 나서
은장두 드는 칼로
어석 어석 빗어 내니
총각의 삼지 한 삼지요
처자의 삼지 한 삼지라
청동화로 백탄숯을
이글이글 피아 놓고
소상 반죽 열두 마디
동래부죽 질기 맞차
담배 한 대 묵고 나니
목구녕 안에 설안개 치고
또 한 대를 묵고 나니
백구 밑에 요분이 난다.

*1) 절잎=겉잎

(1934年 8月 東萊郡 東萊邑 福泉洞 鄭鳳浩 報)

*경상남도지편찬위원회, 『경상남도지(하)』, 경상남도 공보실, 1963. 12, 201~2쪽.

*김사엽·최상수·방종현, 『조선민요집성』, 정음사, 1948, 142~3쪽. / 김승찬 외, 『부산민요집성』, 세종출판사, 2002, 339쪽.

*동래지편찬위원회, 『우리 고장 동래(동래지)』, 부산직할시 동래구, 1982, 16쪽. / 강서향토지발간추진위원회, 『강서향토지』, 동 발간위원회, 1988, 273쪽. / 부산직할시 동래구청 문화공보실, 『동래의 역사』, 부산직할시 동래구청, 1990, 198쪽. / 김정구청, 『금정구지』, 소문출판인쇄사, 1991, 665쪽.

[동래구 민요 47]

찔레꽃

찔레꽃을 꺾어다가
임의 보선 잔 볼 건다.
임을 보고 버선 보니
임 줄 뜻이 전혀 없네.
임아 임아 설워 마소
노래 끝이 그렇다오.

(1934年 8月 東萊郡 東萊邑 福泉洞 鄭鳳浩 報)

*경상남도지편찬위원회, 『경상남도지(하)』, 경상남도 공보실, 1963. 12, 202쪽.

*김사엽 · 최상수 · 방종현, 『조선민요집성』, 정음사, 1948, 137쪽. / 김승찬 외, 『부산민요집성』, 세종출판사, 2002, 338쪽.

[동래구 민요 48]

꽃 노래

이때 저때 어느 때냐
춘삼월 호시 때라
울아부님 생신 때라
술은 좋아 금청주요
그 술 묵고 치정 끝에
노래 한 장 불러 보자.

아람답다 기생꽃은
방자 손을 히들리고.
설수갱빈 피리꽃은
우수갱빈 마주 보고.
미나리아 시핀꽃은
객사뜰에 총총하고.
구월이라 국화꽃은
구시월로 마저 피고.
음지마중 함박꽃은
뱃들가바 수심일네.

(1933年 8月 東萊郡 東萊邑 樂民洞 崔福女 口誦)

*경상남도지편찬위원회, 『경상남도지(하)』, 경상남도 공보실, 1963. 12, 202쪽.

*김사엽 · 최상수 · 방종현, 『조선민요집성』, 정음사, 1948, 133쪽. / 『한국민요집Ⅳ』, 315쪽(713번, 동래). / 김승찬 외, 『부산민요집성』, 세종출판사, 2002, 337쪽.

[동래구 민요 49]

각설이 타령

一字나한장 들고바－
正月이라 大보름
온갖世上 맛나보고
二스字한장 들고바－
二月이라 梅花꽃
각씨태룡(타령) 하기조타
三스字나한장 들고바－
三月이라 櫻桃꽃
處子각씨 맛보네
四스字한장 들고바－
四月이라 初八日
觀燈하기 조흘시고
五字나한장 들고바－
五月이라 端午날
處子각씨 나라든다
六字한장 들고보니
각설이時代가 이째요
七字한장 들고보니
沐浴하는 處子몸
이레도저레도 조쿠나
八字한장 들고바－
八月이라 팔자타령
어이할고 이자식
九字한장 들고바－
九月이라 국화꽃
處子생각 절로난다
十字한장 들고바－
十月이라 각설이
요리조리 달아났다

*김소운, 『언문조선구전문요집』, 동경: 제일서방, 1933, 257~258쪽(903번).⁴⁸²⁾

482) 이 민요는 손진태가 당시 동래(구 동래군 구포면)에서 직접 채집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김소운, 『언문조선구전문요집』, 259쪽.

[동래구 민요 50]

각설이 타령(2)

일짜 한 장 들고 바
정월이라 대보름
온갖 세상 만나 보고.

이짜 한 장 들고 바
이월이라 매화꽃
각시태릉 하기 좋다.

삼짜 한 장 들고 바
삼월이라 앵도꽃
처자 각시 맛보네.

사짜 한 장 들고 바
사월이라 초파일
관등하기 좋을시고.

오짜 한 장 들고 바
오월이라 단옷 날
처자 각시 날아 든다.

육자 한 장 들고 보니
각설이 시대가 이 때요.

칠짜 한 장 들고 보니
목욕하는 처자 몸
이래도 저래도 좋구나.

팔짜 한 장 들고 봐
팔월이라 팔짜 타령

어이 할꼬 이 자식.

구짜 한 장 들고 봐
구월이라 국화꽃
쳐자 생각 절로 난다.

십짜 한 장 들고 바
시월이라 각설이
요리 조리 달아난다
품파 품파 품파파.

(1928年 8月 東萊郡 東萊邑 校洞 金三龍 口誦)

*경상남도지편찬위원회, 『경상남도지(하)』, 경상남도 공보실, 1963. 12, 202~3쪽.

*김사엽·최상수·방종현, 『조선민요집성』, 정음사, 1948, 247쪽. / 김승찬 외, 『부산민요집성』, 세종출판사, 2002, 343~4쪽.

*강서향토지발간추진위원회, 『강서향토지』, 동 발간위원회, 1988, 275쪽. / 부산직할시 동래구청 문화공보실, 『동래의 역사』, 부산직할시 동래구청, 1990, 200~201쪽. / 김정구청, 『금정구지』, 소문출판인쇄사, 1991, 668쪽.

[동래구 민요 51]

지신 밍기 노래

어혈사 지신아
지신 지신 울리자.
이집 짓던 대목은
어느 대목이 지었노.
각성바지 중에서
그 중에 한 대목이 지었지.
강남서 나온 제비
솔씨 한데 물어다가
조선 천지 흘었더니
한 장목이 되었구나.
앞집에 김대목아

덧집에 박대목아
 설은시 가지 연장 망태 둘러 메고
 서울 앞산 조남산
 서울 덧산 삼각산
 절라도 지리산
 나무 한 개 작발하니
 까막 까치 집을 지야
 그 나무 부정하다.
 또 한 개를 작발하니
 날새 들새 집을 지야
 그 나무도 부정하다.
 황해도 구월산서
 나무 한 개 작발하야
 굽은 나무 굽다듬고
 잣인 나무 잣다듬어
 이 집을 지였고나.
 사모에 달 풍경아
 풍경 소리 요란하다.
 이 집 짓던 삼년만에
 아들이 나면 효자가 나고
 딸이 나면 열녀가 나소.
 잡귀 잡신은 물 알로
 만복은 이 집으로.

(1931年 8月 東萊郡 東萊邑 樂民洞 鄭大木 口誦)

*경상남도지편찬위원회, 『경상남도지(하)』, 경상남도 공보실, 1963. 12, 203쪽.

*조선총독부, 『朝鮮の郷土娛樂』, 조선총독부, 1941, 207쪽.

*김사엽·최상수·방종현, 『조선민요집성』, 정음사, 1948, 199쪽. / 임동권, 『한국민요집 I』, 집문당, 1972, 93쪽(452번). 제목 <지신밧기요>(동래). / 김승찬 외, 『부산민요집성』, 세종출판사, 2002, 342~3쪽.

[동래구 민요 52]

치지나 칭칭 나네

치지나 칭칭 나네.
하늘에는 별도 많고
치지나 칭칭 나네.
 시내 갯빈엔 자갈도 많고
치지나 칭칭 나네.
헌 누더기 이도 많고
치지나 칭칭 나네.
남의 집 메누리 말도 많고
치지나 칭칭 나네.
이내 가슴에 수심도 많다
치지나 칭칭 나네.
좋고 좋고 좀도 좋다
치지나 칭칭 나네.

(1930年 8月 東萊郡 東萊邑 溫泉里 朴鍾玉 口誦)

*경상남도지편찬위원회, 『경상남도지(하)』, 경상남도 공보실, 1963. 12, 203쪽.

*김사엽·최상수·방종현, 『조선민요집성』, 정음사, 1948, 187쪽. 제목 <괘지나칭칭나네>(동래). / 임동권, 『한국민요집Ⅳ』, 집문당, 1979, 479쪽(1188번). 제목 <개지나칭칭>(동래).

*부산직할시 동래구청 문화공보실, 『동래의 역사』, 부산직할시 동래구청, 1990, 203쪽. / 김정구청, 『금정구지』, 소문출판인쇄사, 1991, 667쪽.

[동래구 민요 53]

호미 소리

에헤헤야 호매이로다.
이것 매고 걸시 매자
에헤헤야 호매이로다.
앞 이망에 구슬땀
에헤헤야 호매이로다.
뒷 잔등에 발골땀
에헤헤야 호매이로다.
좁은 골에 벼락치듯
에헤헤야 호매이로다.

어느 곳에 탕분치듯

(1930年 8月 東萊郡 東萊邑 溫泉里 朴鍾玉 口誦)

*경상남도지편찬위원회, 『경상남도지(하)』, 경상남도 공보실, 1963. 12, 203쪽.

*김사엽·최상수·방종현, 『조선민요집성』, 정음사, 1948, 204쪽. / 김승찬 외, 『부산민요집성』, 세종출판사, 2002, 332쪽.

[동래구 민요 54]

타작 노래(1)

영해야 어허허
영해야 이 보리가
영해야 양반의 보링가
영해야 새애미¹⁾도 질다.
영해야 어허허
영해야 이 보리가
영해야 깨꾸리 보링가
영해야 폴짝 폴짝
영해야 잘도 띤다.
영해야 어허허
이 보리가 중우 보링가
영해야 새애미도 몽글다
영해야 고만하고
영해야 마차²⁾ 보자.

*₁₎ 새애미=수염

*₂₎ 마차=끝내어

(1933年 8月 東萊郡 東萊邑 校洞 鄭順一 口誦)

*경상남도지편찬위원회, 『경상남도지(하)』, 경상남도 공보실, 1963. 12, 204쪽.

*김사엽·최상수·방종현, 『조선민요집성』, 정음사, 1948, 203쪽.

*부산직할시 동래구청 문화공보실, 『동래의 역사』, 부산직할시 동래구청, 1990, 201쪽. / 김정구 청, 『금정구지』, 소문출판인쇄사, 1991, 669쪽.

[동래구 민요 55]

타작 노래(2)

영해야 물러 서면
영해야 아저마시
영해야 짚을 주소.
영해야 쿵덩 쿵덩
영해야 때리 주소.
영해야 깨꾸리¹⁾ 보링가
영해야 훌쩍 훌쩍
영해야 새롱²⁾보링가
영해야 뿔고 뿔고
영해야 중 보링가
영해야 몽글도 몽글다.
영해야 양반 보링가
영해야 새애미도 질다.
영해야 잘도 한다.
영해야 때리 주소.
영해야 물러 서고
영해야 끝을 치소.
영해야 여기 바라
영해야 얼른 하고
영해야 술을 목자
영해야 때리 주소.

*₁₎ 잘된 보리의 모양

*₂₎ 못된 보리의 모양

(1934年 8月 東萊郡 東萊邑 樂民洞 尹在九 報)

*경상남도지편찬위원회, 『경상남도지(하)』, 경상남도 공보실, 1963. 12, 204쪽.

*김사엽·최상수·방종현, 『조선민요집성』, 정음사, 1948, 203~4쪽. / 김승찬 외, 『부산민요집성』, 세종출판사, 2002, 331~332쪽.

[동래구 민요 56]

놀림 노래

【머리 깎은 아이를 보고】

중대가리 풀¹⁾ 대가리

얻어 묵는 십 대가리

*¹⁾ 풀=팔

【중을 보고】

중 중 땡땡이 중

빌어 묵는 십대중

중 중 땡땡이 중

얻어 묵는 돌중.

【얹은 아이를 보고】

곰보 딱지 풀 딱지

딱지 딱지 풀 딱지

곰보 딱지 풀 딱지.

【이 빠진 아이를 보고】

웃 이 빠진 개오지

아랫 이 빠진 소오지.

【오줌 싼 아이를 보고】

살개 살개 오줌살개

살개 살개 똥살개

살개 살개 찹살개.

【성넨 아이를 보고】

달았네 달았네

갓방 윤디¹⁾가 달았네.

부았네 부았네

뎃방 윤디가 부았네.

*¹⁾ 윤디=인두

【싸움한 뒤】

조 놈의 자식 조래도
뱃가죽은 얇아도
미나리깡에 돌치네.

【우는 아이를 보고】

울램이 도꾸
필램이 장구
울면울면 안준다
안울면 준다.

【장님을 보고】

봉사 봉사 태봉사
아가리 딱딱 벌리라
열무짐치 들어 간다.

【왜놈을 보고】

일본 놈 꼬은 놈
시리 밑에 곰백이.

(筆者⁴⁸³)의 記憶; 東萊)

*경상남도지편찬위원회, 『경상남도지(하)』, 경상남도 공보실, 1963. 12, 204~205쪽.

*김사엽·최상수·방종현, 『조선민요집성』, 정음사, 1948, 232쪽. / 임동권, 『한국민요집 V』, 집문당, 1980, 411쪽(1261번) 일부. 제목 <곰보요>(통영) / 김승찬 외, 『부산민요집성』, 세종출판사, 2002, 350~351쪽.

[동래구 민요 57]

질로 질로 가다가

질로 질로 가다가
돈 한푼을 주았네.
그 돈 한푼 가지고
떡 하나를 사 갖고

483) 필자(筆者)는 최상수(崔常壽)를 말함. 이하 동일함.

묵고 나니 똥이네
끼고 보니 방구네.

(筆者의 記憶: 東萊)

*경상남도지편찬위원회, 『경상남도지(하)』, 경상남도 공보실, 1963. 12, 205쪽.

*김사엽 · 최상수 · 방종현, 『조선민요집성』, 정음사, 1948, 229쪽. / 김승찬 외, 『부산민요집성』, 세종출판사, 2002, 349쪽.

*동래지편찬위원회, 『우리 고장 동래(동래지)』, 부산직할시 동래구, 1982, 17쪽. / 강서향토지발간추진위원회, 『강서향토지』, 동 발간위원회, 1988, 274쪽. / 부산직할시 동래구청 문화공보실, 『동래의 역사』, 부산직할시 동래구청, 1990, 204쪽. / 금정구청, 『금정구지』, 소문출판인쇄사, 1991, 668쪽.

[동래구 민요 58]

어데꺼정 왔노

어데꺼정 왔노
안중 안중 멀었다.
어데꺼정 왔노
도랑 건너 왔다.
어데꺼정 왔노
샅짜꺼정 왔다.
어데꺼정 왔노
마루꺼정 왔다.
어데꺼정 왔노
구들목게 왔다.

(筆者의 記憶: 東萊)

*경상남도지편찬위원회, 『경상남도지(하)』, 경상남도 공보실, 1963. 12, 205쪽.

*김사엽 · 최상수 · 방종현, 『조선민요집성』, 정음사, 1948, 229쪽. / 김승찬 외, 『부산민요집성』, 세종출판사, 2002, 370쪽.⁴⁸⁴⁾

[동래구 민요 59]

484) 이외 김소운, 『언문조선구전민요집』(제일서방, 1933), 621쪽(2259번). ‘蔚山邑內 鄭寅燮 採錄’과 『한국민요집 I』, 181쪽(636번, 안동)과 매우 유사.

동독깨미

동독깨미 놀이 하자
동독깨미 살림 사자.
돌 찾아서 술을 걸고
흘 파서 밥을 짓자.

(1930年 4月 東萊郡 東萊邑 校洞 洪甲子 口誦)

*경상남도지편찬위원회, 『경상남도지(하)』, 경상남도 공보실, 1963. 12, 205쪽.
*김사엽·최상수·방종현, 『조선민요집성』, 정음사, 1948, 229쪽. / 김승찬 외, 『부산민요집성』, 세종출판사, 2002, 349쪽.⁴⁸⁵⁾

[동래구 민요 60]

꼬꾸랑 할머니

꼬꾸랑 할마니가
꼬꾸랑 짝지를 짚고
꼬꾸랑 질을 가다가
꼬꾸랑 산에 올라 가서
꼬꾸랑 똥을 누니
꼬꾸랑 강생이가 와서
꼬꾸랑 똥을 묵다가
꼬꾸랑 짝지로
꼬꾸랑 할마니가 때려
꼬꾸랑깽깽 꼬꾸랑깽깽

(筆者의 記憶; 東萊)

*경상남도지편찬위원회, 『경상남도지(하)』, 경상남도 공보실, 1963. 12, 205쪽.
*김사엽·최상수·방종현, 『조선민요집성』, 정음사, 1948, 226쪽. / 임동권, 『한국민요집 V』, 집문당, 1980, 420쪽(1316번, 사천) <꼬꾸랑요>. / 김승찬 외, 『부산민요집성』, 세종출판사, 2002, 348쪽.
*동래지편찬위원회, 『우리 고장 동래(동래지)』, 부산직할시 동래구, 1982, 16쪽. / 강서향토지발

485) 이외 『한국민요집 V』, 집문당, 1980, 485쪽(1594번, 사천) <소꿉요>와 매우 유사.

간추진위원회, 『강서향토지』, 동 발간위원회, 1988, 275쪽. / 김정구청, 『금정구지』, 소문출판인쇄사, 1991, 666쪽.

[동래구 민요 61]

이바구 태바구

이바구 태바구 강태바구
강태 한 짐 짊어 지고
밀양 삼당 다 들어 간다.

(筆者의 記憶; 東萊)

*경상남도지편찬위원회, 『경상남도지(하)』, 경상남도 공보실, 1963. 12, 205쪽.
*김사엽 · 최상수 · 방종현, 『조선민요집성』, 정음사, 1948, 226쪽. / 김승찬 외, 『부산민요집성』, 세종출판사, 2002, 348~349쪽.

[동래구 민요 62]

치부라 칩도당

치부라 치부라 칩도당
덥우라 덥우라 덥도당.

(筆者의 記憶; 東萊)

*경상남도지편찬위원회, 『경상남도지(하)』, 경상남도 공보실, 1963. 12, 205쪽.
*김사엽 · 최상수 · 방종현, 『조선민요집성』, 정음사, 1948, 226쪽. / 김승찬 외, 『부산민요집성』, 세종출판사, 2002, 349쪽.

[동래구 민요 63]

이거리 저거리 각거리

이거리 저거리 각거리
청사맹건 도맹건
도오리 집치 장두깁

서울 양반 두양반
진주떡이 열석양
까마구 까우 양지 버리
범어 사시 노랜이 조지가
빵 탕 코 파.

(1926年 8月 東萊郡 東萊邑 校洞 崔甲壽 口誦)

*경상남도지편찬위원회, 『경상남도지(하)』, 경상남도 공보실, 1963. 12, 206쪽.

*김사엽·최상수·방종현, 『조선민요집성』, 정음사, 1948, 225쪽. / 김승찬 외, 『부산민요집성』, 세종출판사, 2002, 348쪽.

[동래구 민요 64]

알강달강 서울 가서

알강달강 서울 가서
밤을 한 대 받아다가
찰독 안에 넣어 노니
머리 깎은 새양지가
올라가며 다 까묵고
내려가며 다 까묵고
다든 두 개 남은 것을
정지에다 두었더니
덧집 할매 불 담으러 와서
또 까묵고
다든 하나 남은 것은
껍때기는 할매 주고
알키는 니캉 나캉 묵자
니캉 나캉, 묵자.

*₁₎ 니캉나캉=너와 나와⁴⁸⁶⁾

(1933年 8月 東萊郡 東萊邑 校洞 尹家和 口誦)

*경상남도지편찬위원회, 『경상남도지(하)』, 경상남도 공보실, 1963. 12, 206쪽.

486) 원문에 주석 번호 표시 없음(편저자 주).

*김사엽·최상수·방종현, 『조선민요집성』, 정음사, 1948, 223쪽. / 김승찬 외, 『부산민요집성』, 세종출판사, 2002, 347쪽.

*부산직할시 동래구청 문화공보실, 『동래의 역사』, 부산직할시 동래구청, 1990, 204쪽. / 김정구청, 『금정구지』, 소문출판인쇄사, 1991, 666쪽.

[동래구 민요 65]

바람아 바람아

바람아 바람아 불어라
때추야 때추야
너얼찌가라
아해야 아해야 조아라.
어른아 어른아 묵어라.

*₁₎ 너얼찌가라=떨어지거라⁴⁸⁷⁾

(筆者의 記憶; 東萊)

*경상남도지편찬위원회, 『경상남도지(하)』, 경상남도 공보실, 1963. 12, 206쪽.

*김사엽·최상수·방종현, 『조선민요집성』, 정음사, 1948, 223쪽. / 김승찬 외, 『부산민요집성』, 세종출판사, 2002, 370쪽.

[동래구 민요 66]

하늘천 따지

하늘천 따지
가마솥에 누른밥
누런밥 딸딸 볶아서
선생 한 그릇 쳐묵고
내 한그릇 잡숫고

(筆者의 記憶; 東萊)

*경상남도지편찬위원회, 『경상남도지(하)』, 경상남도 공보실, 1963. 12, 206쪽.

487) 원문에 주석 번호 표시 없음(편저자 주).

*김사엽·최상수·방종현, 『조선민요집성』, 정음사, 1948, 221쪽. / 김승찬 외, 『부산민요집성』, 세종출판사, 2002, 347쪽.

*동래지편찬위원회, 『우리 고장 동래(동래지)』, 부산직할시 동래구, 1982, 17쪽. / 강서향토지발간추진위원회, 『강서향토지』, 동 발간위원회, 1988, 274쪽. / 김정구청, 『금정구지』, 소문출판인쇄사, 1991, 667쪽.

[동래구 민요 67]

방구

우리 엄마 방구¹⁾는 고암 방구
우리 아바 방구는 야단 방구
우리 할배 방구는 호령 방구
우리 누부 방구는 앙살 발구
우리 동생 방구는 연지 방구
우리 매부 방구는 풍월 방구
이내 방구는 개랄²⁾ 방구

*₁₎ 방구=방귀

*₂₎ 개랄=달걀

(1933年 8月 東萊郡 東萊邑 溫泉里 朴鍾玉 口誦)

*경상남도지편찬위원회, 『경상남도지(하)』, 경상남도 공보실, 1963. 12, 206쪽.

*김사엽·최상수·방종현, 『조선민요집성』, 정음사, 1948, 221쪽. / 임동권, 『한국민요집 V』, 집문당, 1980, 422쪽(1330번) <방귀요>(사천). / 김승찬 외, 『부산민요집성』, 세종출판사, 2002, 336~7쪽.

*동래지편찬위원회, 『우리 고장 동래(동래지)』, 부산직할시 동래구, 1982, 16쪽. / 강서향토지발간추진위원회, 『강서향토지』, 동 발간위원회, 1988, 274쪽. / 부산직할시 동래구청 문화공보실, 『동래의 역사』, 부산직할시 동래구청, 1990, 209쪽. / 김정구청, 『금정구지』, 소문출판인쇄사, 1991, 668쪽.

[동래구 민요 68]

비야 비야 오지 마라

비야 비야 오지 마라

우리 세이¹⁾ 시집 간다
가마 문에 비 들치고
다홍 치매 어룽 진다.
*₁₎ 세이=형님

(1933年 8月 東萊郡 東萊邑 校洞 崔甲壽 口誦)

*경상남도지편찬위원회, 『경상남도지(하)』, 경상남도 공보실, 1963. 12, 206쪽.
*김사엽·최상수·방종현, 『조선민요집성』, 정음사, 1948, 220쪽. / 김승찬 외, 『부산민요집성』, 세종출판사, 2002, 347쪽.

[동래구 민요 69]

새야 새야

새야 새야 파랑새야
너의 엄마 어디 갔노
용상강에 배를 타고
쉬양강에 놀러 갔다
언제 시대 오실란가
꽃이 피고 잎이 피는
그 시대에 오실능가.

(筆者의 記憶; 東萊)

*경상남도지편찬위원회, 『경상남도지(하)』, 경상남도 공보실, 1963. 12, 206~7쪽. ‘필자(筆者)’는 최상수임.
*김사엽·최상수·방종현, 『조선민요집성』, 정음사, 1948, 219쪽. / 김승찬 외, 『부산민요집성』, 세종출판사, 2002, 346쪽.⁴⁸⁸⁾

[동래구 민요 70]

이산 저산

이산 저산 낭글 비여

488) 이외 『한국민요집 V』, 집문당, 1980, 284쪽(870번, 봉화) <새야새야요>와 매우 유사.

시내 시청 배를 모아
 허두 둥둥 한 바닥에
 구비 둥둥 띄여 놓고
 천상 노래 가더라소
 만상 노래 가더라소
 솟구대비 수만대야
 만수백대 울오라배
 서울이라 가실 적에
 가다가도 죽었거든
 이호방내 딸애기가
 백년 해로 맺았더니
 죽었다고 기빌 오니
 살았을 곳 또 있을까.
 딛 동산에 치치 달라
 석자 세치 맹지 수건
 목을 매여 늘어졌다.
 가다가도 죽었으니
 앞에 가는 바람새야
 디에 가는 구름새야
 우리 집 거리 가거들랑
 우리 부모께 소식 전케.
 우리 엄마 알기 대만
 치마 벗고 쫓아 올라.
 우리 아배 알기 대만
 버선 벗고 쫓아 올라.

(1934年 8月 東萊郡 東萊邑 壽安洞 金宅洙 母親 口誦)

*경상남도지편찬위원회, 『경상남도지(하)』, 경상남도 공보실, 1963. 12, 207쪽.

*김사엽·최상수·방종현, 『조선민요집성』, 정음사, 1948, 128~129쪽. / 『한국민요집 I』, 416쪽 (1678번). 제목은 <처자과부요>(동래). / 김승찬 외, 『부산민요집성』, 세종출판사, 2002, 336~337쪽.

[동래구 민요 71]

살이

살이 살이 살이 중에
무슨 살이 제일일꼬
콩살이₁₎는 입만 끌고
담살이₂₎는 배 고프고
시집 살이 속만 타고
양주 살이 제일 좋다.

*₁₎ 콩살이=콩포기 채로 뽑아서 구어 먹는 것.

*₂₎ 담 살이=고용 살이

(1930年 5月 東萊郡 東萊邑 校洞 尹炳三氏 口誦)

*경상남도지편찬위원회, 『경상남도지(하)』, 경상남도 공보실, 1963. 12, 208쪽.

*김사엽·최상수·방종현, 『조선민요집성』, 정음사, 1948, 83쪽. / 『한국민요집 V』, 집문당, 1980, 455쪽(1451번). 제목 <성희요>(공주)과 동일 민요. / 김승찬 외, 『부산민요집성』, 세종출판사, 2002, 335쪽.

[동래구 민요 72]

새매 처자

새매₁₎새매 공굴 새매
새매 처자 무정하다
내가 오야 무정하냐
초가 삼칸 높은 집에
눈이 멀어 무정하지.

*₁₎ 새매=우물(샘)

(1930年 5月 東萊郡 東萊邑 校洞 尹炳三氏 口誦)

*경상남도지편찬위원회, 『경상남도지(하)』, 경상남도 공보실, 1963. 12, 208쪽.

*김사엽·최상수·방종현, 『조선민요집성』, 정음사, 1948, 72쪽. / 김승찬 외, 『부산민요집성』, 세종출판사, 2002, 335쪽. 제목 <샘의 처자>.

[동래구 민요 73]

첩년 부고

하늘에다 베틀 놓고
구름 잡아 잉아 걸고
짚각 짚각 짜니카네
부고 한 장 들어 오네.
한 손으로 받아 들고
두 손으로 패애 보니
첩년 죽은 편지로다.
아따 곱년 잘 죽었다
윤디볼로 지질년이
담뱃볼로 지질년이
개기 반찬 갓춘 밥도
맛이 없어 못 묵더니
소곰에 밥도 달도 달다.

(1932年 12月 東萊郡 東萊邑 壽安洞 尹斗秉氏 口誦)

*경상남도지편찬위원회, 『경상남도지(하)』, 경상남도 공보실, 1963. 12, 208쪽.

*김사엽·최상수·방종현, 『조선민요집성』, 정음사, 1948, 53쪽. / 임동권, 『한국민요집Ⅱ』, 집문당, 1974, 296쪽(899번, 진주). / 김승찬 외, 『부산민요집성』, 세종출판사, 2002, 334~335쪽.
제목 <첩 부고>.

[동래구 민요 74]

상사병에 죽었더라

선달이라 그믐날에
편지 한 장 오랬더라
무슨 편지 오랬더니
첩년 죽은 편지더라.

웁다 그년 잘 죽었다
무슨 병에 죽었더냐
분홍 치마 발칠년이
상사병에 죽었더라.

(1930年 5月 東萊郡 東萊邑 校洞 尹炳三氏 口誦)

*경상남도지편찬위원회, 『경상남도지(하)』, 경상남도 공보실, 1963. 12, 208쪽.

*김사엽 · 최상수 · 방종현, 『조선민요집성』, 정음사, 1948, 50쪽. / 김승찬 외, 『부산민요집성』, 세종출판사, 2002, 367쪽.⁴⁸⁹⁾

*동래지편찬위원회, 『우리 고장 동래(동래지)』, 부산직할시 동래구, 1982, 16쪽. / 강서향토지발간추진위원회, 『강서향토지』, 동 발간위원회, 1988, 273쪽. / 김정구청, 『금정구지』, 소문출판인쇄사, 1991, 669쪽.

[동래구 민요 75]

셋별 액씨

우리 아바 서울양반
우리 엄마 진주댁이
우리 오빠 정기별장
우리 성님 옥당각시
나 하나는 셋별액씨.

(1933年 4月 東萊郡 東萊邑 校洞 洪甲子 口誦)

*경상남도지편찬위원회, 『경상남도지(하)』, 경상남도 공보실, 1963. 12, 208쪽.

*김사엽 · 최상수 · 방종현, 『조선민요집성』, 정음사, 1948, 35쪽. / 임동권, 『한국민요집Ⅲ』, 집문당, 1975, 715쪽. / 김승찬 외, 『부산민요집성』, 세종출판사, 2002, 346쪽.

[동래구 민요 76]

분통 같은 저 젓 바라

모시야 적삼 시적삼 안에
분통 같은 저 젓 바라
많이 보면 병 난다네
조금조금 보고 가자.

489) 이외 유사 민요로 『한국민요집 I』, 77쪽(392번)의 <길쌈노래>(제주)와 113쪽(482번)의 <첩요>(청양)가 있다. 본문에서 “첩년죽은”이 “씨앗죽은”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사설은 같다.

총각 총각 손목 놓게
질상사 적삼이 등 나간다
질상사 한자에 한 냥¹⁾해도
임 적삼이 내 떠 주마.

도리 도리 샷갓 집에
연기 풀숙 나는 집에
알금 삼삼 곱운 처자
오미영 조미영
대장부 간장 다 녹인다
낙수대로 낙아 내까
시냇 물레로 잣아 내까.

*₁₎ 한냥=20錢

(1934年 8月 東萊郡 東萊邑 壽安洞 金寅權 口誦)

*경상남도지편찬위원회, 『경상남도지(하)』, 경상남도 공보실, 1963. 12, 209~210쪽.

*김사엽·최상수·방종현, 『조선민요집성』, 정음사, 1948, 257쪽. / 김승찬 외, 『부산민요집성』, 세종출판사, 2002, 333쪽. “도리 도리” 이하 수록. 제목은 <도리도리 샷갓집에>.

[동래구 민요 77]

소 먹이는 아이 노래

죽 녀에 중복성
우지 주지 열렸네.
강 녀에 강대추
가지가 히청 열렸네.
판 장사 판을 지고
판판 절사 넘어 가네.
통 장사 통을 지고
쿵 쿵 절사 넘어 가네.

(1930年 2月 東萊郡 東萊邑 校洞 尹家和 口誦)

*경상남도지편찬위원회, 『경상남도지(하)』, 경상남도 공보실, 1963. 12, 210쪽.

*김사엽·최상수·방종현, 『조선민요집성』, 정음사, 1948, 255쪽. / 김승찬 외, 『부산민요집성』, 세종출판사, 2002, 332쪽.

[동래구 민요 78]

주추 캐는 저 처자야

얼시구나 좋다 저절시구 좋다
아니 놀지는 못하리라.
노자니 어찌나 노루 장화를 꺾어 들고
청풍 명월에 놀아 볼까
얼시구나 좋다 저절시구 좋다
아니 놀지를 못하리라.

황해도 봉산 구월산 밑에
주추 캐는 저 처자야
너거 집은 어디맨데
해 다 저문데 주추 캐노
요내 내집을 찾일려면
삼신산 안개 속에
초가 삼칸 내 집이라
얼시구나 좋다 절시구나 좋다
아니 놀지를 못하리라.

(1935年 7月 東萊郡 東萊邑 壽安洞 金必善 報)

*경상남도지편찬위원회, 『경상남도지(하)』, 경상남도 공보실, 1963. 12, 210쪽.

*김승찬 외, 『부산민요집성』, 세종출판사, 2002, 366~367쪽.

*동래지편찬위원회, 『우리 고장 동래(동래지)』, 부산직할시 동래구, 1982, 17쪽. / 강서향토지발간추진위원회, 『강서향토지』, 동 발간위원회, 1988, 271쪽. / 부산직할시 동래구청 문화공보실, 『동래의 역사』, 부산직할시 동래구청, 1990, 203쪽.

[동래구 민요 79]

밭 매기 노래

반찬 좋고 밥 적은 거
인간 세상 못할세라.
동무 좋고 해 짜른 거
인간 세상 못할세라.
임 좋고 밤 짜른 거
인간 세상 못할세라.
동지 선달 긴긴 밤에
눅었으니 잠이 오나
앉아스이¹⁾ 잠이 오나.
임도 잠도 아이²⁾오고
심애만 점점 나르니.

*¹⁾ 앉아스이=앉았으니

*²⁾ 아이=아니

(1931年 12月 東萊郡 東萊邑 壽安洞 鄭順一氏 口誦)

*경상남도지편찬위원회, 『경상남도지(하)』, 경상남도 공보실, 1963. 12, 210쪽.

*임동권, 『한국민요집 II』, 집문당, 1974, 170쪽(719번). 제목 <발매는 노래>(동래). / 김승찬 외, 『부산민요집성』, 세종출판사, 2002, 364~365쪽.

*동래지편찬위원회, 『우리 고장 동래(동래지)』, 부산직할시 동래구, 1982, 17쪽. / 강서향토지발간추진위원회, 『강서향토지』, 동 발간위원회, 1988, 271쪽. / 부산직할시 동래구청 문화공보실, 『동래의 역사』, 부산직할시 동래구청, 1990, 203쪽.

[동래구 민요 80]

부모 형제

파랑부체 곱은도령 뛰든것도 보기죠톨네
우리생이 살았드면 지신아재 삼을그로
사공아 배띄여라 우리동생 보러갈래
느그동생 무슨죄로 영도섬에 귀양갔노

*부산직할시 동래구청 문화공보실, 『동래의 역사』, 부산직할시 동래구청, 1990, 204쪽.

[동래구 민요 81]

별구경

별도닷네 별도닷네 전에없는 별도닷네
앞집동무 뒷집동무 별구경 하러가면
님이와서 기다릴걸 님이와서 기다리면
그아니나 반가할가
반가하는 그중에야 사랑인들 오직하리

*부산직할시 동래구청 문화공보실, 『동래의 역사』, 부산직할시 동래구청, 1990, 205쪽.

[동래구 민요 82]

오독독이 타령

오독독 옥옥이 춘양추추 월워월이
달도밝고 명랑하라 풍구다 당실 풍구다 당실
달이 밝다니 보름달이던가봐
너-몰아다 월명성희(월명성희)에 보작이 남비(남비)로다
(후렴) 용타 용타 용타 용타 지랄로 혈신
연자바리고
마-아 허허허 허허 혈레로구나

저놈의 양반 거동보소 저놈의 양반 거동보소
갓을 벗어 등집하고 이리로 비털 저리로 비털-비털비털
비털비털이나니 술을 먹었던가봐
너-몰아라 취야와공산 타가 갯문행화촌이다.
(후렴) 용타 용타 용타 용타 지랄로 혈신
연자바리고
마-아 허허허 허허 혈레로구나

수양산 깊은골로 가마니숙숙 내려가서
버더나무 잎사귀를 한옥쿰 주룩룩 흘러다가

깊고깊고 깊은물에 여기도 풍덩 저기도 풍덩
풍덩 풍덩이라니 웅덩이 독홀전지던가봐
너-돌아라 양유청청도수인(양유철허청도수인)이로구나
(후렴) 용타 용타 용타 용타 지랄로 혈신
연자바리고
마-아 허허허 허허 혈레로구나

*부산직할시 동래구청 문화공보실, 『동래의 역사』, 부산직할시 동래구청, 1990, 206쪽.

[동래구 민요 83]

저승길

저승길이 길걸으면 내가가도 천번가리
무상터라 무상터라 저승실은 무상터라
아가야 가지마라 저승길에 가지마라
저승길은 무상터라 한번가면 못오니라

*부산직할시 동래구청 문화공보실, 『동래의 역사』, 부산직할시 동래구청, 1990, 206쪽.

참 고 문 헌

- 『신생』 제11호(제2권 제6호), 1929. 6.
- 『신생』 제14호(제2권 제9호), 1929. 9.
- 강경영(姜慶永), 「창원지방에서 유행하는 동요」, 『동아일보』, 1923. 11. 4.
- 강서향토지발간추진위원회, 『강서향토지』, 동 발간위원회, 1988.
- 경상남도지편찬위원회, 『경상남도지(하)』, 경상남도 공보실, 1963. 12.
- 고정옥, 『조선민요연구』, 수선사, 1948.
- 금정구청, 『금정구지』, 소문출판인쇄사, 1991.
- 김사엽·최상수·방종현, 『조선민요집성』, 정음사, 1948.
- 김소운, 『언문조선구전민요집』, 동경: 제일서방, 1933.
- 김승찬 외, 『부산민요집성』, 세종출판사, 2002.
- 김승찬, 『두구동의 기층문화』, 부산대학교 부설 한국문화연구소, 1993.
- 김승찬, 『부산 산성마을의 기층문화』, 부산대학교 부설 한국문화연구소, 1994.
- 동래지 편찬위원회, 『우리 고장 동래(동래지)』, 부산직할시 동래구, 1982.
- 류종목, 『현장에서 조사한 구비전승민요 -부산편』, 민속원, 2010.
- 박경수·정규식·서정매, 『증편 한국구비문학대계 8-22(부산광역시③ -중부산권)』, 한국학중앙연구원, 역락, 2015.
- 배경숙, 『이재옥과 영남전래민요집 연구』, 국학자료원, 2009.
- 부산직할시 동래구청 문화공보실, 『동래의 역사』, 부산직할시 동래구청, 1990.
- 서복균, 『우리 민요(民謠)』, 대판(大阪): 교문사(僑文社), 1987.
- 엄필진, 『조선동요선』, 창문사, 1924.
- 이인선(李仁善), 「동래지방 유행동요」, 『동아일보』, 1923. 11. 18.
- 이재옥, 『영남전래민요집』(수고본), 1930.
- 임동권, 『한국민요집 I』, 집문당, 1972.
- 임동권, 『한국민요집 II』, 집문당, 1974.
- 임동권, 『한국민요집 III』, 집문당, 1975.
- 임동권, 『한국민요집 IV』, 집문당, 1979.
- 임동권, 『한국민요집 V』, 집문당, 1980, 집문당, 1980.
- 장관진, 「동래지방의 민요」, 『한국문화연구』 4집, 부산대 한국문화연구소, 1991. 12.
- 朝鮮總督府, 『朝鮮の郷土娛樂』, 朝鮮總督府, 1941.

제보자 색인

7

- 강대순 48
강덕희 275, 276, 277, 278
강두이 210, 217, 218, 256
강일필 188
강정필 279, 280
강차희 345, 346, 347, 348, 349
고재분 190
구덕자 119, 120, 121
구말순 121, 122, 123, 124
구분택 117
권분란 21, 22, 23, 24
권숙자 228
권해주 19, 20, 21
김규조 58
김금수 175
김금이 350, 351
김두연 173
김명남 3, 4
김명순 205
김달순 281, 282, 283, 284, 285, 286, 287
김동준 213, 249
김말년 287
김말선 288
김묘도 288, 289, 290, 291
김복련 207, 216, 250
김복선 46
김복순 168, 169
김봉수 263
김상금 129, 130
김상현 145
김선자 55, 56
김성근 214, 233, 234, 235, 236, 237
김소래 292, 293, 294
김소순 56
김숙자 93
김순남 88, 110, 111
김순옥 146, 147
김순자 188
김순조 140, 141, 142
김시윤 57
김옥구 170, 171, 172
김옥분 298
김옥재 97
김영선 83, 84, 85, 86, 87, 294, 295
김영자 66, 67
김영주 296, 297
김요조 351, 352, 353, 354, 355
김원갑 251
김일순 298
김장선 43
김정순(부곡3동) 48
김정순(명장2동) 355
김정자 231
김종술 215
김종철 97, 98, 99, 100
김중순 299
김준호 356
김지택 132

김진호 299, 301
 김필남 176, 177, 178, 179, 180
 김필순(남산동) 44, 45, 46
 김필순(두구동) 212, 229, 238
 김해수 300, 301
 김형숙 189
 김희순 142, 143

L

남봉금 47
 노남기 101

ㅁ

문복남 49
 문소정 174, 175
 문숙자 124, 125, 126, 127, 128, 129
 문의석 302, 303, 304
 문장원 372
 민례임 49
 민색인례 51

ㅂ

박경열 61, 62
 박계옥 196, 197, 198, 199, 200
 박금춘 214, 257, 258, 260
 박길성 304

박무성 219, 223, 224
 박복자 131, 357
 박영순 308
 박옥희 59, 60
 박상숙 53
 박선례 78, 79, 80
 박수식 203, 209
 박수연 157, 158
 박순이 53, 54
 박소남 225, 226, 228
 박소이 93, 94, 95, 96, 305, 306, 307, 308
 박재임 260, 261
 박점명 17, 18, 19
 박정숙 150, 151
 박정순 173, 174
 박종순 181
 박차순 204
 박화순 4, 5
 반득연 151, 152, 153, 154, 155
 방이금 211, 233
 변명임 132, 133, 134, 135, 137
 병태주 373, 374, 375, 376
 배옥식 234

ㅅ

서순남 62, 63
 서인우 268, 269, 270, 271
 설복선 159
 손복순 377, 378, 380, 381, 382
 손순덕 155, 156
 송구자 190, 191

송복년 10
 송순임 212
 송영순 63
 신금휴 159
 신용영 63, 64
 신해근 274
 심복남 97
 심순인 309

○

안광희 113
 안상식 143
 안순재 159, 160
 안용태 264, 265, 266, 267
 안일순 271, 272, 273
 안종내 28, 29, 309, 310, 311, 312, 313, 314
 양만일 34, 35, 36, 37, 38
 양이순 230, 232, 256
 양재활 192
 엄석렬 206, 249
 엄세주 216
 엄소연 29, 30, 31, 32, 33, 314, 315, 316, 317, 318
 오옥분 111, 112
 오절 18
 오상지 114, 115
 우경녀 24, 25, 26
 유말순 132
 윤덕출 130, 319
 윤정순 181
 윤차금 116, 117

윤필순 203, 208, 254
 원종수 72, 73
 이귀옥 74
 이근호 5, 6
 이금순 320, 321, 339
 이남태 75
 이명숙 159, 161, 162, 163
 이명숙(안락2동) 190
 이명순 97
 이봉규 54
 이분남 382, 383, 384
 이수향 192, 193, 194, 195, 196
 이순옥 118
 이순선 89
 이애식 105, 106, 107, 108
 이연춘 54
 이영분 172
 이용악 204, 244
 이원님 74
 이임출 321
 이장년 207, 216, 249, 253
 이점아 322
 이정자 163, 165, 166, 167
 이조원 20, 253, 255
 이찬덕 55
 이춘자 33, 323
 이필년 173
 이해자 69, 70, 71, 72
 임달연 90, 91, 92
 임달련 229, 257
 임영희 60, 61, 65, 66
 임순덕 148
 임정옥 156

스

장귀안 101, 102, 103
 장순분 144, 384
 전남선 38, 40, 41
 전덕순 41
 전을순 211
 정도출 385, 386, 387
 정명순 26, 27, 28
 정무연 279, 326, 327, 238
 정복순 260, 261
 정봉화 100
 정상금 6, 7, 8, 9
 정수남 248
 정영실 113
 정옥임 87
 정윤분 328
 정인열 148, 149, 150
 정정석 104
 정혜연 10, 11, 12, 13, 14, 15, 16
 조갑선 144
 조분갑 182, 183, 184, 185
 조연이 169, 170
 조영선 89
 조종례 52
 주옥생 388, 389, 390, 391
 진두이 206
 진삼순 137, 138, 139

츠

차경순 329, 330, 331, 332, 333,

334, 335, 336, 337, 338

차복연 336, 337, 338, 339
 차삼연 185, 186, 187
 천복자 87, 88
 최미자 9
 최부자 175
 최복례 339, 340
 최수영 57
 최양자 81, 82
 최임출 145, 391
 최정순 75, 76
 최해수 42, 43
 최호진 341, 342, 343, 344

표

표순덕 43

ㅎ

한경조 259, 262
 한정자 392, 393, 394, 395, 396,
 397
 허필순 76, 77, 78
 홍위조 212, 220, 238, 239, 240,
 241, 242, 243, 245, 246,
 247
 홍희정 109, 110
 황순이 137, 139, 140

민요 제목 색인

ㄱ

가자 가자 감나무야 438
 가짜타령 233
 각설이타령 21, 63, 186, 377, 441, 443
 갈가마구요 248
 강강술래 134
 객귀 물리는 소리 142
 거무요 216
 검둥개 노래 297
 게모스놀애 410, 411
 결치(缺齒) 노래 8, 153, 183
 고불고불고개 261
 고아 한탄요 218
 곰보 놀리는 노래 293
 과부 노래 423
 과부 한탄가 419
 구월산요 241
 구멍타령 24, 63, 66, 162
 굼기타령 217
 권주가 10, 13, 23, 31, 49, 62, 76, 96, 103, 127, 142, 166, 172, 174, 195, 196, 230, 231, 249, 290, 294, 307, 317, 335, 348, 376, 391, 397
 그네 노래 6, 21, 32, 55, 57, 62, 68, 76, 102, 116, 139, 152, 167, 177, 184, 196, 303, 321, 331, 336, 348
 길쌈요 236

까치를 보고 421
 꼬꾸랑 노래 129
 꼬꾸랑 할머니 452
 꽃노래 405
 꿩타령 49

ㄴ

나무 노래 312
 나무꾼 아이 노래 448
 나물 캐기요 223
 나부야 422
 나비 노래 81, 93, 184
 낚시 노래 349
 난감 춘이 435
 남녀연정요 160, 331
 남녀 희롱가 284
 너냥 나냥 21, 29, 31, 53, 55, 57, 68, 73, 102, 109, 110, 112, 113, 116, 123, 137, 157, 162, 169, 170, 172, 185, 193, 197, 304, 313, 317, 323, 327, 337, 339, 381, 385, 386
 내 하나는 옥단천이 422
 노들강변 72, 125, 156, 193
 노랫가락 6, 21, 32, 33, 55, 57, 59, 62, 68, 76, 81, 93, 102, 106, 116, 125, 139, 152, 161, 167, 173, 177, 184, 196, 198, 280, 303, 321,

331, 336, 348
 노랫가락 차차차 24, 25, 32, 161,
 173
 노리개요 217
 논매기 노래 341
 놀림 노래 448
 농부가 52

ㄷ

다리세기 노래 6, 13, 33, 36, 46,
 48, 53, 80, 87, 91, 93, 121,
 131, 132, 138, 148, 152,
 156, 157, 162, 171, 181,
 185, 190
 달거리요 224
 달타령 128
 달 노래 330
 담바구 노래 439
 담바구 타령 372
 담바귀타령 416
 담배 노래 120
 댕기요 243, 244
 댕기 노래 338
 도라지타령 340, 354, 386
 도라지 캐는 노래 108
 동독깨미 452
 동래행진곡 274
 동래지신밟기 356
 동요 26, 415
 두꺼비집 짓기 노래 124

ㄹ

만고강산 77
 망개 소리 343
 멍멍개 노래 287
 머누리 410
 명 찾는 노래 382
 모심기요 204, 205, 206, 207, 208,
 210, 211, 212, 213, 214,
 215
 모심기소리 259, 260, 262, 264, 265,
 266, 267, 268, 269, 270,
 271, 272, 273
 모심기 노래 4, 6, 8, 9, 11, 26, 27,
 29, 34, 38, 40, 41, 43, 44,
 45, 46, 47, 61, 68, 75, 77,
 78, 81, 83, 86, 91, 92, 93,
 97, 98, 100, 101, 104, 105,
 109, 114, 117, 119, 122,
 124, 130, 137, 140, 144,
 146, 150, 151, 159, 163,
 164, 166, 170, 174, 175,
 176, 188, 192, 275, 276,
 280, 288, 292, 294, 296,
 300, 302, 304, 305, 308,
 310, 314, 319, 323, 326,
 329, 336, 344, 372, 377,
 392, 395, 423, 430
 모심을 때 408
 모찌기소리 263
 모찌기요 203, 204
 모찌기 노래 4, 40, 78, 98, 121,
 140, 147, 175, 182, 287,

296, 351, 388, 394
 목동 노래 64
 못갈 장가 노래 277
 무정한 님 노래 293
 미녀(美女)요 243
 밀양아리랑 5, 25, 103, 199, 350,
 384

ㅂ

바느질요 255
 바늘 노래 385
 바람아 바람아 455
 방구 456
 방귀 타령 275, 344
 방아타령 235
 밭 매기 노래 403
 백구(白鷗)타령 233
 백발가 23, 69, 106, 168, 237
 뱃노래 347
 뱃놀이 노래 238
 베틀가 219, 220
 베틀 노래 352, 388
 별구경 465
 보리타작 노래 33, 313, 322, 334,
 342, 347, 380, 384, 389,
 395
 보리타작 소리 28
 복남아 울지마라 327
 부모살이 노래 286
 부모 기리는 노래 253
 부모 그리는 노래 12
 부모 보고 양산 보고 286

부모 불공 노래 254
 부모 형제 464
 부처에 비는 노래 10
 분통 같은 저 젖을 뱉라 461
 분홍 같은 젖 401
 불매요 258
 불매소리 14, 18, 54, 56, 88, 148,
 297, 311, 322, 334, 338,
 395
 불상해라 410
 비야 비야 오지 마라 7, 18, 456
 비 노래 7, 18, 41, 80, 85, 87, 89,
 99, 118, 127, 138, 144, 147,
 152, 175
 빗님이 오실능가 417
 뽕꿈새 노래 86

ㅅ

사랑가 231, 248
 사랑놀애 408
 사랑타령 51
 사발가 23, 51, 69, 79, 96, 103,
 105, 110, 111, 115, 140,
 159, 167, 172, 177, 194,
 285, 291, 308, 316, 333,
 355, 386, 390
 사위 노래 387
 사친가 72, 191
 산비둘기 소리 흥내 노래 3, 9, 14,
 42, 82, 86, 88, 97, 100,
 129, 141, 145, 150, 153,
 181, 186

- 살이 458
 삼 삼기 노래 390
 상사병에 죽었더라 460
 상사요 248
 상여소리 341, 239
 새는 새는 낭게 자고 437
 새매 처자 459
 새야 새야 457
 새타령 66, 200
 샛별 액씨 461
 성주풀이 168, 195, 299, 301
 소 먹이는 아이 노래 462
 솔 때우기요 247
 시집살이 414
 시집살이 노래 35, 70, 71, 104, 135, 165
 신작로(新作路) 노래 235
 신세한탄 노래 173
 심청이 노래 70
 쌍가락지요 228, 229
 쌍가락지 노래 7, 28, 45, 84, 90, 95, 115, 145, 147, 158, 166, 190, 282, 295, 324, 330, 351, 391, 431
 쌍까락지(雙脂環) 413
-
- 아랫 눈에 새야 418
 아리랑 58, 74, 107, 113, 123, 199
 아기 어르는 노래 5, 14, 15, 16, 18, 42, 56, 88, 94, 141, 148, 149, 256, 257, 289, 297, 305, 311, 322, 325, 334, 348, 374, 388, 395
 아기 재우는 노래 3, 15, 17, 19, 20, 28, 43, 52, 80, 85, 89, 108, 111, 113, 141, 149, 312
 알강달강요 16, 18, 94, 107, 149, 305, 311
 알강달강 서울 가서 454
 알강달강요 325
 애원애기 노래 251, 253
 어데꺼정 왔노 451
 연정 노래 170
 염불선(念佛禪)[동래] 404
 양산도 24, 102, 110, 116, 133, 163, 179, 234, 291, 321, 335, 350
 요로지기 타령 282
 오독독이 타령 465
 우미인가(虞美人歌) 240
 유산가 237
 은자동아 금자동아 141, 289
 이같이 노래 53, 118, 131, 139, 144, 183, 186, 278
 이거리 저거리 각거리 453
 이거리 저거리 갓거리 6, 33, 36, 46, 156, 157, 162, 171
 이바구 태바구 453
 이별가 238
 이별 한탄가 232
 이(風) 노래 91
 이 빠진 아이 놀리는 노래 8, 14, 153, 183
 이산 저산 457
 인생허무가 280, 299

인절미와 총각김치 26
 임 그리는 노래 89, 373
 임타령 241

ㄸ

자장가 3, 15, 19, 20, 28, 52, 80,
 85, 89, 108, 111, 113, 141,
 149, 257, 312
 잠자리 잡는 노래 99, 121, 131, 153
 장가 노래 387
 장구 장구 보장구야 436
 장끼타령 246
 장모타령 225
 장미요 242
 장사요 249
 장타령 228, 392, 411
 저구리 408
 저승길 466
 접방살이 말도 많다 419
 주머니 438
 주추 캐는 저 처자야 463
 주추 캐는 처녀 노래 278
 죽은 사람 뒤에 420
 지신밟기 245
 지신밟기 노래 444
 지신풀이 226
 진도아리랑 65, 134
 진주난봉가 12, 35, 158, 182, 188,
 230, 338, 374
 질로 질로 가다가 450
 짧은 등지 394
 짙레꽃 440

ㄹ

창부타령 17, 34, 48, 51, 67, 96,
 117, 120, 125, 126, 130,
 132, 133, 143, 154, 176,
 179, 180, 184, 185, 233,
 286, 298, 302, 306, 307,
 315, 316, 317, 336, 342,
 349, 352, 355, 375, 376,
 381, 382, 394, 396
 처남노래 59
 처녀·총각 화답가 250
 처녀요(處女謠) 406
 처자 희롱가 283
 첩년 부고 459
 첩의 노래 402, 433
 청춘가 63, 82, 112, 130, 151, 154,
 159, 178, 192, 197, 279
 초록제비 432, 436
 춘향 노래 34, 96, 122, 132, 143,
 176, 185
 치부라 칩도당 453
 치지나 칭칭 나네 445

ㅋ

큰 애기 401

ㅌ

타작 노래 447, 448
 태평가 60, 74, 126, 177
 토끼화상 노래 353

표

파랑새요 32, 74, 88, 122, 155, 174,
 190, 313, 319
 판 장사 판을 지고 435

ㅎ

하늘천 따지 455
 하룻밤 402
 학동요(學童謠) 407
 향애장사요 250
 호미 소리 446
 혼인노래 409
 혼인놀애 409
 화투뒤풀이 19, 22, 30, 37, 40, 54,
 56, 58, 60, 61, 65, 71, 75,
 101, 107, 156, 198
 화투타령 19, 22, 30, 40, 54, 56,
 58, 60, 61, 65, 71, 75, 101,
 107, 119, 143, 155, 156,
 169, 180, 187, 188, 194,
 198, 276, 318, 320
 회심곡 38

■ 편저자(현장조사 책임 · 교열 · 주석) 소개

- **박경수** 부산대학교 국어교육과,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문학석사), 부산대학교 대학원(문학박사) 졸업. 현 부산외국어대학교 한국어문화학부 교수, 한국문화회, 한국민요학회 회장 역임. 부산시문화상(2017) 수상. 부산광역시 시사편찬위원. 주요 저서로 『한국 근대문학의 정신사론』(1993), 『한국 근대 민요시 연구』(1998), 『한국 민요의 유형과 성격』(1998), 『한국 현대시의 정체성 탐구』(2000), 『아동문학의 도전과 지역 맥락』(2010), 『현대시의 고전텍스트 수용과 변용』(2011), 『현대시의 문화 읽기』(2020), 『아리랑의 문학 수용과 문화 창출』(2021) 외 여럿, 편저로 『부산민요집성』(2002), 『증편 한국구비문학대계 8-16~18 -경상남도 함양군 편』, 『증편 한국구비문학대계 8-20~22 -부산광역시 편』, 『증편 한국구비문학대계 8-24~26 -경상남도 남해군 편』, 『증편 한국구비문학대계 8-27~28 -경상남도 산청군 편』(2014~19) 외 여럿.
- **황경숙** 서울여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부산대학교 대학원(문학석사, 문학박사) 졸업. 현 문화재청 무형문화재위원. 부산광역시 문화재위원, 시사편찬위원. 플랜비 문화예술 협동조합 이사. 주요 저서로 『한국의 벽사의례와 연희문화』(2000), 『부산의 민속문화』(2003), 『낙동강 하구 재첩마을과 재첩잡이』(2020) 등 여럿. 편저로 『부산민요집성』(2002), 『오래된 마을 미래공동체 -산성마을 사람들』(2014), 『6·25 피란민의 자전기록 -부산의 기억과 삶』(2016), 『증편 한국구비문학대계 8-16~18 -경상남도 함양군 편』(2014) 외 여럿.

■ 조사보조원(현장조사 보조 · 채록, 자료 타이핑 등, 2017~2018년)

- 2017년 : 김예원, 이다연(이상 부산외국어대학교 한국어문화학부 재학), 고민지, 박소영, 신혜림, 표민경(이상 부산외국어대학교 대학원 한국어교육학과 재학)
- 2018년 : 김다련, 김대희, 김서연, 김은진, 박수민(이상 부산외국어대학교 한국어문화학부 재학), 김남희(부산외국어대학교 강사)

■ 조사팀 별 조사지역

- 조사1팀(박경수 팀)
 - 금정구(2017년 조사) : 구서1-2동, 금성동, 남산동, 부곡1-4동, 선두구동, 청룡노포동(10개 동)
 - 동래구(2018년 조사) : 명장1-2동, 복산동, 안락1-2동(5개 동)
- 조사2팀(황경숙 팀)
 - 금정구(2017년 조사) : 금사회동동, 서1-3동, 장전1-3동(7개 동)
 - 동래구(2018년 조사) : 명륜동, 사직1-3동, 수민동, 온천1-3동(8개 동)

■ 시사편찬위원회(2021. 4. 3. ~ 2024. 4. 2.)

위 원 장 : 김동철(부산대)

부위원장 : 김강식(한국해양대)

위원(가나다순)

강정원(부산대)	권영오(대저중)	김대래(신라대)	김정선(동아대)
박경수(부산외대)	박창희(스토리랩 수작)	박화진(부경대)	백승충(부산대)
손숙경(부산가톨릭대)	신지은(부산대)	양은경(부산대)	오인택(부산교대)
우양호(한국해양대)	유영옥(동아대)	이종봉(부산대)	전성현(동아대)
최이숙(동아대)	황경숙(부경대)		

부산구술문화총서¹²

중부산 문화권 민요(I) 금정구·동래구 편

발 행 처	부산광역시
발 행 처	부산광역시 문화유산과(시사편찬실)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051-888-5056~8
기획·편집	부산광역시 문화유산과(시사편찬실)
발 행 일	2021년 5월 31일
인 쇄	산지니
발간등록번호	52-6260000-000301-10
ISBN	979-11-85308-34-0
	978-89-964675-9-5(세트)

(비매품)

자료검색

부산시 (www.busan.go.kr) 부산소개 > 부산의 역사 > 향토사도서관
 부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 (www.bssisa.com)

※ 이 책의 저작권과 판권은 부산광역시 문화유산과(시사편찬실)에 있습니다.